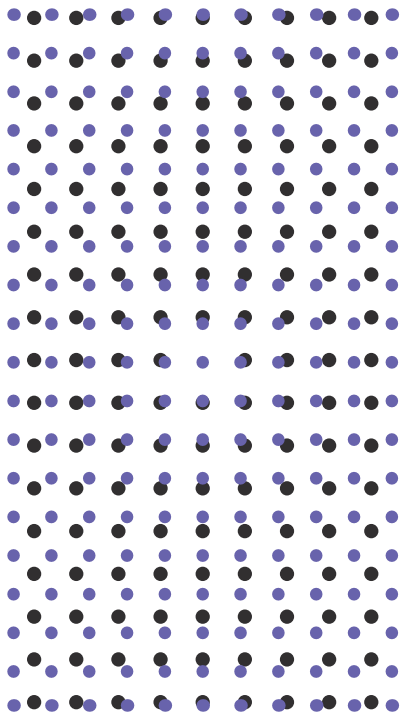


고구려통사 4

고구려 중기
대외관계와 문물교류

고구려 중기 대외관계와 문물교류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고구려통사』의 편찬 목적과 주안점

고구려사는 한국고대사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상을 보였던 분야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의 초기 기사를 적극 활용하여 고구려사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이 새롭게 모색되었으며, 정치사와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연구주제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고고학에서는 북한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개설적인 정리를 시도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중국에 남아 있는 고구려 고고자료가 소개되고 임진강 이남의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가 늘어나면서 고분벽화·고분·토기 등 여러 분야에서 독자적인 연구성과물이 나오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현시점에서 그간의 연구성과를 정리·집약하여 고구려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하고, 남은 과제는 무엇이며, 새로운 연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편찬하였다.

첫째, 축적된 연구성과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다. 현재 학계가 이용하고 있는 고구려사 개설서나 개인 연구자의 연구서들은 발간 당시의 성과를 반영한 결과물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거나 과거

의 이해에 머물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연구범위가 넓어지고 새로운 이해가 더해졌지만, 학문적 성과를 잘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연구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정리가 절실하다.

둘째, 역사상에 부합하는 이해를 제시할 필요성이다. 그동안 고구려사 연구가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재검토가 요청되는 선부른 결론도 보인다. 이 경우 역사상에 부합하는 이해를 제시하여 이제 막 연구자의 길에 들어선 이나 역사에 관심 있는 이들이 학술적으로 타당한 이해를 토대로 고구려사를 고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고구려통사』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획위원회가 가장 고민한 지점은 어떻게 하면 역사상에 충실하며 특정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집필이 가능할 것인가였다. 기획위원으로는 임기환(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기섭(경기도 박물관 관장), 정호섭(고려대학교 교수), 양시은(충북대학교 교수),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원),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원)가 참여하였다. 『고구려통사』 총서는 시대별 특징과 고고자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초기사(전 2권), 중기사(전 2권), 후기사(전 3권), 고고자료(전 2권), 그리고 총론(1권)으로 구성하였다.

각 권은 주제와 시기를 달리하지만, 체계와 내용의 주안점에서 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일관된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관련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가 책임지고 해당 장절을 집필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원회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편목별 내용구성안과 집필기준에 따라 원고를 작성토록 하였다.

한편, 고구려사 연구가 짧은 시간 내에 이토록 발전하게 된 데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식 연구가 추동한 위기의식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는 고구려사를 핵심과제로 다루었고, 자연스럽게 고구려사를 구성한 제 분야를 섭렵하는 연구가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최근에는 유민 묘지(遺民墓誌)나 『한원(翰苑)』 등 1차사료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고고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논리 개발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점에서 『고구려통사』는 세 번째 주안점을 새로운 문헌자료와 고고자료의 충실한 소개와 중국 측 논거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종합적 이해의 제시에 두었다.

『고구려통사』 발간은 이러한 고구려사의 연구성과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학계와 일반에게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에 막 입문한 이들에게는 고구려사의 주요 맥락과 과제에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라며, 역사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는 그간 알지 못했던 고구려의 새로운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기획위원회를 대신하여

김현숙

1

4세기~5세기 전반기의 대외관계

1장 4세기 대외관계의 흐름과 의미 / 김락기

1. 미천왕대 대외관계의 동향 / 15
2. 고국원왕대 전연과의 상쟁 / 20
3. 소수림왕과 고국양왕의 대내 정비와 백제·후연 관계 / 28
4. 4세기 대외관계의 특징과 의미 / 34

2장 광개토왕대의 대외관계 / 공석구

1. 후연과의 갈등과 요서 지방 진출 / 45
2. 북연 및 남연과의 우호관계 추진 / 59
3. 백제와의 갈등 / 63
4. 신라에 대한 종속적 외교관계 수립 / 75
5. 한반도에 출몰한 왜 격퇴 / 80
6. 거란·숙신·동부여에 대한 지배권 확립 / 92

3장 장수왕 전반기의 대외관계 / 장창은

1. 북조와의 관계 / 105
2. 남조와의 관계 / 123
3. 백제 및 신라와의 관계 / 138

2

5세기 중반~6세기 전반기의 대외관계

4장 북위와의 교섭 재개와 5세기 후반의 대외관계 / 이성제

1. 5세기 후반의 국제정세와 남조와의 관계 / 162
2. 대북위 외교의 재개와 북위의 간섭전략 / 175
3. 고구려 세력권의 동요와 전제해외 / 187

5장 6세기 전반의 대외관계 / 김진한

1. 안장왕대 고구려 정계와 대남북조 관계 / 203
2. 백제의 대양 관계와 고구려의 대남방 관계 / 210
3. 안원왕대 대남북조 관계와 대백제 관계 / 226

6장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의 천하관 / 이정빈

1. 4~6세기 고구려와 동아시아 국제질서 / 244
2. 왕실의 천손의식과 태왕 중심의 천하관 / 251
3. 천하관의 이상과 국제관계의 현실 / 261

3

고구려와 주변국과의 문물교류

7장 중국 및 북방과의 문물교류 / 박아림

1. 중국 위진십육국 왕조와의 문물교류 / 280
2. 중국 남북조와의 문물교류 / 297
3. 북방유목민족 및 서역과의 문물교류 / 328

8장 백제·신라·가야 및 왜와의 문물교류 / 정호섭

1. 백제와의 문물교류 / 346
2. 신라와의 문물교류 / 364
3. 가야와의 문물교류 / 377
4. 왜와의 문물교류 / 388

찾아보기 / 413

4세기 ~ 5세기 전반기의 대외관계

1장 4세기 대외관계의 흐름과 의미

2장 광개토왕대의 대외관계

3장 장수왕 전반기의 대외관계

1장

4세기 대외관계의 흐름과 의미

김락기 | 인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

4세기 고구려는 ‘좌충우돌’의 과정을 통해 내부질서를 재편하고 영역을 확장했으며, 그에 걸맞는 지배체제를 모색해 나갔다. 그 결과 5세기 들어 광개토왕과 장수왕 재위 시에 동북아시아 최강 국가로서의 면모를 대내외에 과시하며 국제질서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려 움직였다. 4세기 고구려의 대외관계는 크게 두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북중국에서 5호16국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연(前燕), 전진(前秦), 후조(後趙), 후연(後燕) 등과 상쟁과 우호 관계를 다층적으로 맺은 서북 방면이며, 다른 하나는 한(漢)군현 중 한반도 서부와 중부에 설치된 낙랑군(樂浪郡)과 대방군(帶方郡)을 넘어 백제와 대립하게 된 남부 방면이다.

대외관계는 국가 간의 대립과 우호라는 표면적인 측면 외에 관계 속

에서 이루어진 사람의 유입과 유출에 따른 제도와 문물의 교류를 수반하게 되는데, 고구려에서는 불교 수용, 율령 반포, 종묘제도 정비, 태학 설치 등 국가 경영의 요소와 내용을 파악하고 갖추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천왕(재위 300~331년), 고국원왕(재위 331~371년), 소수림왕(재위 371~384년), 고국양왕(재위 384~391년) 등 네 명의 국왕이 재위한 이 시기는 공교롭게 각 국왕별 활동과 특징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4세기 전반 미천왕대에는 서북 방면에서 현도군(玄菟郡)을 축출하고 주변 세력의 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남부 방면에서 낙랑군과 대방군을 영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실상 이후 고구려의 대외관계와 세력 확장의 토대를 닦았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4세기 중반 고국원왕대에는 앞선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공세를 취했으나, 서북 방면의 전연, 남부 방면의 백제로부터 강력한 역공을 받아 국도(國都)가 함락되고 국왕이 서거하는 국가적 비극을 겪었다.

4세기 후반 소수림왕대와 고국양왕대에는 대외관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며 양대 세력과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한편, 대내적인 체제 정비에 나서서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완비를 꾀했다(이정빈, 2020).

요컨대 4세기는 고구려가 멸망기까지 유지한 대외관계의 기본 틀을 형성했으며, 전연 등 상대 세력과의 역관계 속에서 성과와 한계를 겪은 시기였다. 다시 말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기간 동안 주변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내적인 정비를 통해 최전성기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미천왕대 대외관계의 동향

3세기 중반 동천왕대에 위(魏) 관구검(卞丘儉)의 침략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고구려는 전쟁 없이 수십 년을 거치며 점차 강성해졌다. 4세기 전반 미천왕대에 들어와서는 중원 왕조가 사분오열하여 동쪽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상황을 활용해 요동에서 대규모 군사활동을 전개하여 영역을 확보해 갔다(秦升陽, 2003).

302년 9월, 재위 3년째에 이른 미천왕은 3만 병력을 거느리고 현도군을 쳤다. 8,000명을 포로로 잡아 평양으로 옮기는 전과를 올리며 고구려의 서북 방면 진출을 공식화했으며, 311년에는 장수를 보내 요동 서안평(西安平)을, 315년에는 현도성을 함락시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로잡았다고 한다. 서안평을 공략한 뒤인 313년에는 낙랑군을 쳐서 남녀 2,000여 명을 포로로 잡았고, 이듬해 9월에는 대방군을 치는 등 남부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의 패전 기록이 없어 미천왕의 시도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인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공략은 순간순간의 대처라기보다는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서안평을 제압하여 낙랑군, 대방군과 요동의 교통로를 단절시킴으로써 양 지역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차단하고(공석구, 1998), 이어 고구려와 갈등관계에 있던 낙랑군과 대방군을 확보해 나가는 치밀한 계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고구려가 낙랑군과 대방군을 공격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요동 출신의 장통(張統)이 낙랑군과 대방군을 근거로 고구려 을불리(乙弗利)와 대결하였는데, 낙랑 출신인 왕

준(王遵)의 설득으로 백성 천여 가와 함께 모용외(慕容廆)에게 귀속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두 사서의 기록을 종합하면 미천왕 재위 시에 낙랑군과 대방군은 요동 등 중원 세력을 등에 업고 남쪽에서 고구려를 위협하던 세력이었으며, 미천왕이 현도군 공격 이전에 먼저 낙랑군과 대방군을 공략한 것은 서북쪽의 현도군 공략을 계획한 입장에서 배후의 화근을 제거하기 위한 전형적인 전략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313~314년 고구려의 낙랑군·대방군 점령도 전연의 모용외가 장통과 연계하여 한반도 서부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공격적 성격을 지녔다고 생각된다. 이는 고구려의 최종 목표가 낙랑군·대방군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고구려가 낙랑군·대방군을 점령한 직후 현도군을 공략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 고구려는 현도군·요동군 등 요동 진출을 최종 목표로 삼아 대외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여호규, 2009).

낙랑 출신의 왕준이 장통을 설득하여 모용외에게 귀속한 것으로 사실상 한반도 내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낙랑군은 소멸되었으며, 그 여파는 낙랑군보다 남쪽인 현재의 황해도 지역에 있던 대방군에게 미치게 되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따르면 책계왕(責稽王) 원년이자 고구려 서천왕 17년인 286년에 고구려가 대방을 공격했고, 대방은 백제에 구원을 요청하였으며, 책계왕이 대방의 왕녀(王女)를 부인으로 삼고 대방군을 구원하기 위한 군사를 보내서 고구려가 원망하였다고 한다. 또 같은 책 신라본기에는 기림이사금(基臨尼師今) 3년인 300년에 낙랑과 대방이 신라에 귀부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3세기 말에 고구려와 낙랑, 대방의 충돌이 상당히 빈번했고, 고구려의 압박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두 군은 때로는 백제에, 때로는 신라에 기대며 세력을 유지하려 했

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서(史書)인 『속일본기(續日本紀)』에는 ‘옛날 응신천황(應神天皇) 때 백제 아지왕(阿智王)이, 대방 사람들이 재예(才藝)가 있는데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서 거취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신을 보내 그들을 불러달라고 청했다’고 했다. 기록의 신뢰 문제가 있어 내용과 연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놓여 있으며 두 나라의 성장 속에서 압박을 받은 대방군의 처지가 이와 같은 전설로 남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낙랑 출신 왕준이 장통을 설득해 요동으로 옮겨간 것도 단순히 313년 미천왕의 공략을 막기 어려워서라기 보다는 이처럼 30여 년 이상 계속된 고구려의 공세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315년 현도군 공략은 『자치통감』에 나오는 313년 진(晉)나라 현도태수 배무(裴武)의 사망과 그 동생 및 아들이 모용외에게 귀부한 일과 연결해 볼 수 있다(공석구, 1998). 즉 현도군의 불안정한 내부 상황을 파악한 고구려가 본격적인 공략에 앞서 낙랑군과 대방군을 제압하고 현도군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고구려는 요동 진출에서 분기를 이루는 이 사건 이후에 요서와 요동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선비족 모용부(慕容部)와 충돌하게 된다. 319년에는 진의 평주(平州)자사 최비(崔萇)가 고구려, 단부(段部), 우문부(宇文部)와 연계하여 모용부를 치자고 제안했는데, 고구려는 여기에 호응해 모용부의 수도인 극성(棘城)을 공격했다. 모용외는 성문을 닫고 지키면서 우문부에게만 소고기와 술을 보내 대접했다고 하는데, 고구려와 단부는 우문부와 모용부의 모의를 의심해 철수하게 된다. 모용외의 기만책이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고구려의 철수에 이어 모용외

가 아들 모용인(慕容仁)을 보내 요동을 지키게 하자 예전과 같이 평온해졌다고 하면서도, 고구려 장수 여노(如拏)가 하성(河城)에 웅거하고 있었는데 모용외가 장통을 보내 습격해 여노를 사로잡고 1,000여 가를 포로로 잡아 극성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뒤이어 미천왕이 자주 병력을 보내 요동을 침략했고, 전연에서 맞받아 싸우다 화해했다는 기록을 덧붙이고 있다. 극성 공략에서 고구려가 물러선 이후에도 극성과 그리 멀지 않은 하성에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하성의 고구려군이 장통에게 패해 극성으로 끌려간 이후에도 계속 요동을 침략했다는 점에서 요동 진출을 위한 고구려의 시도는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양서』 고구려전에 서진(西晉) 영가(永嘉)의 난 때 창려(昌黎)의 대극성(大棘城)을 근거로 삼고 있던 모용외가 고구려왕 을불리의 침범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한 점에서도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요동을 꾸준히 공략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낙랑군과 대방군의 제압 목적이 사실상 현도군 공략과 요동 점유에 있었다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모용인의 항전에 막혀 비록 패배했지만 320년에도 병력을 요동으로 보내 모용부를 공략한 점도 고구려가 줄기차게 요동을 차지하여 전연에 대항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도전에 대해 전연은 319년 모용인을 요동에 파견하여 원활한 지방 지배를 도모하고, 321년에는 모용한(慕容翰)과 모용인을 요동과 평곽(平郭)에 주둔시켜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같은 해 모용외가 동진으로부터 ‘사지절 도독유평이주동이제군사 거기장군 평주목 요동군공(師持節都督幽平二州東夷諸軍事車騎將軍平州牧遼東郡公)’이라는 봉작을 제수받아 요동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공인받았는데(여호규, 2000), 고구려의 요동 진출 기세가 꺾이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공교롭게 『삼국사기』에는 320년 요동 공략 패배 기사 이후 10년간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 이유는 모용씨의 성장이라는 대외적 요소 외에도 대내적으로 고구려가 313, 314년에 직접 지배하에 둔 낙랑, 대방 경영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력을 한곳으로 집중하지 못한 결과라는 견해도 있다(박세이, 2014).

10년의 공백을 지나 330년이 되자 중원지방에서 세력을 확대하던 후조의 석륵(石勒)에게 사신을 보내 호시(楛矢)를 바쳤다는 기록이 나온다. 호시는 중국에 ‘성천자(聖天子)’가 나타나면 동북방 이종족의 대표인 숙신(肅愼)이 조공하며 바친다는 상징성이 아주 큰 물품이다. 고구려로서는 전연의 요동 지배가 공고화되는 상황과 이를 타개할 방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와중에 전연의 배후라 할 수 있는 중원지방에서 석륵이 세력을 확대하며 패권을 차지해 가자 석륵과 연계하여 전연을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세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호시라는 물품을 통해 동북방 이종족을 관할하는 세력으로서 고구려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후조와 우호관계를 맺어 전연 세력을 묶어 두고자 한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다. 또 332년 고구려 사신이 우문부의 사신과 함께 석륵의 환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전연과 대립하던 우문부와도 연결을 꾀하였다고 추정된다. 반면 전연은 331년 9월 동진에 사신을 파견하여 북벌을 청하는 등 후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여호규, 2000).

고구려의 움직임은 전연, 후조, 동진, 우문부 등 당시 요동과 요서를 둘러싼 각 세력의 역관계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며 대처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 후조와 전연의 갈등이 주목된다. 후조는 320년을 전후하여 화북 일대를 대부분 장악하고 323년 모용외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을 제안하지만, 모용외는 이를 거절하고 후조 사신을 동진으로 보냈으며, 325년에 후조가 전연과 대립하던 우문부에게 관작을 주고 전연을 공격하게 했으나 오히려 역공을 받아 왕성까지 함락당하였다(여호규, 2000).

후조와 전연이 확실히 적대적이라는 점을 확인한 고구려가 후조 석릭이 330년 9월 황제로 즉위하던 해에 후조에 사신을 보내 호시를 바친 것이다. ‘합종연횡’이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고구려의 움직임은 미천왕을 이은 고국원왕대에도 계속되어 336년과 342년에 동진에 사신을 보내 우호관계를 타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고국원왕대 전연과의 상쟁

미천왕을 이은 고국원왕은 40년에 이르는 긴 재위 기간 동안 어느 고구려왕보다도 대외관계에서 큰 압박을 받았고, 백제와의 전투 과정에서 서거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재위 초기 고국원왕은 부왕 미천왕이 확장한 세력권의 안정화를 위해 남쪽으로는 334년에 평양성(平壤城) 증축, 서북쪽으로는 335년에 신성(新城) 신축 등의 조치를 취했고, 342년에는 환도성(丸都城)을 고쳐 쌓고 국내성(國內城)을 쌓는 등 국가 경영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관계에서도 충돌 대신 우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336년에는 동진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고, 339년에 신성까지 쳐들어온 전연 모용황(慕容皝)에게는 화해를 요청해 돌려보냈으며, 이듬해 340년에는 세자를 모용황에게 보내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전연의 서남쪽에 자리잡은 후조와 연계하여 전연의 압박을 극복하려고도 하였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후조의 석호(石虎)는 338년에 전연을 공략할 목적으로 조복(趙伏)에게 청주(靑州) 군사로海道(海島)를 지키게 하고 배 300척으로 곡식 30만 곡을 고구려로 운송하도록 한 일이 있다. 이 무렵 고구려와 후조는 전연 공략에 공동의 목표를 두었던 것이다(이정빈, 2016).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연이 중원 공략의 선결 과제로 배후의 고구려를 제압하기로 결정하고 시작한 342년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해 모후(母后)가 포로가 되고, 부왕의 시신을 빼앗겼으며, 자신은 홀로 피신하는 치욕을 겪었다. 북쪽 방향에서 고구려 수도 집안으로 들어오는 ‘북도’를 방어하던 고구려군이 전연군을 물리쳐 전쟁의 확대를 막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자치통감』 진기(晉紀)에는 모용한이 고구려를 먼저 치고 우문부를 멸망시킨 뒤에 중원을 도모하는 게 마땅하며, 평평하고 넓은 북도(北道)는 고구려에서 대군을 동원해 방어할 테니 험하고 좁은 남도(南道)로 정예병을 보내 공략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 모용황의 허락을 받았다. 『삼국사기』에도 같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결국 전연은 중원 정복을 위해 배후의 고구려를 먼저 제압하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고구려가 방어에 치중할 것이 자명한 넓고 평평한 ‘북도’로는 소규모 병력만 보내고, 험하고 좁아 방심하고 있을 ‘남도’로 정예병을 보내 곧바로 국도로 육박하려는 것이었다.

남도와 북도가 어느 길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여호규, 1995), 최근에 각각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동에서 집안에 이르는 지역의 성곽 분포 등을 고려해 혼하(渾河) - 소자하

(蘇子河) - 부이강(富爾江) - 신개하(新開河) - 집안(集安) 노선을 북도로, 요동성에서 태자하(太子河)를 따라 환인(桓仁)에 이르고, 여기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노선을 남도로 본 견해가 있다(정원철, 2017).

계획에 따라 모용황은 직접 정예병력 4만 명을 거느리고 남도로 나왔고, 장사(長史) 왕우(王寓) 등에게 병력 1만 5,000명을 주어 북도로 보냈다. 모용환의 언급처럼 고구려는 정예병력 5만을 보내 북도를 방어하게 하고, 고국원왕은 약한 병력으로 남도를 방어하였다. 남도에서는 고구려가 연달아 패했고, 전연의 좌장사(左長史) 한수(韓壽)가 고구려 장수 아불화도가(阿佛和度加)의 목을 베며 기세를 올려 고구려의 국도인 환도성에 입성했다. 고국원왕은 혼자 단웅곡(斷熊谷)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북도에서는 고구려의 정예병력이 왕우가 이끄는 전연군을 격파하고 왕우도 전사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결국 모용황은 고국원왕을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고 군사를 돌렸다. 『자치통감』에는 전연의 장사 한수가 “고구려땅은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왕은 도망하고 백성은 흩어져 산골짜기에 들어가 숨어 었드려 있습니다. 대군이 돌아가면 반드시 다시 모여들어 남은 불씨를 거둘 것이니 오히려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시신을 신고, 그의 친어머니를 인질로 잡아 돌아가서 스스로 몸을 묶고 항복해 오기를 기다린 후에 돌려주기를 청하옵시다. 은덕과 신뢰로 무마하는 것이 상책입니다”라고 한 것을 모용황이 받아들여 고구려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미천왕의 시신과 모후를 사로잡아 돌아갔다고 전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고구려는 수도인 환도성이 함락당해 남녀 5만여 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궁실이 불타고 환도성이 허물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한수의 노림수대로 고국원왕은 전연에 대해 부왕의 시신과 모후의 송환을 위한 유화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으며, 343년에 왕의 동생을 보내 신하라 칭하며 진기한 물건 천여 점을 바쳐 부왕의 시신을 돌려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345년 10월에 전연에서 모용각(慕容恪)을 보내 남소성(南蘇城)을 치고 수비병을 둔 데 대해서도 별다른 대응이 없어 갈등을 최소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모후가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349년에는 338년에 전연 내부의 반란 과정에서 후조와 내응했다가 고구려로 망명해 온 송황(宋晃)을 전연으로 보냈으며, 355년에는 다시 사신을 보내 인질과 조공을 바쳐 모후의 송환을 이끌어냈다. 전연은 고국원왕을 ‘정동대장군 영주자사 낙랑공 고구려왕(征東大將軍營州刺史樂浪公高句麗王)’으로 책봉해 전연이 구축한 질서 속에 고구려가 편입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342년부터 책봉이 있는 355년까지 10여 년간 고구려는 전연에 철저히 복속하고 있었으며 미천왕대부터 계속되어 온 요동 진출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구려가 단순히 전연과의 관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위서』 고구려전에는 “그 후로 쇠(釧)가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으나, 원수들에게 길이 막혀 혼자 힘으로는 도착하지 못하였다”라는 짧은 기록이 있는데, 환도성이 함락된 이후 고국원왕은 전연의 서북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던 선비 탁발부의 대국(代國)과 연계를 꾀하는 조치에 나섰다.

지리적 위치상 전연을 거쳐야 대국에 이를 수 있는데 전연에 가로막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전연의 배후에 우호 세력을 만들

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 고구려의 의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미천왕이 후조에 호시를 바친 일과 고국원왕이 동진에 사신을 보낸 일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어느 국가나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는 외교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연의 배후 세력과 연계하고자 한 의도나 전연에 대한 고구려의 태도는 370년에 전진(前秦)의 왕맹(王猛)이 전연을 정벌하고, 전연의 태부(太傅) 모용평(慕容評)이 고구려로 도망쳐오자 사로잡아 전진으로 보낸 조치에서도 알 수 있다.

전연에 패하고 요동 진출의 뜻을 실현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삼국사기』에는 355년 이후 아무런 기록이 없다가 14년 뒤인 369년에 병력 2만을 동원해 백제를 공략했다가 치양(雉壤)에서 패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2년 뒤인 371년에 평양성을 공격해 온 백제군과 싸우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서거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369년의 백제 공략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기록이 없어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342년 국도 함락 이후 부왕의 시신과 모후의 송환이 끝나는 355년까지 10년 넘는 시간 동안 고구려는 전연에 복속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고구려의 위축된 상황을 주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4세기 초반 고구려에 편입되었으나 문화적 독자성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던 낙랑군과 대방군 지역민과 그 남쪽에서 세력을 키우던 백제였을 것이라는 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369년 치양 공격을 “백제를 정벌하여 치양에서 싸웠다”, 375년 수곡성(水谷城) 공격을 “백제 수곡성을 공격했다”고 서술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성강 하류의 치양이나 종류의 수곡성 일대가 백제 영역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가 313~314년 낙랑군과 대방군을 멸망시키고 대동강-재령강 유역을 점령한 사실을 상기하면, 370~380년대에 양국은 재령강-예성강의 분수령인 멸악산맥 일대를 중심으로 접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여호규, 2012).

치양성이 현재 황해남도 배천군으로 비정되고 있어(이병도, 1977), 한강 하구 근처까지 고구려군이 진출한 결과가 된다. 그런데 고구려가 백제의 치양성을 공격한 것이므로 369년 이전에 백제가 옛 대방군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371년에 백제군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던 것과 연결해 보면 현재의 황해남·북도 일원에 백제가 대규모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거점을 확보했다는 결론이 된다.

369년은 전연이 전진에게 멸망하기 1년 전으로 전연의 세력이 위축되어 가던 때이므로 고구려로서는 요동의 상황을 민감하게 보고 있었을 것이다. 전진에 밀린 전연 세력이 고구려 방향으로 밀려온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전연의 멸망을 계기로 요동으로 진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국원왕이 백제와 전투를 벌인 치양 이북, 평양 이남의 황해남도 안악, 신천, 봉산 일대는 옛 낙랑과 대방의 군현이 있었던 곳으로 전연과 고구려의 세력 관계와 변화 추이를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요동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고구려로서는 남쪽의 옛 낙랑군과 대방군 지역으로 세력을 뻗쳐오는 백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이런 조건에서 고국원왕이 군대 2만을 거느리고 한강 하구 근처까지 내려온 것은 백제와 본격적으로 전투를 벌여 굴복시키겠다는 의도라기보다 황해남·북도 일대 중국계 주민집단이 전진의 부상과 전연의 쇠퇴라는 요동의 세력 변화를 틈타 고구려의 지배에서 이탈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옛 낙랑군·대방군 주민집단의 동향을 백제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백제와의 충돌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도 있다.

4세기 전반 고구려가 낙랑군과 대방군을 차지한 이후의 지배방식에 대해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낙랑군과 대방군 주민들이 중원 왕조와의 유대의식이 강하다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간접적인 지배방식을 취했다고 본다. 낙랑·대방 지역이 중국 세력의 군현 지배를 수백 년 동안 받아온 곳이라는 점, 당대의 중원문화를 시차 없이 수용해 강한 문화적 자의식을 가진 광범위한 한화(漢化)된 지배층의 존재, 고구려 입장에서 대중국 관계 등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기존 귀족 세력의 견제로 지배층으로 편제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그런 가능성의 이유로 제시한 견해(임기환, 1995)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구려는 333년 전연의 내분 시에 모용인 측에 가담했다가 336년 곽충(郭充)과 함께 망명한 안약3호분의 동수(冬壽)와 같은 중국계 망명객들을 안치하고, 이들을 보호, 통제하면서 자신의 지배체제를 안착화시켜 나갔다고 생각된다(여호규, 2009). 중국계 망명객들 입장에서든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많은 낙랑, 대방 지역에서 고구려의 비호 아래 지배층으로 군림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국원왕대 고구려의 대외관계는 요동을 둘러싼 전연과의 전쟁에서 낙랑·대방을 둘러싼 백제와의 전쟁으로 옮겨 갔다고 정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백제를 선제공격하게 된 원인을 당시 국제정세와 연결해 살펴보면 국가 운영의 방향이 남진으로 바뀌어 백제와 충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쩌면 고국원왕의 죽음이 백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 방면의 갈등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있는 건 아닌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고국원왕대 고구려 대외관계의 핵심은 미천왕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연이었으며, 전연에게 패배하여 초래된 안팎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극복하는 것이 342년 국도 함락 이래 고국원왕의 최종 목표였다고 보는 게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고국원왕대의 축성 기록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따르면 고국원왕은 재위 4년째인 334년에 평양성을 증축하였고, 이듬해인 335년에는 북쪽에 신성을 쌓았다. 평양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전연이 환도성을 함락한 다음 해인 343년 7월에 평양 동황성(東黃城)으로 옮겼고 이 성이 현재의 평양인 고려시대 서경의 목덕산에 있다는 『삼국사기』의 설명을 볼 때 평양 인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에 구체적으로 대동강변 의암동 토성을 동황성으로 보는 견해도 나왔다(기경량, 2020).

고국원왕은 전연과 주변 세력의 동향 속에서 나름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었으며, 전연의 침입이 있었던 바로 그해인 342년에는 2월에 환도성을 수리하고 국내성을 쌓았으며, 8월에 환도성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고고학적으로도 고국원왕대에 해당하는 4세기 중엽에 축성된 것으로 보고된 성곽유적이 고구려 경역 내에 상당히 분포하고 있어 기록되지 않은 축성작업도 상당히 활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청원(淸原) 산성자산성(山城子山城)과 유하(柳河) 나통산성(羅通山城), 요하 중류 동쪽의 서풍(西豐)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과 철철령(鐵嶺) 최진보산성(催陣堡山城)을 그런 사례로 보기도 한다(박세이, 2014).

3세기 말에서 4세기를 고구려 산성 분기의 제2기로 보고 이 시기에 쌓은 주요 산성으로 집안의 패왕조산성(霸王朝山城), 흑구산성(黑溝山城),

전수호산성(輓水湖山城), 성장립자산성(城牆砬子山城), 와방구산성(瓦房溝山城), 고검지산성(高檢地山城), 태자성(太子城), 삼송산성(杉松山城), 오룡산성(五龍山城), 고대산산성(高臺山山城), 소성자산성(小城子山城)을 예로 든 견해(정원철, 2017)는 각 연구자의 산성 축성 연대를 검증하고 산성의 구조상 발전양상과 축성기법을 상세히 검토한 뒤의 결론으로 의미가 크다. 주로 수도인 국내성으로 통하는 길목을 제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쌓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고구려가 미천왕대 이래 전연을 비롯한 요동, 요서 및 중원의 세력 동향에 상당히 밝았으며,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간 실례라고 할 수 있다.

3. 소수림왕과 고국양왕의 대내 정비와 백제·후연 관계

형제 관계인 소수림왕과 고국양왕의 재위 시기는 과거 단순한 군사적 확장정책을 바꾸어 주요 역량을 내치와 경제발전에 두고 실력을 키웠다거나(孫玉良, 1985), 부왕인 고국원왕이 전연에 대해 표면상 신하를 칭하면서도 ‘와신상담’하며 국력 회복을 진행한 것을 계승하여 소수림왕이 대학 설립과 율령 반포, 불교 수용 등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고국양왕 전기에 요동의 ‘강족(強族)’이 되었다(張國慶, 1989)는 설명이 있다.

특히 중원 북부 유주(幽州)와 기주(冀州)의 유민을 받아들여 세력을 키웠다는 주장도 있는데(孫玉良, 1985), 고구려가 수동적으로 유민의 내투를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전연의 멸망 등으로 인한 중원의 혼란상황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취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크다. 소수림왕이 즉위한 371년은 전연이 전진에게 멸망한 뒤로서 70여 년 이상 고구려의 서북 방면 진출을 막아선 세력이 사라진 상태였다. 재위 2년째인 372년에 전진의 부견(符堅)이 사신과 승려 순도(順道)를 보내 불상과 경문을 보내자 회답사를 파견하여 우호 관계를 설정했다. 이어 불교를 수용하고, 대학을 세웠으며, 율령을 반포하는 등 내치를 우선하는 조치를 취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따르면, 소수림왕이 다른 국가, 세력과 충돌한 것은 375년 7월에 백제의 수곡성을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376년 11월에 백제의 북쪽지역을 침범한 것이었다. 백제는 맞받아서 377년 10월 3만 병력으로 평양성을 공격했고, 11월에는 고구려가 반격했다. 전투의 양상에 대한 내용 없이 서로 침범했다는 기록이 전부이지만 고구려가 공략한 백제의 수곡성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관계 기사를 통해 현재의 황해북도 신계군으로 비정되어(이병도, 1977) 평양에서 멀지 않은 점, 백제군이 3만이라는 대군을 동원하여 평양성을 공격한 점 등을 보면 대동강 이남, 예성강 상류까지 백제가 세력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과 수년 전인 369년에 고국원왕이 강화도와 마주보고 있는 황해남도 배천 인근에서 백제군과 전투를 벌였던 것과 비교해 고구려의 세력이 상당히 북쪽으로 올라가 축소되었던 것이다.

고국양왕 재위 3년인 386년 8월에도 백제를 공격했는데, 389년 9월에 백제가 고구려 남쪽을 침략해 부락을 약탈했다거나 390년 9월에는 백제가 달솔(達率) 진가모(眞嘉謨)를 보내 도압성(都押城)을 함락하고 200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갔다는 기록을 종합할 때 백제가 우세한 양상에서 양국의 대결이 펼쳐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신라가 전진에 사신을 두 차례 보낸 일이 고구려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주장(李丙燾, 1959)은 고구려의 외교술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자치통감』에는 태원(太元) 2년인 377년 봄에 고구려와 신라, 서남이(西南夷)가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는 내물왕 26년인 381년에 위두(衛頭)를 전진에 사신으로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고 했으며, 『태평어람(太平御覽)』 사이부(四夷部)에는 『진서(秦書)』를 인용해 건원(建元) 18년인 382년에 신라 국왕 누한(樓寒)이 부견에게 위두를 보내 미녀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삼국사기』의 위두 파견 기사와 1년 차이가 있는데, 『자치통감』에는 381년 2월에 동이(東夷)와 서역(西域)의 62국이 전진에 공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어 『태평어람』에서 전하는 위두의 조공과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381년 또는 382년에 신라가 전진에 사신을 보낸 것은 내물왕계의 왕권 확립이라는 신라 자체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는 의견(조범환, 2017)도 있는데, 377년의 첫 번째 사신 파견과 마찬가지로 고구려와 신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북중국의 패자로 떠오른 전진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동방의 유력한 존재로서 세력을 과시하는 방편으로 주변 세력 내지 국가를 관할하고 있다는 자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라를 일종의 부용 세력으로 간주하는 고구려의 이런 외교술은 앞에서 언급한 미천왕이 330년에 후조 석륵에게 숙신을 상징하는 물품으로 알려진 호시를 바친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459년 남조인 송(宋)에 사신을 보낼 때 숙신 사신을 동행시키거나, 호시와 석노(石柝)를 바치는 방식과도 매우 유사하다. 이미 숙신은 그 후 예라는 읍루(挹婁), 물길(勿吉)로 대체되어 소멸된 것으로 기록된 뒤임에도 고구려 사신과 동행했다는 숙신 사신이 등장한 것은 그 실체가 무엇이든 고구려가 동북방 이민족의 상징으로서 중국에 널리 알려진 숙신이라는 존재를 활용해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존재감을 인식시키려 했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서북 방면과 남부 방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소수림왕대와 고국양왕대의 차이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소수림왕대에는 서북 방면의 요동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소수림왕이 즉위한 371년에는 전연이 이미 멸망하여 요동 지역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던 전진의 세력으로 들어갔고, 후연이 건국한 384년은 곧 소수림왕의 마지막 재위년도였기 때문이다. 『자치통감』에는 380년에 부견의 사촌인 부락(苻洛)이 모반을 꾀해 오환(烏桓), 선비(鮮卑)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 신라 등에게도 원병을 청했는데 모두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전진에 대한 고구려의 우호적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모용수(慕容垂)가 후연을 건국한 해인 384년에 즉위한 고국양왕은 후연이 화북지방을 평정한 385년에 요동 공략에 나서 요동군과 현도군을 차지하고 남녀 1만여 명을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385년] 여름 6월에 왕이 병력 4만 명을 내어 요동을 습격하였다. 이에 앞서 연왕 모용수가 대방왕 모용좌(慕容佐)에게 명하여 용성(龍城)을 지

키게 하였다. 모용좌가 아군이 요동을 습격하였다는 것을 듣고 사마(司馬) 학경(郝景)을 보내 병력을 이끌고 가서 구하게 하였다. 아군이 이를 쳐서 패배시키고, 마침내 요동과 현도를 빼앗고, 남녀 1만 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고구려가 동원한 군사의 수가 4만 명이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342년 전연 모용황이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고국원왕은 5만 명의 정예병을 북도 방어에 투입했는데, 이 수는 당시 고구려가 동원할 수 있었던 최대 병력이었을 것이다. 1~2세기 전쟁에서 5,000명에서 1만 명 정도였던 고구려의 병력 규모는 3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2만 명으로 증가하였고(여호규, 1998), 전연과의 전투에서 5만 명으로 증가한 뒤 일정 기간 동안 5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한 예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정원철, 2017).

〈광개토왕비문〉에 따르면 400년 경자년에 신라를 구원할 때와 407년 정미년에 대상이 불분명한 곳을 치기 위해 동원한 병력이 보병과 기병을 합쳐서 5만 명이었고,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475년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 한성을 함락하고 개로왕을 사로잡아 죽일 때 동원한 병력이 3만 명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고국양왕이 동원한 4만 명 역시 당시로서는 최대에 가까운 병력이었을 것이며,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요동을 공략한 것은 건국 직후인 후연의 세력을 확실히 견제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후연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전투의 결론을 “마침내 요동과 현도를 빼앗고, 남녀 1만 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라고 하여 고구려군은 승리한 뒤 바로 철수한 것

처럼 기록했지만,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같은 해 10월 또는 11월에 “[후]연의 모용농(慕容農)이 병력을 거느리고 침략해 와서 요동·현도 두 군을 다시 차지하였다. 처음에 유주와 기주의 유민이 많이 투항해 오므로 모용농이 범양(范陽) 사람 방연(龐淵)을 요동태수로 삼아 이들을 불러 어루만지게 하였다”라고 하여 수개월 동안 고구려가 요동과 현도 두군을 영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기록을 유의해 보면 4만 명의 대군을 동원한 목적은 단순히 일시적 승리가 아니라 요동군과 현도군 지역을 차지하겠다는 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한편으로 군사력을 동원해 고구려를 패퇴시키고, 한편으로는 유민들을 이주시키고 어루만져 지배를 공고히하려는 후연의 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소수림왕대와 고국양왕대에는 백제와 반복되는 전투를 벌였다. 그 이유는 첫째, 두 왕의 부왕인 고국원왕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서거한 사실로 미루어 이를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백제가 근초고왕에서 근구수왕으로 이어지는 전성기를 맞이한 시점이어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둘째, 전통적인 해석과 같이 ‘북수남진(北守南進)’이라는 관점에서 서북 방면에서 전연의 멸망으로 일시적인 공백이 발생하였지만 곧 후연이 들어섰고, 후연 세력이 강성하여 남쪽으로 공략의 방향을 틀었다고도 볼 수 있다.

두 가지 이유 모두 상당한 설득력을 갖지만 고구려의 대외관계 자체가 백제 공략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연과의 관계 역시 중시했다는 근거로 고국양왕의 뒤를 이은 광개토왕이 후연 세력을 물리치고 요동을 장악해 나간 것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광개토왕의 후연 공략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소수림왕대와 고국

양왕대부터 이어져온 대외관계의 모색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소수림왕 8년인 378년 9월에 거란(契丹)이 북쪽 변경을 침략하여 8개 부락을 함락시킨 일과 고국양왕 9년인 391년 봄에 신라에 우호관계를 타진하고 내물왕이 이에 호응하여 조카 실성(實聖)을 보내온 것도 의미가 있다. 두 왕의 뒤를 이은 광개토왕이 395년에 거란의 일파인 비려(裊麗)를 공략한 것과 396년에 왜인의 침입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진 신라의 요청에 따라 5만 명의 원군을 보낸 이유가 소수림왕 때 거란 침입과 고국양왕 때 신라와의 우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4. 4세기 대외관계의 특징과 의미

4세기에 서북 방면과 남부 방면에서 각 세력과 충돌하며 부침을 겪은 고구려 대외관계의 경과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 큰 이견이 없다. 전연의 침입로였던 고구려의 남도와 북도에 대한 의견 차이 등이 있긴 하지만, 지명의 비정이나 사료 해석 자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다른 분야와 다른 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체적인 양상에서 이 시기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여호규는 4세기 고구려사를 성공에 이은 좌절 또는 서진(西進) 실패에 따른 남진(南進)으로의 선회로 설명하며 대외적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림왕대에 내부체제를 정비하고, 광개토왕·장수왕대에는 이를 바탕으로 대외적인 재도약을 이룩했다

는 이해의 한계를 지적했다. 즉, “이러한 통설에 따르면 4세기와 5세기 이후 고구려의 대외정책은 단절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고, 급변하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설명할 수도 없다. 더욱이 중국 대륙의 분열상황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은 단순히 고구려에게 대외팽창의 기회를 제공한 외적 요인으로만 이해되거나, 심지어 고구려의 의지에 따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 간주되기도 하였다”(여호규, 2000)고 비판했다. 4세기 고구려 대외관계를 바라보는 데서 통설이 갖는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즉 4세기 고구려 대외관계의 특성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 시간 안으로 매몰될 것이 아니라 3세기 이전과 5세기 이후의 대외관계를 큰 틀에서 조망해야 하는데, 4세기 안의 유동적인 움직임만을 대상으로 특정한 결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5세기 초까지 고구려가 중원 왕조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결심, 자기 이익에 따라 자주적으로 대외관계를 조정하였고 어떤 책봉체제 안에도 들어 있지 않았다(손영중, 2000)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외교관계의 속성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료 해석 자체도 자의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을 전제하면서 통설의 한계를 고려할 때 검토해야 할 두 지점이 있다. 하나는 전연과의 갈등 과정에서 고구려로 망명한 사람들과 고구려 발전의 관계 여부이다. 338년에 고구려에 망명했다가 349년에 전연으로 송환되어 이름을 송활(宋活)로 바꾸고 활동을 이어간 송황(宋晃)의 출신과 이력을 바탕으로 소수림왕대의 율령 반포가 망명한 전연 관료의 영향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이기동, 1996)이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원 북부 유주와 기주의 유민을 받아들여 세력을 키

왔다는 주장도 있는데(孫玉良, 1985), 소수림왕·고국양왕대의 각종 제도 정비 등과 연계되는 문제로서 유의해야 하지만, 고구려 내부의 지향을 과소평가하거나 특정 인물의 역할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 고려시대 과거제 도입과 귀화인 쌍기(雙冀)의 역할을 대비해 볼 필요도 있다.

둘째는 ‘북수남진’, ‘서수남진(西守南進)’이라 하여 고구려 대외관계의 향방을 지나치게 획일화하여 보는 관점이다.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개념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고구려 대외관계의 지향이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시기에 따라 남쪽이 막혔을 때도 서북쪽이 막혔을 때도 있었지만, 고구려사 전체를 놓고 보면 고구려는 모든 방향에서 신축이 있었고, 팽창 과정에서 주변의 모든 세력과 관계를 가졌다.

4세기 전반에 서북 방향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현도군을 축출하고 선비 모용부와 접하여 70여 년 갈등관계를 가졌고 그 후 20여 년간은 백제와도 갈등을 겪었지만, 이것은 조성된 대내외 정세를 돌파하기 위한 고구려 나름의 모색과 그 결과이지 어느 한쪽을 선택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4세기 고구려의 대외관계는 고구려의 성장과 팽창에 따른 자연스러운 관계 대상의 확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선진체제를 수용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다각적 외교술의 활용, 확장된 영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치하기 위해 정비한 간선망과 성곽 배치 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때 효과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공석구, 199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 손영중,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출판사.
- 이병도, 1959, 『韓國史(古代篇)』, 乙酉文化社.
- , 1977,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 정원철, 2017,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강선, 2001, 「고구려와 전연(前燕)의 관계에 대한 고찰」, 『고구려발해연구』 11.
- , 2005, 「4~6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고구려의 대외정책」, 『軍史』 54.
- 기경량, 2020, 「고국원왕대 ‘平壤東黃城’의 위치와 移居 기록의 성격」, 『한국학연구』 57.
- 김봉숙, 2013, 「4세기 고구려와 고국원왕」, 『계명사학』 24.
- 金英珠, 1997, 「高句麗 故國原王代の 對前燕關係」, 『북악사론』 4.
- 金洪培, 2011, 「略論高句麗與慕容鮮卑의 早期關係」, 『인문과학연구』 30.
- , 2016, 「中國學界의 高句麗와 慕容鮮卑 關係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55.
- 박세이, 2014, 「4세기慕容鮮卑 前燕의 성장과 고구려의 대응」, 『한국고대사연구』 73.
- 박아림, 2018, 「4~5세기 고구려와 중국 고분벽화의 묘주 표현에 보이는 문화적 포용성에 대하여」, 『고구려발해연구』 60.
- 박현숙, 2016, 「3~4세기 백제의 대외관계와 왕권의 추이」, 『한국고대사연구』 83.
- 여호규, 1995,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南道와 北道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91.
- , 1998, 「國內城期 高句麗의 軍事防禦體系」, 『韓國軍事史研究』 1.
- , 2000,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對前燕關係

- 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6.
- , 2009, 「4세기 高句麗의 樂浪·帶方 경영과 中國系 亡命人의 정체성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53.
- , 2012,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高句麗와 百濟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
- 李基東, 1996, 「高句麗史 발전의 劃期로서의 4世紀-慕容'燕'과의 항쟁을 통해 서」, 『東國史學』 30.
- 이도학, 2006, 「고구려의 國難과 故國原王像」, 『고구려발해연구』 23.
- 이부오, 2005, 「4세기 초·중엽 고구려·백제·신라의 관계 변화」, 『신라사학보』 5.
- 이정빈, 2016, 「4세기 전반 고구려의 해양활동과 항해-고구려와 후조·모용선비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59, 역사실학회.
- , 2020, 「울령반포와 관등제 정비」, 『고구려 중기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 임기환, 1995, 「4세기 고구려의 樂浪·帶方地域 경영-안악3호분·덕흥리고분의 墨書銘 검토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147.
- 장병진, 2020, 「고구려의 대방 지역 진출과 영역화 과정」, 『고구려발해연구』 68.
- 전덕재, 2015, 「373년 고구려 울령의 반포 배경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80.
- 전호태, 2017, 「고구려(高句麗)와 모용선비(慕容鮮卑) 삼연(三燕)의 고분문화」, 『동북아역사논총』 57.
- 정재윤, 2012, 「4~5세기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44.
- 조범환, 2017, 「신라 奈勿王代 前秦과의 交渉과 그 정치적 배경」, 『新羅史學報』 41.
- 池培善, 2006, 「高句麗와 鮮卑의 전쟁-慕容廆와 慕容皝을 중심으로」, 『고구려 발해연구』 24.
- 常樂·金洪培, 2020, 「北魏天興元年(398)高句麗人入北魏考」, 『佳木斯職業學院學報』 2020-1.
- 薛海波, 2010, 「試論北燕與高句麗的政治關係」, 『東北史地考』 2010-6.
- 孫玉良, 1985, 「公元五世紀前後高句麗的發展」, 『北方文物』 1985-3.
- 李輝, 2001, 「南北朝時期高句麗強盛原因試析」, 『長春師範學院學報』 20-4.

- 張國慶, 1989, 「略論高句麗與“三燕”的戰和關係」, 『遼寧教育學院學報(社會科學版)』1989-2.
- 趙俊傑, 2010, 「4-7世紀大同江, 載寧江流域封土石室墓調查與研究成果綜述」, 『東北史地考』2010-1.
- 秦升陽, 2003, 「高句麗的軍事擴張及其疆域變遷」, 『通化師範學院學報』24-1.

2장

광개토왕대의 대외관계

공석구 | 한밭대학교 명예교수

광개토왕은 우리 역사상 영토를 가장 크게 넓혔던 왕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광개토왕릉비>에 기록된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壤平安好太王)’이라는 시호, 『삼국사기』에 기록된 ‘광개토왕’이라는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374년에 출생하였는데, 왕으로서 재위 기간이 『삼국사기』에는 392~413년, <광개토왕릉비>에는 391~412년으로 각기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본명은 담덕(談德)이며, 중국 측 기록은 안(安)으로 전한다. 재위 중에 영락(永樂)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개토왕의 즉위를 전후한 시기,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는 급변하였다. 여러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였다. 광개토왕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서쪽으로 국경

을 접한 북중국, 남쪽으로 국경을 접한 백제, 신라, 그리고 국경을 접한 주변 세력인 거란, 숙신, 동부여와의 관계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고구려 서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서, 요동 지역의 상황을 알아보자. 북중국 지방의 상황이 급변하였다. 이 시기는 변방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던 이민족이 중원으로 들어와 나라를 건국한 이른바 5호16국의 시대이다. 북중국 지방은 정치적 분열을 거듭해 혼란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384년, 모용수(慕容垂)가 후연(後燕)을 건국하였다. 그는 385년에 업(鄴: 하북성 한단)을 점령하고 황하 이북 지역을 대부분 장악하였다. 한편 요서 지방의 서북쪽에 있던 선비족 탁발규(拓跋珪)가 세력을 확장하며 후연을 압박해왔다. 385년, 탁발규 군대와 후연이 충돌했는데, 그 결과 탁발규가 크게 승리하였다. 탁발규는 386년에 위왕(魏王)을 자칭하였으며, 398년에 북위(北魏)를 건립하여 평성(平城: 산서성 대동)으로 도읍을 옮겼다. 후연은 북위 세력에 밀려 점차 국력이 약해져, 북중국 지방을 포기하고 그 중심이 요서 지방으로 옮겨진 상황이었다. 광개토왕은 북중국 지방의 분열과 혼란을 활용하여 후연과 대립, 갈등하면서 요동과 요서 지방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한편 요서 지방에 있던 후연이 멸망하면서 북연(北燕) 정권이 들어섰다. 그리고 또 다른 모용씨(慕容氏)의 일파가 남쪽으로 옮겨가 산둥 지방에 남연(南燕)을 건립하였다. 광개토왕은 이 시기 백제와의 갈등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관계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를 위해 북연, 남연과의 우호관계를 추진하였다.

둘째, 고구려 남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백제와의 상황을 알아보자. 광개토왕은 북중국 지역의 정세를 활용하여 백제를 강하게 압박해

나갔다. 백제와의 관계는 일찍이 광개토왕의 할아버지인 고국원왕이 371년 백제 근초고왕에게 살해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로 전환되었다. 고국원왕 사후 등장한 소수림왕은 백제에 대한 복수보다는 율령 반포, 태학 설립, 불교 공인 등의 정책으로 국가체제를 확립하여 왕권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그 뒤를 이은 고국양왕은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하여 백제를 공략했으나 백제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이때 백제는 바다 건너 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다. 왜는 백제와의 연합을 바탕으로 신라를 공격하곤 하였다. 광개토왕은 백제를 공격하는 한편 한반도 지역에 건너온 왜를 공략하였다.

셋째, 고구려 동남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신라와의 상황을 알아보자. 고구려는 백제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신라에 군사를 지원하는 등 우월한 힘을 발휘하였다. 사실 신라는 고구려를 매개로 하여 국력 신장을 도모해왔다. 수시로 영역을 침범하는 백제와 왜를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고구려의 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광개토왕은 군대를 파견하여 신라를 침략한 왜를 공격해 몰아내고 가야 지역까지 추격하였다. 이는 고구려 중심의 차별적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단초가 되었다. 고구려는 신라 구원군 파견을 계기로 하여 신라 내정에 간섭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넷째, 고구려의 주변 세력인 숙신, 거란, 동부여와의 상황을 알아보자. 고구려의 서북쪽과 북쪽 지방에 거란과 숙신, 동쪽 지방에 동부여가 있어 각기 고구려와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광개토왕은 거란을 공격해 수많은 가축을 노획했으며, 숙신을 정벌해 복속하였다. 그리고 동부여를 공격하여 종속적인 지배관계를 확립하였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주변 세력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해 나갔다.



그림1 | 광개토왕 시기의 대외관계

이와 같은 흐름을 토대로, 다음에서는 광개토왕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1. 후연과의 갈등과 요서 지방 진출

광개토왕의 즉위를 전후하여 북중국 지방의 정치상황은 급변하였다. 전진(前秦)을 이탈한 모용수가 384년에 후연을 건국하고, 386년에 중산(中山: 하북성 석가장)에서 황제에 즉위하였다. 이제 요서, 요동 지방의 지배권은 전진에서 후연으로 바뀌었다. 한편 북방의 산서성(山西省)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오던 선비족 탁발규는 386년에 나라를 세워 위왕을 자칭하고 서서히 후연을 압박해 왔다. 398년 탁발규는 북위 황제에 즉위하고 수도를 평성에 정했다.

후연은 395년 참합피(參合陂: 내몽고자치구 오란찰포)에서 북위에게 참패하고, 397년에는 수도 중산(中山)이 함락되었다. 후연은 북위에 밀려 북중국에서의 지배권을 점차 상실해가는 상황이 되었다. 모용수가 사망하자, 396년에 모용보(慕容寶)라는 인물이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후연은 국력이 쇠약해져 수도 중산을 포기하고 용성(龍城: 요령성 조양)으로 옮겨야 했다. 후연의 세력 중심은 요서 지방을 중심으로 축소되었다. 이어서 후연에서 권력 교체가 있었다. 398년에 모용성(慕容盛), 401년에 모용희(慕容熙)가 그 뒤를 이었다. 이렇듯 후연은 북위에 의해 세력이 위축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권력자가 자주 교체되어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고구려는 후연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광개토왕 시기 고구려와 후연의 관계를 요약하면 갈등과 대립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나라의 갈등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고구려가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1) 광개토왕의 즉위와 후연과의 갈등

광개토왕의 즉위를 전후한 시기, 후연의 상황을 알아보자. 요서 지방에서는 전진과 모용씨 간의 갈등이 나타났다. 그 배경은 전진의 몰락이었다.¹ 종래 이 지역을 장악했던 전진은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였다. 고구려는 전진으로부터 372년에 순도(順道), 377년에는 전진에 조공하는 등 다양한 교류가 있었다. 따라서 양국의 국경에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진의 몰락과 함께 요서 및 요동 지방에서 후연에 의한 권력 교체라는 상황 변화가 나타났다. 전진의 장수였던 모용수가 384년 후연을 건국하면서 전진과 충돌하게 되었고, 요서 지방의 상황은 급변하였다. 후연은 전진의 패배에 발 빠르게 대응해 요서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후연은 전진이 장악하고 있던 유주(幽州: 북경, 행정 중심지는 계성) 및 평주(平州: 요령성 조양, 행정 중심지는 용성) 지역을 공격하였다. 385년 2월, 후연은 요서 지방을 장악하고 대방왕 모용좌(慕容佐)를 용성에 주둔시켰다. 요서 지방을 장악한 모용씨는 계속하여 요동 지방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고구려는 전진의 몰락 그리고 요서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진과 후연 간의 갈등관계를 면밀하게 주시,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요서 지방에서 발생한 권력 교체 상황을 틈타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였다. 이 사실에 대해 『삼국사기』는 “[385년 여름 6월에 고국양]왕은 4만 명의 병

1 전진은 부용(符融)이 이끄는 25만 명의 선봉대, 부견(符堅)이 이끄는 보병 60만 명과 기병 27만 명 등 112만 명의 대군으로 동진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383년 11월 비수(淝水) 전투에서 대패하였다. 그 결과 전진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고, 385년에 전진을 세운 부견은 포로로 잡혀 죽임을 당했다.



그림2 | 광개토왕 시기의 고구려와 후연

사를 거느리고 요동을 습격하였다. 이에 앞서 후연왕 모용수는 대방왕 [모용]좌로 하여금 용성을 지키게 한 바 있었다. [모용]좌는 고구려군이 요동을 습격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마(司馬) 학경(郝景)을 보내 구원토록 하였으나 우리(고구려) 군대가 쳐부수고는 마침내 요동군, 현도군을 함락하고 남녀 1만 명을 포로로 붙잡아 돌아왔다”라고 기록하였다.

고구려군은 385년에 요동군과 현도군을 공략해 포로 1만 명을 사로잡았다. 이처럼 고구려가 요동·현도 지역을 전격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던 배경을 생각해 보자. 고구려의 공격이 후연의 용성 점령 4개월여 만에 단행되었기 때문에 후연 측에서 요동 지방을 정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후연이 고구려로부터 요동군·현도군 지역을 되찾게 된 것은 그로부터 5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후 요동 지방은 상당 부분 후연의 세력권에 편입되었고, 양국 간에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요동 지방을 수복한 후연은 이 지역을 행정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평주자사(平州刺史)의 치소를 평곽(平郭)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그동안 정치·군사의 핵심이었던 요동군의 중심지가 요양(遼陽: 요령성 요양)에서 요동 지방의 남쪽에 소재한 평곽(平郭: 요령성 개주)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구려의 압박을 대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하지만 후연은 요동 지방을 정치적·행정적인 측면에서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² 후연의 정치적 불안정은 또 다른 과동으로 나타났다. 유주(幽州)와 기주(冀州) 지역에 살던 수많은 유랑민이 정치적으로 안정된 고구려로 이주해갔던 것이다. 그러자 후연에서는 급히 현지에 요동태수를 임명하여 유랑민을 불러들이도록 했다.

391년, 광개토왕이 즉위하였다. 서쪽에서 가중되는 북위의 압박은 후연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이제 후연은 전성기를 지나 점차 쇠퇴해가고 있었다. 내부의 정정(政情) 불안과 북위의 압박이라는 정치적 상황은 후연에게 동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고구려와의 우호관계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였다. 396년 4월, 후연왕 모용보는 광개토왕을 ‘평주목 봉요동대방이국왕(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으로 임명하였다. 광개토왕은 고구려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요동 지방의 정치적 지배권까지도 장

2 고구려가 요동 지방을 언제 어떻게 확보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대표적으로 385년의 사건 이후부터로 파악하는 견해(武田幸男, 1989; 공석구, 2012)와 광개토왕 이후부터로 파악하는 견해(여호규, 2005; 이성제, 2013) 등이 있다. 이는 요동 지방을 장악하게 된 시기와 완전히 장악한 시기라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광개토왕릉비>에 광개토왕이 영락 5년(395년) 패려(靺鞨) 공격을 종료하고 돌아오는 길에 “양평도를 지나 동으로 □성, 력성, 북풍, 오비□로 오면서 영토를 시찰하고 수렵을 한 후에 [왕성으로] 귀환하였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다. 여기서 패려는 시라무렌하 유역의 거란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요동 지방은 광개토왕 이전 시기에 이미 상당 부분 고구려 영역으로 편입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악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요동 지방이 고구려에 귀속된 상황이었음을 말해준다. 이 상황을 놓고서 당시 후연의 대외정책이 서방 및 남방 정책에 치중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398년 8월, 모용보가 시해당하고 그 뒤를 이어 모용성이 후연의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였다. 북위의 압박은 모용성 시기에도 이어졌다. 이 시기 후연의 영역은 대체로 산해관(山海關)의 동쪽 지방에서부터 대릉하 유역에 이르는 지역으로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개토왕은 요서와 요동 지방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400년 정월, 후연에 축하사절을 파견하였다. 고구려는 새로 등장한 모용성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 이면으로는 고구려가 후연의 전략을 살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요동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종전처럼 계속 인정받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때 광개토왕의 사신이 모용성에게 의례적인 축하인사만 전하지는 않은 것 같다. 어쩌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구려의 요구가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것은 모용성의 즉각적인 군사행동에서 짐작할 수 있다. 2월에 모용성은 광개토왕의 무례함을 구실로 삼아 고구려를 공격해왔다.

모용성의 고구려 공격은 위축된 국내의 정치상황을 타개하려는 고민에서 단행되었을 것이다. 서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위와의 관계는 위축되었고, 이제는 서방으로의 진출이 막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힘의 변화는 후연의 내부 권력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399년, 요서태수 이랑(李朗)과 연군태수 고히(高湖)가 이탈하여 북위에 항복해갔다. 400년 1월, 모용성은 대사면을 단행하고 황제 칭호를 버리고 서민들의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는 ‘서인대왕(庶人大王)’이라고 자칭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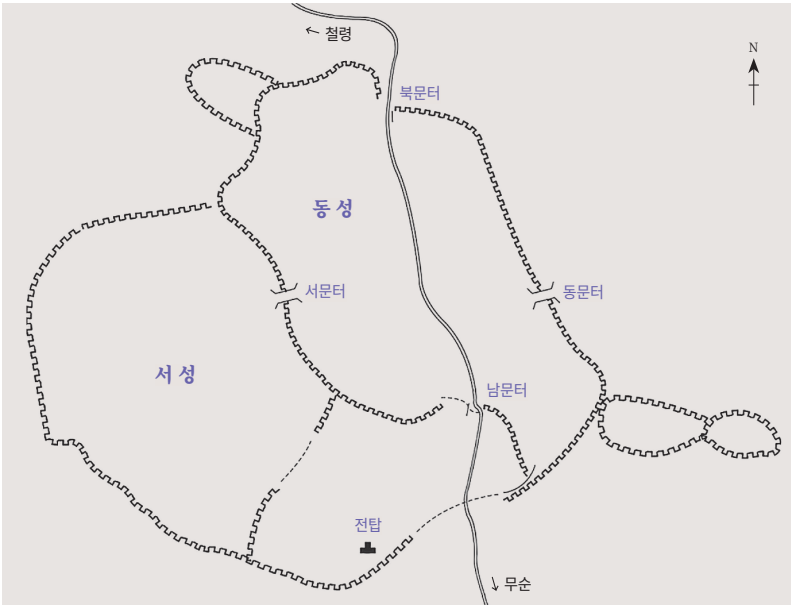


그림3 고이산성(상: 평면도, 하: 성안의 고구려시대 유물)

고이산성은 둘레 4km가량으로, 평지보다 70~140m가량 솟아 있는 산등성이를 따라 포곡식으로 축조하였다. 성벽은 토축, 석축, 토석혼축 등 계속 보수한 것으로 나타나 고구려의 요충지로서 이곳에서 벌어진 치열했던 공방전을 연상케 한다. 나중에는 고구려군과 수·당군의 충돌이 있었다. 고구려 멸망 후인 670년에는 평양에 있던 안동도호부가 이곳으로 옮겨왔다.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고구려 축하사절이 도착한 것이다. 모용성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다.

모용성이 직접 참가하고, 모용희를 선봉으로 내세운 3만 명의 후연 군대는 고구려의 신성(新城)과 남소성(南蘇城)을 공략하고 700여 리에 달하는 영토를 개척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진서(晉書)』는 5,000여 호에 달하는 고구려 포로를 요서군 지역으로 옮겼다고 기록하였다. 한편 후연이 공략한 고구려의 신성과 남소성이란 지명을 통하여 고구려 영역의 범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신성의 위치는 오늘날 중국 요령성 무순(撫順)에 있는 고이산성(古爾山城)에 해당한다. 남소성은 소자하(蘇子河) 유역에 위치하는데, 철배산성(鐵背山城: 요령성 무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용성은 권력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취약한 권력관계는 결국 내분으로 나타나 살해되고 말았다. 401년, 16세에 불과했던 모용희가 후연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였다. 광개토왕은 모용희가 즉위하자 후연을 대대적으로 공략하였다. 모용성 때에는 축하사절이라도 보냈는데, 그동안 요서 지방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광개토왕은 402년 숙군성(宿軍城), 404년 연군(燕郡) 등을 공격하였다. 특히 연군 공격은 후연의 중심부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후연이 반격해왔다. 405년 1월, 모용희는 왕비와 함께 고구려 요동성을 공격해왔다. 하지만 모용희의 왕비에 대한 그릇된 사랑이 결국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 요동성을 함락시키려는 상황에서 왕비와 함께 성을 넘겠다는 모용희의 주장에 군대가 머뭇거리자 대처할 시간을 얻은 고구려가 성을 굳게 방비하게 되었고, 결국 요동성 공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406년 2월에는 고구려 목저성(木底城)

을 공격해왔다.³ 모용희는 애당초 거란을 공격했으나, 거란의 병력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퇴각하려고 하자 왕비가 반대하였다. 모용희는 도중에 공격 목표를 변경하여 고구려를 공격해왔다. 후연군은 거란 지역을 우회해서 고구려로 진군해왔다. 그러다 보니 3,000리에 달하는 먼나먼 길을 행군해야만 했다. 장거리 행군을 하려다 보니, 치중병(輜重兵)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경병(輕兵)으로 이동하였다. 한겨울 날씨에 3개월가량의 기나긴 행군이였다. 우여곡절 끝에 고구려 목저성까지 도달하여 고구려와 전투가 벌어졌다. 한겨울의 추위와 원정의 피곤함에 사기가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 후연군이 전투에서 승리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 전쟁은 애초부터 후연이 이길 수 없는 무리한 작전이였다. 모용희에 의한 고구려 공략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407년, 모용희의 왕비가 사망하였다. 모용희는 왕비의 장례식을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거대하게 치렀다. 이 틈을 타고 풍발(馮跋)이 반란을 일으켜 모용운(慕容雲)을 추대하였다. 모용희가 반란군에 잡혀 처형되니, 그때 나이가 22세였다. 모용희는 용등원(龍騰苑)⁴을 비롯한 많은 궁실을 조영하는 등 무리한 토목공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궁핍하게 했다. 아울러 거란, 고구려 등에 대한 무리한 대외원정으로 국력을 낭비하여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다. 이로써 모용씨가 세운 후연 정권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3 이 사건의 발생 연대에 대해 『삼국사기』는 406년 12월, 『자치통감』은 406년 2월로 달리 기록하였다. 전후의 사건 전개상황을 보면, 405년 12월에 거란에 파병했으나 다시 고구려를 치려고 3,000리 길을 걸어 406년 2월에 이르러 목저성을 공격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용등원은 그 흔적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어 성급 유적으로 지정되었다. 중국 요령성 조양시 쌍탑구 모용촌 지역에 위치한다.

2) 광개토왕의 요서 지방 진출

400년 2월, 모용성이 이끄는 후연군에 의해 신성, 남소성이 함락되자, 광개토왕은 반격을 시도하였다. 이는 결국 고구려가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시작은 402년 5월에 단행된 숙군성 공략이다. 숙군성은 후연의 고위 관직인 평주자사가 주둔하고 있던 정치·군사적 요충지였다.⁵ 이 상황을 『자치통감』은 “[402년 5월에] 고구려가 숙군(宿軍)을 공격하니, [후]연의 평주자사 모용귀(慕容歸)가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기록하였다. 숙군이란 지명을 통해 고구려군의 작전반경이 어느 지역까지 미쳤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숙군의 위치는 어느 곳일까? 학계는 요령성 북진(北鎭)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정하고 있다. 북진은 요하의 서쪽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광개토왕의 군대는 국경 역할을 해오던 요하를 건너가 후연의 군사·행정적 중심지를 공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구려군은 어떤 교통로를 따라 진군해 숙군성을 공격했을까? 당시의 대표적인 교통로는 조양(朝陽)-의현(義縣)-대릉하(大陵河)-북진(北鎭)-흑산(黑山)-신민(新民)-요하(遼河)-심양(瀋陽)을 연결하는 길이다. 이 길은 중원 세력과 고구려를 비롯한 동쪽 이민족이 교류하는 대표적인 교통로였다. 그랬기 때문에 중원 세력이 요서 지방에서 고구려를 공격하는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특히 수·당의 고구려 침입

5 평주자사의 치소는 385년 당시 요동의 평곽(요령성 개주)에 있었다. 그런데 이 기록으로 볼 때 그 사이에 숙군성으로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구려의 압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시에 주 공격로가 되었다. 고구려는 역으로 이 교통로를 이용하여 후연을 공략하였다. 광개토왕이 파견한 대규모의 고구려군은 신성이 위치한 무순을 지나 현도군이 위치한 심양으로 나아간다. 그런 다음 요하를 건너 요령성 신민에 도착한다. 이 지역은 한 이래로 군현 성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전략적인 요충지로 여겨지는 곳이다. 신민에서 서남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후한시기 요동속국 영역에 해당하는 흑산-북진에 이르는 교통로를 따라 진군해갔다.

고구려는 요서 지방 진출을 다시 감행하였다. 숙군성 공격 2년 후인 404년에 후연의 연군(燕郡)을 공략한 것이다. 이 상황을 『진서』는 “고구려가 연군을 공략하여 100여 명을 살해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⁶

연군이란 지명을 통해 광개토왕의 작전반경이 어느 곳까지 미쳤는지 추적해 볼 수 있다. 연군의 위치는 어느 곳일까?⁷ 『신당서(新唐書)』는 연군의 위치에 대하여 후연의 왕성인 용성에서 동쪽으로 180리 떨어져 있다고 기록하였다. 학계는 이를 근거로 요령성 의현(義縣)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현은 대릉하의 서쪽에 위치한다. 일찍이 선비족 모용외(慕容廆)가 세력을 형성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404년 고구려군은 요하를 건너 진군하여 대릉하까지 건너가 후연의 연군을 공략하고 돌아온 것이다. 이 공격으로 고구려는 후연의 왕성까지 압박하게 되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후연왕 모용희가 405년 직접 고구려 요동성을 공격해왔음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6 『자치통감』은 ‘404년 12월에 후연’을, 『삼국사기』는 ‘404년 11월에 [후]연’을 공격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하지만 『진서(晉書)』 제기 모용희전에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연군’이라는 기록이 옳다.

7 연군은 후연의 행정구역으로서 일찍이 전연왕 모용황의 사당이 건립된 곳이기도 하다.



그림4 | 광개토왕 군대의 요서 지방 진출

한편, <광개토왕릉비> 영락 17년(407년) 기사를 보면 의미심장한 내용이 실려 있다.

- ① 17년 정미(丁未)에 [광개토]왕은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파견하였다.
 ... 광개토왕의 군대가 사방에서 맞붙어 싸워 [□□병사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노획한 갑옷이 1만여 벌이며, 그 밖에 군수물자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 ② [싸움에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사구성(沙溝城), 루성(婁城), □주성(□住城), □성, □□□□□□성을 격파하였다.

위 기록은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완전한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개략적인 내용은 광개토왕이 파견한 5만 명에 달하는 고구려 군대가 □□를 공격하여 모조리 죽였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비문이 파손되어 고구려의 공략대상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학

계에서는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후연과의 전쟁(천관우, 1979 외), 백제와의 전쟁(박시형, 1966 외), 후연 및 백제와의 전쟁(강재광, 2009 외)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따른 논리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후연전을 주장하는 연구자는 사료①을 중시한다. 이 기록에 나타나는 ‘남김없이 처참하게 죽여버렸다’, ‘노획한 갑옷 1만여 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군수물자’ 등의 문구로 보아 도저히 백제전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백제전을 주장하는 연구자는 사료②를 중시한다. 기록에 나오는 사구성(沙溝城)이 백제가 축조한 사구성(沙口城)과 유사하고 루성(婁城)은 <광개토왕릉비> 영락 6년 기사 및 수묘인 연호 기사에 기록된 백제 지명에 ‘루’자가 들어가는 명칭이 많아 백제전설을 방증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적 공방을 모두 수용하여 ①은 후연전, ②는 백제전이라고 해석하는 절충적인 견해까지 나타났다.

①의 내용은 이 사건에 대한 보다 많은 단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나 남김없이 처참하게 죽여버렸다고 하는 ‘참살탕진(斬煞蕩盡)’이란 문구에서 적개심에 가득 찬 분노를 표출하는 고구려군의 무자비한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다. 이 ‘참살탕진’ 문구는 영락 17년 기사의 공략대상을 지목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 문구를 근거로 해석하자면, 공략대상은 고구려의 천하관에 포함되지 않는 적대세력이다. <광개토왕릉비>에 기록된 표현방식을 비교, 정리해보면 고구려의 속민(屬民)에 포함되는 세력은 누구나 용서와 자비의 대상이었다. 앞서 영락 6년 기사에 고구려가 속민인 ‘백제왕의 항복을 받고 은혜를 베풀어 그동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기록되었음을 상기해보자. 그런데 ①의 내용은 백

체의 경우와 달리 고구려의 자비로움, 은혜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영락 17년 기사의 공격대상은 백제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광개토왕릉비〉 영락 17년 기사는 후연을 대상으로 한 전쟁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광개토왕릉비〉가 제작된 시기는 광개토왕이 서거한 412년 10월부터 매장되는 414년 9월 29일 이전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고구려 왕실에서 수집된 정보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광개토왕릉비〉 문구가 작성되었다. 이때 북연은 마지막 후연왕인 모용희 살해를 주도한 풍발이 집권한 상황이었다. 모용씨 계통인 후연과 풍발이 이끄는 북연은 종족적 계통이나 왕통 상에서 서로 관계가 없다. 종전에 북연의 입장을 고려하여 후연과의 전쟁을 〈광개토왕릉비〉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일부 견해도 있지만,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고구려의 정치적 위상은 북위의 압력에 점차 쇠퇴해가는 북연을 주도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요컨대, 〈광개토왕릉비〉 영락 17년 기사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숙군성 공략 기사와 연군 공략 기사를 압축하여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공석구, 2012). 사실 5만 명에 달하는 보병과 기병이 동원된 고구려군의 규모로 볼 때 대규모 전쟁이었음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고구려군의 공격대상으로 언뜻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은 숙군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숙군성 공략 기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숙군성은 후연의 평주자사가 주둔하던 곳이다. 평주자사는 당시 고구려를 비롯한 동쪽의 이민족세력을 대비하기 위해 군사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한 관직이다. 따라서 숙군성에는 전쟁 상황을 대비하여 대규모 군대가 주둔하고 그에 상응하는 군수물자가 비축되었다고 예

상해 볼 수 있다. ‘갑옷 1만여 벌을 노획했다’는 내용은 당시 고구려군에게 참살당한 숙군성에 있던 중무장한 후연군의 대규모 병력을 상상케 한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요서 지방 공략은 후연을 직접 자극하게 되었다. 후연의 왕성이 위치한 용성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거리까지 고구려군이 접근하게 된 것이다. 후연왕 모용희는 거세게 반발하였다. 405년 요동성, 406년 목저성을 공략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고구려를 공격해왔다. 하지만 고구려의 요동성, 목저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이는 광개토왕에 의한 강력한 요동 지방 진출정책이 완료되었음을 말해준다. 이후 광개토왕은 후연에 보다 우월한 입장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 관계가 이어졌다.

요동 지방을 확보한 이후 고구려는 크게 성장하였다. 요동 지방의 높은 사회·문화적 역량을 흡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지방에서 나오는 다양한 물자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얼마 후 고구려가 전성기를 구가하는 발판이 되었다. 요동 지방을 확보한 이후 고구려인들은 강력한 자부심을 대내외적으로 표출하게 되었다. 당시 고구려는 자신들의 자부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광개토왕의] 무훈이 사해(四海)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국가는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히 살게 되었다. 오곡이 풍성하게 잘 익었다.

—〈광개토왕릉비〉

이 나라 이 고을이 가장 성스러움을 천하 사방이 알고 있다.

—〈모두루묘지〉

2. 북연 및 남연과의 우호관계 추진

407년, 후연에서 권력투쟁이 발생하였다. 후연왕 모용희가 반란을 일으킨 풍발 세력에 의해 피살되고 모용운이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였다. 북연 정권의 시작이다. 고구려계인 모용운은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409년에는 실권자인 풍발이 집권하였다. 고구려와 북연은 고구려가 우월한 입장에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한편 남연은 모용씨 일파인 모용덕(慕容德)이 일으킨 정권이다. 고구려는 산동 지방에서 성립된 남연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다음에서는 광개토왕이 새로 등장한 북연, 남연과 맺은 대외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1) 북연과의 관계

407년, 요서 지방에서 권력 교체가 단행되었다. 고구려 계통인 모용운이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였다. 모용운⁸은 국호를 대연(大燕)이라고 칭했다. 일반적으로 이때부터를 북연이라고 부르고 있다. 모용운은 본래 종족적으로 고구려계였다. 『진서(晉書)』를 보면 고운(高雲)이 고구려의 후예라고 기술하였다.⁹ 『삼국사기』도 고운의 할아버지는 고화(高和)이며,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간 무리라고 기록하였다. 모용운은

8 모용보가 태자일 때 동궁을 지켜 396년 시어랑이란 관직을 받았다. 그 후 모용희(慕容會)가 반란을 일으키자 공격해 죽인 공을 인정받았다. 후연왕 모용보가 양자로 맞이하면서 모용이라는 성씨를 주었다.

9 『자치통감』에 따르면, 고구려 고국원왕 12년에 모용황의 침입을 받아 환도성이 파괴되고 미천왕릉이 도굴되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고운의 조상은] 요서 지방의 청산(靑山: 요령성 금주)으로 옮겨졌다고 하였다.

즉위하자 본래의 성씨인 고(高)로 바꿨다.

후연과의 치열한 투쟁 끝에 요동 지방을 확보한 고구려는 요서 지방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추진하였다. 그것은 모용운이 고구려의 후손임을 내세워 고운이라고 개명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408년 3월, 광개토왕은 고운에게 사신을 보내 ‘[우리는] 같은 고씨 종족이다’라고 하며 서로 간에 우의를 다짐하고자 했다. 그가 본래 고구려계였다는 사실은 광개토왕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광개토왕의 생전 이름은 고담덕(高談德)이 아니었던가? 이와 같은 광개토왕의 호의에 호응하여 고운은 관료 이발(李拔)을 고구려에 파견하였다. 양국 간에 우호관계가 성립된 또 다른 배경은 당시 국제정세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고운은 북위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고구려와의 충돌을 원치 않았다. 고구려도 이미 요동 지방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리한 충돌을 원치 않았다. 여기에는 당시 고구려의 대외적 관심이 백제, 왜와의 갈등 관계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고운은 내부의 정치적 안정과 권력 장악이 당면한 과제였다. 고운 정권은 가중되는 북위의 압박에 점차 위축되었다. 북연의 영토는 후연에 비해서 상당 부분 축소된 상태였다. 실권을 장악하지 못한 고운은 집권 2년 만에 내부 반란세력에 의해 제거되었다. 409년, 풍발이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였다. 그는 즉위하면서 국호를 연(燕)이라고 하였다. 또 북위에 대항하기 위해 동진, 유연, 거란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추진하였다. 410년, 풍발은 살해된 고운을 무덤에 안장하고 사당을 세워주었다. 고구려를 의식한 조치였을 것이다. 이후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

고구려는 이미 요동 지방을 확보한 상태였다. 북연에 대해서는 우월한 입장에서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형성하였다. 중원에서는 북연을 멸망시킨 북위가 등장하였지만, 고구려의 요동 지방 지배는 계속되었다. 양국은 요하를 경계로 하여 국경을 형성하였다. 이후 요동 지방은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고구려 영토로서 존속되었다.

2) 남연과의 관계

남연¹¹은 후연에서 분리 독립하였다. 나라를 세운 모용덕은 전연왕 모용황의 막내아들이며 후연왕 모용수의 동생이다. 업성(鄴城)을 지키고 있다가 후연왕 모용수가 죽자 산둥반도 방면으로 이주하였다. 398년, 모용덕은 활대에서 연왕(燕王)을 자칭하였다가 남쪽으로 근거지를 옮겨 광고(廣固: 산둥성 청주)에서 400년에 황제 자리에 올랐다. 405년부터는 모용초(慕容超)가 다스리다가 410년 동진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광개토왕은 남연과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외교관계를 추진하였다. 이 상황에 대해서 『태평어람(太平御覽)』은 두 가지 기록을 남겼다. 하나는 『삼십국춘추(三十國春秋)』¹²를 인용하여 “[406년] 고구려가 천리마

10 이는 414년에 일찍이 고구려로 도망가 있던 동생 풍비(馮丕)를 북연으로 불러들여 ‘좌복야(左僕射) 상산공(常山公)’에 임명한 사실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후 북연에는 430년 풍발에 이어 그의 동생인 풍홍이 집권하였다. 북위의 공격이 심각해지자 435년 북연왕 풍홍(馮弘)은 고구려에 망명을 요청하였다. 436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북연의 왕성까지 가서 풍홍을 고구려로 데려온 사실은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11 본래 국호는 연(燕)이다. 그런데 이 시기 국호를 연으로 하는 후연(모용씨), 대연(고운), 연(풍발) 등 유사한 국호가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구분하기 위하여 남연이라 부른다.

12 남조 양 원제의 아들인 소방(蕭方) 등이 진을 중심으로 그 전후에 성립된 30개국의 역사를 기전체로 편찬한 역사서이다.

(千里馬), 곰가죽(生羆皮), 장니(障泥)를 헌상했는데, [남연왕] 모용초가 크게 기뻐하여 물소(水牛)와 앵무새(能言鳥)를 [고구려에] 보답으로 보냈다”라고 기록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십육국춘추(十六國春秋)』¹³를 인용하여 “[408년] 고구려에서 사신이 왔는데, 빠른 속도로 소식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 천리인(千里人) 10명과 천리마 1필을 가져왔다”라고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광개토왕의 외교 노력은 당시의 복잡했던 정치상황 극복과 관련이 있다. 모용초의 재위 기간(405년 8월~409년 8월)은 모용희가 후연왕으로 재위하던 기간(401년 9월~407년 9월)에 해당한다. 광개토왕과 모용희는 극심하게 갈등하고 있었다. 광개토왕은 402년 숙군성 공략, 404년 연군을 공략하여 요서 지방까지 진출하였다. 모용희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 405년 요동성, 406년 목저성을 공격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는 우군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408년은 후연이 멸망하고 모용운의 북연 정권이 들어선 직후에 해당한다. 광개토왕은 남연뿐만 아니라 북연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고구려가 보낸 선물은 남연과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빠른 소식을 주고받자는 의미에서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된다. 이로 볼 때 광개토왕은 산동 지방을 배경으로 건국한 남연과의 우호관계를 추진하여, 이를 배경으로 주변에 있는 북연, 백제, 북위 등 여러 나라를 견제하려 했다고 생각된다.

13 552년에 북위의 최홍이 5호16국시기의 역사를 기전체로 편찬한 역사서이다.

3. 백제와의 갈등

광개토왕 시기 백제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광개토왕릉비>에 풍부하게 나타나 있다. 하지만 양 기록을 비교해서 보면, 발생연대, 사건 내용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첫째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는 광개토왕 4년(395년) 기록을 마지막으로 하여 그 이후에 백제 관련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광개토왕릉비>는 양국 관계를 396년 이후부터 기록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백제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12세기경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414년에 기록된 <광개토왕릉비> 기록을 서로 비교할 때, 『삼국사기』가 사료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사료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광개토왕릉비>는 개인의 영웅담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과장과 왜곡의 가능성이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광개토왕이 즉위하기 이전의 양국 관계는 갈등관계였다. 이는 광개토왕의 할아버지인 고국원왕이 백제 근초고왕에게 평양성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부터이다. 광개토왕 시기 예성강,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양국의 대립과 갈등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광개토왕은 당면한 적이었던 백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으며, 백제는 고구려의 압박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을까?

먼저, 광개토왕이 즉위하기 이전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하자, 양국은 심각한 갈등관계로 접어들었다. 당시의 관련 기록을 비교해 보면 양측의 입장이 잘 나타난다. 고구려는 이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전쟁에서 패한 사건이라 회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승리한 백

제 측에서는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¹⁴

고구려는 고국원왕이 전사하자 큰 충격을 받았다. 국가 비상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소수림왕이 뒤를 이었다. 소수림왕은 먼저 국가에 닥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였다. 소수림왕 초기에 시행된 불교 도입, 교육기관인 태학의 설립, 국가의 통치기반인 율령의 반포 등이 그것이다. 소수림왕은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백제 공략을 추진하였다. 『삼국사기』에서 소수림왕의 대외관계 기록을 살펴보면 전진(前秦) 2회, 백제 3회로 나타난다. 여기서 전진과의 관계는 화친을 목적으로 한 사절 파견 기사인 것에 비해, 백제와의 관계는 모두 전쟁 관련 기사로 일관되어 있다. 소수림왕은 375년 수곡성(水谷城: 황해도 신계) 공략, 376년 백제 북방 공략, 377년 백제 침공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고구려의 대외정책 의도가 짐작된다. 소수림왕은 전진과의 화해를 추진하여 국력 소모를 줄이고, 모든 역량을 백제 공격에 집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왕을 살해한 백제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원수나 다름없었다.

고국양왕은 소수림왕에 이어 백제 공략을 계속 추진하고자 했다. 고국양왕은 386년 백제를 공략하였다. 하지만 고국양왕 즉위 초기에는 백제 공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것은

14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근초고]왕은 패하(溟河: 현 예성강) 강변에 군대를 매복시켜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 공격하니, 고구려 군대가 패배하였다. [그해] 겨울에 [근초고]왕과 태자는 정예 병사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쳐들어가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왕 사유(斯由: 고국원왕)가 힘써 방어하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근초고]왕은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삼국사기』 백제본기, 근초고왕 26년조).

당시 요동 지방의 세력 판도에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종래 고구려는 요동 지방을 지배해오던 전진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백제를 적극적으로 공략하였다. 그런데 384년, 요동 지방의 주인이 전진에서 후연으로 바뀌게 되었다. 고구려가 이 틈을 타 요동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힘이 분산되었다.

고구려의 공격에 대한 백제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377년 백제 근구수왕이 고구려 평양성을 공략하고, 386년 진사왕이 관방(關防)을 설치했으며, 389년 고구려의 남쪽 국경을 공략했다. 390년에는 달솔 진가모(眞嘉謨)가 이끄는 백제군에 의해 고구려 도곤성(都坤城)¹⁵이 함락되었다. 양국의 접경지역은 386년에 백제 측에서 청목령(靑木嶺)을 중심으로 관방을 설치했다는 기록¹⁶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학계는 청목령의 위치를 개성 지역으로 비정한다. 대체로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에 위치하며 마식령산맥의 서남단에 해당한다. 예성강 이남인 개성 지역이 백제의 주요 거점이었고, 대체로 예성강 중·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양국이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91년에 광개토왕이 즉위하였다. 광개토왕 시기의 백제 관계를 검토하는 핵심적인 자료로는 『삼국사기』와 <광개토왕릉비>가 있다. 그런데 양 기록을 비교해 보면 연대, 사건 내용 등에

15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도압성(都押城)이라고 달리 기록되었다.

16 386년 봄에 국내의 15세 이상인 사람들을 징발하여 관방을 설치하였는데, 청목령으로부터 북으로는 팔곤성(八坤城)에 닿고 서로는 바다에 이르렀다(『삼국사기』 백제본기 진사왕 2년조).

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¹⁷ 따라서 양국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기록에 나타난 차이를 염두에 두고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두 기록을 함께 제시한다(표1, 표2).

이와 같은 자료상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서, <광개토왕릉비> 기록을 중심으로 『삼국사기』 기록을 대조해가며 양국 관계를 추정해보자. 『삼국사기』를 보면 392년 광개토왕이 4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였는데, 백제 진사왕은 광개토왕이 전쟁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감히 맞서 싸우지를 못했다. 그 결과 고구려는 백제의 석현성(石峴城)을 포함한 10여 성과 한강 이북의 많은 마을을 점령하였다. 나아가 백제의 군사적 요충지인 관미성(關彌城)까지 함락하였다.¹⁸ 고구려는 이 공격으로 그동안 백제가 구축해 놓은 방어망을 돌파하였다.

고구려 공격에 대하여 백제는 크게 반발하였다. 백제는 393년 관미성 수복을 위한 공격, 394년 고구려 공격, 395년 패수전투 등 여러 차례의 반격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백제가 시도한 공격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 시기 『삼국사기』에 나타난 광개토왕 시기의 백제 관계를 요약해보면 군사적 우위는 이미 고구려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삼국사기』 내용과 비교하여 <광개토왕릉비> 내용을 보면

17 광개토왕의 즉위 시기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삼국사기』는 392년 5월로 기록했다. 『삼국유사』도 임진년(392년)에 즉위한 것으로 기록했다. 그런데 <광개토왕릉비>의 ‘영락 5년 을미’ 기록에서 을미년은 395년에 해당한다. 이를 역산해보면 광개토왕은 영락 원년(신묘년: 391년)에 즉위한 것이 된다. 따라서 실제 즉위는 391년 5월임을 알 수 있다.

18 10월 관미성 함락 후 11월 백제 진사왕이 죽었다. 그런데 『일본서기』는 백제에서 진사왕을 살해하고 아신왕을 세운 것으로 기록하였다. 진사왕은 어떤 이유로 인해 살해되었을 것이다.

표1 『삼국사기』의 백제 관련 기록

구분	기록 내용
392년	고구려본기 - 5월 광개토왕 즉위. - 7월 백제를 공략하여 10개 성을 빼앗음. - 10월 백제 관미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킴.
	백제본기 - 7월 광개토왕의 4만 명 병사가 공격함. 백제 진사왕은 광개토왕이 전쟁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막지를 못함. 석현성 등 10개 성이 함락됨. 한수 이복의 여러 부락을 빼앗김. - 10월 고구려에 관미성을 빼앗김.
393년	고구려본기 - 8월 남쪽 국경을 침범해 온 백제를 막았음.
	백제본기 - 8월 진무가 이끄는 1만 명의 백제군이 석현성 등 5개 성을 탈환하기 위해 먼저 관미성을 공격했으나 실패.
394년	고구려본기 - 7월 백제가 침입하니 광개토왕이 5,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격파함. - 8월 백제 방어를 위해 국경 남쪽에 7개 성 축조.
	백제본기 - 7월 수곡성 아래에서 고구려와 싸우다 패배하였음.
395년	고구려본기 - 8월 패수전투에서 승리하고 8,000명을 포로로 잡았음.
	백제본기 - 8월 진무가 이끄는 백제군이 패수전투에서 광개토왕의 7,000명 군대에게 패배, 8,000명 사상. - 11월 패수전투의 패전을 보복하기 위해 아신왕의 7,000명 병사가 청룡령까지 진격했다가 철군.
398년	백제본기 - 고구려 공격을 위해 한산 북쪽까지 갔다가 철수.
399년	백제본기 - 고구려 정벌을 위해 군사 징집.

표2 <광개토왕릉비>의 백제 관련 기록

구분	기록 내용
영락 6년 (396년)	광개토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백제국을 토벌하였다. ... 이에 58성 700촌을 획득하고 백제왕의 동생과 대신 10명을 데리고 개선하였다.
영락 9년 (399년)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 광개토왕이 평양으로 행차하여 내려갔다.
영락 10년 (400년)	광개토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군이] 남거성을 거쳐 신라성(국도)에 이르니, 그곳에 왜군이 가득하였다. 관군이 막 도착하니 왜적이 퇴각하였다. [고구려군이]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야의 중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 백제와 왜가 크게 무너졌다 ...
영락 14년 (404년)	왜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방의 경계에 침입하였다. ... 석성(石城) ... 연선(漣船) ... 광개토왕이 군대를 끌고 평양을 거쳐 ... 서로 맞부딪히게 되었다. 왕의 군대가 적의 길을 끊고 막아 좌우로 공격하니 왜구가 궤멸하였다. [왜구를] 참살한 것이 무수히 많았다.

백제 관련 사건 모두가 396년(영락 6년)에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삼국사기』의 여러 차례(392~395년)에 걸친 고구려 공격 사실을 <광개토왕릉비> 영락 6년 기사에 일괄하여 서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기록을 인용해 보자.

(영락 6년): 백제와 신라는 우리[고구려]의 속국이었던 관계로 그동안 조공해왔다. 그런데 신묘년(391년) 이후 왜(倭)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격파하였다. 그래서 신민(臣民)으로 삼았다. 그런데 [영락] 6년 병신년에 [광개토]왕은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대군이 백제의 국경 이남에 도착하여 일팔성 … 등을 공격해 빼앗고 백제 도성을 킵박하였다. 그런데 백제가 고구려에 불복해 감히 맞서 싸웠다. [광개토]왕은 격노해 병사를 거느리고 아리수(阿利水: 한강)를 건너 압박하니 백제군은 왕성으로 도망해 갔다. 이에 백제 왕성을 포위하였다. 위급해진 백제왕은 1,000명의 남녀와 세포(細布: 곱고 가늘게 짠 삼베) 1,000필을 헌납하고 왕 앞에 꿇어 앉아 스스로 “앞으로 영원토록 [광개토왕의] 노객(奴客)¹⁹이 되겠다”라고 서약하였다. 그러자 [광개토]왕은 은혜를 베풀어 지금까지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이후에도 [고구려에] 정성을 바쳐 순종할 것임을 문서로 남겼다. [광개토왕은] 이번 작전에서 58개의 성과 700개의 마을을 차지했으며, 백제왕의 동생과 대신 10명 등을 포로로 잡아 군대를 돌려 도성으로 귀환했다.²⁰

19 노객(奴客)은 <광개토왕릉비>, <모두루묘지>, <충주고구려비> 등 5~6세기 고구려 금석문에 나타나는 용어이다. 고구려왕을 상대로 자신을 신하로 낮추어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20 百殘新羅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破 百殘□□新羅以爲臣民. 以六年丙申

이 기록은 광개토왕의 백제 원정으로 유명한 사건이다. <광개토왕릉비>의 대외정벌 기록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 당시 고구려의 집중 공략대상이 백제였음을 추정케 한다. 이 사건을 요약하면, 백제가 왜와 연합을 도모하자 광개토왕이 몸소 백제를 공격하여 58개 성과 700개 촌락을 격파하고 마침내 한강 남쪽에 있던 백제 왕성을 포위하니 아신왕이 항복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58성 700촌에 대해서는 그 지명을 일일이 비정하기 어렵다. 단지 그중 미추성은 미추홀로, 오늘날 인천 지역으로 비정한다. 58성 700촌 지역은 대체로 한강을 비롯하여 북한강, 남한강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군은 수로를 따라서 백제를 공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의 수로라면 예성강, 임진강 등을 생각하게 된다.

고구려는 예성강, 임진강에서 한강에 이르는 지역을 공략했던 것인데, 내려왔던 길은 대체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예성강 하류로 내려와 황해도 나와서 강화도 부근을 지나서 한강 하류에서 거슬러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고구려군이 북한강, 남한강을 따라 백제 왕성(한성)으로 진격해왔을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군의 군사작전 범위가 상당히 넓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군의 작전반경이 한강 이북 지역, 나아가서는 남한강, 북한강 유역까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쨌든 이 전쟁은 고구려의 일방적인 승리로 기록되었다. 고구려군

王躬率□軍討伐殘國軍□□南攻取壹八城…□其國城，殘不服義 敢出百戰。王威赫怒渡阿利水 遣刺迫城□□侵穴□便圍城。而殘主困逼 獻□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跪王自誓 從今以後永爲奴客。太王恩赦 先迷之愆。錄其後順之誠。於是 得五十八城 村七百。將殘主弟并大臣十人旋師還都。

이 백제 도성을 포위하자, 백제 아신왕이 항복하며 “앞으로 영원토록 [광개토왕의] 노객이 되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였다. 동시에 백제는 “왜와 [앞으로] 화통하지 않겠다”라는 서약까지 하였다. 이때 고구려군은 아신왕의 동생과 10여 명의 대신을 인질로 잡아서 돌아갔다고 한다. <광개토왕릉비>는 고구려 당대의 사료라는 관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광개토왕릉비>가 광개토왕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훈적비로서 일부 과장된 진실이 있음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광개토왕릉비> 영락 6년 기록과 비슷한 시기에 해당하는 『삼국사기』 기록을 살펴보자. 백제본기를 보면, 392년 광개토왕은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 석현성을 비롯한 10여 성을 함락시켰는데, 백제 진사왕이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강 이북의 여러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이에 비해 고구려본기를 보면, 392년 광개토왕은 백제 관미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양 기록은 같은 해 발생한 사건이다. 같은 사건을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기록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백제는 석현성을 비롯한 10성이 함락당한 사실을, 고구려는 백제 관미성 함락 사실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것이 과연 동일한 사건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관미성은 끝이어서 백제본기에도 등장한다. 광개토왕에 의해 관미성이 함락되자 393년에 백제 아신왕은 고구려에 대한 반격을 시도하였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백제 아신왕이 말하기를 ‘관미성은 우리 북변의 요충지인데 지금 고구려 소유가 되었으니 애석하게 여기는 바이다’라 하면서 좌장 진무(眞武)에게 1만의 군사를 보내 관미성을 공격하게 했으나 실패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고구려는 백제의 전략적 요충지인 관미성을 함락한 것이다. 그렇다

면 백제가 그렇게 중요시하던 관미성은 어디일까? 『삼국사기』는 관미성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성의 사방이 절벽처럼 험준하고 바닷물로 둘러싸인 곳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이는 관미성이 섬이나 해안가에 위치함을 설명한 것이라 하겠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종래 강화도, 예성강 하구, 임진강~한강 하구, 오두산성(烏頭山城)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오두산성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나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다.

관미성 함락 이후 양국은 다시 충돌하였다. 394년 “백제가 쳐들어옴에 [광개토]왕은 날랜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역습하여 격파시키니 남은 적들이 밤중에 달아났다”고 하였다. 그 이듬해에도 백제 측의 반격이 있었다. 395년에 백제 아신왕은 좌장 진무에게 고구려를 정벌토록 하였다. 이 전투에 대하여 “광개토왕은 친히 병사 7,000명을 거느리고 패수(溟水: 예성강)가에 진을 치고 항거하니, 백제군이 크게 패해 죽은 자가 8,000명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양국 간의 전투에 나타난 충돌지점을 분석해보면 국경선을 대략 짐작해볼 수 있다. 광개토왕 시기 양국 간의 충돌지점을 『삼국사기』에서 뽑아보면 석현성, 관미성, 수곡성, 패수, 청목령으로 나타난다. 석현성은 예성강 이남 한강 이북 지역에 위치하는데, 그 위치가 황해도 개풍군 지역에 해당한다. 충돌지점과 그 위치 관계를 검토해볼 때 종래 임진강과 예성강 주변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양국의 국경선이 광개토왕 시기에 이르러서는 남으로 한강 유역까지 확대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여호규, 2012). 그렇지만 당시의 양국 관계를 분석해보면 <광개토왕릉비>의 기록처럼 고구려 측이 일방적으로 우세했던 것만은 아니다.

396년까지는 고구려의 군사적 우세가 지속되었다면, 이후로는 이

와 다른 성격의 사건들이 전개되었다. 백제 아신왕이 398년에 고구려를 치려고 군사를 내어 한산 북쪽의 목척에 이르렀다가 돌아왔으며, 399년에는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군사와 말을 크게 징발하였다고 한다. 수세에 몰려 있던 백제가 국면을 전환하여 고구려에 공세를 취한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상황이 변화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국내외 정치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백제의 외교전략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백제는 고구려의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서 왜와 연합을 추진하였다. 당시 왜는 신라의 해안지대를 침략하고 있었는데, 백제는 이러한 왜를 끌어들이어 대고구려전을 수행하고자 했다. 이 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397년 5월에 백제 아신왕이 태자인 전지(典支: 전지왕)를 왜에 인질로 파견하면서부터였다.²¹ 백제는 광개토왕의 군사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태자를 왜국에 보낸 것이다. 차기 왕위계승권자인 태자를 인질로 보내야 할 정도로 백제의 사정이 위급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아신왕은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397년 7월에 한강 남쪽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왕도에 사는 사람들을 모아 궁궐 서쪽에서 활쏘기를 익히게 하였다. 한편으로 402년 5월에 사신을 왜국에 보내 큰 구슬을 구하니 이듬해 2월에 왜국에서 사신이 왔고, 아신왕이 이를 맞아 특별히 후하게 위로했다고 한다. 그리고 “[405년] 태자 전지가 8년 동안의 인질생활을 마치고 왜에서 귀국할 때 왜왕이 군사 100명을 보내 호위했다”는 『삼국사기』 기록도 백제와

21 『일본서기』 권10 응신기 3년조에는 아신왕의 즉위에 왜가 관여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왜의 연합을 사실적으로 증명한다. 이는 백제와 왜가 “서로 화통(和通)했다”라고 표현한 <광개토왕릉비> 문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영락 14년(404년) 기사에 백제·왜 연합군이 고구려의 대방계를 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광개토왕릉비> 영락 9년, 10년 기사에 백제와 왜가 군사적으로 연합했다고 추정되는 관련 기록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고구려의 외교전략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고구려의 주된 공격대상은 백제였는데, 그 방향이 후연 방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삼국사기』에 광개토왕 9년(399년) 이후의 대외관계 기사가 모두 후연과의 갈등관계를 집중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에서 추론해볼 수 있다. 그 배경은 요동 지방의 정세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즉 후연은 서쪽에서 북위의 압력으로 계속 밀리게 되자 대외 전략을 전환하여 동쪽 즉 고구려 방면으로의 영역 확장을 기도하였다. 즉 후연왕 모용성과 그 뒤를 이은 모용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고구려 침략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구려는 후연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백제 방면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백제가 추진한 398년, 399년의 고구려 공격은 고구려의 상황을 눈치챈 반격이라고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광개토왕 시기의 국제관계는 고구려와 신라에 대항하여 왜와 백제가 서로 한편이 되어 싸운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광개토왕릉비>와 『삼국사기』 기록의 비교 검토에서 잘 나타나듯이, 당시 광개토왕이 남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적은 백제였다. 당시 고구려가 백제를 얼마나 증오하고 있었는지는 <광개토왕릉비>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고구려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백제에 비중을 두고 기술하였다. 고구려는 백제를 ‘백잔(百

殘)’이라고 하여 경멸에 찬 어투로 기술하였다. 백제왕을 ‘잔주(殘主)’라고 기술하여 노골적으로 경멸하려는 의도를 노출하였다. 왜는 백제보다 더 고구려가 정벌해야 할 대상이었다. 고구려는 왜를 용서할 수 없는 ‘절대 악(惡)’으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잡아 죽였다(영락 14년)”, “열 중 아홉가량을 모두 죽이거나 강제로 옮겼다(영락 10년)”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광개토왕릉비>에 기록된 왜에 대한 고구려의 인식은 백제가 끌어들이 이질적인 존재로서 과장되게 표현하였고, 이를 통해 백제와 왜에 대한 출정 명분과 정당성을 찾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광개토왕릉비>와 『삼국사기』의 백제 관련 기록을 비교하면 성격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삼국사기』는 광개토왕 시기 백제에 대한 고구려의 군사적 우위를 짐작할 수 있는 정도로 기록하였다. 반면에 <광개토왕릉비>는 고구려의 절대적인 우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광개토왕릉비>는 백제왕이 항복하며 왕의 동생을 비롯한 귀족을 인질로 보냈다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 『삼국사기』는 광개토왕에 의해 추진된 공격이 백제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성공한 것으로 기록한 것에 비해, <광개토왕릉비>는 고구려의 일방적인 승리로서 새겨놓았다. <광개토왕릉비>가 광개토왕의 훈적비로서 어느 정도 과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당시의 양국 관계를 분석하면, <광개토왕릉비>의 기록처럼 고구려의 일방적인 우세는 아니었다고 하겠다.

4. 신라에 대한 종속적 외교관계 수립

광개토왕 시기 고구려는 신라에 대해 상하 종속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관련 기록은 『삼국사기』와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나 있다. 하지만 양 기록을 살펴보면, 발생연대, 사건 내용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국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 기록에 나타난 차이를 염두에 두고 알아보아야 한다. 광개토왕 시기 고구려와 신라 관계를 요약하자면 우호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고구려가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하여 신라를 속민(屬民)화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는 5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4세기 후반경부터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이 본격화되었다. 급박하게 전개된 삼국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고구려와 신라는 동반자가 되었다. 사실 신라는 건국 이후부터 왜의 침입에 시달리고 있었다. 광개토왕 시기에 이르러 왜의 침략은 이전보다 빈번하고 강력해졌는데, 왜가 백제와 군사 협력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광개토왕의 신라 구원전쟁, 즉 경자년 출병과 연결된다. 광개토왕의 재위 기간에 신라는 나물이사금(재위 356~402년), 실성이사금(재위 405~417년)이 통치하였는데, 백제, 왜의 위협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지 고찰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삼국사기』와 <광개토왕릉비> 기록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당시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 비해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양국의 갈등 속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었다.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전환된 계기는 백제 독산성주의 신라 망명 사건(373년)

이었다.²² 이 사건을 계기로 우호관계를 지속해오던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대립관계로 변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대백제 전략의 일환으로 신라가 필요하였고, 신라 또한 고구려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국가적 안정을 지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양국의 이해관계에서 고구려는 신라를 끌어들이었다. 이때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으로 377년, 381년에 화북지방에 있던 전진에까지 사신을 파견하였다.

391년 즉위한 광개토왕은 이듬해 신라에 사절을 파견하였다. 사신을 통해 구체적인 광개토왕의 요구사항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때 신라 나물이사금은 고구려가 강하다는 것을 내세워 곧바로 실성(후일 실성이사금)을 인질로 보냈다. 고구려에 대한 신라의 인질외교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백제·왜 연합군이 신라를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구려에 저자세 외교를 벌이고 있던 신라 나물이사금은 사신을 보내 광개토왕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광개토왕릉비〉는 이 사건에 대하여 “왜인이 국경에 가득 들어와 성지를 부수고 노객(신라왕)을 왜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가 광개토]왕께 의지하고자 하니 구원해주기를 요청합니다”라고 기록하였다. 다급한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광개토왕은 신라에 대한 우월한 외교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구원병 파견을 약속하고, 신라 사신에게 계책을

22 백제의 독산성주(禿山城主)가 300명을 이끌고 투항해왔다. [신라 나물]왕은 [그들을] 받아들여 6부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이에 백제왕이 편지를 보내어 “두 나라가 화합하여 형제가 되기를 약속하였는데, 이제 대왕께서는 도망한 우리 백성을 받아들였으니 이는 [양국의] 화친과는 거리가 있으며 [내가] 대왕에게 바라던 바도 아니니, 돌려보내기를 요청합니다”라고 말했다. … 백제가 이를 듣고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삼국사기』 신라본기3, 나물이사금 18년조).



그림5 |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그릇(좌)과 서봉총 출토 은제그릇(우)(국립중앙박물관)

알려주어 돌려보냈다. 곧이어 광개토왕의 ‘경자년 출병’이 단행되었다. 고구려의 구원전쟁은 대성공을 거두고 종료되었다. <광개토왕릉비>에는 이때부터 신라왕이 처음으로 찾아와 광개토왕에게 조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왕실 관련 무덤이 조성된 경주 대릉원에서 고구려 또는 광개토왕을 연상케 하는 유물이 발견되었다. 금동관이 출토된 호우총(壺杆塚)에서는 ‘국상강광개토지호태왕(國置上廣開土地好太王)’이라는 광개토왕의 이름이 새겨진 청동그릇이 출토되었다(그림5-좌). 또한 금관이 출토된 서봉총에서는 은제그릇이 출토되었다(그림5-우). 이 그릇에는 고구려의 연호가 들어간 ‘연수원년태세재신묘(延壽元年太歲在辛卯)’라고 새긴 글씨가 있다.

광개토왕이 단행한 경자년 출병은 이후 고구려가 힘을 바탕으로 하여 신라를 종속적인 관계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고구려는 왜를 몰아낸 다음 보호를 명분으로 삼아 신라땅에 군대를 파견하여 주둔시켰다. 신라 왕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고구려군이 주둔한 것이다. 이후 고구려는 신라 내정에까지 간섭하는 등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신라 지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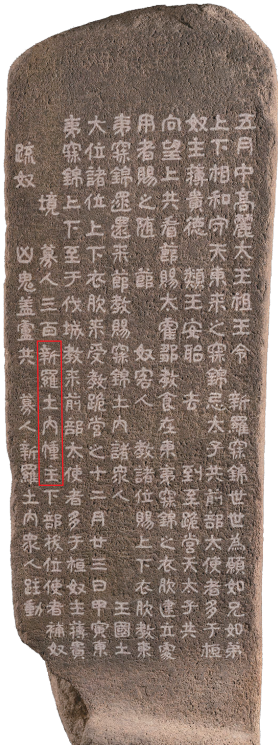


그림6 <충주고구려비>에 기록된 '신라토내당주(新羅土內幢主)'

주둔한 고구려군의 실상에 대하여 <충주고구려비>는 '신라토내당주(新羅土內幢主)'라고 기록하였다.²³

고구려 주둔군²⁴은 신라의 왕위 계승 문제까지 영향을 끼쳤는데, 실성이사금과 눌지마립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400년 '경자년 출병' 이후 일찌기(382년) 인질로 갔던 실성이 10년 만에 고구려에서 돌아왔다. 402년 나물이사금이 승하하면서 실성은 신라왕으로 즉위하였다. 『삼국사기』는 나물이사금의 여러 아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실성이 즉위했다고 기록했지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사실 실성은 이찬(伊漣) 대서지(大西知)의 아들로서 나물이사금과 혈연관계가 없다. 나물이사금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실성이

23 2019년 경주 월성 해자에서 5세기대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그중에 곡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당주라는 관직 명칭이 기록된 목간이 발견되어 신라가 당주라는 고구려 관직명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524년 법흥왕은 군사당주를 설치하였으며, 6세기대 금석문인 <단양신라적성비>, <남산신성비>,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 등에 당주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24 신라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군의 모습은 이외에도 『삼국유사』 권1 실성이사금조에 "[실성]왕은 태자 눌지가 덕망이 있음을 꺼려 죽이려고 하여 고구려의 군사를 청해서 거짓으로 눌지를 맞이하게 했다. 고구려병은 눌지가 어진 행실이 있음을 알고 창 끝을 돌려 [실성]왕을 죽이고 눌지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갔다"라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본서기』는 이후 464년까지도 신라땅에 고구려군이 존재했음을 기록하였다.

이사금(왕)으로 즉위하게 된 배경은 고구려가 실성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함이 당시 상황에 부합한다.²⁵ 고구려는 실성을 통해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신라 왕위 계승에 간여한 보다 직접적인 증거는 늘지마립간의 경우이다.

한편 실성이사금은 즉위하자 미사흔을 왜국에 파견하였다. 여기엔 왜국과의 우호관계를 통해 백제와 왜의 군사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왜는 이미 백제와 군사연합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는 미사흔을 억류하였다. 그리고 405년, 407년에 연이어 신라를 침공하였다. 실성이사금의 외교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신라의 선택은 이제부터라도 고구려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성이사금은 412년 나물이사금의 아들이자 미사흔의 형인 복호를 고구려에 인질로 파견하였다.²⁶

광개토왕은 신라를 고구려가 주도하는 질서 체계에 편입시켰다. <광개토왕릉비>는 이 상황을 ‘속민’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고구려가 사방에 있는 주변 세력에 대해 차별화된 인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질서 체계는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으로 주변 국가와 종족을 대표하는 중심 국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다.²⁷ 고구려는

25 실성이 신라왕이 된 배경은 석씨 세력의 도움과 고구려의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이기백·이기동, 1982).

26 실성이사금이 미사흔을 왜국에, 복호를 고구려에 인질로 파견한 것은 당면한 국가 정치상황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실성이 왕이 되자 나물왕이 자신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 것을 원망해 그의 아들을 해쳐 복수하려 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을 통해 또 다른 역사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다. 418년 박제상이 고구려에 들어가 인질로 잡혀 있던 복호를 구출해왔다.

27 동부여의 경우도 유사하다. <광개토대왕비>를 보면 “옛날 추모왕 때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었다”라고 기록하였다.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계자가 통치하는 신성한 국가라는 자부심이다.

고구려는 죽령 동남쪽의 일부 지역을 세력권으로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신라 지역 깊숙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5세기 이후부터 양국은 고구려의 일방적 우위 아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때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였고, 이는 신라가 왕권국가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신라에서는 고구려의 예속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433년경 신라·백제 간 군사연합²⁸ 추진이었다. 464년경에는 신라 영역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군을 제거하는 사건²⁹으로 나타났다.

5. 한반도에 출몰한 왜 격퇴

광개토왕의 백제 공략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왜의 존재이다. 일본(日本)이라는 국호는 7세기 이후에 생겨난 명칭이며, 그 이전에는 왜

28 433년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마립간 사이에 군사적인 협력관계가 추진되었다. 이를 '나제동맹'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9 신라국은 천황의 명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며 공물을 보내지 않았는데, 지금 8년째가 된다. 그리고는 '중국(中國)'의 마음을 몹시 두려워하여 고[구]려와 우호를 맺었다. 이로 말미암아 고[구]려왕이 날랜 병사 100명을 보내어 신라를 지켜 주었다. … 신라왕은 고[구]려가 허위로 지켜주는 것을 알고는 사자를 급히 보내 나라 사람들에게 "사람들이여, 집안에서 기르는 수탉을 죽이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는 나라 안에 있는 고[구]려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일본서기』 웅락천황 8년조).

(倭)라고 하였다.³⁰ 『삼국사기』를 보면 왜가 신라 박혁거세 8년경(기원전 50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신라를 침범한 것으로 나타나, 왜의 한반도 침략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알려준다. 『일본서기』에도 왜의 한반도 출병 기록이 나타난다. 하지만 당시 왜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5세기 당시의 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마토(大和)정권, 즉 현재 일본의 오사카(大阪) 지역 및 나라(奈良) 일대의 호족들이 연합하여 세운 정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삼국사기』는 고구려의 남진 과정에서 왜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 반면에 <광개토왕릉비>는 왜의 존재를 상세히 기록하였다.³¹ 광개토왕이 파견한 고구려군이 신라 지역에 있던 왜를 공략하여 가야 지역까지 추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왜는 백제와 연합해 고구려를 공격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해외의 정치 세력이 고구려와 백제 간의 갈등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국제관계로 볼 때 정치적인 관심과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이렇듯 『삼국사기』와 <광개토왕릉비> 기록은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양 기록을 종합하면, 당시의 국제정치 상황은 고구려와 신라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백제와 왜가 연합하여 갈등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광개토왕릉비>에 기록된 왜 관련 기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30 ‘왜(倭)’라는 용어는 중국 및 한국의 고대 역사서에 등장하는 명칭이다. ‘일본’과 관련된 용어는 607년에 왜가 수양제에게 보낸 국서에서 “해뜨는 곳의 천자가 해지는 곳의 천자에게(日出處天子致書日沒處天子)”라는 표현에서 시작되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0년조에 “왜국(倭國)이 이름을 고쳐 일본(日本)이라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31 왜라는 명칭은 8회가량 기록되었다. 4회는 왜(倭), 2회는 왜구(倭寇)로 적혀 있으며, 왜인(倭人), 왜적(倭賊)이 각각 1회이다.



그림7 | <광개토왕릉비>에 기록된 '왜(倭)', '왜적(倭賊)'(제2면 하단부)

1) 백제와 연합한 왜

<광개토왕릉비>에는 왜라는 존재가 등장한다. 광개토왕이 집권하면서 백제는 고구려의 압박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백제는 광개토왕의 남진에 대처하기 위해 왜와의 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본서기』는 392년 진사왕을 죽이고 즉위한 아신왕의 등장 배경에 백제 진사왕과 왜국 간의 불화가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왜의 후원을 받았음을 암시한 것이다. 아신왕은 397년 여름 5월에 왜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태자 전지를 볼모로 보냈다. 이후 402년 5월에 사신을 왜국으로 보내 큰 구슬을 구하니, 다음 해 2월에 왜국의 사신이 왔고, 아신왕이 맞이하여 특별히 위로했다고 한다. 백제와 왜가 긴밀하게 연합했음을 알려준다. 광개토왕의 등장 이후 백제는 왜의 군사력을 동원해 고구려에 대항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편, 19세기 후반 압록강변에서 발견된 <광개토왕릉비>에 기록되어 있는 ‘왜’라는 글자는 일본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³² 관련 내용 중에서 특히 영락 6년 이른바 ‘신묘년 기사’는 너무도 유명한 문구로 등장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왜를 중요한 정벌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일본 학자들은 “백제(백잔)와 신라는 옛날부터 속민이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쳐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391년)부터 [바다를] 건너와 … 백제, □□, 신라를 격파하여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하였다.³³ 이 문구는 당시의 정치상황과 부합하여 고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근거 사료로 활용되었다.³⁴ 이는 한·일 고대사 연구자의 관심거리로 등장하여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과 논

32 일본땅이 아니라 한반도 너머 압록강에 인접한 언덕에서 발견된 <광개토왕릉비>에 일본의 옛 명칭에 해당하는 ‘왜’라는 글자가 등장하였다. 수수께끼로 가득 찬 일본 고대사의 단편을 고구려시대의 비석에서 발견한 일본 연구자들은 큰 관심을 가졌다. 이는 천황제의 부활과 군국주의를 향해 달려간 당시의 정치상황과도 부합하였다.

33 이를 처음으로 연구한 학자는 1889년 일본 학자인 요코이 타다나오(横井忠直)였다. 그는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 등을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하였다. 이후 일본 학자들은 이 기록을 『일본서기』에 보이는 ‘신공황후(神功皇后)가 4세기 후반 한반도 남부지방을 정벌하고 다스렸다’(한반도 남부영역설)는 기록 즉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의 존재 사실을 증명해주는 근거 사료로 활용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곧이어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의 식민지정책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남·북한 학계의 비판에 이어 198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 학계도 이 논쟁에 참여하였다(王健群, 1985).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되어 발족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임나일본부가 존재했다고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연구자들에게서 아직도 임나일본부와 연결하려는 주장이 있음은 주지하는 바다. 이에 대해 4세기 말 5세기 초 당시 백제와 왜 사이에 있었던 군사협력 사실을 『일본서기』 편찬자가 천황주의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윤색해낸 창작물에 불과하다는 연구(홍성화, 2010)가 참조된다.

34 『일본서기』에 기록된 임나(任那)에 일본부(日本府)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다스렸다고 하는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은 신공황후가 보낸 왜군이 369년 한반도에 건너와 7국과 4읍을 점령하였고, 그 뒤 임나에 일본부가 설치되었으며, 562년 가야가 멸망할 때까지 존속하였다고 한다.

란이 야기되었다.³⁵ 신묘년 기사가 내포하고 있는 결론의 중요성은 가아를 비롯하여 삼국 및 왜 관계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양국의 우호관계를 <광개토왕릉비>에서는 ‘백제와 왜가 서로 통했다’라고 하였다. <광개토왕릉비>는 이와 같은 백제·왜의 군사연합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영락9년(399년): 백잔(백제)이 맹세를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³⁶

영락 14년(404년): 왜가 느닷없이 대방(帶方)의 경계 지역에 침입하였다. [왜는] 백제군과 연합해 석성을 공격하고 ... 전함을 서로 연결하여 ... [이에 광개토]왕께서 몸소 군대를 이끌고 평양을 거쳐 ... 선두의 군대가 서로 충돌하였다. 광개토왕의 군대가 적의 길을 끊고 막아 좌우로 공

35 비문에서 관독된 글자는 1,775자가량이다. 건립된 지 1,600년 정도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비문이 훼손되었다. 특히 발견 당시 표면에 달라붙은 이끼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글자 훼손이 일부 있었다고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광개토왕과 주변 국가 간의 관계를 기록한 제1면이다. 여러 국가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후대 정치적 필요에 의한 인위적 훼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문에 대한 여러 종류의 탁본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석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그중에서도 영락 6년조 부분을 두고 해석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바다를 건너온 주체는 왜가 아니라 고구려였다는 해석이 제기되었다(정인보, 1955; 박시형, 1966), 극단적으로는 일제가 정치적 인 목적을 가지고 비문을 석회로 변조했다는 주장(이진희, 1972) 등도 제기되었다. 논란을 정리하면, 탁본을 어느 정도까지 신빙하느냐 하는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 비문의 단편적인 글자 해석을 지양하고 비문의 문장구조를 파악하여 당시의 역사상과 부합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학계는 <광개토왕릉비>와 『삼국사기』에 보이는 왜의 실체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신묘년 기사에서 훼손된 글자를 어떻게 복원해야 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어떤 글자를 삽입해 복원해야 하는지 또는 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한·중·일 학계에서 당시의 역사상과 합리적으로 연결, 해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장이 제출되었고,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36 百殘違誓與倭和通.

격하니 왜구가 케멸되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목을 베어 죽었다.³⁷

〈광개토왕릉비〉는 “신묘년(391년) 이래 왜가 [바다를] 건너왔다”라고 기록하였다. 왜가 한반도 상황에 직접 간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91년에 들어온 왜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문이 마모되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백제가 왜와 군사연합을 추진한 구체적인 계기를 생각해보자면, 영락 6년(396년)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백제 왕성이 함락되고 아신왕이 항복하며 “앞으로 영원토록 [광개토왕의] 노객이 되겠다”라고 맹세했던 사실이 떠오른다. 고구려군에 의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던 백제는 복수를 위해 왜와 연합한 것이다. 연합 사실은 영락 9년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백제는 3년 전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하지만 백제·왜 연합의 내용, 광개토왕의 대응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상황을 알기 어렵다.

이와 같은 왜·백제의 군사연합은 400년에도 실행되었다. 영락 10년(400년) 기사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 근거는 ‘잔왜궤도(殘倭潰逃)’³⁸라는 문구에서 ‘잔왜’를 백제와 왜로 해석할 수 있는 데 근거한다. 또한 404년에는 왜와 백제가 연합하여 고구려 영토가 된 옛 대방군 지역을 공격하였다.³⁹ 이 지역은 북으로는 재령강 남쪽, 남으로는 멸악산맥 이

37 而倭不軌，侵入帶方界。□通殘兵□石城□連船□□□，王躬率往討 從平穰□□□鋒相遇。王幢要截盪刺，倭寇潰敗，斬煞無數。

38 중국 학자 왕건군(王健群)은 ‘잔왜궤도(殘倭潰逃)’라고 새롭게 판독하였다. 하지만 ‘백제(百殘)와 왜(倭)’로 해석하지 않고 ‘잔여의 왜’로 해석하여 백제와 왜를 연결하지 않았다.

39 중국 학자 왕건군은 404년 기록에서 ‘화통잔병(和通殘兵)’이라는 부분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북 지역에 해당한다. 사실 왜가 멀리 서해안까지 우회해 들어와서 고구려 깊숙이 대방 지역을 침범할 만한 어떤 이유도 찾기 어렵다. 이 공격은 왜·백제 연합군이 해로를 활용하여 대규모 연합공격을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광개토왕은 이 소식을 듣고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평양으로 내려왔다. 광개토왕 군대는 대방 지역을 침략해온 왜를 공격하였다. 구체적인 전과를 기록한 부분이 마모되어 그 내용은 추적하기 어렵다. 하지만 ‘연선(連船)’이라는 문구를 통해 해안가에 배를 서로 묶어둔 채로 상륙해 쳐들어온 왜·백제 연합군의 상황, 그리고 광개토왕의 군대가 길목을 차단하여 이들을 좌우에서 협공해 승리한 전투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 결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왜군을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한다. 고구려 영토에 무단으로 침범해 온 왜군을 격멸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했던 고구려군의 분노에 찬 모습이 떠오른다. 아마도 일찍이 평양성에서 백제군에 의해 할아버지인 고국원왕이 살해당했던 모욕을 갚고, 고구려의 노객이 되겠다는 맹세를 어기고 왜와 함께 자신의 영토에 무단침입한 백제군에 대한 응징의 결과였을 것이다. 광개토왕 군대의 요격으로 왜·백제 연합군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2) 신라 지역을 침공한 왜

『삼국사기』는 왜가 여러 차례 신라를 침략했음을 기록하였다. 신라는 건국 이래 수시로 침범해오는 왜가 골칫거리였다. 특히 광개토왕 시기에 이르러 왜의 침략은 한층 빈번해졌다. 신라는 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의 힘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러한 노력은 392년 나몰이사금의

표3 『삼국사기』의 광개토왕 시기 신라를 침공한 왜·백제 관련 기록

연도	내용	시기
393년	왜인이 금성(왕성)을 에워싸고 5일 동안 [포위를] 풀지 않았다. … [나물]왕이 날쌔 기병 200명을 먼저 보내 적이 후퇴하는 길을 막고, 또한 보병 1,000명을 보내 독산까지 추격하였다. [왜인들] 협공해서 크게 물리쳤는데, 죽이거나 사로잡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나물이사금 38년
403년	백제가 변경을 침입했다.	실성이사금 2년
405년	왜병이 와서 명활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왕이 기병을 이끌고 독산의 남쪽에서 잠복하였다가 두 번 싸워 그들을 깨부수고 300여 명을 죽여 그 목을 베었다.	실성이사금 4년
407년	왜인이 동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실성이사금 6년
408년	[실성이사금은] '왜인이 대마도에 군영을 설치하고 무기와 군량을 쌓아 놓고서 우리를 습격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왕은 우리가 먼저 정예 군사를 뽑아 적의 병력을 격파하려고 했다. … 정벌을 중지하였다.	실성이사금 7년

인질외교로 시작되었다. 실성을 고구려로 보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와 신라 간에 종속적인 외교관계가 맺어졌다. 하지만 왜의 신라 침략은 단순하게 보이는 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 이면에는 백제가 있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광개토왕 시기에 이르러 백제와 왜는 군사적으로 연합한 상태였다. 표3은 『삼국사기』에 나타난 관련 기록이다.

표3을 보면 왜가 신라를 공격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403년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였다. 고구려의 침공을 막아내기에 급급했던 백제가 신라를 공격한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373년 독산성주의 신라 망명 사건 이후 양국 관계가 적대관계로 전환된 이후 백제의 대응이라 하겠다. 백제의 입장에서 신라는 이미 고구려와 연합한 상태이므로 공동의 적이었다. 따라서 403년 사건은 고구려·신라 연합군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백제

측의 고육지책으로 생각된다. 이때 왜의 협력이 수반했음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광개토왕 시기 왜가 신라를 공격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393년 신라 왕성인 금성을 5일 동안이나 포위했다는 사실, 405년 왜가 금성 근처까지 쳐들어와 왕성을 지키는 명활성⁴⁰을 공격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 공격의 배후에 백제가 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광개토왕릉비〉는 『삼국사기』 기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보를 기록하였다. 양 기록은 사건 내용이나 발생 연도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 기록에 나타난 상황으로 전반적인 양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관련 기록이다.

영락9년(399년): 백잔(백제)이 맹세를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 신라 [나물]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왜인이 국경에 가득 쳐들어와 성지를 모조리 부수고, 이 노객(老客: 나물왕)을 왜의 백성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여 [광개토]왕에게 귀의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은혜롭고 자애로운 광개토왕께서는 신라왕의 충성을 가늠하게 여겨 신라 사신을 돌려보내면서 비밀리에 계책을 알려주면서 돌아가서 [계책을] 보고 하도록 했다.⁴¹

40 신라는 왕성을 보호하는 성곽인 나성(羅城)이나 장성(長城) 등을 별도로 축조하지 않았다. 대신에 동으로 명활산성, 서로 서형산성, 남으로 남산성 등 주변에 산성을 축조하여 왕성을 보호하였다. 명활성은 경주 동쪽에 있는 명활산에 처음에 토성으로 쌓았다가 석성으로 개축하였다. 길이 4.5km가량의 포곡식 산성이다.

41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 稱其忠誠, 特遣使還告以密計.

[영락] 10년(400년): 광개토왕은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
 토록 교시하였다. 남거성에서부터 신라성에 이르기까지 왜군이 가득 차
 있었다. 관군(官軍)이 도착하자 왜적은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관군은]
 왜적의 배후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종발]성
 은 즉시 항복하였다. 이에 [임나 또는 신라] 사람에게 [이 성을] 지키게 하
 였다.⁴² [이어서] 신라성과 염성을 공격하자 왜구가 크게 무너졌는데, 성
 안에 있는 열 중 아홉가량을 모두 죽이거나 강제로 옮겼다. [이 성을 임나
 또는 신라] 사람에게 지키게 하였다. … 나머지 왜구는 모두 흩어져 도망
 갔다. 또한 □성을 탈취하고 [이 성을 임나 또는 신라] 사람에게 지키게 하
 였다. 이전에는 신라왕이 직접 와서 조공 문제를 이야기한 바 없었다.
 □□□광개토경호태왕 때에 이르러 [신라]왕이 … 조공해왔다.⁴³

영락 9년, 백제와 왜가 연합하였다. 광개토왕은 그 소식을 듣고서 평
 양으로 행차하였다. 양국이 연합한 상황은 그 이듬해인 영락 10년조
 에 기록되어 있다. 신라 나몰이사금이 사신을 파견해 광개토왕을 찾아
 왔다. 광개토왕이 사신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는 왜가 신라를 침공해
 왔다는 것이다. 왜가 성벽과 해자를 모조리 부수고 나아가 신라성까지
 점령하려고 한다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 기록은 표3의 『삼국사기』

42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 이 문구는 세 차례 기록되었다. 이에 대해 학계의 다양한 해석
 이 있는데, 라인(羅人)을 임나가야 사람 또는 신라 사람으로 보느냐 하는 견해가 대표적
 이다. 이는 비문 해석의 차이, 당시 국제정세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라 사
 람으로 이해하는 견해(신기영, 2017)가 당시 상황에 좀 더 부합된다.

43 十年庚子 教遣步騎五萬往救新羅, 從男居城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自乘背
 急迫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即歸服 安羅人戍兵, 拔新羅城 監城 倭寇大潰 城內十九 盡拒隨
 倭 安羅人戍兵, 新羅城 … 殘倭潰逃 拔□城 安羅人戍兵, 昔新羅寐錦 未有身來論事, □□
 □□廣開土境好太王□□□寢錦 … 朝貢.

393년, 405년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과장된 기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백제가 있었다. 백제·왜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하고 뒤이어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모의한 것이 이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정을 들은 광개토왕은 왜를 물리칠 수 있는 계책을 신라 사신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광개토왕은 그 이듬해에 신라 구원군을 파견하였으니, 이른바 ‘경자년 출병’이다. 400년, 광개토왕은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된 5만 대군을 파견하였다. 5만 명에 달하는 파병은 4~6세기 당시 삼국이 동원한 병력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 고구려군은 정해진 교통로를 따라 신라 영역으로 들어갔다.⁴⁴ 그런데 이 내용을 기록한 비문이 상당 부분 마멸되어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 확인 가능한 내용을 소개하자면, 고구려군은 신라성(新羅城), 염성(鹽城)으로 쳐들어와 성안에 있던 왜적을 물리쳤다. 그때 적군 열 명 중 아홉 명을 죽이거나 강제로 옮겼다고 한다. 크게 패배한 왜적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나가야 지역까지 도망가기에 이르렀다.⁴⁵ 이를 통해 임나가야도 백제, 왜 연합군에 협력했던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고구려 원정군은 백제·왜 연합군을 궤멸하였다. 이후 신라는 고구려의 군사 지원에 보답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광개토왕릉비>는

44 5만 명의 대군이 어느 길을 이용하여 경주까지 갔을까? 사실 그렇게 많은 군대가 통과할 수 있는 교통로라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길이었을 것이다. 그 교통로는 분명치 않지만, 백제의 영역을 피해서 오늘날의 강원, 충청 지역을 통과하였을 것이다. 좀 더 추정해 보자면 고구려군은 철원-춘천-원주-충주를 거쳐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 땅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45 이 사건은 후일 『일본서기』권19 흠명 2년조에도 기록되었는데, “옛적에 신라가 고려에 도움을 요청하여 임나와 백제를 공격하였으나 그래도 이기지 못하였다. 신라가 어찌 홀로 임나를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이 전쟁의 여파가 왜국까지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8 |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함안박물관)

“이전에는 신라왕이 조공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이후 신라왕이 직접 와서 조공했다”라고 기록하였다. 고구려는 신라 구원에 명분을 두었지만, 실제로는 신라뿐만 아니라 임나가야 지역에까지 고구려 주둔군을 파견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고구려는 이를 계기로 죽령 동남쪽의 일부 지역을 세력권에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신라 지역 깊숙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400년에 단행된 경자년 출병은 신라뿐만 아니라 가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갑자기 나타난 고구려의 중무장한 기병을 경험한 신라, 가야는 이를 계기로 무기 체계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한다. 신라, 가야 지역에서 발견되는 마구나 갑옷 등은 고구려 원정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9년 경주시 황오동 쪽샘지구 C10호 무덤에서 거의 완전한 상태로 출토된 5세기에 해당하는 말갑옷은 고구려 중장기병을 연상시킨다. 1992년 신문배달원이 함안군 가야리 말이산 자락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철제조각을 발견해 신고하였다. 이곳은 아라가야(安羅)의 왕성이 있던 지역이다.⁴⁶ 조사 결과 5세

46 말이산에는 아라가야 왕실과 관련된 대형 고분군이 조영되어 있다. 인근에서 둘레 2km에 달하는 가야시대 최대의 토성 유적이 확인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에 해당하는 목곽분에 부장된 대형 말갑옷으로 밝혀졌다. 그 형상으로 볼 때, 왜를 추격해 가야 지역까지 원정을 하고 돌아간 광개토왕의 군대를 연상케 한다.

6. 거란·숙신·동부여에 대한 지배권 확립

광개토왕 시기 고구려는 주변의 국가와 종족을 대표하는 중심 국가였다. 광개토왕은 인접해 있는 국가를 고구려가 주도하는 질서 체계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질서 체계는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에 근거한다. <광개토왕릉비>는 고구려가 신성한 국가로서 ‘하늘의 혈통을 계승한 후계자(천제의 아들)가 통치하는 국가’라는 왕실의 인식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광개토왕은 주변에 있던 정치 세력인 거란, 숙신, 동부여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1) 거란 공략

고구려의 서북쪽에는 거란(契丹)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거란은 요하 상류 지역에 있던 세력이다. 그 존재에 대해서는 『진서(晉書)』에서부터 나타난다. 일명 ‘해단(奚丹)’이라고도 한다. 거란은 유목민족으로서 반농반목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8개 부락으로 구성되었다. 거란은 요서 지방의 북쪽에 해당하는 서요하 부근의 시라무렌하(西拉木倫河)와 노합하(老哈河) 유역에서부터 동남쪽으로 고구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광개토왕은 서북쪽으로도 세력을 확장하였다. 『삼국사기』는 “[392년] 9월에 북으로 거란을 쳐서 남녀 500명을 사로잡고 또 본국(고구려)이 빼앗겼던 백성 1만 명을 타일러서 데려왔다”라고 하였다. 이 내용에 보이는 ‘빼앗겼던 본국 백성 1만 명’은 378년 소수림왕대에 있었던 거란의 침략 사건⁴⁷과 연관된다. 광개토왕은 거란을 공격하여 소수림왕 때 거란에 포로로 잡혀 갔던 고구려 백성을 되찾아온 것이다.

한편 고구려의 거란 공략과 관련하여 〈광개토왕릉비〉 영락 5년(395년) 기사를 보면 패려(穉麗)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패려가 고구려에 대한 [□□]을 하지 않으므로 영락 5년 을미에 [광개토]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부산, □산을 지나 염수에 이르러 그 3개 부락과 600~700영(營)을 격파했는데, 노획한 소·말·양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에 왕이 행차를 돌려 양평도를 지나 동으로 □성, 역성, 북풍, 오비□로 오면서 영토를 시찰하고 수렵을 한 후에 돌아왔다.⁴⁸

이 기록은 광개토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패려를 정벌한 기록이다. 광개토왕 군대는 패려의 3개 부락과 600~700영을 격파하고 수많은 소, 말, 양 등 가축을 전리품으로 몰고 귀환하였다. 여기서 ‘영(營)’은 소규모의 유목민 군영(軍營)인 것으로 해석된다. 패려의 정체

47 거란이 [고구려] 북쪽 변경을 침범하여 여덟 부락을 함락하였다(『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8년조).

48 王以穉麗不□□人，躬率往討。過富山·負山，至鹽水上。破其三部洛六七百營，牛馬群羊，不可稱數。於是旋駕，因過襄平道·東來□城·力城·北豐·五備□，遊觀土境，田獵而還。

는 무엇일까? 학계는 이 패러에 대하여 거란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특히 거란 8부의 하나인 필혈부(匹紮部)를 주목하였다(박시형, 1966). 필혈부는 고구려의 서북쪽인 시라무렌하 유역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던 유목 세력이다.

이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염수(鹽水)⁴⁹이다. 즉 소금호수 또는 소금강을 뜻하는 염수라는 용어는 위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이 영락 5년 기사는 『삼국사기』 광개토왕 원년 기사를 다르게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이미 요동 지방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 서북쪽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광개토왕이 직접 정벌을 추진한 명분이 무엇인지는 비문이 훼손되어 파악하기 어렵다. 당시 후연, 북위, 고구려 사이에 끼어 있던 거란의 정치적 선택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고구려에 조공하지 않는 등의 비협조적인 상황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거란을 공략한 배경에 대하여 후연에 대한 견제(신정훈, 2013) 또는 고구려가 대외정복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군수물자를 획득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井上直樹, 2012).

2) 숙신 공략

고구려의 북방에는 숙신(肅愼)이란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명 식신(息愼)이라고도 한다. 선진(先秦)시대에는 숙신으로, 한대에는 읍

49 일반적으로 시라무렌하 상류의 광제호(廣濟湖: 요 시기 명칭)를 말한다. 현재는 중국 내 몽고자치구 동오주목심기(東烏珠穆沁旗)에 위치한 소금호수인 액길노이(額吉淖爾)로 파악된다.

루(捐婁)로, 북위대에는 물길(勿吉)로, 당대에는 말갈(靺鞨)로 불렸다.⁵⁰ 당시 숙신의 위치는 북옥저의 북쪽 지방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관구검(卍丘儉)의 고구려 침공 사건 때 동천왕이 남옥저에서 북옥저 방면으로 달아나자 현도태수 왕기(王頎)가 추격하여 숙신의 남쪽 경계에 이르러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숙신의 세력 근거지는 송눈평원(松嫩平原)⁵¹에서 흑룡강(黑龍江) 중·하류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심은 후일 발해의 동경성(東京城)이 있었던 중국 흑룡강성 영안(寧安) 일대를 둘러싼 지역이라 하겠다(이정빈, 2019).

고구려와 숙신은 갈등관계였다. 280년에 숙신이 고구려를 침략해 백성을 살해하니, 고구려 서천왕이 동생인 달가(達賈)를 보내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숙신의] 단로성(檀盧城)을 빼앗고 추장을 죽였으며, 600여 가(家)를 부여 남쪽의 오천(烏川)으로 옮기고 부락 6~7곳에서 향복을 받고는 고구려에 의지하여 살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이 전해진다.⁵²

광개토왕은 숙신 지역에 대한 보다 확고한 지배를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에 대해 <광개토왕릉비> 영락 8년(398년)에 “[일부] 군대를 파견하여 백신토곡(帛愼土谷)을 관찰 순시케 하였다. 이때 막□라

50 『진서(晉書)』는 숙신이라고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후한서』와 『삼국지』는 읍루라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진서』 숙신씨전에 “일명 읍루라고도 한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같은 세력임을 알 수 있다. 읍루는 후조(後趙)를 비롯하여 5세기 후반대까지 중원의 여러 세력과 교류하였다. 『진서』에는 숙신의 지리적 위치와 산물, 생활풍습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51 오늘날 중국 흑룡강성 서남부와 길림성 서북부에 펼쳐진 퇴적평야지대를 말한다.

52 『삼국사기』 권5 고구려본기 서천왕 11년조.

성, 가태라곡의 남녀 300여 인을 잡아왔다. 이후로부터 [숙신은] 조공을 바치기로 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⁵³ ‘백신토곡’은 ‘식신토곡(息愼土谷)’으로도 판독된다. 그렇다면 광개토왕이 공략한 백신토곡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고구려 북방에 있던 세력인 숙신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유력하다.⁵⁴ ‘관백신토곡(觀帛愼土谷)’이라는 문구에서 ‘관(觀)’이라는 글자를 주목하자. 관은 관찰 또는 시찰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숙신 지역이 이미 고구려의 예속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숙신은 이미 서천왕 시기에 복속된 바 있다는 『삼국사기』 기록을 상기하자. 숙신이 ‘이후부터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기로 했다’는 문구는 앞서 광개토왕에 의한 경자년 출병 결과 신라왕이 고구려에 조공했다는 기록과 유사한 면이 있다. 따라서 광개토왕의 숙신 공략은 종전의 예속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3) 동부여 공략

고구려의 동쪽에 동부여(東扶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동부여는 고구려 건국신화와 관련하여 나타난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은 “아란불이 해부루왕에게 권하여 나라를 읍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했다”라고 기록하였다.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의 「동명왕편」에도

53 敎遣偏師，觀帛愼土谷，因便抄得莫口羅城加太羅谷，男女三百餘人。自此以來，朝貢論事。

54 강원도의 동예(濱田耕策, 1974), 백제(王健群, 1984), 신라(서영수, 1989) 지역에 있는 세력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유사한 기록이 있다. 하지만 <광개토왕릉비>는 고구려 건국신화와 관련하여 북부여와 관련되었음을 기록하였다. 이는 『위서(魏書)』, 『북사(北史)』 등 중국 측 역사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광개토왕릉비>는 광개토왕 시기에 동부여라는 존재가 있음을 기록하였다. 영락 20년(410년) 기사에 “동부여는 옛날 추모왕 때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었는데 도중에 배반하여 조공해 오지 않았다. [광개토왕]은 몸소 군대를 이끌고 가서 동부여를 토벌하였다. 왕의 군대가 부여성에 이르자 온 나라가 모두 두려워하여 복종하였고 … 태왕의 은혜가 온 나라를 덮게 되자 군대를 철수하였다. 그때 태왕의 교화를 사모하여 광개토왕 군대를 따라온 자가 미구루압로, 비사마압로 … 무릇 공격하여 격파한 성이 64개, 촌락이 1,400개나 되었다”⁵⁵라고 기록하였다.

이 기록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410년에 동부여를 토벌하였다. 동부여는 고구려 시조인 주몽 때부터 고구려에 복속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고구려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개토왕이 공략한 명분은 동부여가 조공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토벌(討伐)이라고 기록하였다. 그 내용은 광개토왕이 몸소 군대를 이끌고 동부여를 토벌하니 온 나라가 항복하였다고 한다. 귀환할 때 다섯 압로(鴨盧)가 광개토왕을 따라왔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광개토왕릉비>에서만 볼 수 있는 독자적 기록이다.

이렇게 <광개토왕릉비>에 갑자기 나타난 동부여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고구려의 동쪽에 있던 부여를 의미하는

55 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王恩普覆，於是旋還。又其慕化隨官來者，味仇婁鴨盧，卑斯麻鴨盧，樁社婁鴨盧，肅斯舍鴨盧，□□□鴨盧。凡所攻破城六十四，村一千四百。

용어일 것이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285년경, 모용씨가 부여를 공략하자 부여왕의 자제들이 옥저 땅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자치통감』의 기록을 주목하여 옥저 땅으로 도망해온 세력이 세운 국가를 지칭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하지만 동부여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존재한 세력이었는지, 그 위치에 대해서는 두만강 유역, 길림 지역, 함경도 지역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광개토왕을 따라온 압로는 동부여의 귀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도중에 배반하고 조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중반불공(中叛不貢)’이라는 기록을 통해 고구려에 예속된 바 있던 동부여가 배반해 조공을 하지 않으니, 광개토왕이 재차 정벌하여 그 지배권을 보다 강화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金鉉求, 1985,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 동북아역사재단, 2007,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 박시형, 1966, 『광개토왕비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 박진석, 1996, 『고구려 호태왕비 연구』, 아세아문화사.
- 王健群 著, 林東錫 譯, 1985,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 李進熙 著, 李基東 譯, 1987, 『廣開土王陵碑의 探究』, 일조각.
- 강재광, 2009, 「고구려 광개토왕의 요동확보에 관한 신고찰」, 『한국고대사탐구』 2.
- 공석구, 2012, 「廣開土王의 요서지방 진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67.
- 김영하, 2012, 「광개토왕릉비의 정복기사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66.
- 노태돈, 2012, 「광개토왕대의 정복활동과 고구려 세력권의 구성」, 『한국고대사연구』 67.
- 文祥鍾, 2001, 「廣開土王陵碑 永樂 17年條 기사에 대한 검토」, 『湖西考古學』 4·5합집.
- 朴性鳳, 1979, 「廣開土好太王期 高句麗南進의 性格」, 『한국사연구』 27.
- 박세이, 2016, 「高句麗와 ‘三燕’의 境界」, 『고구려발해연구』 54.
- 徐營洙, 1989, 「廣開土王陵碑文의 征服記事 再檢討(中)」, 『역사학보』 119.
- 손영중, 1986, 「〈광개토왕릉비〉를 통해서 본 고구려의 영역」, 『역사과학』 1986-2.
- 신가영, 2017, 「광개토왕비문의 ‘安羅人戍兵’에 대한 재해석」, 『동방학지』 178.
- 신정훈, 2013, 「高句麗 廣開土王代의 稗麗 征討와 後燕과의 冊封이 가진 의미」, 『중앙사론』 37.
- 여호규, 2005,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대중인식과 대외정책」, 『역사와

- 현실』 55.
- , 2012,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
- 延敏洙, 1987, 「廣開土王陵碑文에 보이는 倭關係 記事 檢討」, 『東國史學』 21.
- 李基東, 1986, 「廣開土王陵碑文에 보이는 百濟關係記事의 檢討」, 『百濟研究』 17.
- 李道學, 1996,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전쟁기사의 분석」, 『高句麗研究』 2.
- 이성제, 2012, 「4世紀 末 高句麗와 後燕의 關係」, 『한국고대사연구』 68.
- 李仁哲, 1998, 「德興里 壁畫古墳의 墨書銘을 통해 본 고구려의 幽州經營」, 『歷史學報』 158.
- 이정빈, 2019, 「양맥·숙신의 난(難), 변경에서 본 3세기 후반 동아시아와 고구려」, 『한국사연구』 187.
- 임기환, 2013,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영역」, 『고구려발해연구』 45.
- 장창은, 2012, 「4~5世紀 高句麗의 南方進出과 對新羅 關係」, 『高句麗渤海研究』 44.
- 井上直樹, 2012, 「廣開土王의 對外關係와 永樂 5年の 對稗麗戰」, 『한국고대사연구』 67.
- 정인보, 1955, 「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 『慵齋白樂濬博士還甲記念國學論叢』, 思想界社.
- 조영광, 2014, 「고구려 광개토, 장수왕 시기 한·예족의 복속과 고구려인화」, 『영남학』 25.
- 千寬宇, 1979, 「廣開土王陵碑文再論」,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일조각.
- 최연식, 2020, 「永樂 6년 고구려의 백제 침공 원인에 대한 검토-〈廣開土王碑〉辛卯年 기사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木簡과 文字』 24.
- 홍성화, 2010, 「廣開土王碑文을 통한 日本書紀 神功, 應神紀의 분석」, 『일본연구』 13.
-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 濱田耕策, 1974,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 井上秀雄, 1973, 『壬那日本府と倭』, 寧樂社.
- 佐伯有清, 1981, 『研究史 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 旗田巍, 1973, 「三國史記 新羅本紀の倭」, 『日本人なかの朝鮮文化』 19.
- 浜田耕策, 1974, 「高句麗広開土王碑文の研究」, 『朝鮮史研究会論文集』 11.
- 水谷悌二郎, 1959, 「好太王碑考」, 『書品』 100.

3장

장수왕 전반기의 대외관계

장창은 | 제주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412년 10월 광개토왕이 죽고 맏아들 거련(巨連)이 왕위에 올랐다. 광개토왕 18년(408년)에 태자로 책봉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광개토왕이 39세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루어진 전격적인 즉위였다. 거련은 아버지와 달리 491년까지 재위하면서 98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에 걸맞는 장수왕(長壽王)이라는 시호를 얻게 된 이유이다.

장수왕 전반기에 해당하는 5세기 초·중반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복잡다단하며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 중원의 패자인 북위(北魏) 태무제(太武帝, 424~452년)는 북위와 고구려 사이에 존재했던 북연(北燕)을 436년에 공격해 멸망시켰고, 439년에는 북량(北凉)까지 복속하였다. 이로써 140여 년간 이어졌던 중국의 16국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강남(江南)에서 420년에 동진(東晉)에서 송(宋)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남북조시대의 막이 열렸다. 한편 막북(漠北)의 몽골초원에서 유연(柔然)이 세력을 키워 호시탐탐 중원의 북위를 노리고 있었다.

송은 군사력 등에서 북위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세였다. 이에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 고구려와의 제휴를 시도하였다. 북위도 남쪽의 송과 막북의 유연에 둘러싸여 있는 형국에서 고구려마저 적으로 마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장수왕은 이러한 중국 남북조의 대립 국면을 이용하여 남북조 모두에게 양면 외교를 추구하였다. 고구려는 남북조와 유연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송과 유연의 연결을 중재해주고 북위를 견제하면서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관계의 역학구도하에서 장수왕은 숙적 백제를 주요 목표로 한 남방 진출에 주력하였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4세기 후반부터 고구려에 종속되어 있었던 신라가 5세기 중반에 이르러 고구려의 세력권에서 이탈해갔기 때문이다. 433~434년부터 시작되었던 백제와 신라의 군사협력 관계 모색은 고구려의 대남방 관계에서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는 장수왕 전반기의 대외관계를 중국의 남북조와 한반도 백제·신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북위와 첫 교섭을 했던 425년부터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후 관계가 단절되는 439년까지의 관계 추이를 살필 것이다. 그와 연계되어 있는 북연을 둘러싼 고구려·북위·송의 국제 분쟁과 유연의 동향을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조와의 관계는 장수왕이 즉위 후 곧바로 추진한 413년 동진 외교를 시작으로 대송 외교의 추이와 배경을 당시 국제관계를 고려해 입체적으로 조명하겠다. 한편 『삼국사기』에 유독 송과의 관계 기사가 누락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려 한다. 동시에 한반도 남부에서 백제 및

신라와의 관계도 계기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수왕 전반기 남방 진출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1. 북조와의 관계

1) 북위와의 관계 추이

고구려와 북위가 처음으로 교섭한 시기는 장수왕 13년(425년)이다 [표 9번].¹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따르면 “위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하였다(遣使如魏貢)”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서(魏書)』에는 정작 이러한 내용이 남아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본인 연구자 중심으로 이 기록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위서』 고구려전에 장수왕이 435년에 처음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기록된 점, 사신 파견의 일반적 표현인 ‘견사 입위조공(遣使入魏朝貢)’과 다르다는 점, 425년 당시 고구려와 북위 사이에 북연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북연을 넘어 직접 북위에 조공하기 어려웠을 정황이 고려되었다(三品彰英, 1963; 武田幸男, 1989; 박정기, 2006).

이와 달리 한국 학계에서는 대부분 425년을 고구려와 북위의 첫 교섭으로 인정하고 있다(서영수, 1981; 지배선, 1998; 노태돈, 1999; 이성제, 2004; 박진숙, 2005; 장종진, 2011). 『삼국사기』 편찬자가 『위서』 외에 다

1 146~151쪽 표의 9번 내용을 참고하라는 의미이다. 이하 동일하게 처리했다.

른 사료를 참고했을 수도 있고(박진숙, 2005), 고구려가 북위에 처음 사신을 파견하면서 조공의 예가 갖추어지지 않은 까닭에 『위서』에 누락되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지배선, 1998). 당시 국제정세로 볼 때 이미 422~424년에 고구려와 송이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표 5~7번], 고구려가 435년에 이르러서야 북위와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굳이 장수왕 13년 고구려와 북위의 첫 교섭 기사를 부정할 필요는 없겠다. 당시 고구려가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배경은 북위와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치·외교적 의도(박진숙, 2005), 427년 평양 천도를 앞두고 북위의 실상 및 정세 파악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지배선, 1998; 장종진, 2011).

장수왕 13년 고구려와 북위 간에 첫 교섭이 있었다라도, 책봉 관련 기사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하지 않아 두 나라 관계에 미친 영향을 알 수는 없다.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가 좀 더 진전된 것은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장수왕 23년(435년)이다. 그해 6월에 장수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나라의 휘(諱)를 알려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태무제가 황실의 계보와 휘를 적어 주고, 원외산기시랑(員外散騎侍郎) 이오(李敖)를 보내 장수왕을 ‘도독요해제군사 정동장군 영호동이중랑장 요동군개국공 고구려왕(都督遼海諸軍事 征東將軍 領護東夷中郎將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으로 봉하였다[표 18번]. 북위의 사신 이오는 고구려 평양성 등을 방문한 후 돌아가 태무제에게 고구려의 지리적 조건과 풍속, 관호(官號) 등 그가 수집한 정세를 보고하였다(『위서』 권100). 같은 해 가을 장수왕이 다시 사신을 보내 북위의 책봉에 감사를 표했다[표 19번].

고구려가 북위에게 나라의 휘를 알려달라고 한 것은 북위 황실의 계

보와 이름을 알아 차후 고구려가 이를 피휘(避諱)하겠다는 의도였다. 문면상으로만 보면 고구려가 북위를 인정함으로써 북위 주도의 국제 질서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武田幸男, 1989; 이성제, 2005). 그러나 고구려의 향후 대북위 외교 행보를 살펴보면, 장수왕이 당시 국제관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추진한 전략적 외교술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지배선, 1998; 박정기, 2006). 당시는 북위가 북연 정벌을 앞둔 직전이었다. 실제로 태무제가 장수왕을 책봉한 지 이틀 만에 북위는 4만 대군을 이끌고 북연을 쳐들어갔다(『자치통감』 권122).

그렇다면 고구려의 대북위 외교와 북위 측의 장수왕 책봉은 북연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구려가 이때 북연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을 수도 있고(이성제, 2005), 북위를 안심시킴으로써 향후 위급상황 시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하기도 한다(박정기, 2006; 박세이, 2010). 북위 태무제가 책봉을 위해 고구려에 직접 사신을 파견한 것도 다른 나라와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흔한 예는 아니다. 보통은 책봉을 요청한 사신이 귀국할 때 그들을 통해 책봉조서를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김중완, 1995).

북위가 장수왕을 책봉한 호칭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도독요해제 군사(都督遼海諸軍事)’는 요해(遼海) 지역²에 대한 고구려의 군사적 지배권을 인정한 것이다(지배선, 1998; 노태돈, 2006). ‘정동장군(征東將軍)’은 장군호로서 북위의 관품으로는 정2품에 해당한다. ‘영호동이중랑

2 요해는 ‘광대한 사막이 바다와 같이 펼쳐져 있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요하(遼河)의 서부 상류인 내몽고자치구의 시라무렌하 유역을 가리킨다. 다만 사서에 따라서 요하동쪽의 요동평야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이제성, 2018, 『고구려와 유목민족의 관계사 연구』, 소나무, 277쪽).

장(領護東夷中郎將)'도 동이에 대한 고구려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김종완, 1995; 노태돈, 1999; 2006). 특히 요하 동쪽 동이의 여러 나라, 곧 북방의 부여부터 남으로 백제와 신라까지 포괄한다(윤용구, 2005). 물론 백제와 신라가 실제 고구려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요컨대 고구려가 북위로부터 435년에 받은 책봉호는 북위가 고구려의 독자적인 세력권을 인정하고 요해 이동 지역의 패자로 인정한 결과물이다(노태돈, 1999; 임기환, 2003). 다만 북위의 책봉이 고구려의 세력권을 인정한 조치가 아니라 북연 공략을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제한해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성제, 2005; 2015). 436년부터 북연을 둘러싸고 전개된 고구려와 북위의 대립관계를 고려하면, 고구려가 북위로부터 받은 책봉호의 의미를 표현에 얽매어 고정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북위의 대북연 정책에서 고구려의 역할을 고려한 외교적 조치 정도로 생각하면 무난하다(박진숙, 2005).

2) 북연의 건국과 북위의 공세

407년 풍발(馮跋)이 후연의 마지막 왕 모용희(慕容熙)를 살해하고 고운(高雲)을 옹립함으로써 북연(北燕)을 건국하였다. 고운은 할아버지 대에 전연(前燕)에 끌려간 고구려계 인물이었다. 그는 후연의 두 번째 왕 모용보(慕容寶)의 양자가 되어 모용씨 성을 받아 모용운(慕容雲)으로 불렸다. 북연왕이 고구려 출신 인물이었으므로 초창기 두 나라는 서로 사신을 파견하며 우호관계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고운이 409년 10월에 부하들에게 살해되면서 북연의 권좌는 풍발(409~431년)을 거쳐 그

의 동생 풍홍(馮弘, 431~436년)으로 이어졌다.

북연은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 막북의 유연과 국혼을 맺는 등 우호관계를 유지했고, 서방의 하(夏)뿐만 아니라 남방의 송과도 교류하였다(『북사』 권98; 『위서』 권97; 『자치통감』 권116). 북위에게 동쪽 변경을 위협하는 북연의 존재는 점차 눈엣가시로 부각되었다. 이에 418년 5월 북위는 2만 명의 군사를 보내 북연을 공격하였다. 북연의 수도 용성(龍城: 和龍, 遼寧省 朝陽)까지 이르렀는데, 풍발의 농성전 때문에 북연의 백성 1만 호를 약탈하고 데려오는 데 그쳤다(『자치통감』 권118). 이후 북위가 정복의 우선 순위를 하로 뒀기에 따라 북위의 북연 공격은 432년까지 소강상태를 맞았다. 그러다 태무제 즉위 후 431년 서방에서 북위를 위협했던 하의 혁련정(赫連定)이 토욕혼(吐谷渾)에게 사로잡혀 북위로 압송되어 처형당하였다. 이로써 하의 멸망하였고, 북위는 북연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였다.

태무제는 432년 5월 수도인 평성(平城: 山西省 大同) 남쪽 교외에서 군사를 정비하였고, 6월에 공격을 개시하면서 좌복야(左僕射) 안원(安原) 등을 고비사막 남쪽에 배치해 유연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7월 태무제가 북연의 수도 화룡에 이르자 석성(石城: 遼寧省 凌原) 태수 이승(李崇)이 이끄는 군 등 10개 군이 북위에 항복하였다. 태무제는 북연 백성 3만 명을 징발해 주위에 해자를 판 후 왕성을 포위하였다. 8~9월 벌어진 여러 차례 전투에서 북위가 승기를 잡았지만, 화룡성을 함락하지는 못했다. 태무제는 북연의 영구(營口)·요동(遼東) 등 6군의 백성 3만여 호를 유주(幽州: 北京)로 이주시켰다. 이때 북연의 상서 곽연(郭淵)이 풍홍에게 딸을 북위에 바쳐 부용국이 될 것을 권유하였다. 국가의 존립에 위태로움을 느낄 정도로 피해가 막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홍

은 이를 거절하였다. 풍홍은 오히려 주수지(朱脩之)를 송에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태무제는 북연 원정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끝내 북연의 수도를 빼앗지 못한 채 11월에 군대를 돌려 돌아왔다(『위서』 권4상; 『자치통감』 권122). 432년에 북위가 북연 원정을 장기전으로 치렀음에도 멸망까지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유연에 의한 기습공격을 우려한 측면이 컸다. 또한 서쪽에 북량과 토욕혼이 여전히 건재한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지배선, 1998).

북위 태무제의 북연 공격 직후인 같은 해 12월, 풍홍이 정비 왕씨(王氏)를 폐위시켰다. 이에 세자였던 풍숭(馮崇)은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우려해 두 아우를 데리고 북위로 투항하였다. 풍홍은 곧바로 장수 봉우(封羽)를 보내 요서의 풍숭을 포위하라고 명했다. 태무제도 433년 1월에 탁발건(拓跋健)을 보내 풍숭을 구원하도록 했다. 같은 해 6월 탁발건은 화룡을 공격하였고, 장군 누발(樓拔)이 별도로 5,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범성(凡城: 河北省 平泉)을 포위해 그곳을 지키던 봉우의 항복을 받았다. 그 사이 태무제는 433년 2월에 풍숭을 ‘가절 시중 도독유평이주동이제군사 거기대장군 영호동이교위 유평이주목(假節 侍中 都督幽平二州 東夷諸軍事 車騎大將軍 領護東夷校尉 幽平二州牧)’으로 삼고, ‘요서왕(遼西王)’으로 책봉하였다(『위서』 권97; 『자치통감』 권122).

풍숭이 태무제에게 받은 장군호 ‘거기대장군’은 북위 초 관품상 분명하지 않지만 태화 23년(499년)에 제정된 관제에 따르면 종1품에 해당한다. 북위 역사상 외국 왕에게 준 최고의 장군호이며, 435년 장수왕이 북위로부터 받았던 ‘정동장군’보다도 한 등급 높다(김종완, 1995). 풍숭은 책봉호를 통해 태무제로부터 유주와 평주(平州) 나아가 동이를 포괄하는 지역의 군사권을 위임받았다. 북위가 풍숭에게 이와 같은 대우

를 한 까닭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북연 세력의 분열을 최대한 이용 하겠다는 전략적 측면이 깔렸을 것이다(지배선, 1998). 요서는 중원 지역과 한반도·만주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북위로서는 유연의 침입에 대비하고 동이 세력을 장악하기 위해 요서를 안정적으로 차지할 필요가 있었다. 북위는 풍송 세력을 이용해 요서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북연 공격에 활용하려 했을 것이다(이성제, 2005; 박한제, 1988; 김종완, 1995; 2002).

434년에 들어 북연 왕 풍홍은 북위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바꾸었다. 풍홍은 1월 북위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태무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풍홍은 3월에 다시 상서 고옹(高顛)을 보내 표문을 올리면서 번국(藩國)을 자칭하고 죄를 받겠다고 했다. 급기야 막내딸까지 태무제에게 바치겠다고 했다. 또한 북연에 21년간 잡혀 있었던 북위의 사자 우십문(于什門)을 돌려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무제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태무제는 북연의 신속을 상징하는 확실한 인질로써 태자 풍왕인(馮王仁)의 입조를 요구하였다. 이는 북연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었다. 산기상시(散騎常侍) 유훈(劉訓)이 태자를 빨리 북위로 보내야 한다며 풍홍에게 건의했지만, 화가 난 풍홍은 유훈을 죽여버렸다. 6월 태무제는 무군대장군 탁발건(拓跋健)을 보내 북연을 다시 공격하였다(『위서』 권97; 『자치통감』 권122; 『십육국춘추집보(十六國春秋輯補)』 권100).

풍홍은 결국 송에 사자를 보내 번국임을 자칭하고 조공을 바쳤다. 이에 435년 1월 송 문제(文帝, 424~453년)는 풍홍을 연왕(燕王)으로 책봉하였다(『송서』 권5; 『자치통감』 권122). 송도 북위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연과의 제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같은 해 3월

풍홍은 대장 탕촉(湯觸)을 북위에 보내 공물을 바치고 태자 풍왕인에게 병이 있어 아직 보내지 못했다며 핑계를 댔다. 북위의 공격을 늦추기 위한 지연술이었다. 풍홍은 4월에 곧바로 우위장군 손덕(孫德)을 송에 보내 군사 원조를 요청하였다(『위서』 권4상; 『자치통감』 권122; 『십육국춘추집보』 권100). 물론 송이 북연에게 군사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 풍홍의 의도는 좌절되었고, 결론적으로 북위만 자극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3) 북연을 둘러싼 국제분쟁

북위 태무제는 435년 6월에 고구려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직후 [표 18번] 표기대장군 낙평왕(樂平王) 비(丕) 등 5명의 장군에게 4만 명의 군을 주어 북연을 공격하였다. 고구려와의 조공·책봉이 북위의 북연 공격 결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이성제, 2004). 7월에 낙평왕 비 등은 북연의 수도 화룡에 도착하였다. 풍홍은 술과 고기로 북위의 군사를 달래며 갑옷 3,000벌을 바쳤다. 북위군은 남녀 6,000명을 포로로 삼아 귀환하였다(『위서』 권4상; 『자치통감』 권122). 북위의 잦은 침략에 북연이 위태롭게 되자 풍홍은 고구려로 망명해 훗날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에 11월 상서 양이(陽伊)를 은밀히 고구려에 보내 맞이해주기를 청하였다(『자치통감』 권122; 『십육국춘추집보』 권100). 한편으로는 북위의 침략을 늦추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436년 2월 풍홍은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고 태자를 보내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태무제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만사지탄이었다. 태무제는 풍홍의 제안을 거절하고 10여 명의 사자를 고구려 등 여러 나라에 보내 북연 정

벌을 통보하였다(『위서』 권4상; 『자치통감』 권123). 북연 원정 기간 동안 북위를 넘보지 말고 북연을 돕지 말라는 협조 요청이자 경고의 메시지였을 것이다(三崎良章, 1982).

결국 같은 해 4월에 북위의 아청(娥淸)과 고필(古弼)이 북연의 백랑성(白狼城: 遼寧省 建昌 남쪽 大凌河 상류)을 공격해 함락하였다. 장수왕은 갈로(葛盧)·맹광(孟光)과 수만 명의 군사³를 보내 북연의 양이를 따라 수도 화룡에 가서 북연 왕 풍홍을 맞이하였다. 고구려군은 화룡 동쪽 임천(臨川)에 주둔하면서 화룡성을 둘러싸고 북위군과 대치하였다. 이때 화룡성 내에는 친북위파와 친고구려파로 분열되어 있었던 것 같다. 먼저 상서령 곽생(郭生)이 화룡성의 서문을 열어 북위군을 들이려 했다. 그러나 북위군은 의심하여 화룡성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북연 내부에서 북연 정권의 향방에 대한 내분이 있었지만, 풍홍 중심의 친고구려파에 비해 친북위파는 북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소수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곽생은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풍홍을 공격하였다. 이에 풍홍은 화룡성 동문을 열어 고구려의 군대를 끌어들이고, 고구려군은 곽생군을 물리쳤다. 이어 갈로와 맹광이 성에 들어가 군사들에게 해진 군복을 벗게 하고 무기고에 있는 예리한 무기를 나누어주자 성 안을 크게 약탈하였다.

5월에 풍홍이 가호(家戶)와 백성을 거느리고 고구려로 망명하였다. 이때 부인들은 갑옷을 입혀 행군 가운데 두고, 양이 등은 정예병을 통솔해 바깥에 배치하였다. 갈로와 맹광의 기병이 맨 뒤에 섰는데 방형

3 『삼국사기』·『자치통감』·『십육국춘추집보』에는 고구려가 보낸 군사 규모를 ‘數萬’이라 했고, 『위서』에는 ‘步騎二萬’이라고 기록하였다.

의진을 한 군대 앞뒤 행렬이 80여 리나 되었다고 한다. 북위 고필(古弼)의 부장 고구자(高苟子)가 기병을 거느리고 추격해 요수(遼水)에 이르렀다. 하지만 고필이 술에 취해 칼을 뽑아 고구자를 제지하면서 풍홍은 무사히 고구려로 갈 수 있었다. 태무제는 곧바로 산기상시 봉발(封撥)을 고구려에 보내 북연 왕을 보낼 것을 촉구하였다(『위서』 권4상; 『삼국사기』 권18 장수왕 24년; 『자치통감』 권123; 『십육국춘추집보』 권100).

435년 4~5월 북연을 둘러싼 고구려와 북위 간 일촉즉발 긴장 국면에서 북위군의 행보는 의아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고구려군의 작전이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북위군이 당황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이성제, 2005; 박세이, 2010). 또한 군사적인 면에서 열세인 까닭에 고구려군의 위세에 눌렸을 가능성도 있다(지배선, 1998; 박세이, 2010). 다만 북위군과 직접 교전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도 직접적 충돌을 피한 것으로 볼 때 고구려도 북위와의 정면 대결을 원한 것은 아닌 듯하다. 그렇게 보면 고구려의 북연 출병과 북연의 민(民) 쇠환을 고구려의 요서 진출과 관련짓기는(지배선, 1998) 무리라고 생각한다. 고구려군은 애초부터 풍홍 세력과 북연민의 확보가 주요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고구려군의 행보는 북위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 정도로 해석된다. 장수왕은 북연왕을 확보함으로써 북연 통치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북위를 견제하는 데도 유효했을 것이다(이성제, 2005;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9).

고구려의 북연민 쇠환 배경을 과거 전연과 후연에게 끌려갔던 고구려인 포로들에 대한 재송환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연구도 있다(박세이, 2010). 북연민의 출신과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는 알 수 없겠지만, 고구

려가 다수의 북연민을 확보함으로써 얻은 국익은 상당했을 것이다. 『십육국춘추집보』에 따르면, 풍홍과 함께 고구려에 온 백성의 규모는 1만 호이다. 1호당 5명씩만 계산해도 5만 명에 달한다. 군사력과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박세이, 2010; 최일례, 2013).

실제로 백제 개로왕이 472년 북위에 보낸 국서에 “풍씨(馮氏)의 운수가 다하여 남은 사람들이 도망해 오자 추악한 무리들(고구려)이 점차 성해져서 드디어 [백제가] 능멸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으며, 원한과 병화가 이어진 지 30여 년에 재물도 다하고 힘도 고갈되어 점점 약해지고 위축되었습니다”라고 호소하였다(『삼국사기』 권25 개로왕 18년; 『위서』 권100). 여기서 ‘풍씨’가 곧 북연의 풍홍 세력이고 ‘남은 사람들’이란 함께 온 1만 호를 의미한다. 물론 개로왕이 보낸 외교문서이므로 백제 입장에서 표현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풍홍과 북연민 흡수 후 국력이 강해졌고, 그것이 장수왕의 남방 진출과 대백제 관계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장수왕은 풍홍과 북연민 확보가 일단락된 그해 9월 사신을 북위에 보내 풍홍과 함께 태무제의 덕화(德化)를 받았다는 표문을 올렸다 [표 23번]. 435년에 맺어진 기존의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자는 타협적 제안이었다(이성제, 2005). 그러나 신하로서 북위를 섬기겠다면서도 태무제가 요구한 풍홍의 소환은 사실상 거절하였다. 고구려는 북위 황제와 장수왕·풍홍의 군신관계보다 장수왕과 풍홍의 상하관계를, 즉 북위의 예적질서보다 고구려의 국제질서가 우선임을 주장한 것이었다(시노하라 히로카타, 2009). 이에 태무제는 고구려가 조서를 어겼다면 공격할 것을 의논하였다. 농우(隴右: 甘肅省 일대)의 기병을 동원하려 하자, 낙평왕 비가 농우 지역이 새로 편입된 곳이니 우선은 세금과 요역을 면

제해 주어야 하고, 북연의 화룡을 안정시킨 후에 고구려를 공격할 것을 건의하였다. 태무제는 이를 받아들였다(『위서』 권17; 『자치통감』 권123).

장수왕은 재위 25년(437년) 2월 다시 북위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표 24번]. 전해 9월에 사신을 보낸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북위와의 긴장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태무제는 낙평왕 비의 건의를 수용해 437년 2월에 몸소 유주로 갔고, 3월에 남평왕(南平王) 혼(渾)을 보내 화룡을 지키게 했다(『위서』 권4상; 『자치통감』 권123).

장수왕은 풍홍 집단을 우선 평곽(平郭: 遼寧省 蓋州)에 두었다가 다시 북풍(北豐)으로 옮겼다. 북풍을 개주(蓋州) 인근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稻葉岩吉, 1913), 풍홍 집단의 도주를 막기 위한 차원의 이주일 것이므로 태자하(太子河) 상류에서 환인~집안으로 이어지는 요동 내지(內地)로 파악함이 타당할 듯하다(임기환, 1998; 이성제, 2012). 풍홍은 평소 고구려를 업신여기며 행동을 함부로 했다. 이에 장수왕은 풍홍의 측근을 빼앗고 태자 왕인을 인질로 삼았다. 급기야 풍홍은 438년 3월 남조(南朝) 송에 사신을 보내 망명을 요청하였다. 송 문제는 곧바로 왕백구(王白駒)에게 7,000명의 군사를 주어 고구려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장수왕에게 풍홍에게 노자를 마련해 주어 속히 송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수왕은 풍홍이 남쪽으로 못 가도록 장수 손수(孫濼)와 고구(高仇)를 보내 왕백구 군대가 당도하기 전에 북풍에 있는 풍홍과 자손 10명을 살해하였다. 풍홍이 죽은 후 북풍에 도달한 송의 군대는 고구려군과 교전하였고, 그 결과 고구를 죽이고 손수를 사로잡았다. 이에 장수왕은 급히 군대를 보내 왕백구를 사로잡았고, 그를 송으로 보내 버렸다. 송 문제는 왕백구를 잠시 옥에 가두었다가 풀어주었다(『송서』 권97; 『삼국사기』 권18 장수왕 26년). 고구려와 송이 양국 관계가 파탄 나

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적절히 타협한 셈이다(노태돈, 1999). 439년 송 문제가 북위를 토벌하고자 고구려에 군마(軍馬)를 요청하자 장수왕이 말 800필을 보내 준 사실이[표 26번] 당시 두 나라의 대외관계 향방을 시사한다.

송이 풍홍을 영입하려는 목적은 고구려를 위압하고 북위를 측면에서 견제할 수 있는 세력 근거지를 요동 지역에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노태돈, 1999; 2006). 이와 달리 송이 영접이라는 군사적 부담이 적은 조건으로 고구려와 협조를 도모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7,000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군사를 보낸 이유가 고구려와 풍홍의 갈등이 고구려-송 관계에 비화될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시노하라 히로카타, 2009). 한편 송이 풍홍 영입 시도와 출병을 통해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적 측면을 환기한 견해도 있다. 그러나 송의 의도와 다르게 고구려가 풍홍을 살해함으로써 북위와의 분쟁 원인을 사전에 제거했다는 것이다(이성제, 2005). 이와 달리 고구려가 풍홍을 대북위 관계 개선에 활용하려면 죽이지 않고 넘겨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면서 오히려 북위와의 관계 악화를 감수한 조치로 보기도 한다. 고구려가 풍홍을 살해했던 까닭은 고구려에 대한 불의와 배신을 응징하고 대송 관계에서의 마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시노하라 히로카타, 2009).

장수왕은 439년 11~12월 연이어 두 차례에 걸쳐 북위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표 27번]. 이후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는 462년에 재개될 때까지 오랜 기간 단절되었다. 장수왕이 439년에 북위에 사신을 보낸 이유는 풍홍의 살해를 북위에 알림으로써 두 나라 간 긴장 국면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江畑武, 1968; 박진숙, 2005).

또한 북위의 반응을 타진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노태돈, 1999; 김종완, 2002). 이와 달리 장수왕이 풍홍의 살해를 북위와의 관계 개선책으로 활용하고자 했다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사신을 보내야 했을 거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기도 한다. 풍홍이 죽고 1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장수왕이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까닭은 다른 의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곧 고구려의 대송 관계와 이때부터 462년 북위에 사신을 보낼 때까지 양국 관계가 단절된 것을 볼 때 오히려 북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통보하기 위한 행보로 파악하였다(이성제, 2005).

4) 유연의 동향과 국제관계

유연은 4세기 초부터 6세기 중반까지 몽골초원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했던 유목국가이다. 스스로 ‘유연’이라 칭했는데, 북위 태무제는 그들이 무지하여 상태가 벌레(蟲)와 비슷하다면서 ‘연연(蠕蠕)’으로 낮추어 불렀다. 유연은 5세기 초 사륜(社崙, 402~410년) 가한(可汗) 때에 몽골초원을 통일하였다. 그 결과 동쪽으로는 조선(朝鮮), 서쪽으로는 언기(焉耆: 新疆省), 북쪽으로는 사막을 건너 한해(瀚海: 바이칼호), 남쪽으로는 고비사막과 접경하는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다(『위서』 권103; 『북사』 권98). 북위가 화북을 통일한 후 유연과 북위는 장성(長城)을 경계로 적대관계를 지속하였다. 북위는 유연을 전멸시키려 하기보다는 그들 사이에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북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북위 기마병은 유연의 초원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경제적·정치적 기반을 파괴하기 위해 백성과 가축을 빼앗아 왔다. 북위는 사로잡은 유연의 민을 변경의 요충지에 군대로 주둔시켜 초원을 통제하려

했다(토마스 바필드, 2009).

유연의 동향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위뿐만 아니라 고구려 및 송과도 관련되었다. 북위 태무제가 450년 4월 송 원정 때 송 문제에게 보낸 국서에서 “그대는 지난날 북으로 예예(芮芮: 유연)와 통하고, 서로는 혁련(赫連: 하), 몽손(蒙遜: 북량), 토욕혼과 연결했으며, 동으로는 풍홍(風弘) 및 고구려와 연합하였다”고 말했다(『송서』 권95). 그리고 463년 송 효무제(孝武帝, 453~464년)가 장수왕에게 보낸 조서에 따르면, “고구려왕 낙랑공 연(璉)은 대대로 충의로 섬겨 바다 밖의 번병(藩屏)이 되었다. 짐의 조정에 충성을 다해 포악 잔인한 무리(북위)를 없애는 데 뜻을 두었고, 사막의 나라(유연)에 통역하여 짐의 뜻을 잘 펼쳤다”고 되어 있다. 개로왕이 472년 북위에 보낸 국서에도 “고구려는 의롭지 못하여 반역과 속임수가 하나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외효(隗囂: 말과 행동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인물의 대명사)가 번국으로 낮추어 썼던 말을 본받으면서 속으로는 흉악한 재앙과 저돌적인 행위를 품어, 혹은 남쪽으로 유씨(劉氏: 송)와 내통하였고 혹은 북쪽으로 연연(蠕蠕: 유연)과 맹약하여 서로 입술과 이처럼 의지하면서 왕법을 능멸하려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남아 있다(『삼국사기』 권25 개로왕 18년; 『위서』 권100).

위의 세 기록을 종합해 보면 유연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멀리 남쪽에 있는 송과도 우호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연과 송의 교섭에 고구려가 중간 매개 역할을 한 것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이들 세 국가가 공조하면서 일종의 반복위 연합전선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송서』의 기록을 감안할 때 5세기 중반보다 앞선 시점부터 5세기 후반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와 유연은 늦어도 430년대 말에는 교섭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노태돈, 1999). 북위와 유연의 지

속적인 갈등관계를 고려할 때, 고구려가 국제관계에서 이들 사이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북위와 유연의 관계 추이를 살필 때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422년 5월 송 무제 유유(劉裕)가 사망하였다. 이에 북위 명원제(409~423년)가 그해 9월부터 송으로의 원정을 단행하자, 그 틈을 노린 유연이 423년 1월에 북위의 변경을 쳐들어왔다(『위서』 권3; 『자치통감』 권119). 북위의 대남방 진출이 처음부터 유연에 의해 제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유연의 가한은 대단(大檀, 414~429년)이었다.

태무제가 423년에 즉위하자 북위는 유연의 침략에 대해 수동적 방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공세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424년 8월 유연의 대단이 6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운중(雲中: 내몽고자치구和林格爾서북)을 쳐들어왔을 때 태무제가 기병을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장손한(長孫翰) 등을 보내 유연을 선제공격했는데, 북쪽으로 달아난 유연을 추격해 크게 포획하고 돌아왔다. 태무제는 425년에도 대군을 동원해 유연을 정벌하였다. 북위 군대가 사막 남쪽에 이르렀는데, 경무장을 한 기병이 15일분의 식량만 가지고 사막을 종단해 유연을 토벌하였다. 유연의 부락은 놀라서 북쪽으로 도망갔다. 427~428년에는 유연이 연이어 침공하였다. 특히 428년 8월에는 대단이 아들을 보내 기병 1만 명으로 장성을 노략질하고 달아났다. 태무제의 추격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429년 4~5월에 태무제는 남쪽 교외에서 군사를 단련한 후 최호(崔浩)의 계책에 따라 대규모로 유연 원정군을 꾸려서 떠났다. 이에 대단의 무리는 서쪽으로 달아났다. 이때의 승리로 유연의 부락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산과 계곡에 숨어 지냈고, 가축들이 들에 널려도 거두어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위서』 권103;

『북사』 권98; 『자치통감』 권120·121).

대단은 부락이 쇠약해지자 병이 나서 죽고, 아들 오제(吳提, 429~444년)가 다음 가한을 이었다. 오제는 431년 6월 북위에 조공하였다. 유연의 가한으로서는 처음으로 북위에 우호의 손길을 내민 것이었다. 434년 2월, 태무제와 오제는 각각 자신의 딸과 누이를 보내며 혼인동맹을 맺었다. 북위로서는 436년 북연 정벌을 앞둔 외교적 정지작업의 의도가 짙었다(박한제, 1988; 김종완, 1995). 436년 5월 북연이 멸망하자 북위와 유연의 일시적 화친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였다. 그해 11월 오제가 먼저 화친을 끊고 북위의 변경(長成)을 공격하였다. 438년 5~7월 태무제는 오원(五原: 내몽고자치구 包頭)을 거쳐 유연을 쳐들어갔다. 그러나 유연 세력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왔다. 오히려 당시 고비사막 이북(漠北)에 큰 가뭄이 들어 물과 풀이 없어서 북위의 군사와 군마가 다수 죽는 피해만 입었다(『위서』 권103; 『북사』 권98; 『자치통감』 권122·123).

439년 태무제가 원정을 떠나 북량을 멸망시킨 틈을 이용해 유연이 다시 침략하였다. 태무제는 장락왕(長樂王) 계경(稽敬) 등에게 2만 명의 군사를 주어 고비사막 이남(漠南)에 주둔케 해 유연에 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제가 침입해 북위의 수도 서쪽 근방에 이르렀다. 마침 오제의 형 걸렬귀(乞列歸)가 음산(陰山: 내몽고자치구 중부) 북쪽에서 패하자 전세가 역전되었다. 북위는 유연의 장수 500명을 사로잡고 1만여 명의 목을 베는 대승을 거두었다. 태무제는 443~444년에도 막남에 출정하여 유연을 크게 격파하였다. 결국 오제는 멀리 도망갔다(『위서』 권103; 『북사』 권98; 『자치통감』 권123).

오제가 죽고 토하진(吐賀眞, 444~450년)이 즉위하였다. 태무제가 446년 8월 토욕혼 원정에 나서면서 유연과의 관계도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있었다. 449년 태무제는 두 차례에 걸쳐 유연 정벌을 단행하였다. 토하진은 완패한 후 멀리 달아났다. 이때 북위는 유연의 백성들과 가축 100여 만을 빼앗았다. 이때부터 유연이 쇠약해져 자취를 감추었고 북위를 쳐들어오지 않아 변경의 경계를 늦추었다고 전한다(『위서』 권103; 『북사』 권98; 『자치통감』 권125).

450년 4월 태무제는 송 문제에게 보낸 국서에서 송이 지난날에 유연, 하, 북량, 토욕혼, 북연, 고구려와 연합했음을 상기시켰다. 당시에 하, 북량, 북연은 이미 멸망했고, 토욕혼의 세력도 약해져 있었다. 이에 태무제는 “무릇 이 몇 나라는 내가 거의 멸망시켰다. 이로써 보건대 네가 혼자 어찌 설 수 있단 말인가?”라며 겁박하였다(『송서』 권95). 이에 7월 송 문제는 선제적인 북벌을 단행하였다. 9월 태무제도 송 원정에 나섰다. 태자 황(晷)에게는 사막 남쪽에 주둔해 흑시라도 있을지 모를 유연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북위군은 12월에 송군을 크게 이기고 장강(長江) 북쪽까지 진출해 송의 수도 건강(建康:南京)을 위협하였다. 태무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회군하였다(『자치통감』 권125·126).

태무제가 남방으로 장거리 원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유연 세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박한제, 1988). 그런데도 북위는 송 원정에 앞서 유연의 침입에 대비하는 만전을 기했다. 그래서 태무제가 451년 초 회군한 주된 이유를 송과 장기전을 벌일 경우 염려되는 유연의 동향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노태돈, 1999).⁴ 실제로 태무제는 북위로 돌

4 이외에 식량 부족 및 전염병 창궐에 따른 북위 군대의 사기 저하, 태자 탁발황(拓拔暉)의 반란으로 인한 본국의 혼란한 정세도 북위군 회군의 배경으로 지적되었다(최진열, 2011; 백다해, 2016).

아간 그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음산에 행차하였다. 이는 유연에 대한 무력시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노태돈, 1999).

이렇듯 유연의 동향은 북위의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다. 북위를 둘러싸고 있던 유연, 고구려, 송의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공조적 성격이 짙음을 여러 기록이 전하고 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위와 송, 그리고 백제의 관점에 불과하다. 북중국의 강자 북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남쪽에서 백제와 신라를 상대해야 하는 고구려 입장에서는 노골적인 반북위 외교노선을 지속하기에 부담이 따랐을 것이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대송 외교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야 비로소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국제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

2. 남조와의 관계

1) 동진과의 외교

장수왕은 즉위 이듬해인 413년 동진에 장사(長史) 고익(高翼)을 보내 표(表)를 받들고 자백마(赭白馬)를 바쳤다. 이에 동진 안제(安帝)가 장수왕을 ‘사지절 도독영주제군사 정동장군 고구려왕 낙랑공(使持節 都督營州諸軍事 征東將軍 高句麗王 樂浪公)’으로 봉하였다[표 1번]. 장수왕의 사신 파견은 412년 10월에 죽은 광개토왕의 죽음과 자신의 즉위를 알리기 위함이 일차적인 목적이었을 것이다. 동진과 343년 이후 70년 만에 교섭했음을 감안하면, 장수왕 즉위를 계기로 고구려가 새로운 외교적 모색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堀敏一, 1993).

특히 자백마까지 바치는 공을 들였음이 주목된다. 붉은색과 흰색의 털이 뒤섞여 있는 자백마는 고구려가 유목국가들과 농목교역을 통해 확보한 귀한 말이었다(이정빈, 2014; 이동훈, 2019). 실제로 전연 모용외(慕容廆)와 모용황(慕容皝)이 자색마를 애용했는데, 생김새가 빼어나고 빠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진서』 권110). 송 안연지(顔延之)가 441년에 지은 <자백마부(赭白馬賦)>(『문선(文選)』 권16)에서도 제왕의 수레를 끄는 말로 사용된 자백마를 칭송하고 있다. <자백마부>는 안연지가 자백마의 죽음에 대해 송 문제를 대신해 지은 애도시이다. 문제는 이 말을 무제 유유에게 받았고, 유유는 418년에 동진 조정에서 받았다(양승덕, 2020). 그렇다면 장수왕이 413년 동진에 바친 자백마가 동진 안제부터 유유와 송대까지 황제의 말로써 애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설사 같은 말이 아닐지라도 자백마의 특출함과 고귀함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살피기에는 충분하다.

외교적 조공품으로써 자백마의 가치를 고려할 때, 장수왕이 413년 동진에 사신을 파견한 까닭은 광개토왕의 부고와 자신의 즉위를 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더 고차원적인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고구려가 광개토왕대에 차지했던 요동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한 외교적 포석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즉 고구려가 요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서 지방이나 산동반도 방면에 유력한 거점을 확보해야 하므로 산동반도를 점령한 동진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김진한, 2012; 2020). 동진의 입장에서 유유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고구려 사신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김택민, 2012).

장수왕은 동진에 자백마를 보내며 극진한 외교를 한 결과 안제로부

터 ‘사지절 도독영주제군사 정동장군 고구려왕 낙랑공’을 책봉 받았다. 중국사에서 ‘사지절’은 장군이 군주로부터 위임받은 독자적 권한을 의미하며, ‘도독~제군사’는 그 권한으로 통치할 수 있는 군사지구를 규정한다. 도독은 일차적으로 군사적 기능을 가지면서 해당 지역 백성에 대한 정치적 통치 권한을 겸임하였다. 장군호 정동장군은 송의 관품으로 제3품에 해당한다(김종완, 1995; 2004; 박찬우, 2015). 곧 장수왕이 동진 황제로부터 영주(營州: 朝陽)에 대한 군사권을 위임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북조의 영역이어서 남조인 동진이 관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실제 당시 영주는 북연의 영역이자 수도 화룡성이 있는 중심지였다. 곧 이들 책봉호는 실제 관직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허직인 셈이다. 낙랑공도 고구려의 지배 영역 일부가 과거 중국 군현이었던 낙랑군 지역이라는 사실을 연상시키는 허봉(虛封) 작(爵)일 뿐이다(노태돈, 2006). 그렇다면 동진 안제가 현실적으로 고구려의 지배권이 미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군사권을 위임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고구려가 향후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관철시켜 북조를 견제하고, 그럼으로써 남조의 지배 영역이 간접적으로나마 확대하기를 기대한 것으로 해석된다(김종완, 2004).

장수왕이 동진 안제에게 책봉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416년, 안제는 백제로 사신을 보내 전지왕(餘映, 405~420년)을 ‘사지절 도독백제제군사 진동장군 백제왕(使持節 都督百濟諸軍事 鎮東將軍 百濟王)’으로 봉하였다(표 2번). 그런데 안제의 책봉사(冊封使) 전에 백제의 조공사(朝貢使)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416년 이전 가장 가깝게 백제가 동진에 사신을 파견한 시기는 406년 2월이다(『삼국사기』 권25 전지왕 2년). 전지왕의 즉위를 알리기 위한 의도하에 파견된 듯하다. 406년 백제의

조공 이후 동진 측의 책봉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416년 동진의 책봉사는 406년 백제 조공에 대한 화답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다만 416년 직전 백제가 동진에 사신을 파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서』 백제전에 “의희 연간(405~418년) 백제왕 여영이 사신을 파견해 생구(生口)를 바쳤다”고 되어 있음이 참고된다(박현숙, 2017).

전지왕은 동진과의 조공·책봉 외교를 통해 국내에서는 국왕의 위세를 드러내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을 테고, 대외적으로도 백제의 국제적 위상을 과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박현숙, 2017). 이처럼 고구려와 백제의 외교전은 남조 동진을 둘러싼 시기부터 경쟁적으로 전개되었다. 자연스럽게 동진에 사신을 파견할 수 있는 바닷길의 확보가 관건이었다.

한반도에서 동진의 수도 건강까지의 경로는 한강 하구-황해도 남부-산동반도 남부-강소성-양자강 하구에 이르는 ‘황해 중부 횡단항로’로 추정된다(임동민, 2016). 백제는 386~406년까지 20여 년 동안 동진과 교섭할 수 없었다. 이 시기에 고구려가 한강 하류와 황해도 남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406년과 416년에 재개된 백제의 대동진 외교는 화성 일대에서 출발하여 덕적군도를 경유하는 새로운 바닷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임동민, 2016). 이와 같은 고구려와 백제의 남조로의 사신 파견과 외교전은 송이 건국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2) 대송 관계의 추이와 배경

송이 건국된 420년부터 461년까지 고구려와 백제의 대송 교섭의 전체적 빈도와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참조]. 고구려는 423년,

424년, 436년, 438년, 439년, 441년, 443년, 451년, 453년, 455년, 458년, 459년, 461년 모두 13회에 걸쳐 송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역으로 송은 고구려와 420년, 422년, 424년, 438년, 439년 5회 교섭하였다. 그나마 420년과 422년의 책봉이 송의 사신 파견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3회만 사신을 파견한 셈이 된다. 백제는 송에 424년, 429년, 440년, 443년, 450년, 457년, 458년 모두 7회 사신을 보냈다. 반대로 송은 백제와 420년, 425년, 430년 3회 교섭한 기록이 남아 있다.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420년 책봉이 송 측의 일방적인 것이었다면 2회만 사신이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계 수치로 볼 때 대송 외교의 빈도는 고구려가 13회로 백제의 7회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많았다. 남조 국가들과의 외교는 백제가 더 빈번했을 것이라는 선입관과 어긋나는 부분이다. 곧 5세기 초·중반의 대송 외교는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의 왕들(구이신왕·비유왕·개로왕)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구려와 백제가 대송 외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음도 시사받을 수 있다. 특히 고구려 대송 외교의 빈도와 동향이 특징적이다. 고구려와 송의 관계 추이 및 사신 파견의 배경과 의미를 진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20년 6월 동진 공제(恭帝)로부터 선양을 받은 유유가 송의 첫 번째 황제(武帝, 420~422년)가 되었다. 송 무제는 즉위한 다음 달 곧바로 장수왕을 ‘사지절 도독영주제군사 정동대장군 고구려왕 낙랑공(使持節 都督營州諸軍事 征東大將軍 高句麗王 樂浪公)’으로 봉하였다[표 3번]. 413년 동진 안제로부터 받은 책봉호와 같은데, 장군호만 정동대장군(2품)으로 한 등급 승격되었다. 이러한 책봉은 고구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

나라 송이 신왕조 개국을 지축하는 의미에서 사신 파견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다(坂元義種, 1978; 김종완, 1995; 박윤선, 2008; 박현숙, 2017).

무제는 장수왕과 동시에 전지왕도 ‘사지절 도독백제제군사 진동대장군 백제왕(使持節 都督百濟諸軍事 鎮東大將軍 百濟王)’으로 봉하였다[표 4번]. 그런데 당시 백제왕은 전지왕이 아닌 구이신왕이었다. 이는 송이 백제의 부고사(訃告使)를 받지 않았고, 책봉 과정에서 실제 사신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송은 전 왕조가 행한 책봉을 추인하고 장군호만 높여주는 진호(進號) 형식을 취했다. 개국을 기념하는 책봉의 경우 모두 진호 형식이었다(김종완, 1995; 2002). 무제의 책봉은 신왕조의 정통성을 알리며 과거 동진의 책봉을 받은 나라들의 이탈을 막고 송의 책봉체제 안에 계속 포섭하려는 의도하에 행해졌을 것이다(김철민, 2016).

422년 송 소제(少帝, 422~424년)는 장수왕에게만 다시 산기상시와 독평주제군사(督平州諸軍事)의 책봉호를 더해 주었다[표 5번]. 이는 고구려의 조공 사신이 오기도 전에 단행된 것으로, 송이 개국 초 고구려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평주의 중심 치소는 하북성(河北省) 노룡현(盧龍縣) 북쪽의 비여성(肥如城)이었다(『위서』 권106). 송이 북위의 관할권하에 있었던 평주에 대한 군사적 권한을 장수왕에게 위임한 것은 북위에 대한 외교적 견제를 기대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김종완, 2002; 임기환, 2003; 김철민, 2016). 송 소제가 재위 시기 내내 산둥과 하남 방면에서 북위의 남침에 시달렸음을 감안하면 일리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송 소제의 정치적 기반이 약해 내부적으로 황제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고구려를 책봉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백다해, 2016).

장수왕은 423년 3월에 비로소 송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표 6번]. 송의 책봉에 대한 사은사(謝恩使)였을 것이다(김종완, 2002; 김철민, 2016). 장수왕은 연이어 424년 2월 장사(長史) 마루(馬婁) 등을 송의 왕궁으로 보내 방물을 바쳤다. 이에 송 소제도 알자(謁者) 주소백(朱邵伯)과 부알자(副謁者) 왕소자(王邵子) 등을 보내 치사하였다[표 7번]. 이때 송에 파견된 고구려의 장사 마루는 평양 일대의 정치 세력이자 관료집단이었던 중국계 인물로 추정된다(임기환, 2007).

423~424년 고구려의 대송 외교 추진 배경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먼저 고구려가 중국 화북지방의 혼란과 백제·일본의 대송 외교에 대항하기 위해서라고 파악한 바 있다(江畑武, 1968). 이에 대해 5세기 전반 고구려가 백제에 대해 확실한 세력의 우위를 점했고, 왜도 당시에는 고구려를 위협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면서 비판적으로 보기도 한다(김진한, 2018; 2020). 한편 당시 북위와 송이 산둥 일대에서 전쟁을 벌였으므로 고구려가 산둥 일대의 영유권 동향에 각별한 관심이 있음을 환기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곧 고구려는 당시 평양 천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바닷길을 이용해 공격해올 경우 평양이 방어에 취약해 그 출발지인 산동의 정세를 탐색함으로써 방어에 만전을 기했다는 것이다(백다해, 2016). 이러한 측면에 더해 산둥반도는 바닷길로 요동반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곳의 동향이 고구려 서북방 방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고구려가 남조와 안정적으로 교섭하기 위해서도 산둥 일대의 정세 파악과 해상 경로의 확보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후 고구려의 대송 외교는 436년 6월에 재개될 때까지 12년간 단절되었다. 427년 평양 천도 전후 고구려가 내부 정치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에 따른 결과인 듯하다(김종완, 2002; 백다해, 2016; 김진한, 2018; 2020). 이 밖에 장수왕과 돈독하게 지냈던 송 소제가 424년 6월에 살해당한 후 문제가 적국인 백제와 사신을 교환하며 우대하자 장수왕이 이에 반발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김철민, 2016).

실제로 424~436년 고구려와 송의 교섭이 전무했던 시기에 백제와 송은 네 차례 교섭하며 조공·책봉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먼저 424년 백제왕 영(映: 전지왕)이 송 소제 재위 시기에 장사 장위(張威)를 보내 공물을 바쳤다[표 8번]. 장위는 백제로 이주한 대방 지역 재지세력으로 추정되는데, 외교문서의 작성과 통역에 능통해 사신으로 파견됐을 것이다(임동민, 2016). 송 문제가 즉위해 원가(元嘉)로 개원하는 때가 그 해 8월이므로 백제의 사신 파견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박윤선, 2008). 문제는 425년 겸알자(兼諷者) 여구은자(閻久恩子) 등을 보내 전지왕이 기존에 받은 책봉호 ‘사지절 도독백제제군사 진동대장군 백제왕’을 추인해주고 노고를 위로하는 조서를 보내주었다[표 10번]. 곧 『송서』에는 424~425년 대송 외교를 주도한 인물이 전지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따르면 전지왕은 420년 3월에 죽고 구이신왕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따라서 이 시기 백제의 대송 외교를 주도한 인물은 구이신왕으로 파악해야 한다.⁵ 백제는 비유왕 즉위 후에도 대송 외교를 이어갔다. 429년 7월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고[표 12번], 430년 4월 송 문제는 이에 화답해 비유왕에게 이전 전지왕의 책봉호를 이어받게 하였다[표 13번].

5 『송서』 기록을 존중해 구이신왕의 즉위 연도를 425년 이후로 수정해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424~425년 송과의 교섭 주체를 전지왕으로 파악한 것이다(임동민, 2020).

424~430년 백제의 대송 외교 배경은 고구려와 송의 긴밀한 관계를 억제하고 백제가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정재윤, 2009; 임동민, 2020). 구이신왕이 425년에 장위를 사신으로 보낸 것은 같은 해 2월 장수왕의 대송 외교와 관련되어 있을 법하다. 장위의 파견 시점이 분명하지 않지만, 고구려의 마루가 2월에 송에 갔음을 감안하면 그보다 늦었을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구이신왕의 425년 대송 외교는 앞서 이루어진 장수왕의 대송 외교에 대한 대응의 측면이 컸을 것이다. 429년 7월 사신 파견의 경우 비유왕 즉위 3년차이므로 구이신왕의 부고와 비유왕의 즉위를 알리고자 함이 기본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427년 고구려의 평양 천도를 의식한 외교적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임기환, 2002).

장수왕의 대송 외교는 436년 6월 송 문제에게 사신을 보내 조공함으로써 재개되었다[표 22번]. 당시는 436년 4~5월 북연왕 풍홍과 북연민의 쇄환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북위의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간 직후였다. 따라서 장수왕이 송에 사신을 파견한 까닭은 북연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북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거나 북위를 견제하기 위한 외교전술 차원으로 파악되었다(김종완, 2002; 임기환, 2003; 김진한, 2018; 2020).

438년 고구려는 송으로 망명을 요청한 북연왕 풍홍의 신병 처리를 두고 송과 긴장 국면을 맞이하였다. 고구려는 북위·송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풍홍을 제거하였다. 송과는 두 나라의 관계가 파탄 나지 않는 선에서 타협하였다[표 25번]. 그래서인지 439년 송 문제가 북위 토벌용으로 군마를 요청해 왔을 때 장수왕은 선뜻 말 800필을 보내주었다[표 26번]. 이때 고구려가 송에 보낸 군마 역

시 유목·수렵사회와 농목교역을 한 결과물로 추정된다(이정빈, 2014). 물을 무서워하고 예민한 말 800필을 배에 태워 수송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북위는 북연에 이어 439년 9월 북량까지 멸망시킴으로써 화북 일대를 통일하였다. 고구려는 439년 11~12월 두 차례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후 461년까지 북위와 교섭하지 않았다[표 27~42번]. 반면에 송과는 439년의 군마 지원에 이어 441년과 443년에도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표 29~30번]. 따라서 사료의 문면상으로만 보면, 439년 이후 고구려의 대송 외교는 북위에 대한 견제책 내지 자구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江畑武, 1968; 김종완, 1995; 노태돈, 1999; 井上直樹, 2000). 그러나 451년 이전까지 송이 북위에게 실질적인 위협세력이 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고구려가 대송 외교를 통해 북위를 견제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김진한, 2018; 2020). 또한 439년 고구려가 송에 군마를 보낸 것은 전해에 벌어졌던 풍흉 문제 수습을 위한 후속 조치로 보기도 한다. 고구려가 북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대송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중립적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이성제, 2004).

이와 달리 장수왕이 백제와 왜의 대송 외교에 대한 탐색과 견제를 위해 송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주장도 있다(김철민, 2016). 실제로 백제는 고구려와 송이 교섭한 440년과 443년에 엇치락뒤치락하며 역시 송에 사신을 보냈다[표 28·31번]. 당시 비유왕이 송에 사신을 파견한 배경은 고구려의 공세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외교적으로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김철민, 2016; 임동민, 2020). 말하자면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 송을 이용해 상대 국가를 외교적으로 견제하려 했던 셈이다. 그러나 443~451년 유연-북위-송 사이에 공방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송서』 권95) 고구려와 백제가 송에게 기대했던 바가 실제로 구현되지는 못한 것 같다. 한편 고구려가 439년에 송과 북위에 연이어 사신을 파견한 데 주목한 연구도 있다. 고구려가 남북조 간의 세력균형을 통해 독자적인 세력권을 유지하려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다(정재윤, 2009).

고구려와 송의 관계는 444~450년 공백기를 가졌다. 고구려가 송에 다시 사신을 파견한 것은 451년에 이르러서였다[표 35번]. 453년과 455년, 457년에도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표 36~38번]. 453년은 송 효무제가 즉위한 해이므로 즉위를 축하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었을 것이다(백다해, 2016). 고구려가 송 내부 동향에 긴밀한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455년 송 문제의 국상(國喪) 2주기 조문 사신단을 파견한 것은 이례적이었다(김종완, 1995; 2002). 좀 더 높은 차원의 외교적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459년에는 숙신(肅愼)을 대동해 가서 호시(楛矢)와 석노(石弩)를 바쳤다[표 41번]. 호시와 석노는 숙신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송이 필요했던 무기였다(이동훈, 2019).

450년대 고구려 대송 외교의 배경이 북위 및 백제에 대한 외교적 견제책이라는 측면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433년 이후 신라와 백제 사이에 소위 ‘나제동맹’으로 칭하는 군사적 협력관계가 모색되었고, 고구려에 종속되어 있던 신라가 급격히 이탈해 454년에는 군사적으로 충돌함으로써 두 나라의 우호관계가 파탄남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장수왕으로서는 송에게 북위와 백제를 외교적으로 동시에 견제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기대했을 것이다. 특히 북위와의 북방전선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백제를 상대로 남방 진출에 주력하고자 하는 상황 조건의 마련이

이전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었을 것이다.

450년대 고구려의 대송 외교는 좀 더 다양한 목적하에 추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450년대 북위와 송이 각축전을 지속함에 따라 고구려로서는 산동 일대의 영유권 및 정세 탐색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백다해, 2016). 또한 경제적·문화적 욕구 충족 차원에서 대송 외교의 배경을 환기한 연구도 있다. 곧 강남 일대에 모이는 동아시아 각국의 상품과 서적·의복 등 선진문물을 수입해 오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김진한, 2018). 이러한 측면은 백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비유왕이 450년 1월 조공하면서 국서를 보내 『역림(易林)』⁶과 식점(式占)⁷·요노(腰弩)를 요구했고 문제가 이를 들어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표 34번]. 요노는 일반 쇠뇌와 달리 허리의 힘으로 장전하여 살상력을 높인 신무기였는데, 백제로서는 고구려와의 전쟁에 활용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박윤선, 2008; 임동민, 2020).

고구려가 459년의 사행에 숙신을 대동한 까닭은 고구려가 숙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임을 과시하고 송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이동훈, 2019). 게다가 당시 요서와 부여 등 고구려 서북방의 동향이 안정적이지 못했다. 북위가 450년대 후반 요서 일대의 통치를 강화하자(『위서』 권5) 고구려의 부담이 증대되었다. 장수왕은 이에 서북방 세력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역내 세력에 대한 영향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숙신 사신을 데리고 송으로 갔다고 추정된다(백다해, 2020).

6 전한시대 초연수(焦延壽, 焦贛)가 지은 점술 관련 책이다(『隋書』 권34 經籍3).

7 식반(式盤)을 이용하여 점을 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고구려와의 외교에도 불구하고 송은 북위의 공격을 받은 450년 이후 점차 쇠퇴해 갔다. 453년에 문제가 시해되었고 효무제 즉위 후에도 454년에는 남군왕(南郡王) 의선(義旋)이, 459년과 461년에는 경릉왕(竟陵王) 탄(誕)과 해릉왕(海陵王) 휴무(休茂)가 반란을 일으키는 등 내부 정세가 불안하였다(『송서』 권68·권79). 이에 고구려는 대송 일변도의 외교 대신 북위와의 관계 개선에 점차 시선을 돌린 듯하다. 462년 3월에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가 재개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김종완, 2002).

3) 『삼국사기』의 대송 관계 기사 누락과 그 의미

고구려와 송은 420년부터 461년까지 상호 간에 15회 교섭관계를 맺었다(표 참조). 420년과 422년에 이루어진 송의 장수왕에 대한 책봉이 사신 파견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교섭의 횟수는 13회로 줄어든다. 고구려와 송의 관계에 대한 기록은 『송서』 본기와 열전 고구려국조, 그리고 『삼국사기』에 실려 있다.

그런데 438년과 45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송서』만을 전거로 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곧 전체 15건 중 『삼국사기』에는 2건만 남아 있고 13건은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송이 멸망하는 479년까지 확장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462년 이후에도 고구려는 송과 13회 교섭하는데 이중 3회만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⁸ 이들 기록 중에는 고구려

8 고구려의 대송 외교 기록 전거 및 『삼국사기』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최일례의 논문(2013), 244~245쪽 참조.

에서 선제적으로 송에 사신을 보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누락된 까닭을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 고구려와 북위 간 관계 기록이 『삼국사기』에 일일이 남아 있는 것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백제와 송의 관계 기록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다. 백제와 송이 9회 교섭했는데, 『삼국사기』에는 3회만 실려 있다. 고구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누락의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고구려의 대송 외교 기록이 『삼국사기』에 누락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먼저 『삼국사기』 편찬 과정이나 편찬자의 사료관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가 있다. 곧 『삼국사기』 찬자가 『송서』를 인용하지 않은 국내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고구려본기를 편찬하였기 때문에 대송 외교 기록이 『삼국사기』에 누락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다(田中俊明, 1982). 이와 달리 『삼국사기』가 『자치통감』을 많이 참고했는데, 『자치통감』에 『송서』의 대고구려 외교 관련 기록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에도 자연스럽게 누락되었다는 견해도 있다(신동하, 1995). 한편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가운데 『송서』 본기 기록이 원전인 경우를 찾을 수 없는 데 주목하여 『삼국사기』 편찬자가 고의로 『송서』 본기를 인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한다. 다만 찬자의 고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유보하였다(전덕재, 2018).

고구려의 외교적 입장 내지 내부 정치적 이유에서 누락의 이유를 찾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송서』에 꼼꼼히 기록되어 있는 고구려와의 교섭 기록이 『삼국사기』에 대거 누락된 것은 양국 관계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곧 양국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고구려보다 남조 송의 필요성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윤명철, 2003). 그러나 고

구려가 전체적으로 대송 외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주장이다.

『삼국사기』 편찬자는 고유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국 측 사서에 없다고 해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곧 『삼국사기』 찬자가 송과의 외교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 당대에 송과의 외교 기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연구도 있다. 그 이유를 고구려 당대 정치사에 찾으려 하였다. 곧 장수왕 중반기까지 송 중심의 외교를 추구했던 정치 세력과 이후 북위 중심의 외교를 주도했던 정치 세력이 나누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440~461년까지 송 중심의 외교가 결국 고구려의 국익에 손실을 초래하였고, 이후 북위와의 외교를 강화했던 세력이 이전까지의 대송 외교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이다(최일례, 2013). 이러한 주장은 대외 외교의 주도 세력을 일원적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동태적으로 조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감이가 간다. 다만 고구려가 462년 이후 북위 중심의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2~3년마다 송과 꾸준히 교섭하는 것을 보면, 송·북위와의 외교를 주도했던 정치 세력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증이 필요하다.

한편 백제 구이신왕대 송과의 교류 기사가 『삼국사기』에 누락된 까닭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의 분석이 있다. 『송서』에는 420년과 424년에 백제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내용이 남아 있는데[표 4·8번], 당사가 구이신왕 재위 시기(420~427년)임에도 불구하고 조공·책봉의 주체를 영(전지왕)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백제왕의 이름이 잘못 표기되었기 때문에 『삼국사기』의 찬자가 『송서』의 기록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박윤선, 2008). 실제로 비유왕대(427~455년) 대송 외교 기록

중에서 429년, 430년, 440년의 기록은 『송서』와 『삼국사기』에 동시에 실려 있다[표 12·13·28번]. 다만 구이신왕과 개로왕대(455~475년) 대송 외교 기록은 『삼국사기』에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그 이유에 대한 다른 합리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3. 백제 및 신라와의 관계

1) 백제와의 각축

광개토왕대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던 고구려와 백제는 장수왕 즉위 후 집권 전반기에는 『삼국사기』에 직접적인 교전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고구려가 북연을 둘러싸고 북위와 갈등했고, 436년 북연이 멸망한 후에는 북위와 국경을 맞대면서 긴장 국면이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고구려는 북위·송과의 외교전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고, 백제에 대한 견제도 대송 외교를 통해 관철시켜 나가려 하였다. 서북방에서 북위와의 긴장 국면을 안고 고구려가 백제를 선제 공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백제로서도 대송 외교를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거나 축성사업을 통해 방어체계를 정비하는 수준의 행보를 보였다. 전지왕은 417년에 동부인과 북부인을 징발해서 사구성(沙口城)을 쌓았다(『삼국사기』 권25 전지왕 13년). 병관좌평 해구(解丘)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하게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축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구성의 위치는 구체적으로 비정하기 어렵지만, 이름에서 유추해 볼 때 해안 근처에 있었을 가

능성이 크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3 해주목 봉수에 ‘사포곶(沙浦串)’과 ‘사곶(沙串)’이 나오는데, 후보지로 주목할 만하다. 고구려와 백제는 4세기 후반부터 관미성(關彌城) 등 한강 하류의 경기만을 둘러싼 제해권 쟁탈전을 벌여 왔다. 사구성의 축조도 이러한 측면과 관련이 있을 법하다(장창은, 2014).

장수왕은 427년에 수도를 기존의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삼국사기』 권18 장수왕 15년). 평양 천도는 고구려가 처한 대내외적인 배경하에서 추진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가장 큰 부담을 느낀 것은 백제였다. 4세기 중반부터 예성강과 한강 유역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각축전을 벌였던 백제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남진의 거점을 남하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 평양 천도 이후 백제가 고구려에게 느끼는 압박감은 점차 증대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평양 천도를 전후한 424~425년과 429~430년에 집중된 백제의 대송 외교는 고구려를 의식한 외교적 돌파구 차원이었을 것이다.

백제가 선택한 또 다른 전략은 4세기 말부터 고구려와 종속적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신라를 고구려에서 떼어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이에 비유왕은 433년 7월에 먼저 신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이듬해 2월에 또 사신을 보내 좋은 말 2필을 선물로 주었다. 9월에도 흰 매를 보내주었다. 백제가 세 차례에 걸쳐 연이어 신라에 적극적인 구애를 한 것이다. 결국 신라도 이에 화답해 434년 10월 질 좋은 금과 명주(明珠)를 보내 답례하였다(『삼국사기』 권3 눌지마립간 17년·18년; 권25 비유왕 7·8년).

학계에서는 이때 신라와 백제 두 나라 간에 동맹이 맺어진 것으로 파악한다. 일반적으로는 ‘나제동맹’으로 부르지만, 동맹을 주도한 국가가

백제이므로 ‘제라동맹’으로 호칭함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박진숙, 2000; 노중국, 2012). 또한 동맹의 결성 시기를 동맹군의 군사적 활동이 나타나는 455년으로 보거나(정운용, 1996; 2006), 475년 백제 한성 공파 때 파견된 신라 구원군 1만 명에 주목해 실질적인 군사동맹은 전해인 474년에 체결되었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유우창, 2006; 2009). 한편 433~434년 백제와 신라의 사신 교환과 우호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동맹 절차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동맹’이라는 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도 있다. 433년 이후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군사 협력단계(체제)’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정재윤, 2001; 위가야, 2018; 공석구, 2020).⁹

결국 ‘나제동맹’은 427년 고구려가 평양 천도를 단행함으로써 백제와 신라가 공동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대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는 신라와 백제의 동맹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자국에 종속되어 있던 신라가 숙적 백제와 우호를 모색한 것은 그 행위 자체로만 보아도 충분히 나무라거나 응징할 법한 데도 말이다. 그것은 아마도 430년대 고구려가 처한 대내외적인 상황 때문인 듯하다. 고구려는 평양 천도 이후 기반시설 정비 및 통치체제 정비 차원에서 한동안 내정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평양 천도를 전후하여 ‘국내성계’와 ‘평양성계’의 정치적 갈등과 숙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서영대, 1981; 박성봉, 1984; 김병남, 1997). 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30년대 북연을 둘러싸고 북위와 일촉즉발의 긴장 국면

9 433년 이후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최근 연구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군사적 협력관계’ 정도로 개념화하는 것이 옳다. 다만 여기에서는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제동맹’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을 맞이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국경을 맞댄 채 지속되었다. 곧 고구려가 처한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이 백제와 신라의 동맹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끔 했던 것으로 보인다(장창은, 2008).

그렇다면 고구려의 백제를 상대로 한 남방 진출은 북위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원만하게 단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훗날의 일이지만 장수왕이 475년에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한성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도 462년 이후 북위와 우호관계를 구축해 나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는 장수왕이 439년에 두 차례 사신을 보내 조공한 후 461년까지 단절되었다[표 참조]. 이 기간에 고구려와 북위 사이 긴장 상황이 유지된 것이기도 하지만, 직접 충돌이 없었다는 데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위와 고구려는 자국이 처한 사정으로 인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셈이다. 말하자면 비록 북위와의 긴장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430년대에 비해서는 남방 진출의 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한 것은 455년에 이르러서였다. 곧 그해 10월에 고구려가 백제를 침입하자 눌지왕이 군사를 보내 구원했다는 내용이다(『삼국사기』 권3 눌지마립간 39년). 나제동맹군의 첫 번째 군사활동이었다. 다만 455년까지 고구려와 백제 간에 전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472년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외교문서의 내용이 주목된다.

개로왕은 북위 효문제에게 “... 추악한 무리들(고구려)이 점차 성해져서 드디어 [백제가] 능멸과 꺾박을 당하게 되었으며, 원한과 병화가 이어진 지 30여 년에 재물도 다하고 힘도 고갈되어 점점 약해지고 위축되었습니다”라고 호소하였다(『삼국사기』 권25 개로왕 18년; 『위서』 권100). 곧 외

교문서에 따르면, 442년 전후부터 고구려가 백제를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개로왕이 북위로 하여금 고구려를 쳐들어가게끔 하기 위한 외교적 과장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백제는 그동안 남조 송과만 교섭하였지 북위에 이때 처음 사신을 파견한 것이다.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것은 당시 백제가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위기에 빠져 있었음을 시사한다. 불과 3년 후에 백제 한성시대가 종식된 것은 갑작스러운 사건이라기보다는 두 나라의 적대적 관계가 누적된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장수왕이 북위와의 관계가 소강상태로 들어간 440년 이후 백제를 주요 목표로 한 남진정책을 추구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2) 대신라 관계의 변화

장수왕 즉위 당시 신라의 왕은 실성왕(402~417년)이었다. 실성왕은 재위 11년(412년)에 나물왕의 아들 복호(卜好)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다(『삼국사기』 권3 실성이사금 11년).¹⁰ 실성 자신도 즉위 전 고구려에서 10여 년간 인질 생활을 했었다. 당시 신라는 고구려에 정치적 간섭을 받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실성왕은 415년 7월 혈성(穴城)의 들뜰에서 군대를 크게 사열하였다. 그리고 금성(金城) 남문에 행차하여 활쏘기를 구경하였다(『삼국사기』

10 『삼국유사』 권1 기이2 나물왕(奈勿王) 김제상(金堤上)에 따르면, 눌지왕 3년(419년)에 보해(寶海: 복호)를 고구려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나물왕-눌지왕계와 실성왕계가 정치적으로 갈등하면서 인질외교를 활용했다는 측면을 고려해 『삼국사기』 권3 실성이사금 11년 기록을 따른다.

권3 실성이사금 14년). 실성왕은 열병 의식을 통해 군사통수 능력을 과시 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신라 내정은 고구려의 감시와 간섭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성왕의 이러한 행보는 장수왕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을 법하다(우선정, 2000; 장창은, 2008).



그림1 |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대왕'명 호우(壺杆)
(국립중앙박물관)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대왕'명 호우(壺杆)는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시사해주는 실물자료이다. 명문은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乙卯年國置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이라고 적혀 있다. 광개토왕의 시호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청동합의 제작 시기인 을묘년은 415년임이 분명하다(김재원, 1946). 이때는 장수왕 즉위 3년이자 아버지 광개토왕의 3년상이 끝나는 해였다. 따라서 이 청동합은 광개토왕의 장례의식과 관련하여 고구려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신라로 유입되어 경주 왕족의 무덤에 부장될 수 있었을까?

먼저 제작 연대를 존중하여 장수왕이 실성왕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한 연구가 있다(鈴木治, 1959; 김정배, 1988). 같은 실성왕대이지만 광개토왕을 장사지낸 1년 뒤 왕릉의 제사의식에 참석했던 신라 사신이 호우를 받아서 가져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노태돈, 1997). 이와 달리 눌지왕 2년(418년)에 고구려에 볼모로 갔던 복호가 돌아오면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김재원, 1946). 어느 경우인지 단정할 수 없겠지만, 청동합의 제작 및 신라로의 반입 시점과 경위는 당시 고구려와 신

라의 종속적 우호관계와 떼놓고 말하기 어렵다. 신라 왕족 내지 귀족의 것임이 분명한 무덤에 고구려 광개토왕의 이름이 새겨진 청동합이 부장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실성왕은 나물왕의 큰아들이었던 눌지를 제거하기 위해 고구려 군사를 끌어들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고구려 군사는 도리어 실성을 살해하고 눌지를 왕으로 세운 후 돌아갔다(『삼국사기』 권3 눌지마립간 즉위년; 『삼국유사』 권1 제18 실성왕). 실성왕의 죽음과 눌지왕의 즉위를 좌지우지할 정도도 고구려 세력이 신라의 내정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눌지왕은 비록 고구려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왕위에 올랐지만 실성왕과 달리 고구려에 볼모로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한 정권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눌지왕은 즉위 후 김씨 왕실 중심의 권력 강화를 추구하였고, 그 전제 조건으로 고구려 세력의 축출을 기도하였다. 눌지왕이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정치의 교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실성왕대 고구려에 인질로 가 있던 복호를 귀환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런데 복호의 귀환 시기와 과정이 『삼국사기』(권3 눌지마립간 2년; 권45 박제상전)와 『삼국유사』(권1, 나물왕 김제상) 간에 차이가 난다. 곧 『삼국사기』는 복호의 귀환이 눌지왕 2년(418년)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삼국유사』는 눌지왕 9년(425년)¹¹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귀환 과정도 『삼국사기』가 박제상의 언변으로써 장수왕의 허락을 받아 순탄했다면, 『삼국유사』는 치

11 ‘눌지왕 10년 을축(乙丑)’으로 되어 있는데, 간지(干支)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눌지왕 9년’으로 수정하였다.

밀한 사전 계획 아래 우여곡절을 겪으며 극적으로 탈출했다고 되어 있어 대조적이다.

북호의 귀환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는 『삼국사기』를 신뢰하는 경향이 우세하다(채미하, 2012; 박남수, 2019). 반면에 『삼국유사』가 북호의 귀환 시기와 과정에 대한 역사적 진실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주보돈, 1998; 장창은, 2008). 왜냐하면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집권한 눌지왕이 왕권이 아직 안정되지 못한 즉위 다음 해 곧바로 반고구려정책 차원에서 북호를 귀환시키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장수왕의 양해와 허락을 받아 데려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 박제상의 언변으로 고구려가 북호를 순순히 놓아주었다는 기록은 박제상의 충절이 후대에 회자되고 기록에 실리는 과정에서 유교적으로 분식된 듯한 인상을 준다. 따라서 북호의 귀환은 눌지왕이 신라 내정에서 고구려 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재위 9년(425년) 치밀한 계획하에 고구려에서 탈출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은 신라가 본격적으로 고구려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의 첫 발로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장창은, 2008).

433~434년 백제의 주도로 이루어진 ‘나제동맹’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도출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신라가 4세기 말부터 이어져 왔던 고구려와의 종속적 우호관계를 청산하고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숙적 백제를 제압해야 하는 숙명에 더해, 그동안 자신들 편에서 백제를 적절히 견제해 주었던 신라마저 자국의 세력권에서 이탈해가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었다.

표 5세기 초·중반 고구려와 백제의 대중국 관계*

연번	서기년	고구려	백제	주체 국가 (과건 성격)	세부 내용	비고	전거
1	413	장수왕 1	전지왕 9	고구려 → 동진 (조공·책봉)	장사(長史) 고익(高翼)을 보내 표를 받들고 자백마(赭白馬)를 바침. 동진 안제(安帝)가 연(璉)을 사지절 도독영주제군사 정동장군 고구려왕 낙랑공(使持節 都督營州諸軍事 征東將軍 高句麗王 樂浪公)으로 봉함.**		『삼국사기』 장수 원년, 『진서』 권10 안제 의희 9년, 『송서』 권97 고구려국
2	416	장수왕 4	전지왕 12	동진 → 백제	동진 안제가 사신을 보내 여영(餘映: 전지왕)을 사지절 도독백제제군사 진동장군 백제왕(使持節 都督百濟諸軍事 鎮東將軍 百濟王)으로 봉함.		『삼국사기』 전지왕 12년, 『송서』 권97 백제국
3	420	장수왕 8	전지왕 16 구이신왕 1	송 → 고구려 (책봉)	7월 송 무제(武帝)가 고련(高璉: 장수왕)을 사지절 도독영주제군사 정동대장군 고구려왕 낙랑공(使持節 都督營州諸軍事 征東大將軍 高句麗王 樂浪公)으로 봉함.	• 동진 멸망, 6월 남송 건국. • 사신 파견 없는 송의 일방적 책봉.	『송서』 권3 무제 하 영조 원년 및 권97 고구려국
4			구이신왕 1	송 → 백제 (책봉)	7월 송 무제가 부여영(전지왕)을 사지절 도독백제제군사 진동대장군 백제왕(使持節 都督百濟諸軍事 鎮東大將軍 百濟王)으로 봉함.	사신 파견 없는 송의 일방적 책봉.	『송서』 권3 무제 하 영조 원년 및 권97 백제국
5	422	장수왕 10	구이신왕 3	송 → 고구려 (책봉)	장수왕에게 산기상시(散騎常侍)와 독평주제군사(督平州諸軍事) 책봉호를 더해줌.		『송서』 권97 고구려국
6	423	장수왕 11	구이신왕 4	고구려 → 송 (조공)	3월 사신을 보내 조공.		『송서』 권4 소제 경평 1년
7	424	장수왕 12	구이신왕 5	고구려 ↔ 송 (조공·치사)	2월 장사 마루(馬婁) 등을 송의 왕궁으로 보내 방물을 바침. 송 소제(少帝)가 알자(曷者) 주소백(朱邵伯)과 부알자(副謁者) 왕소자(王邵子) 등을 보내 치사함.		『송서』 권4 소제 경평 2년 및 권97 고구려국

연번	서기년	고구려	백제	주체 국가 (과건 성격)	세부 내용	비고	전거
8	424	장수왕 12	구이신왕 5	백제 → 송 (조공)	영(映: 구이신왕)이 장사 장위(張威)를 보내 공물을 바침.	424~425년 태무제, 유연 원정.	『송서』 권97 백제국
9	425	장수왕 13	구이신왕 6	고구려 → 북위 (조공)	사신을 보내 조공.		『삼국사기』 장수 13년
10				송 → 백제 (조서)	송 문제(文帝)가 겸알자(兼調者) 여구은자(婁久恩子)와 겸부알자(兼副調者) 정경자(丁敬子) 등을 보내 구이신왕의 노고를 위로하는 조서를 줌.		『송서』 권97 백제국
11	427	장수왕 15	구이신왕 8 비유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구려, 평양 천도. 427~428년 유연의 북위 침공. 	
12	429	장수왕 17	비유왕 3	백제 → 송 (조공)	7월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침.	5월 북위, 유연 공격 대응.	『삼국사기』 비유 3년, 『송서』 권5 문제 원가 6년
13	430	장수왕 18	비유왕 4	송 → 백제 (책봉)	4월 송 문제가 비유왕이 방물을 바친 것에 대해 전지왕의 작호를 이어받게 함.	416년 받은 작호를 의미함.	『삼국사기』 비유 4년, 『송서』 권97 백제국
14	431	장수왕 19	비유왕 5			하(夏) 멸망.	
15	432	장수왕 20	비유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1월 북위, 북연 공격. 12월 북연 풍숭(馮崇), 북위로 망명. 	
16	433	장수왕 21	비유왕 7			2월 북위가 풍숭을 ‘~요서왕(~遼西王)’으로 책봉.	

연번	서기년	고구려	백제	주체 국가 (과건 성격)	세부 내용	비고	전거
17	434	장수왕 22	비유왕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북위, 유연과 통혼. • 6월 북위, 북연 공격. 	
18	435	장수왕 23	비유왕 9	고구려 ↔ 북위 (조공·책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그 나라의 휘(諱)를 알려줄 것을 청함. • 북위 태무제(太武帝)가 황실 계보와 휘를 적어 주고, 원외산기시랑(員外散騎侍郎) 이오(李敖)를 보내 장수왕을 도독요해제군사 정동장군 영호동이중랑장 요동군개국공 고구려왕(都督遼海諸軍事 征東將軍 領護東夷中郎將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으로 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월 북연과 송, 조공·책봉. • 고구려 조공 2일 후 (6.22.) 북위가 북연 공격. 	『삼국사기』 장수 23년, 『위서』 권100 고구려, 『자치통감』 송기 문제 원가 12년 6월 병오
19				고구려 → 북위 (사은사)	가을 사신을 보내 사은함.	11월 북연 풍홍(馮弘), 고구려 망명 타진.	『삼국사기』 장수 23년
20	436	장수왕 24	비유왕 10	북위 → 고구려 (조유)	2월 북위가 북연 정벌 계획을 고구려 등 여러 나라에 보내 알리고 깨우침.		『위서』 4상 세조 태연 2년, 『자치통감』 문제 원가 13년 2월
21				북위 → 북연 (전쟁) 고구려 → 북연 (구원) 북연 → 고구려 (귀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월 북위의 아청(娥淸)·고필(古弼)이 북연의 백랑성(白狼城) 공격 함락. 장수왕, 갈로·맹광과 수만 군사를 보내 [북연의] 양이(陽伊)를 따라 화룡(和龍)에 가서 연왕(琿王)을 맞이함. • 연왕이 가호와 백성을 거느리고 고구려로 망명. 고필의 추격 실패. 북위 태무제가 고구려에 봉발(封撥)을 보내 북연왕을 보내라고 하지만 장수왕 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연 멸망. • 유연, 434년 북위와 맺은 화친 폐기 후 공격. 	『삼국사기』 장수왕 24년, 『자치통감』 송기 문제 원가 13년 4월, 5월 을묘
22				고구려 → 송 (조공)	6월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침.		『송서』 권5 문제 원가 13년

연번	서기년	고구려	백제	주체 국가 (파견 성격)	세부 내용	비고	전거
23	436	장수왕 24	비유왕 10	고구려 → 북위 (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 사신을 보내 풍홍과 함께 [북위]왕의 덕화를 받겠다고 함. 북위, 고구려 공격 의논하다가 낙평왕 비의 간언을 수용해 중지. 		『삼국사기』 장수왕 24년, 『위서』 권4상, 『자치통감』 송기 문제 원가 13년 9월
24	437	장수왕 25	비유왕 11	고구려 → 북위 (조공)	2월 사신을 북위에 보내 조공.	2월 북위 태무제가 유주(幽州) 순방, 백성 위무. 3월 남평왕(南平王) 혼(渾) 화룡에 주둔시킴.	『삼국사기』 장수 25년
25	438	장수왕 26	비유왕 12	송 ↔ 고구려 (풍홍 소환전)	3월 북연왕 풍홍이 송에 사신을 보내 망명 요청. 송 문제가 왕백구(王白駒)에게 군사 7,000명을 주어 고구려에 파견. 장수왕은 장수 손수와 고구를 보내 북풍(北豊)에 있는 풍홍과 자손 10명을 죽임. 왕백구가 고구를 죽이고 손수를 사로잡음. 장수왕은 왕백구를 사로잡아 송으로 보냄. 송 문제는 왕백구를 옥에 가두었다가 풀어줌.	북위, 유연 공격(438~449년 집중 원정).	『삼국사기』 장수 26년, 『송서』 권97 고구려국
26	439	장수왕 27	비유왕 13	송 ↔ 고구려 (군마 지원)	송 문제가 북위를 토벌하고자 고구려에 군마 요청. 장수왕이 말 800필을 보냄.	군마 관련 내용은 고구려국전에만 있음.	『송서』 권5 문제 원가 16년 및 권97 고구려국
27				고구려 → 북위 (조공)	11~12월 두 차례 사신을 북위에 보내 조공.***	9월 북위에 의해 북량 멸망. 북위의 화북 통일.	『삼국사기』 장수 27년, 『위서』 권4 상세조태연 5년
28	440	장수왕 28	비유왕 14	백제 → 송 (조공)	10월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침.		『삼국사기』 비유 14년, 『송서』 권5 문제 원가 17년
29	441	장수왕 29	비유왕 15	고구려 → 송 (조공)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침.		『송서』 권5 문제 원가 18년

연번	서기년	고구려	백제	주체 국가 (과건 성격)	세부 내용	비고	전거
30	443	장수왕	비유왕	고구려 → 송 (조공)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침.		『송서』 권5 문제 원가 20년
31	31	31	17	백제 → 송 (조공)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침.	9월 복위, 유연 남쪽 (漢南) 공격.	『송서』 권5 문제 원가 20년
32	446	장수왕	비유왕			북위, 토욕혼 공격.	
33	449	장수왕	비유왕			1~9월 북위, 유연 공격 대승. 북위 변 경 안정.	
34	450	장수왕	비유왕	백제 → 송 (조공)	1월 비유왕이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침. 국서를 보내 대사(臺使) 풍야부(馮野夫)를 서하태수(西河太守)로 삼는 것을 청하고, 표문으로 『역림(易林)』·식점(式占)·요노(腰弩)를 요구하자 송 문제가 들어줌.	7~12월 송과 북위 전쟁(북위 승).	『송서』 권5 문제 원가 27년 및 권97 백제국
35	451	장수왕	비유왕	고구려 → 송 (조공)	10월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침.		『송서』 권5 문제 원가 28년
36	453	장수왕	비유왕	고구려 → 송 (조공)	11월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침.		『송서』 권6 문제 원가 30년
37	455	장수왕	비유왕 개로왕	고구려 → 송 (조문·조공)	11월 장사 동등(董騰)을 보내 표문을 올려, [송 문제] 국상 3주기를 조문하고 방물을 바침.	『삼국사기』에는 조 공 사실만 전함.	『삼국사기』 장수 43년, 『송서』 권6 효무제 효건 2년 및 권97 고구려국
38	457	장수왕	개로왕	백제 → 송 (조공·책봉)	10월 개로왕[여경(餘慶)]이 사신을 보내 벼슬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조칙으로 허락함. 진동대장군(鎭東大將軍)에 책봉함.		『송서』 권6 효무 제 대명 1년 및 권97 백제국

연번	서기년	고구려 장수왕	백제	주체 국가 (과건 성격)	세부 내용	비고	전거
39	458	장수왕 46	개로왕 4	고구려 → 송 (조공)	10월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침.		『송서』 권6 효무 제 대명 2년
40	백제 → 송 (조공·책봉)			사신을 보내 행관군장군(行冠軍將軍) 우현왕(右賢王) 여기(餘紀) 등 11명에게 관작을 내려달라고 요청함. 이에 행관군장군 우현왕 여기를 관군장군으로, 행정로장군(行征虜將軍) 좌현왕(左賢王) 여곤(餘昆)과 행정로장군 여훈(餘暉)을 정로장군으로, 행보국장군(行輔國將軍) 여도(餘都)와 여예(餘乂)를 보국장군으로, 행용양장군(行龍驤將軍) 목금(沐矜)과 여작(餘爵)을 용양장군으로, 행영삭장군(行寧朔將軍) 여류(餘流)와 미귀(糜貴)를 영삭장군으로, 행건무장군(行建武將軍) 우서(于西)와 여루(餘婁)를 모두 건무장군으로 삼음.		『송서』 권97 백제국	
41	459	장수왕 47	개로왕 5	고구려 → 송 (조공)	11월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침. 이때 [고구려가] 중역(重譯)해 속신국(肅愼國)이 호시(楛矢)와 석노(石谿)를 바침.	고구려가 속신 사신을 데려온 듯함.	『송서』 권6 효무 제 대명 3년 및 권97 고구려국
42	461	장수왕 49	개로왕 7	고구려 → 송 (조공)	7월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침.		『송서』 권6 효무 제 대명 5년

* 이 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진서(晉書)』, 『송서(宋書)』, 『위서(魏書)』,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 『송서』에는 낙랑공(樂浪公), 『삼국사기』에는 낙랑군공(樂浪郡公)으로 되어 있다.

*** 이후 461년까지 고구려와 북위의 외교는 단절되었다.

참고문헌

- 김재원, 1948, 『호우총과 은령총』(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1), 을유문화사.
- 김중완, 1995, 『중국남북조사연구-조공·교빙관계를 중심으로』, 일조각.
- 김진한, 2020,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김한규, 1999, 『한중관계사』 I(대우학술총서 논저422), 아르케.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 노중국, 2012,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박한제,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일조각.
- 윤명철, 2003, 『고구려 해양사 연구』, 사계절.
- 이성제, 2005, 『고구려의 서방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 장창은, 2008, 『신라 상고기 정치변동과 고구려 관계』, 신서원.
- _____,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 전덕재, 2018,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 지배선, 1998, 『중세 중국사 연구-慕容燕과 北燕史』, 연세대학교출판부.
- 최진열, 2011, 『북위 황제의 순행과 호한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토마스 바필드(Thomas J. Barfield) 지음, 윤영인 옮김, 2009, 『위태로운 변경-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동북아역사재단 번역총서 19), 동북아역사재단.
- 강선, 2002, 「고구려와 오호십육국의 관계」, 『고구려 국제관계』(고구려연구 14).
- 공석구, 2019, 「나제동맹을 다시 검토한다」, 『백제학보』 30.
- 김병남, 1997, 「고구려 평양 천도의 원인에 대하여」, 『전북사학』 19·20.
- 김정배, 1988, 「고구려와 신라의 영역문제」, 『한국사연구』 61·62.

- 김종완, 2002, 「南朝와 고구려의 관계」, 『고구려 국제관계』(고구려연구 14).
- , 2004, 「고구려의 朝貢과 冊封의 성격」, 『고구려 정체성』(고구려연구 18).
- 김진한, 2012, 「413년 고구려의 對東晉使 파견과 그 배경」, 『고구려발해연구』 44.
- , 2018, 「5세기 고구려의 대송외교 재검토」, 『역사학보』 237.
- 김철민, 2016, 「고구려 장수왕대의 대송외교와 그 배경」, 『한국사학보』 63.
- 김택민, 2012, 「중국 고대 정권찬탈자들의 重譯來庭論」, 『역사학보』 213.
- 노태돈, 1997,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고구려관계 기사 검토」, 『경주사학』 16.
- , 2006, 「고구려와 북위 간의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와의 조공·책봉관계』(연구총서 15), 고구려연구재단.
- 박남수, 2019, 「『삼국유사』 기이편 「내물왕 김제상」·「제18실성왕」조와 신라의 정치과정」,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40.
- 박대재, 2007,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사」,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의 정체성』(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21), 동북아역사재단.
- 박성봉, 1984,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의의」, 『향토서울』 42.
- 박세이, 2010, 「장수왕대 北燕民 쇄환에 대한 일검토」, 『백산학보』 86.
- 박원길, 2002, 「고구려와 柔然·突厥의 관계」, 『고구려 국제관계』(고구려연구 14).
- 박윤선, 2008, 「백제와 송·제·양 교섭기사에 대한 고찰」, 『역사문화연구』 31.
- 박정기, 2006, 「5~6세기 고구려와 북위 관계의 추이」, 『지역과 역사』 19.
- 박진숙, 2000, 「백제 동성왕대 대외정책의 변화」, 『백제연구』 32.
- , 2004, 「장수왕대 고구려의 대북위외교와 백제」, 『한국고대사연구』 36;
- 2005, 『고구려의 국제관계』(연구총서5), 고구려연구재단.
- 박현숙, 2017, 「한성시기 백제의 宋·北魏와의 외교 배경과 그 양상」, 『선사와 고대』 51.
- 방향숙, 2005, 「고대 동아시아 책봉조공체제의 원형과 변형」,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연구총서 8), 고구려연구재단.
- 백다혜, 2016, 「5세기 국제정세와 장수왕대 대송관계의 성격」, 『역사와 현실』 102.
- , 2020, 「고구려와 송 교섭의 의미」, 『고구려발해연구』 66.
- 서영대, 1981, 「고구려 평양천도의 동기」, 『한국문화』 2.
- 서영수, 1981, 「삼국과 남북조 교섭의 성격」, 『동양학』 11.
- 篠原啓方, 2009, 「북연을 둘러싼 고구려의 정책과 국제질서인식」, 『한국사학보』 36.

- 신동하, 1995,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인용자료에 관한 일고」, 『삼국사기의 原典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양승덕, 2020, 「顔延之〈赭白馬賦〉 소고」, 『진지인문학』 28.
- 우선정, 2000, 「마립간시기 신라의 대고구려 관계」, 『경북사학』 23.
- 유우창, 2006, 「5세기대 ‘나제동맹’의 성립과 가라국」, 『부대사학』 30.
- , 2009, 「5~6세기 ‘나제동맹’의 전개와 가야의 대응」, 『역사와 경계』 72.
- 윤병모, 2009, 「장수왕대 고구려의 서방진출과 그 경계」, 『동방학지』 147; 2011, 『고구려의 요서진출 연구』, 경인문화사, 2011.
- 윤용구, 2005, 「고대 중국의 동이관과 고구려-東夷校尉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 위가야, 2018, 「5~6세기 백제와 신라의 ‘軍事協力體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훈, 2019, 「고구려와 북조의 조공관계 성격」, 『한국사학보』 75.
- 李凭, 「高句麗와 北朝의 관계」, 『고구려 국제관계』(고구려연구 14).
- 이성제, 2012, 「4세기 말 고구려와 後燕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68.
- , 2015, 「고구려와 북조의 책봉조공관계」, 『동양학』 58.
- , 2020, 「충주고구려비의 건립목적과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98.
- 이주현, 2008, 「위진남북조의 東夷校尉」, 서강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편, 『한중관계 2000년: 동행과 공유의 역사』(우호 전해중 선생 구순기념 한중관계사 논총), 소나무.
- 임기환, 1998, 「고구려전기 산성 연구」, 『국사관논총』 82.
- , 2003, 「남북조기 한중 책봉·조공 관계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32.
- , 2007, 「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137.
- 임동민, 2016, 「백제와 동진의 교섭 항로」, 『백제학보』 17.
- , 2020, 「백제와 송의 교섭 배경과 항로」, 『역사와 현실』 117.
- 장종진, 2011, 「5세기 전후 국제정세와 고구려 평양천도의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61.
- 전덕재, 2019, 「충주고구려비를 통해 본 5세기 중반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65.
- 정운용, 1996, 「나제동맹기 신라와 백제 관계」, 『백산학보』 46.
- , 2006, 「『삼국사기』 교빙기사를 통해 본 나제동맹 시기의 재검토」, 『백제연구』 44.

- 정재윤, 2001, 「용진시대 백제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고찰」, 『호서고고학』 4·5.
 ———, 2009, 「5~6세기 백제의 남조 중심 외교정책과 그 의미」, 『백제문화』 41.
 주보돈, 1998, 「朴堤上과 5세기 초 신라의 정치동향」, 『경북사학』 21.
 채미하, 2012, 「堤上의 末斯欣 구출과정과 신라의 성장」, 『신라사학보』 25.
 최일례, 2013, 「장수왕대 고구려의 대중외교와 그 動因」, 『한국고대사연구』 71.
 최종택, 2016, 「호서지역 고구려유적의 조사현황과 역사적 성격」, 『백제연구』 63.
 최진열, 2015, 「16국시대 遼西의 인구 증감과 前燕·後燕·北燕의 대응」, 『백제와
 요서지역』(백제학연구총서 정점백제사 7), 한성백제박물관.
 ———, 2019, 「北魏의 遼西 지배와 그 성격」, 『동양사학연구』 147.
- 堀敏一, 1993,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中華的世界と諸民族』, 岩波書店; 정
 병준·이원석·채지혜 옮김, 2012,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중화적 세계와
 여러 민족들』, 동국대학교출판부.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三岐良章, 2006, 『五胡十六國-中國史上の民族大移動』, 東方書店; 김영환 옮
 김, 2007, 『五胡十六國-中國史上의 民族大移動』, 경인문화사.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 江畑武, 1968, 「四~六世紀の朝鮮三國と日本」,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
 1994, 김기섭 편역, 『고대 한일관계사의 이해-倭』, 이론과실천.
 稻葉岩吉, 1913, 「漢代の滿洲」, 『滿洲歴史地理』 1, 南滿洲鉄道株式会社.
 三岐良章, 1982, 「北魏の對外政策と高句麗」, 『朝鮮學報』 102.
 ———, 1982, 「高句麗の對北魏外交」, 『早稻田大學大學院文化研究科紀要別
 冊』 9.
 三品彰英, 1953, 「三國史記高句麗本紀の原典批判」, 『大谷大學研究年譜』 6.
 鈴木治, 1959, 「慶州壺杆塚とその紀年について」, 『天理大學學報』 29.
 田中俊明, 1982, 「三國史記中國史書引用記事の再檢討」, 『朝鮮學報』 104.
 井上直樹, 2000, 「高句麗の對北魏外交と朝鮮半島情勢」,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8.

5세기 중반 ~ 6세기 전반기의 대외관계

4장 북위와의 교섭 재개와 5세기 후반의 대외관계

5장 6세기 전반의 대외관계

6장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의 천하관

4장

북위와의 교섭 재개와 5세기 후반의 대외관계

이성제 |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5세기 후반은 장수왕의 재위 후반기와 문자왕이 즉위한 초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고구려의 대외관계는 몇 가지 점에서 이전 시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439년 이래 단절 상태에 놓여 있던 고구려와 북위(北魏)의 관계가 재개되었다. 재개된 양국 관계에서 고구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어느 때보다 빈번했던 사절 파견의 횟수가 이를 보여준다. 이 경향은 6세기까지 이어졌다. 한편 송(宋)과의 관계는 북위와 송이 대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 송을 이은 남제(南齊)에 대해서도 고구려는 사절을 보내고 그 책봉(冊封)을 받음으로써 관계를 이어나갔다. 이와는 별도로 고구려 북방에서는 물길(勿吉)이, 한반도 방면에서는 전대 이래의 숙적인 백제에 더하여 신라가 본격적으로 고구려에 적대하기 시작하였다. 백제가 북위에 고구려 공격을 요

청한 일이나 만주 북부의 물길이 북위에 조공(朝貢)하고 고구려 공략의 의사를 밝힌 사건은 이들의 존재가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에 새롭게 개재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준다. 또한 신라가 고구려에 적대하였다는 것은 종속적 관계에 있던 신라가 고구려 세력권으로부터 이탈해 나갔음을 뜻한다.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었고, 그것은 어느 한 방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이 시기 대외관계의 특징이 있었던 것이다.

462년 3월 장수왕은 사절을 북위에 보내 조공하였다. 이때의 사절 파견은 장수왕 27년(439년) 이후 23년만의 일이었다. 이 사실은 대북위 외교를 중단하고 있던 고구려가 태도를 바꾸었음을 뜻한다. 장수왕은 그동안의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양국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급격한 외교의 변화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일까. 이를 살피는 것은 이 시기 고구려의 대외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북위 외교를 중단한 채 송 일변도의 외교를 전개해 왔다는 사실은 고구려가 대북위 외교를 재개하게 된 배경과 의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구려가 대북위 외교를 재개하였다는 것은 송 일변도의 외교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판단이 나올 수 있었던 정세의 변화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62년 이래 고구려는 거의 매년 사절을 북위에 보냈고, 북위의 사자도 고구려를 오갔다. 이러한 양국의 교류와 별도로 고구려는 대송외교를 이어나갔고, 송을 이은 남제에 대해서도 사절을 파견하였다. 북조(北朝)와 남조(南朝)가 대치하고 있던 중국 내의 형세 속에서 고구려는

양측을 오가는 외교를 전개했던 것이다. 언뜻 보기에 양면외교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 시기 남북조와의 관계에서 고구려가 중시한 것은 북위였다. 북위에 보낸 사행의 압도적인 빈도가 이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북위 위주의 외교를 통해 고구려가 의도했던 국제관계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교가 6세기 전반까지 유지된다는 점에서도 그 내용과 의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한편 472년 개로왕이 북위에 사자를 보냄으로써 백제의 존재가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에 등장하게 된 사건은 이 시기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고구려 북쪽의 물길(물길)이 북위에 조공하고 고구려 공략의 의사를 밝힌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이렇듯 만주 북부에 자리잡은 물길과 한반도에 자리잡은 백제는 고구려를 적대하고 있었다. 그러던 백제·물길과 고구려의 관계가 북위와의 관계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백제·물길과 고구려의 대북위 외교를 추동한 계기는 무엇인지, 백제·물길의 대북위 외교는 고구려의 대외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불러왔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한반도 동남부의 신라가 고구려 세력권에서 벗어나 고구려를 적대하게 되었다. 신라가 적대하면서 고구려는 한반도 방면 전역에서 적대세력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국면에서 고구려는 한성(漢城) 공략과 함께 신라에 대한 파상적 공세를 이어나갔다. 고구려의 공세에 맞서 신라와 백제가 상호 간 원병을 보낸 것도 이 시기의 일이었다. 이들 공방전의 추이를 살펴, 이 시기 고구려가 직면했던 한반도 방면의 문제와 그것이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환경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상의 이해를 토대로 이 시기 고구려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논의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35년 책봉·조공 관계의 성립 이래, 북위가 고구려를 동북아 지역의 패자(覇者)로 인정해왔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시기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1. 5세기 후반의 국제정세와 남조와의 관계

1) 북위·송의 대결관계와 대송 외교

고구려가 대북위 외교를 중단한 것은 439년의 일이었다. 양국 관계의 단절은 고구려가 다시 북위에 사절을 보낸 462년까지 이어졌다. 한편 고구려와 송의 관계는 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고구려는 439년과 441년, 443년에 송으로 사절을 파견하였고, 대북위 외교를 재개한 462년까지 송 일변도의 외교를 이어나갔다. 이 시기 고구려의 대중국 관계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고구려가 대송 외교에 의지하여 북위의 세력 확대에 맞서고 있었다는 점이다.

439년은 북위가 화북을 통일한 해였다는 점에서 5세기 후반의 고구려와 중국 남북조의 관계는 북위의 화북 통일 이후 전개된 국제정세와 긴밀하게 연동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점에서 먼저 북위의 화북 통일 이후 국제정세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439년 5호(胡)의 여러 나라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하서(河西: 감숙성(甘肅省) 서부와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동부]의 북량(北凉)이 북위

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이렇게 화북을 통일한 북위는 북방에서 위협하고 있던 유연(柔然)을 상대로 북벌을 거듭하여 그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북위의 세력은 음산산맥(陰山山脈)의 북쪽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박한제, 1988; 窪添慶文, 2020). 이렇게 북위가 화북을 통일하면서 송과 남북으로 대치하게 되었고, 두 세력 간에 대결이 벌어졌다.

450년 송 문제(文帝)는 대규모 북벌을 감행하여 낙양(洛陽)과 그 동방의 요충 호뢰[虎牢: 하남성(河南省) 형양(滎陽)], 활대[滑臺: 하남성 활현(滑縣)]에서 북위를 몰아냈다. 양국은 황하(黃河)를 경계로 하면서도, 황하 이남의 이들 지역만은 남진의 교두보로 북위가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적 요충을 북위로부터 빼앗았다는 점에서 송의 공세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었지만, 그 성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해 말, 북위 태무제(太武帝)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송군을 격파하고 연말에는 장강(長江)의 북안(北岸)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때의 전쟁은 일단 양국의 화의로 451년에 종료되었다. 송은 태무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듬해 공격을 다시 시도하였으나 성과 없이 퇴각하였다. 이렇게 재정리된 양국의 국경선은 북위 헌문제(獻文帝) 때에 이르러 변하게 된다(窪添慶文, 2020).

송의 북방 영토는 본래 황하 남안(南岸)에서 산둥반도에 걸쳐 있었다. 이 지역은 동진(東晉) 말 유유(劉裕)가 북벌에 나서 확장한 영토로, 산둥반도는 남연(南燕)을 멸망시키고 얻은 지역이었다. 그러던 것이 450년대에 이르면 북위 황제가 직접 장강 북안까지 남정해올 정도로 송의 판도는 어느덧 황하 남안에서 회수(淮水) 지역으로 줄어들었다(藤井律之 2018).

문제는 내정을 잘 다스려 30년간의 치세(元嘉之治)를 이루었다고

일컫는 송의 2대 황제로, 국내 안정을 배경으로 450년 북벌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송의 군대는 북위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도리어 수도 건강(建康) 근처까지 적군이 몰려오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다행히 강남은 무사했으나 전란이 벌어진 회남(淮南) 지역이 황폐해지는 등 대량의 물적·인적 자원이 소모되어 이후 송의 국력은 급속히 기울기 시작했다(川本芳紹, 2005).

이상에서 살핀 중국 남북조의 대결관계를 놓고 볼 때, 이 시기 고구려의 대중국 관계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북위를 상대로 한 대결에서 송의 약세가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대송 외교를 지속했다는 점이다. 450년에 벌어진 송과 북위의 교전은 양국 대결에서 송이 역부족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 이듬해인 451년에 고구려 사절이 송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 같은 역관계에 대해 고구려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고구려는 대북위 외교를 재개한 462년까지 다섯 차례의 사절(453·455·458·459·461년)을 보내 대송 외교를 이어나갔던 것이다.

북위에 대패하여 국력이 기울기 시작한 송은 곧 문제가 453년 황태자에게 시해되었고, 아우 유준(劉駿)이 이를 수습하고 효무제(孝武帝)로 즉위하였다. 그러나 그는 문제 시해부터 시작된, 형제·일족을 차례로 살해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였고, 이 같은 일이 그 뒤에도 거듭되면서 송 왕조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川本芳紹, 2005).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고구려와 송의 관계에 어떠한 모습이 보이는지를 살펴, 고구려가 대송 외교를 추진한 의도와 외교의 의미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당시 국제관계에서 주축은 송과 북위였고, 이들의 대립이 이 시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대전제가 되었다는 이해(金鍾完, 2002)는

옳다고 본다. 그럼에도 그런 국제정세 속에서 각국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점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438년 북연왕(北燕王) 풍홍(馮弘)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고구려와 송의 분쟁 이후 전개된 양국 관계에서 고구려가 보인 입장은 결코 ‘반북위·친송’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송과 북위의 대결이 당시 국제관계의 주축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들은 고구려가 송과 연계하여 북위에 대항하려 했다고 본다(江畑武, 1968; 金鍾完, 1995; 노태돈, 1999; 김진한, 2018). 그러면서도 정작 그 상대가 되는 송의 전략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송이 북위와의 대결 속에서 고구려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점은 송과 고구려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 점에서 『송서(宋書)』에 등장하는 송이 북연왕 풍홍을 영입하려고 사절단을 보낸 사건은 송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준다. 송이 북연왕을 맞이하려 보낸 사절단의 규모는 7,000여 명이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사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송이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 요동에 세력 근거를 마련할 기회로 만들고자 했거나(노태돈, 1999; 金鍾完, 2002), 고구려나 북위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여 병력을 보낸 것(백다해, 2016)일 수 있다.

그런데 이때의 사절에 대해 송은 북연왕을 맞아들이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이를 송의 진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의하면, 북연왕 풍홍은 그의 왕국이 붕괴되기 이전 여러 차례 송에 도움을 청한 바 있었다. 그러나 송은 북위의 공격으로 위급해지고 있던 북연의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던 송이 북연왕을 위해 고구려 경내에까지 대규모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은 북연왕에 대한 송의 입장이 변했음을 뜻한다(李成制, 2003).

그러면 이때에 이르러서야 송이 북연왕을 중시하게 되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북위의 동방에 거점을 만들고자 했다면, 고구려에 의지하고 있는 망명집단을 이용하기보다는 약체였을망정 멸망 전의 북연을 지원 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나서지 않았던 송이 이때에 와서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였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

북연왕의 거취를 놓고 송이 교섭해야 할 상대는 고구려였다. 그럼에도 송의 행동은 일방적이었다. 고구려의 수중에 놓여 있던 북연왕을 내어달라는 것이나 제반 준비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욱이 송 사절단과 고구려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아 7,000여 명의 사절단에는 상당수의 병력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송의 군대와 사절이 고구려로 들어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양측의 연결로 의심받을 행동이었다. 특히 북위에게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었고, 송이 이 점을 몰랐을 리 없다. 북위가 이런 상황을 우려하게 되리라는 것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고구려가 송과 연결된다는 것은 북위의 동방이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李成制, 2003).

이러한 점에서 송이 북연왕 영입을 구실로 출병한 것은 고구려와 북위의 불안한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다고 보인다. 설령 고구려의 협력을 얻지 못하더라도 송은 전략적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북위에게 있어 이것은 두 세력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만큼 송은 북위의 위협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다.

반면 고구려는 송의 북연왕 영입 시도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미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던 대북위 관계가 이로 인해 긴박한 적대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졌던 것이다. 이에 고구려는 북연왕을 제거함으로써 송의 전략을 무위로 만들었고, 북위와 송의 대결관계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李成制, 2003). 따라서 고구려와 송의 관계는 송과 북위의 대결관계 속에서 고구려를 제2전선으로 내세우려 했던 송의 전략과 이를 간파한 고구려의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2) 송의 대북위 포위망 구축과 고구려의 전략

『송서』에 따르면, 439년 고구려는 송의 요청에 따라 말 800필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이해의 사절을 끝으로 고구려는 대북위 외교를 중단하였다. 이로부터 대북위 외교가 재개되는 462년까지 고구려는 아홉 차례에 걸쳐 송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고구려가 이 기간 동안 송 일변도의 외교를 전개했음을 뜻한다.¹ 이처럼 고구려의 외교가 송 일변도였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들은 고구려가 친송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고구려가 당시 송이 추진하고 있던 대북위 포위망에 가담했다고 이해해 왔다(江畑武, 1968; 坂元義種, 1978; 武田幸男, 1989; 徐永洙, 1981; 三崎良章, 1993; 노태돈, 1999; 朴漢濟, 1988; 金鍾完, 1995; 井上直樹, 2000). 대북위 포위망이란 북위의 군사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던 상황에서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송이 주변 여러 나라와 유대관계를

1 438년 이후 송에서 남제로 왕조가 교체되는 479년까지 40년간 고구려가 송에 사절을 보낸 것은 모두 16회로 남조의 다른 시기에 비하면 빈도가 잦다(김종환, 2002).

강화하여, 토욕혼(吐谷渾)-하(夏)-북량-유연-고구려로 이어지는 북위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한 것을 말한다(金鍾完, 1995). 중국 남북조사를 다룬 최근의 연구(崔添慶文, 2020)는 송의 대북위 포위망에서 고구려가 주요 구성원의 하나였다는 이해가 여전히 통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와 중국 왕조 간의 외교는 책봉과 조공의 형식을 통해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관계를 이해하는 데 책봉·조공의 여부와 빈도수는 중요한 단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 시기 고구려의 대송 외교는 북위와의 불안한 관계를 배경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사절의 교환 여부만으로는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고구려가 송에 사절을 보낸 아홉 차례의 사행 가운데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은 세 건에 불과하다. 438년의 사절은 풍흉을 둘러싼 분쟁 결과, 송 측에 사절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 439년의 경우는 송이 요청한 말을 보내주기 위한 사행이었다. 455년의 사절은 송 문제의 2주기(遯忌)를 위문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적어도 그 사절의 임무를 알 수 있는 사행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사행은 예외 없이 “사자를 보내 방물을 바쳤다(遣使獻方物)”는 관용적 표현만으로 기록되고 있어, 당시의 외교 현안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이 점에서 462년까지 고구려가 송 일변도의 외교를 전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 고구려가 친송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李成制, 2003). 더욱이 송 일변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외교는 송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38년과 이듬해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송이 사절을 보내온 사실을 찾

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무관심했다고 평가해도 좋을 송의 반응과 관련하여, 송과의 연결이 무얼 의미했으며, 그것은 고구려가 북위를 상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가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송 외교의 목적을 북위 견제 하나로만 설명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고, 송이 백제와 연결될 것을 우려한 대응이라고 보기도 한다(김철민, 2016; 백다혜, 2016). 하지만 송이 백제와 연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고구려와 백제의 대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정세에서 송이 차지했던 비중을 보여주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관련 이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제 송이 추진하고 있었다는 대북위 포위망과 고구려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살펴볼 차례다. 다음 자료는 450년 2월 북위 태무제가 송 문제에게 북위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순종하라고 요구한 국서의 일부다.

그대는 지난날 북으로 유연과 통모(通謀)하고 서로는 혁련정(赫連定)·저거몽손(沮葛蒙遜)·토욕혼과 결탁하고, 동으로는 풍홍·고구려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여러 나라는 내가 모두 멸하였다. 이로 보건대 그대가 어찌 홀로 설 수 있겠는가. … 내가 이제 북으로 [유연을] 정벌하는 것은 먼저 유족지구(有足之寇)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그대가 만일 [나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올 가을에 다시 와서 공격하여 차지할 것이다. 그대는 발이 없기에 먼저 치지 않을 뿐이다. 『송서』 색로전(索虜傳)

이 국서의 내용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그동안 송이 추진해온 대

북위 포위망이 언급되었고 고구려에 대한 북위의 입장도 보이기 때문이다. 국서에서 태무제는 송의 포위전략이 북위를 위협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송을 위시하여 북위를 둘러싸고 있던 주변 국가가 모두 북위에 적대했음도 부정하지 않았다. 고구려도 여기에 해당되었다. 북위는 고구려를 송 측에 선 국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북위를 저버리고 송과 연결한 국가들을 정벌했다는 국서 내용에 따르면, 고구려도 제압해야 마땅한 세력이었다. 그럼에도 실제 북위는 고구려를 침공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고구려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북위가 적대적 행동을 삼갔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李成制, 2003).

한편 인용 사료의 ‘고구려가 송과 연결되었었다’는 언급과 관련해서는 고구려가 송과, 송에 버금가게 북위를 적대한 유연의 연결을 중계 해주었다고 보거나(노태돈, 1999; 金鍾完, 2002; 李成制, 2003), 고구려가 유연과 연결되었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孔錫龜, 1998). 『송서』에 나오는 463년 송의 효무제가 장수왕에게 보낸 조서의 “사표(沙表)에 통역하여 짐의 뜻을 잘 펼칠 수 있었다”는 대목이 바로 송과 유연의 연대에 고구려가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표란 유연을 가리키며, 짐의 뜻이란 북위에 대한 공벌(共伐)을 뜻한다(金鍾完, 2002). 특히 『위서(魏書)』에 나오는 472년 백제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표문에서도 “[고구려가] 남으로 유씨(劉氏: 송)와 통하고 북으로 유연과 맹약하여 서로 순치관계를 이루면서 왕의 전략을 능멸하려 하고 있다”고 고구려와 유연의 연계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도 이 같은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이에 앞서 459년 고구려는 숙신을 동반한 사절을 송에 보낸 바 있었다. 숙신의 조공은 역대 중국 왕조에게 왕화(王化)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이때의 사행은 패전과 내전을 겪은 송의 정통성 확보에 도움을 주었다. 이 점에서 463년의 조서 내용에 보이는 사표란 사막의 나라인 유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인 숙신을 가리킨다는 이해가 최근 제시되었다(백다해, 2020). 시간적 선후관계로 보나 숙신을 동반했던 고구려 사행을 적시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견해라고 여겨진다. 송은 북위와의 대결에서 대패한 뒤 국력이 급속히 기울어가고 있어, 유연과의 군사적 제휴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후자의 이해에 따르면 사표 운운의 언급은 459년 사행에서 고구려가 숙신의 입조를 도와주었던 사정에서 나온 표현이 된다. 물론 고구려와 송 그리고 유연의 연결에 관한 내용은 백제 개로왕의 표문에서도 보인다. 이 점에서 이들 간의 연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종래와 같이 송의 대북위 포위망과 관련하여 고구려가 중계 역할을 떠맡았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북위가 고구려 공격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였을까. 고구려가 송의 대북위 포위전략에 가담했기에 북위의 위협을 견제할 수 있었다는 이해와는 다른 각도에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앞서 본 태무제의 국서로 보아 북위는 고구려를 송 측에 선 국가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북위의 위협은 상존해 있었다. 그럼에도 실제에 있어서 양국의 충돌이 보이질 않는다는 사실은 대송 외교를 앞세운 고구려의 전략이 상당히 유효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

송 일변도의 외교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전략은 송과 연결했던 유연·토욕혼 등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북위의 세력 확대

를 막고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었다고 하더라도 고구려의 전략은 송과 연결했던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구별된다. 기본적으로 고구려는 송 측에 서서 북위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전철을 따르지 않았다. 북위로서는 이들 국가들이 송과 연결될 때 그 위협은 심각해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북위는 이들을 제압해 나갔고, 심지어 일부 국가를 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제관계가 북위를 적대하는 정세였음을 염두에 두면, 북위가 사방을 적대국으로 돌려놓고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에서 북위는 힘의 우위를 내세우면서도 일방적으로 국제관계를 이끌어갈 수 없는 처지였다. 당시 양 진영 사이의 격전은 북위·송·유연 사이의 국경지대에서뿐만 아니라 토욕혼과 무도국(武都國)이 자리잡은 하남도(河南道)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송과 유연이 교통했던 경유지였기 때문이다(金鍾完, 1995). 당연히 북위는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 방면이라는 세 전선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감당해 나가야만 했다. 이것은 북위로서도 벽찬 일이었다.

고구려는 이러한 한계를 이용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438년의 풍홍사건에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를 통해 북위와 송의 대결관계에서 고구려의 전략적 중요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송의 풍홍 영입 시도는 고구려가 북위의 동방에서 새로운 전장이 될 수 있음을 북위에 인식시키는 계기였다. 고구려를 북위와의 대결관계에 끌어들이려던 송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는 고구려의 의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문제였다. 고구려는 풍홍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런 가능성을 강하게 비쳤다. 군사적 충돌이 있었음에도 사태를 마무리 짓고 양국 관계를 이어나가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439년에는 송에 800필의 말을 보

내 직접적인 군사적 제후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음을 보였다. 이와 함께 고구려는 대송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행동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러한 고구려의 태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쪽은 다름 아닌 북위였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고구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북위에게 그 항배를 의식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고구려는 대송 외교를 추진하면서도 북위의 동방을 위협하려 하지 않았다. 북위의 위협에 맞서 송 측에 기우는 경향을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견제의 선을 넘어서지 않았던 것이다. 달리 말해 북위와 송의 대결관계에서 고구려는 중립에 가까운 태도를 표방하였다. 여기에서 고구려의 전략이 다른 국가들과 달랐다고 보인다. 송 일변도의 외교에도 불구하고 송이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무관심에 가까운 반응을 유지했던 사정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한편 고구려가 중립적 입장에 선다는 것은 북위의 적대적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야 유지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고구려의 대송 외교는 만일에 있을지 모를 북위의 적대행동을 견제하는 안전판의 구실을 하였다(李成制, 2003).

고구려와 송의 관계는 고구려가 대북위 외교를 재개한 462년 이후에도 이어졌다. 고구려 사절이 여덟 차례(462·463·467·470·472·474·475·478년)²에 걸쳐 송의 수도 건강(建康)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송은 463년 7월 장수왕의 책봉호 가운데 장군호를 거기대장군(車

2 『남제서(南齊書)』 유희진전(劉懷珍傳)에는 송 태시(泰始) 연간(465~471년)에 송군이 북위의 동래태수(東萊太守)를 항복시키고 그가 억류하고 있던 고구려 사자를 건강으로 보낸 사실이 보인다(김종완, 2002).

騎大將軍)으로 진호(進號)하고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를 더해 주었다. 고구려는 대북위 외교를 재개하면서도 송과의 관계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송의 책봉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된다.

송은 479년 남제에게 왕조를 넘겼다. 남제는 건국하고 곧 장수왕을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으로 진호하였다. 이에 대해 고구려는 여노(餘奴) 등을 사절로 보냈으나, 해로로 가던 중 광주(光州) 해상에서 북위에 게 붙잡혀 돌아왔다. 이때 북위는 고구려의 월경(越境)외교를 질책하는 조서를 보냈으나, 고구려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듬해와 484년에 사절을 남제에 보냈다. 그 뒤 494년 문자왕에 대한 남제의 책봉이 있었고 496년에 진호가 이어졌다. 그해 고구려가 남제에 사절을 보낸 것을 끝으로 양국의 교섭은 더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남제는 502년 양(梁)에게 왕조를 넘기는데, 왕조의 존속기간이 짧았던 것과 함께 송 이래 거듭 이어진 내정 혼란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金鍾完, 2002).

고구려가 남제에 사절을 보낸 횡수는 네 차례에 불과하다. 전 왕조인 송에 비하면 양국 관계가 위축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450년대 이래 계속되고 있는 남조의 내정 혼란과 북위에 대해 약세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양국이 책봉·조공 관계를 이루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제를 세운 소도성(蕭道成)은 개국을 기념하는 책봉에서 장수왕에게 기존 관작 중 장군호를 높여주고 나머지는 종전대로 인정하였다. 이는 전 왕조가 행한 책봉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金鍾完, 1995). 남제는 책봉을 통해 자신들이 전 왕조와 고구려의 관계를 인정한다는 뜻을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 선언에 대해 고구려는 조공 사절을 파견하여 화답하였고, 이로써

양국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고 싶다.

한편 고구려의 대송 외교에 대해 경제·문화적 욕구에서 추진되었다는 이해도 있다(김진한, 2018). 고구려는 강남 일대에 모이는 각국의 상품들, 특히 서적·의복 등 선진문물을 입수하기 위해 송과의 교류를 지속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남북조가 대결하면서도 한편으로 사절을 교환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문물 교류가 있었으나 그것은 화의(和議)·정전(停戰)·통호(通好) 등의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외교에 부차적인 것이었고, 교역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사로이 이익을 꾀한 불법행위였다(金鍾完, 1995). 물론 남조와 교류했던 남방의 여러 나라들은 정치적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지리적 위치상 고구려나 북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양측의 사절 교환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본다.

2. 대북위 외교의 재개와 북위의 간섭전략

1) 북위와의 관계 개선 시도와 양국 관계의 전개

북연왕 풍홍의 거취를 둘러싸고 대립하던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는 장수왕 27년(439년) 고구려가 북위에 사절을 보냈다는 기록을 끝으로 관련 사서에서 교섭 사실이 보이질 않는다. 이후 상당 기간 양국은 관계를 단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양국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것은 462년(장수왕 50년)이었다. 이해 3월, 고구려는 오랫동안 관계를 단절하고 있던 북위에 사절을 보냈다. 이 사실은 23년의 기간 동안

대북위 외교를 중단하고 있던 고구려가 태도를 바꾸었음을 뜻한다. 장수왕은 그동안의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양국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노태돈, 1999).

고구려가 대북위 외교를 재개하게 된 원인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서 찾곤 하였다. 송의 약세에 따라 송과의 연결이 더이상 자위책이 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백제 개로왕이 사자를 북위에 보내 고구려 정벌을 요청하였고, 물길이가 보낸 사자가 북위에 고구려 공격 의향을 밝혔다. 이처럼 고구려 주변의 적대세력이 북위와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고구려는 이들 간의 제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북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했다는 것이다(江畑武, 1968; 朴漢濟, 1988; 李在成, 2002; 李成制, 2004; 梁起錫, 2013; 위가야, 2020). 이러한 이해는 북위의 우세가 확실시되어 가고 있던 남북조 대결관계의 추이 속에서 북위와 고구려 주변 적대세력의 연계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고구려가 북위와의 관계에 다시 나선 것은 462년인 데 반해, 백제나 물길이가 북위에 접근한 시기는 470년대였다. 고구려 주변 세력이 북위와의 연계를 도모한 것은 고구려의 대북위 외교가 재개된 이후의 일이 되는 것이다. 이 점에 주의하여 앞서의 이해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井上直樹, 2000; 2021).

한편 고구려 주변 적대세력의 동향에 보다 중점을 둔 이해도 있다.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백제와 각축해 왔는데, 여기에 더하여 신라가 백제와 동맹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고구려는 백제와 왜의 연결(古川政司, 1980; 박진숙, 2004), 백제와 신라의 동맹(孔錫龜, 1998; 井上直樹, 2000; 김진한, 2018)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위 외교를 재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이해는 이 시기 고구려의 대외관계를 남

방에서 조성되고 있던 위기상황에 초점을 두고 살피고 있다. 이 점에서 남방의 정세 변화와 그 위협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정작 북위와의 관계 개선이 어떻게 대응책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살피기에 앞서, 대북위 외교의 재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보자. 외교를 재개한 장수왕은 465~470년 해마다 사절을 북위에 보냈다. 이 가운데 467년에는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절을 보내기도 했다. 그 뒤 472~477년에는 한 해에 2회 많을 때는 3회의 사절을 보내기도 하였다. 나아가 492년에는 무려 4회나 파견하였다. 거의 매년 보내다시피했던 사절 파견의 모습은 6세기 전반까지 보인다. 사절 파견의 횟수에서나 외교의 지속성으로 보아 462년 이래 고구려가 북위에 다가가는 외교를 전개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이에 대해 북위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외교 재개라는 고구려의 유화적인 태도에 대해 북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는 5세기 후반 국제정세의 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수일 것이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 그간의 연구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고구려의 사절 파견으로 곧 양국은 우호관계로 나아갔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양국이 우호했다고 판단하기에 앞서, 고구려의 사절 파견이 보이지 않는 시기가 몇 차례 보인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462년 이후 465년에 사절이 파견되었으며, 이러한 공백이 479~484년, 495~498년에도 보인다. 470~472년처럼 1년의 공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이 같은 현상을 보였다는 것은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고구려가 대북위 외교를 재개했을 때 고구려 사절을 맞이한 북위 측의 반응을 알려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사료상 확인되는 것

은 460년대 말 북위가 고구려 왕녀의 납비(納妃)를 요구해 온 일 정도이다.³ 고구려의 대북위 외교에 대해 한동안 북위는 무시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李成制, 2004).

납비 요구에 대해 장수왕은 왕제의 딸을 보내는 것으로 응하고자 했다. 폐백을 가져온 북위 사자가 평양에 이르기도 하는 등 고구려 왕녀의 납비는 한때 성사될 뻔했지만, 결국 고구려가 북위 측의 의중을 의심하여 이 일을 무산시켰다고 한다. 여기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납비 요구에 장수왕이 응하려 했다는 점이다. ‘육궁(六宮)의 미비’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북위는 고구려 왕녀를 황제의 후궁으로 요구했을 것이다. 고구려 입장에서 결코 반길 만한 조건이 아니었을 듯하다. 왕녀를 지목한 데에서 느껴지는 북위의 태도는 상당히 고압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허실이 알려질 우려가 고구려 내부에서 제기되었듯이, 북위의 의도도 불순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李成制, 2004). 그럼에도 장수왕이 여기에 응하려 했다는 것은 이로써 우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었을까. 당시 국제관계에서 납비를 포함한 국가 간의 혼인은 서로 우호하겠다는 정치적 결합을 뜻했다(坂元義種, 1978; 朴漢濟, 1988).

이렇게 보면, 장수왕이 납비 요구에 응하려 했던 것은 대북위 외교를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위의 태도가 미온적이어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던 양국 관계를 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또한 납비를 위해 양

3 이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사료에 따라 466년(『위서』 권100; 『삼국사기』 권18), 474~476년(『위서』 권60)으로 달리 전하지만, 460년대 말에 벌어져 474~476년에 일단락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강문호, 2004; 김진한, 2006; 박정기, 2006).

국 사절이 오갔지만, 사절의 왕래가 곧바로 양국 관계의 우호를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납비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 과정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고구려의 대북위 외교 재개는 양국의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에 부족했다고 이해해야 온당하다.

5세기 후반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에서 고구려의 일방적인 사절 파견에 대해 북위는 때로는 고압적 태도를 보이며 관계 개선에 미온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러한 양상은 고구려가 양국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주도해 나간 듯이 보였던 고구려와 송의 관계와는 전혀 달랐다. 양국 관계의 주도권이 북위에 있었다는 것은 고구려가 462년 대북위 외교를 재개하게 되었던 배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무렵 고구려가 직면했던 현안은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어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고구려가 백제·신라와 한반도 내에서 각축하고 있었다는 것이나 이들 간의 동맹이, 혹은 물길과 같은 새로운 적대세력의 등장이 고구려의 대북위 외교를 추동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현안에는 북위가 당사자로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472년 백제가 북위에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는 사절을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해 북위가 보인 반응은 5세기 후반 고구려의 대외 관계에서 현안이 무엇이었는가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2) 백제의 청병외교와 북위의 간섭전략

472년 백제 개로왕은 여례(餘禮) 등을 북위에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는 표문을 올렸다. 백제는 이때에 이르러 북위를 상대로 청병외교

에 나섰던 것이다. 이전까지 양국이 사절을 교환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백제의 청병외교는 갑작스러운 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440년에 백제가 송에 사절을 보냈던 일로 보아 이해에 북위에도 사신을 보냈을 것이라는 이해가 있다(노중국, 2004). 『위서』 개로왕의 표문에 보이는 “지난 경진년(庚辰年: 440년) 이후 신의 서쪽 경계의 소석산 북쪽의 바다에서 시체 10여 구를 발견 … 나중에 들으니 황제의 사신이 신의 나라로 오다가 고구려가 길을 막아 바다에 가라앉은 것이라 합니다”라는 구절은 이때의 사절 파견에 대한 북위 측의 사행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로왕이 472년 북위에 보낸 표문의 서두 부분에 “건국 이래 고구려가 길을 막아 북위에 조공하지 못했으나 … 이제야 사신을 보내게 되었다”는 내용에서(박찬우, 2018), 이때의 일이 백제가 북위에 처음으로 보낸 사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백제는 즐곤 중국 남조의 송과 교섭해 왔는데, 이해에 갑자기 북위에 사신을 보낸 것이다. 여기에서 472년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양국 관계가 백제의 고구려 공격 요청이었다는 점은 이 무렵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를 살피는 데 주된 소재가 되어왔다.

백제와 고구려가 적대관계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 472년 백제가 대북위 외교에 나선 것은 고구려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盧重國, 1981; 김철민, 2016), 왕녀의 납비 문제로 인한 북위와 고구려의 갈등을 틈탄 외교(주보돈, 2007; 양기석, 2013),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고구려를 둘러싼 정세 변화를 공격의 호기로 여겨 북위의 힘을 빌리고자 했다는 이해(金壽泰, 2000; 박찬우, 2018; 위가야, 2020) 등이 제기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에 “개로왕은 고구려인이 여러 차례 변경

을 침범해오자 표를 올려 북위에 군대를 청하였다”는 언급이나 『위서』에 “지난 30년간 [고구려의 침입으로] 백제의 국력이 고갈되었다”는 표문 내용은 472년 무렵 고구려의 남진이 백제에 위협을 주고 있었다는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되어왔다. 하지만 사료상 확인되는 양국의 교전양상은 455년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했던 일과 469년 백제가 고구려 남변을 공격한 두 건에 불과하여, 5세기 후반 양국의 대결은 일단 소강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金壽泰, 2000; 양기석, 2013; 박찬우, 2018). 고구려의 남진이 백제에 위협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백제가 갑자기 대북위 외교에 나선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백제가 북위와 고구려의 갈등관계를 고구려 공격의 호기로 판단했다는 이해는 백제의 대북위 외교를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살폈다는 점에서 수긍이 간다. 백제의 대북위 외교는 위기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점에서 그 외교의 진의는 ‘도움을 바라는 청병외교’라기보다는 ‘양국이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자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이렇게 백제가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필요해 보인다. 개로왕이 표문에서 북연왕 풍홍을 언급한 것은 과거 북위와 고구려 간의 갈등을 상기시키기 위한 의도(李在碩, 2004)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북위가 고구려를 상대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여겼다고 보기에는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 『위서』에 나오는 납비 문제나 표문에서 “나라는 자연히 으깨어졌고 대신(大臣)·강족(強族)이 살육을 그치지 않아 … 바로 멸망할 시점이다”라는 고구려의 정치적 혼란을 강조한 서술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백제는 북위와의 첫 만남에서 고구려 공격을 제안하였다. 통교조차

없던 양국 관계에서 백제의 이러한 제안은 언뜻 무모해 보인다. 하지만 북위는 백제의 외교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백제의 외교는 북위가 여기에 관심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 아래 추진되었던 것이다. 즉 양국의 만남은 북위가 고구려 주변국의 동향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효문제(孝文帝)가 개로왕에게 보낸 조서가 아닐까 한다.

앞서 보낸 사신은 바다를 건너 황복(荒服) 바깥의 나라를 위무하게 하였는데, 이제까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달했는지 못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었소. 『위서』 권100

이 구절은 앞서의 표문에서 개로왕이 서해에서 10여 구의 시신과 의기(儀器)·안장 등을 건져 올렸는데 북위가 백제에 보낸 사절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효문제는 황복 바깥의 나라에 사신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황복 바깥의 나라는 그 지역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선후의 내용으로 보아 백제라고(노중국, 2012; 양기석, 2013)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바다 건너 고구려 주변의 나라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李成制, 2004).

북위가 황복 바깥 지역에 일부러 사절을 보냈던 것은 고구려와 대치하고 있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양국이 대립한 이래 고구려는 북위에 굴하지 않고 맞서고 있었지만, 북위로서는 고구려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점에서 북위는 위협 부담이 있는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고구려 배후의 세력을 이용하여 고구려를 압박하려 하였고, 이를 위해 사절을 보내 연결을 도모

했다고 여겨진다(李成制, 2004).

백제가 북위가 공조 상대를 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청병외교를 했다는 것은 물길과 북위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위서』 물길전에 따르면 고구려의 북쪽, 지금의 길림성(吉林省) 아성(阿城) 일대에서 일어난 물길은 475년 북위에 을력지(乙力支)를 사자로 보냈다. 물길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고구려의 북쪽을 위협하고 있는 세력이며, 지금까지 홀로 고구려에 대항해왔지만 앞으로는 백제 그리고 북위와 연결하여 대고구려전을 전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물길의 이 같은 제안은 백제의 청병외교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상대하기 위해 북위와 군사적 연계를 도모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이 역시 북위가 응할 것이라는 판단이 없어서는 실현 가능성이 전무했다.

물론 북위와의 군사적 연계를 도모했던 백제·물길의 바람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 점에서 앞서 살핀 이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효문제의 조서 후반부에 보이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고구려를 함께 치자는 백제의 제안에 대해 북위는 고구려에게 정벌을 가할 죄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그렇지만 북위가 백제와의 연결까지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북위는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기를 원했다. 나아가 ‘고구려가 북위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경우’란 단서를 달고 있지만, 앞으로 백제의 제안에 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위는 앞으로의 정세를 보아가며 고구려에 대한 대응을 함께하자는 뜻을 보였던 것이다(李成制, 2004; 위가야, 2020). 게다가 북위는 사자 소안(邵安)을 백제에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자 했다. 제휴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북위가 백제의 도전을 부

추기고 있었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李成制, 2004).

또한 북위는 백제의 표문 내용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사절을 고구려에 보내기도 했다. 이것은 북위가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백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북위는 백제 사절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구려에 의도적으로 내보였던 것이다. 이 같은 점들은 북위가 백제와의 연결 가능성을 내세워 고구려를 압박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북위 사절 소안은 백제 사신을 이끌고 고구려를 경유하여 백제로 가려 했다. 결국 이 일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북위는 고구려와 주변국가 간의 관계에 간섭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북위의 전략은 양국이 대면하고 있던 일부 국경만이 아니라 고구려 세력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위의 전략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보여주는 실례가 물길의 대북위 외교였다. 물길의 등장 자체는 고구려에게 지엽적인 문제로 간주될 만했다. 그렇지만 물길이 북위의 전략에 편승하여 고구려에 적대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힘의 열세가 분명한 세력조차 북위와의 연결 가능성을 배경으로 고구려에 대항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길이 등장하여 북변을 소란케 한다는 것은 고구려가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대가 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일부 방면에 한정되어 있던 적대의 움직임이 북위의 간섭에 따라 전 방면에 걸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고 보인다. 북위의 간섭전략은 고구려 주변 세력들에게 고구려를 상대로 한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백제가 시도했던 군사협력과 같은 관계라도 맺어진다면 고구려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북위의 간섭을 차단하고 또 다른 도전세력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구려는 양국 관계를 개선해 두어야만 했다(李成制, 2004). 『위서』에 이 무렵부터 고구려가 북위에 보내는 공헌물을 배로 늘렸다는 기록은 백제의 청병외교에 대응한 것(노태돈, 2005)이라거나 양국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것(위가야, 2020)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5세기 후반 대북위 외교를 중심으로 했던 대외관계 속에서 고구려가 475년 백제 수도 한성(漢城)을 공략한 일과 479년 지두우(地豆于) 분할을 두고 유연과 공모했던 사건은 그동안의 추이와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장수왕은 475년 9월 직접 3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한성을 공략하여 개로왕을 사로잡아 죽이고 8,000명의 포로를 이끌고 귀환했다. 고구려의 전격적인 공격에 백제는 국왕을 잃었을 뿐 아니라 한성을 포함한 한강 하류 지역을 모두 상실하고 말았다(양기석, 2013).

시라무렌(西刺木倫) 유역과 대흥안령(大興安嶺) 일대에 자리잡은 지두우와 거란(契丹)은 고구려와 북위의 접경지대에서 대표적인 세력이었다. 이들은 북위가 북연을 무너뜨리자 뒤따라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갔던 세력이기도 했다. 그러던 상황에서 『위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또 다른 세력인 고막해(庫莫奚)가 시라무렌 북방에 있던 지두우의 침략을 피해 북위의 경내로 들어가려 했고, 거란 역시 1만여 명의 무리가 지두우를 피해 북위 방면으로 밀려들어가 북위의 변경을 어지럽게 하는 사건이 473년에서 이듬해에 걸쳐 일어났다. 이들이 갑작스럽게 근거지를 떠나게 된 것은 고구려가 북방 유목세계의 패자인 유연과 모의하여 지두우를 분할하려 한 데 있었다. 고막해와 거란이 집단적으로 탈주케

할 정도로 고구려의 움직임은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李成制, 2004). 이 일로 북위가 동방 일대에서 구축해온 안정은 훼손되었고, 자연히 이 일대에 대한 영향력도 실추되었다(노태돈, 1999).

고구려는 대북위 외교를 전개했지만, 그것만으로 북위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 백제의 외교에 대해 북위가 보인 반응은 다른 방도의 모색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한성 공략과 지두우 분할 모의는 별개 사건이라기보다 하나의 목적 아래 추진된 전략의 결과물로 판단된다. 두 사건 모두 북위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고구려는 한성 함락과 개로왕 살해를 통해 백제를 내세운 북위의 간섭전략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로써 백제와의 관계를 앞세워 고구려를 압박하려던 북위의 의도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유연과의 연결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고구려의 항배에 따라 언제라도 북위의 동방과 북방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북위인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이들 사건은 고구려가 북위의 전략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세적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고구려는 군사행동과 짝하여 그동안 전개했던 대북위 외교도 중단했다. 앞서 살핀 479~484의 기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상되는 북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다. 고구려가 신생 남제에 보낸 사절이 중도에서 북위 측에 사로잡힌 사건은 이 무렵의 일이다. 『위서』에 따르면, 이때 북위는 “국경을 넘나들며 찬적(篡賊)과 교통하니, 이것이 어찌 변신(藩臣)으로서 지절(志節)을 지키는 의리라 하겠는가” 하며 고구려를 비난하였다. 사안의 중요성이나 바로 앞에 있었던 유연과의 모의 등의 일로 보아 양국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은 충분했다. 그러나 북위는 고구려 사절을 풀어줌으로써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비로소 북위도 양국의 우호관계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李成制, 2004).

3. 고구려 세력권의 동요와 전제해외

1) 신라의 고구려 세력권 이탈과 고구려의 군사적 대응

475년 장수왕의 전격적인 공격으로 백제의 왕도가 함락되고 국왕이 사로잡혀 죽었다는 것은 숙적이었던 양국 관계에서 특기할 사건이었다. 3만의 병력을 동원하였으며 장수왕이 직접 나섰다. 점에서 백제가 이 시기 고구려의 대외관계에서 주요한 상대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5세기 후반기에 양국이 교전한 사례는 4회에 불과한 데 비해, 고구려와 신라의 교전 사실은 여덟 차례에 걸쳐 보인다. 이는 모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여 일어났으며 그중 6회가 470년대 후반부터 6세기로 들어가는 시점에 집중되어 있다. 이 점에서 5세기 후반 특히 470년대 후반부터 고구려의 주공은 신라를 향해 있었다(양기석, 2013).

고구려에 대해 종속적 관계에 있던 신라가 이탈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5세기 전반기였다. 그러던 신라에 대해 이 시기에 들어서 고구려가 거듭 군사행동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은 양국이 끝내 적대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에서 5세기 후반은 격변의 시기였던 것이다.

〈충주고구려비(忠州高句麗碑)〉는 이 시기 양국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실물자료다. 449년 12월을 전후하여 벌어진 일을 기술하고 있는 이 비에서 양국의 관계는 ‘여형여제(如兄如弟)’의 형제 관계로 서술되고 있어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가 신라를 속민(屬民)으로 간주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鄭雲龍, 1994). 그럼에도 신라가 고구려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전했다. 비문에는 태왕(太王)의 교(敎)에 따라 신라매금(寐錦)과 신료들이 충주까지 와서 고구려 측이 주재하는 행사에 참여했으며, 고구려 장수가 주둔지의 신라인을 역역(力役) 동원했음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국 관계는 곧이어 파국을 맞이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450년 7월, 고구려 변장(邊將)이 실직(悉直: 삼척)의 들판에 사냥 나갔을 때 신라의 하슬라성주(何瑟羅城主)가 급습하여 죽인 일이 일어났고, 장수왕은 신라의 서쪽 변경을 공략했다.⁴ 결국 신라 눌지왕의 “공손한 말로 사죄하다(卑辭謝之)”로 고구려군이 철군하며 일단락되었지만, 고구려 변장 살해는 신라가 적대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종속적 존재가 아님을 보여준 사건이었다(林起煥, 2000). 또한 변장 살해사건에서 보인 대응은 고구려가 양국 관계의 현상 유지를 원했음을 보여준다(鄭雲龍, 1994). 고구려는 신라가 적대적 입장을 보였음에도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고구려 세력권으로부터 이탈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따르면, 이에 대해 신라는 왕도

4 이 기록은 고구려 변장 살해로 촉발된 군사적 위기가 신라왕의 ‘비사사지(卑辭謝之)’로 수습되었음을 전한다. 여기에서 고구려 변장 살해는 군사적 위기를 불러온 원인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450년 7월은 고구려군의 철수로 사태가 수습된 때였다(李成制, 2020).

경주(慶州)에 주둔해 있던 고구려병 100명을 죽임으로써⁵ 고구려 세력권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로부터 고구려는 한반도에서 기존의 백제에 더하여 신라까지 상대하게 되었고, 신라는 고구려에 맞서기 위해 백제와 연대했다. 465년 10월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자 신라군은 백제를 구원했다. 그 뒤 468년 고구려는 말갈(靺鞨)과 함께 신라의 실직성(悉直城)을 공격했고, 475년에는 앞서 보았던 고구려의 한성 공략에 대해 신라가 1만 명의 병력을 보내 구원에 나섰다.

신라는 468년 고구려가 실직성을 침공하자, 하슬라인(何瑟羅人)을 동원하여 니하(泥河: 남한강 상류)에 성을 쌓았다. 북변 요새지에 대한 공세를 차단하고 방비를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鄭雲龍, 1994). 이어서 470년에 충북 보은에 삼년산성(三年山城)을 쌓았고, 473년에는 명활성(明活城)을 고쳐 쌓고 475년에 국왕이 이거하는 등 왕경 방어 조치를 취하였다(閔德植, 1987).

이후로도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공세는 이어졌다. 『삼국사기』에 481년 고구려가 7성을 함락하고 미질부(彌秩夫: 興海)까지 진공한 것은 그 공세가 신라의 수도 외곽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때 신라는 백제·가야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반격에 나서 니하까지 복진하였다. 고구려는 484·489·494·495년에도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497년의 공격으로 니하 부근의 우산성(牛山城)을 함락하였는데, 그 위치는 강릉·삼척(鄭雲龍, 1994) 혹

5 이 사건이 일어난 연대에 대해서는 464년(정운용, 1994)으로 보아왔으나, 고구려 변장 살해와 이어진다는 점에서 453년(장창은, 2012)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은 정선·영월(張彰恩, 2012)로 여겨진다. 파상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신라 북변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는 신라를 군사적으로 제압하여 세력권 내에 묶어 두려 했지만, 그 의도를 이룰 수 없었다.

한편 5세기 후반기 고구려와 신라·백제의 관계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고구려의 공세에 맞서 신라와 백제가 군사적으로 협력했다는 사실이다. 455년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자, 신라가 백제에 원군을 보낸 일로부터 양국이 고구려의 공세에 대해 군사적 협력으로 대처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81년의 전역은 고구려의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이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시기 공방전에서는 백제와 신라의 상호 간 군사동원 기록이 없는 전역이 보인다는 점에서 양국의 군사적 협력관계가 이 시기에 성립되었고, 줄곧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김병준, 2018). 따라서 나제동맹이 고구려가 대북위 관계를 재개하도록 만들었다고 이해할 수는 없겠다. 고구려의 대북위 외교는 그 주변의 특정 국가나 어느 한두 해의 현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462년 사절 파견을 재개한 이래, 고구려의 대북위 외교가 거의 줄곧 이어졌다는 사실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고구려의 독자적 세력권과 전제해외(專制海外)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면 고구려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이해에는 수궁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된다. 즉 435년 장수왕이 북위 태무제로부터 책봉된 이후 평원왕까지 역대 고구려왕은 모두 북조 여러 왕조로부터

동이중랑장(東夷中郎將)이나 동이교위(東夷校尉)의 관(官)이 포함된 책봉호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에서 고구려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그동안의 이해는 북조가 동이교위의 직능을 고구려왕에게 위임했으며, 고구려왕을 동북아 지역의 수장으로 인정했던 것으로 보아왔다(盧泰敦, 1984; 金鍾完, 2004).

그러나 앞서 살핀 473년 북위 황제가 백제왕에게 보낸 조서는 그 내용으로 보아 고구려를 동방지역의 패자(霸者)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 점에서 고구려의 대북위 외교가 재개된 시기는 물론이고, 435년 이래 북위가 고구려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리어 북위 측의 간섭전략으로 보아 고구려는 이른바 동이세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와 북중국 왕조가 최초로 책봉·조공 관계를 맺은 이래, 북위는 동방 여러 나라 가운데 고구려에게만 책봉호를 수여했다. 북위의 동·서 분열로 등장한 동위(東魏), 이를 계승한 북제(北齊) 역시 그러했다. 북위부터 북조의 여러 황제들은 고구려 국왕을 책봉하면서 영호 동이중랑장(領護東夷中郎將)·영호동이교위(領護東夷校尉)의 특정 군관직을 수여했다. 이들은 본래 동이를 감호하던 군관직이었다는 점에서⁶ 그동안의 이해는 이 책봉호가 수여된 배경에 주목해 왔다(盧泰敦, 1984; 朴漢濟, 1988; 張國慶, 1989; 三崎良章, 2000; 林起煥, 2002; 金翰奎, 2004; 尹龍九, 2005).

6 해당 집단을 통령 혹은 보호한다고 해서 '지절영호관(持節領護官)'이라 하거나 다른 민족을 통제한다고 하여 '이민족통어관(異民族統御官)'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 한대 이래 내외의 여러 민족을 관리하는 일을 '영호(領護)'라고 표현했고, 이 임무를 2,000석의 관위를 지닌 군관들이 담당했기에 이들을 '영호군관(領護軍官)'이라 칭하기도 한다(李周鉉, 2008).

중국 남북조시대의 책봉·조공 관계 연구에 따르면 책봉은 중국이 힘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황제가 주변국가의 수장에게 특정한 관작과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시여함으로써 자격과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하여 신속(臣屬)시키는 양식으로, 주변국은 책봉을 통해 그 세력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고 이해된다(金鍾完, 1995). 이러한 시각에서 435년의 책봉은 북위가 고구려의 독자적 세력권을 공인한 조치로 그 책봉호 가운데 ‘영호동이중랑장’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도독제군사(都督諸軍事)의 범위인 ‘요해(遼海)’는 북위의 동방, 요하 이동의 세계를 뜻한다고 보았다(盧泰敦, 1984; 三崎良章, 2000).

하지만 책봉호의 내용을 보면 북위가 고구려를 동방의 패자로 인정하고 그 독자적 세력권을 공인했다고 보기에는 걸맞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 우선 책봉의 내용은 장수왕을 정동장군(征東將軍)·영호동이중랑장으로 삼아 관할범위인 요해를 ‘도독제군사’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동장군은 패자라는 지위에 비해 낮은 장군호에 해당한다. 북위의 관품에 따르면 정2품에 해당하는 장군호이며, 그마저도 하위였다. 장군이 군주로부터 독자적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보여주는 ‘사지절(使持節)’이 없다는 점도 이상하다. 요해의 범위가 막연하다는 지적도 있다(金鍾完, 1995).

종래의 연구는 도독제군사의 내용과 영호군관직의 수여에만 관심을 두었지만, 장군호와 사지절 역시 책봉호의 중요 요소에 해당한다. 남북조는 진봉(進封)할 때 장군호를 상위직으로 바꾸어 제수하곤 했다. 이 점에서 장수왕의 장군호 역시 그에 걸맞는 것이어야 했다. 또한 이 책봉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북위의 진의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정세로 보아 북위는 북연 공략이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수왕 책봉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북위의 전략이 이러했다면 이때의 책봉이 고구려의 실력을 인정하고 양국의 우호를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북중국을 제패해 가고 있어 한창 기세를 올리고 있던 북위의 입장으로 보아 장수왕이 조공 사절을 보내온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그런 고구려를 특별히 우대해 주어야 할 까닭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책봉 내용이 보인다는 점에서 토욕혼의 사례가 도움이 된다. 493년 효문제는 토욕혼왕 복련주(伏連籌)를 책봉했는데, 책봉호의 구성 내용이 동서(東西)의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고구려의 구성 내용과 전부 동일하다. 도독제군사와 영호군관직이 ‘요해’와 ‘서수(西垂)’, ‘동이’와 ‘서용(西戎)’으로 대치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유사성에서 북위가 양국을 동서의 번병(藩屏)으로 여겨 그 세력권을 인정했다고 보는 이해가 있었으나(三崎良章, 1982),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즉위한 복련주는 병이 있다는 핑계로 북위의 입조 요구를 거부하고 변경에 군대를 배치하여 북위를 자극했고 문명태후(文明太后)의 부고(訃告)에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정벌 논의가 있었고 정벌에 앞서 회유의 뜻을 담은 효문제의 조서가 전달되었다. 이 같은 북위의 압력에 토욕혼은 세자를 보내 조공하였다. 토욕혼은 북위의 압력에 굴복했던 것이다. 책봉의 배경이 이러했다면, 북위가 토욕혼을 서방의 강국이라고 여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해된다.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양국 관계에서 토욕혼의 독자성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탕창(宕昌)과 토욕혼 간에 일어난 분쟁이다. 토욕혼을 대국(大國)으로 섬겼던

당창이 토욕혼왕에게 평대(平對)하고 사자를 구금한 일이 있었다. 이때 복련주는 군사적 보복에 나서려 했으나 토욕혼에 와 있던 북위 사자는 두 나라 모두 북위의 번(藩)이기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신절(臣節)을 어기는 행위라고 하며 저지했다. 북위의 간섭으로 토욕혼은 인접국과의 분쟁조차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한편 토욕혼은 영호동이중랑장 수수가 복련주 1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고구려의 영호동이중랑장 책봉은 장수왕에 이어 문자왕에게도 수여되었다. 또한 문자왕을 이은 안장왕은 영호동이중랑장 대신 영호동이교위를 수여하였다. 북위가 인접국의 왕을 책봉하면서 영호군관직을 수여한 사례는 여럿이지만, 그것을 1대에 한하지 않고 승습(承襲)케 하고 중랑장에서 교위로 개수한 예는 고구려 외에는 찾을 수 없다. 이는 고구려와 북위 관계에서만 보이는 특별한 현상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들 책봉이 결코 우호적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문자왕의 책봉에 영동이중랑장이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지만, 장기간의 대립관계와 관계 재개 과정에서 보인 북위의 냉담함을 염두에 두고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책봉과 짝하여 고구려 세자의 입조를 요구했다는 점은 관계 개선을 빌미로 고구려에 압박을 가했음을 알려준다. 문자왕의 책봉호 역시 그 명호(名號)에 어울리는 의미를 부여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적어도 문자왕을 책봉했던 492년 무렵까지 북위는 고구려를 동방의 패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책봉·조공 관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바랐던 서방 관계에서의 안정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그러면 북위가 고구려의 세력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을까. 대체로 504년(문자왕 13년)을 전후한 시

기에 이르면 그 같은 관계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여겨진다. 고구려 사신 예실불(芮悉弗)과 북위 선무제(宣武帝) 간의 대화에서 북위 동방의 지역 세계와 고구려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변화에 따른 조치가 519년 사망한 문자왕에 대해 ‘거기대장군·영호동이교위·요동군개국공·고구려왕’에 추봉하고, 즉위한 안장왕의 책봉에 ‘영호동이교위’를 수여한 것이라 여겨진다. 동이교위는 북위가 요서 경략의 초기부터 설치하여 운용했던 관(官)이다. 『위서』 등의 기록에는 동이교위를 역임한 북위 관인들의 활동상이 전한다. 그러던 북위인의 동이교위 역임은 470년대 이후로 보이질 않는다. 이 동이교위 관이 고구려 국왕의 책봉호에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위의 동이교위가 맡았던 역할을 고구려 국왕이 이어받은 것이라는 이해도 있다(尹龍九, 2005). 그러나 북위의 동이교위 관은 실직이 아니라 화룡진장(和龍鎭將)이나 영주자사(營州刺史)가 겸한 군관직이었다. 470년대 이후 겸직의 관은 사라졌지만, 북위의 동방 경영을 실제로 담당한 영주자사는 건재했다. 이로 보아 북위의 동이교위 관과는 별개로 책봉호로서의 영호군관 직(職)이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위가 운용했던 다른 영호군관인 서용교위(西戎校尉)에서도 확인된다. 즉 양자는 계통이 다른 영호군관 직이며, 같은 명호를 가진 직이라도 수여받는 자가 외신(外臣)인가 내신(內臣)인가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했으며, 나아가 그 기능 역시 동일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토욕혼은 영호군관의 책봉호를 수수했고 그 지역세계를 영호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여기서 그 같은 책봉호가 양국 관계에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

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러한 상대국의 국제적 지위를 북위가 인정했는가의 여부이다. 영호동이교위의 책봉호 수여가 고구려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조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 앞서 ‘동쪽의 무리들을 안무하라(輯寧東裔)’는 선무제의 발언이 있음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즉 그의 선언이 있음으로 해서 영호동이교위의 책봉호 수여는 북위가 고구려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제도적 의미를 온전히 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북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서 어떻게 유독 고구려만이 북위로부터 지역세계에서의 독자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책봉·조공 관계가 그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었음은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 살필 수 있다. 도리어 북위가 이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책봉·조공 관계의 성립만으로는 북위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보장받기 어려웠던 것이다.

여기서 장수왕 후반기부터 문자왕으로 이어지는 시기, 고구려가 전개한 대북위 외교가 이룬 성과가 드러난다. 장수왕은 대북위 외교를 재개하였고, 북위의 냉담한 반응에도 사절 파견을 지속하였다. 문자왕 역시 양국 관계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고구려는 북위와 우호관계를 이룸으로써 북위와 적대세력 간의 연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었다. 영호동이교위의 책봉호 수수가 가진 역사적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李成制, 2015).

참고문헌

- 金鍾完, 1995, 『中國南北朝史研究-朝貢·冊封關係를 중심으로』, 일조각.
- 노중국, 2012,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 朴漢濟,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일조각.
- 양기석, 2013, 『백제의 국제관계』, 서경출판사.
- 강문호, 2004, 「북위 문명태후 집정기의 韓·中 관계」, 『新羅文化』 24.
- 공석구, 1996, 「5~6세기의 대외관계」,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 김병준, 2018, 「고대 중국 화친외교의 방식-5세기 '나제동맹'에 대한 재검토」, 『신라와 백제, 소통과 갈등』,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 金壽泰, 2000, 「百濟 蓋鹵王代の對高句麗戰」, 『百濟史上的戰爭』, 서경문화사.
- 김종완, 2002, 「南朝와 高句麗의 關係」, 『高句麗渤海研究』 14.
- _____, 2004, 「高句麗의 朝貢과 冊封의 性格-正體性과 關聯하여」, 『高句麗渤海研究』 18.
- 김진한, 2006a, 「5世紀末 高句麗의 對北魏外交와 漢城 攻略」, 『東北亞歷史論叢』 12.
- _____, 2006b, 「文咨王代の 對北魏外交-北魏 孝文帝·宣文帝的 對外政策과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研究』 44.
- _____, 2018, 「5世紀 高句麗의 對宋外交 再檢討」, 『歷史學報』 237.
- 김철민, 2016, 「高句麗 長壽王代の 對宋外交와 그 背景」, 『韓國史學報』 63.
- 김한규, 2004, 「고구려와 동이교위」,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 노중국, 1981, 「高句麗·百濟·新羅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 _____, 2004, 「漢城百濟의 沒落과 首都 移轉」, 『鄕土서울』 64.
- 노태돈, 1984, 「5~6세기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_____, 2005, 「고구려와 북위 간의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 _____, 2015, 「고구려의 대외관계와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 『東洋學』 58.
- 閔德植, 1987, 「新羅王京의 防備에 관한 考察」, 『史學研究』 39.
- 박원길, 2002, 「고구려와 유연·돌궐의 관계」, 『고구려연구』 14.
- 박진숙, 2004, 「長壽王代 高句麗의 對北魏關係와 百濟」, 『韓國古代史研究』 36.
- 박찬우, 2018, 「472년 백제의 對北魏外交 관련 사료 분석과 請兵外交의 계기」, 『한국사학보』 70.
- 백다해, 2016, 「5세기 국제정세와 장수왕대 대송관계의 성격」, 『역사와 현실』 102.
- _____, 2020, 「高句麗와 宋 교섭의 의미-459년 사행을 중심으로」, 『高句麗渤海研究』 66.
- 서영교, 2004, 「북위 풍태후의 집권과 對고구려정책」, 『中國古中世史研究』 11.
- 徐榮洙, 1981, 「三國과 南北朝交涉의 性格」, 『東洋學』 11.
- 여호규, 2018a, 「5세기 후반 高句麗·勿吉의 충돌과 북방 境界空間의 변화」, 『중앙사론』 47.
- _____, 2018b, 「제4장 고구려 외교의 전개」,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고대편』, 동북아역사재단.
- 윤용구, 2005, 「고대중국의 동이관(東夷觀)과 고구려-동이교위(東夷校尉)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 위가야, 2020, 「472~475년 백제·고구려의 對북위 외교진과 한성 함락」, 『高句麗渤海研究』 66.
- 李成制, 2004a, 「長壽王의 對北魏交涉과 그政治的 의미-北燕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對北魏關係의 전개」, 『歷史學報』 181;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 국학자료원.
- _____, 2004b, 「長壽王의 西方政策과 對北魏關係의 定立-고구려의 ‘專制海外’를 둘러싼 북위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26;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 국학자료원.
- _____, 2015, 「高句麗와 北朝의 冊封朝貢關係-領護東夷中郎將·領護東夷校尉의 授受와 그 의미」, 『東洋學』 58.

- _____, 2020, 「〈忠州高句麗碑〉의 건립 목적과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98.
- 李在碩, 2004, 「『宋書』倭國傳에 보이는 倭王(武) 上表文에 대한 검토」, 『新羅文化』 24.
- 李在成, 2002, 「4~5세기 高句麗와 契丹」, 『高句麗渤海研究』 14.
- 李周鉉, 2008, 「魏晉南北朝의 東夷校尉」, 『한중관계 2000년 동행과 공유의 역사』, 소나무.
- 임기환, 2003, 「南北朝期 韓中 冊封·朝貢 관계의 성격-고구려·백제의 책봉·조공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32.
- 張彰恩, 2012, 「4~5世紀 高句麗의 南方進出과 對新羅 關係」, 『高句麗渤海研究』 44.
- 鄭雲龍, 1994, 「5~6世紀 新羅·高句麗關係의 推移」,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15.
- 주보돈, 2007, 「개로왕의 체제개혁과 그 한계」, 『한성도읍기의 백제-백제문화사 대계 연구총서 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三崎良章, 2002, 『五胡十六國-中國史上の民族大移動』, 東方書店.
- 窪添慶文, 2020, 『北魏史-洛陽遷都の前と後』, 東方書店.
- 川本芳昭, 2005, 『中華の崩壊と擴大-魏晉南北朝』(中國の歴史 5), 講談社.
- 江畑武, 1968, 「四~六世紀の朝鮮三國と日本」,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
- 藤井律之, 2018, 「江南開發と南朝中心の世界秩序の構築」, 『378年-失われた古代帝國の秩序』, 山川出版社.
- 武田幸男, 1989, 「第九章 長壽王の東アジア認識」, 『高句麗史と東アジア-「廣開土王碑」研究序説』, 岩波書店.
- 三崎良章, 1982, 「北魏の對外政策と高句麗」, 『朝鮮學報』 102.
- _____, 1983, 「高句麗の對北魏外交」, 『早稻田大學大學院文化研究科紀要別冊』 9.
- _____, 2000, 「東夷校尉考-その設置と「東夷」への授與」, 『西嶋定生博士追悼論文集 東アジア史の展開と日本』, 山川出版社.
- 井上直樹, 2000, 「高句麗の對北魏外交と朝鮮半島政勢」,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8.
- 川本芳昭, 1988, 「倭の五王による劉宋遣使の開始とその終焉」, 『東方學』 76;
- 1998, 『魏晉南北朝時代の民族問題』, 汲古書院.

6세기 전반의 대외관계

김진한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5세기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확립과 함께 대외적으로 팽창했던 고구려는 안으로 문자왕대 말 왕권의 약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어 안장왕이 시해되고 안원왕 말 왕위계승다툼을 겪는 등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다. 밖으로는 강고했던 북위(北魏)가 6진의 난을 거치면서 동위(東魏)와 서위(西魏)로 나뉘었으며, 북방의 유연(柔然)은 중원의 분열을 활용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북위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던 남제(南齊)가 망하고 등장한 양(梁)은 무제대 국력을 팽창하였다.

한편, 한반도 내 백제와 신라의 동향도 심상치 않았다. 백제는 한성 함락 이후 웅진으로 천도한 뒤 문주왕과 삼근왕의 혼란기를 겪었으며 동성왕대 일련의 정비를 마쳤다. 501년 무령왕은 즉위 뒤 다시 백제의

영광을 꿈꾸었으며 성왕대까지 양과 교섭하며 줄곧 고구려와 대립을 이어나갔다.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을 바탕으로 고구려로부터 자립에 성공하였으며, 소백산맥 이북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이어 지증왕과 법흥왕대 체제 준비를 이루었다.

이렇듯, 고구려사에서 6세기 전반은 안으로 전제왕권이 무너지고 귀족연립정권이 등장하였을 뿐 아니라 밖으로 국제정세가 재편되는 시기로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6세기 전반 고구려 대외관계에 대한 주요한 이해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고구려의 대남북조(對南北朝) 관계는 장수왕대 후반부터 문자왕대까지 이어져 오던 북위 중시 정책이 안장왕대를 기점으로 대양(對梁) 중시 정책으로 바뀌었으며, 안원왕대를 기점으로 다시 북위 중시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고구려 정국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 논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고구려의 대남방(對南方) 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구려 대 백제·신라의 대립구도로 이해한다. 단 세부 내용에서는 이해의 차이가 보인다. 고구려와 백제는 5세기에 이어 6세기 전반에도 대립하였다. 두 나라는 각각 양과 우호관계를 이어갔으며 한강 유역과 그 일대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강 유역의 영유를 둘러싸고 문헌에 기재된 기사와 고고학 발굴을 통해 드러난 유적·유물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구려와 신라는 대립하였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일부에서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반 고구려와 신라가 화약을 맺었다는 주장도 하였다. 이는 551년까지 나제동맹이 이어졌다는 학계의 통설에 문제가 제기되고 백제와 신라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일각의 연구

가 진전되면서 이와 연동해 고구려와 신라 관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6세기 전반 고구려와 가야 관계를 살펴볼 만한 고고·문헌 자료는 거의 없다. 그 결과 이 방면 연구는 사실상 진척이 없다. 고구려와 왜 관계를 이해할 만한 자료 여건도 그다지 나아보이지 않는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보이는 일부 자료를 제외한다면 우리 측 자료와 중국 측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본서기』에 보이는 관계 자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두고 일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6세기 전반 고구려 정국의 변화 과정을 따라가면서 대외관계를 둘러싸고 주로 다뤄졌던 주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대체로 통설과 대치되는 설을 중심으로 사료를 소개하고 논쟁점을 서술하되 그 근거를 제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설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학설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주장들의 입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1. 안장왕대 고구려 정계와 대남북조 관계

1) 안장왕대 정계 동향

학계에서는 5세기 이후 고구려 정국을 이해하기 위해 크게 국내(國內)계 귀족 세력과 평양(平壤)계 귀족 세력이라는 구도를 설정하고 있다. 국내계 귀족 세력은 국내성(國內城) 도읍기에 형성된 전통적 귀

족 세력이고, 평양계 귀족 세력은 427년 평양 천도 이후 형성되었으며 그 중심에 낙랑·대방계 호족과 중국계 망명인이 포함된다(임기환, 1992). 안장왕대 고구려 정국도 이러한 국내계와 평양계 귀족 세력 간의 길항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 안장왕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 측 자료에서 수집한 대외관계 기사를 제외하면 고구려 국내 사정을 알려줄 만한 고유한 기사는 거의 없다. 그나마 남아 있는 기사로는 즉위, 시조묘 친사(親祀), 구휼(救恤), 가뭄, 전렵(畋獵), 백제와의 전투, 사망 등 7건이 전부다. 이러한 자료적 한계 속에 개별 기사가 갖는 정치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흥안(興安)은 498년 태자에 책봉된 이후 20여 년을 문자왕 곁에서 국정을 지켜본 뒤, 519년 고구려 제22대 왕으로 즉위했다. 안장왕이 마주했던 고구려 안팎의 사정은 녹록치 않았다. 안장왕이 즉위하기 전부터 고구려 내부에는 불안 요소가 존재했다. 문자왕대 잦은 천재(天災)나 궁문(宮門) 붕괴사건은 왕권 하락을 나타내는 징후로 주목을 받았다(김현숙, 1999). 더구나 고구려는 남변에서 무령왕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백제와 대립하였으며, 북변에서는 물길(勿吉)과 대치하였다. 이러한 대외상황은 고구려 내부에 불안한 기류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김진한, 2020).

그런 가운데 521년 안장왕이 졸본(卒本)에 이르러 시조묘(始祖廟)에 제사를 지내고 지나는 고을마다 구휼을 병행하는 모습은 일련의 수습책으로 주의된다. 더구나 왕의 시조묘 친사는 고국원왕 2년(332년) 이후 189년 만에 보이고 있어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안장왕의 시조묘 친사를 즉위의례적 성격과 순행의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최광식, 1989) 대체로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는 데 주력하였다. 임기환은 시조묘 친사의 공백 기간인 소수림왕대부터 문자왕대까지가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된 시기라는 점에서 정치기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치적 절차가 필요 없었던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어 5대 동안의 공백을 깨고 안장왕이 시조묘 친사를 한 데는 평양 천도 이후 중앙정계에서 세력기반이 위축되어 상당한 불만을 품었던 국내계 세력과 정치적 타협을 모색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임기환, 1992). 이 밖에 소외되었던 국내 지역 세력을 포용하고자 한 정치적 목적을 지녔다거나(정원주, 2013) 평양계 정치 세력을 견제하고 국내계 정치 세력과의 유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최일례, 2015) 대체로 앞선 견해의 연장선 위에 있다.

한편, 왕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민철희, 2002), 강성해진 귀족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왕권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조영광, 2008), 대외정책의 기초 변화를 정당화하고 이를 대내외에 선언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하기도 한다(강진원, 2008).

안장왕대 정치 세력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대외정책의 전개 과정과 맞물려 검토가 이루어졌다. 당시 정세를 보여주는 자료로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이는 안장왕과 한씨녀(漢氏女) 이야기와 1977년 중국 요령성 조양에서 출토된 수대(隋代) 〈한기묘지(韓暨墓誌)〉를 주목하였다. 전자에 따르면, 한산주(漢山州) 내 왕봉현(王逢縣)은 개백(皆伯)이라고 하는데 한씨 미녀가 안장왕을 맞이한 곳이라 하여 왕영(王迎)이라고 한다. 그리고 달을성현(達乙省縣)은 한씨 미녀가 고산(高山) 위에서 봉

화를 피워 안장왕을 맞이한 곳이라 하여 뒤에 고봉(高烽)이라 이름했다고 한다. 후자는 북위 말 혼란을 틈타 고구려가 한인(漢人)을 대거 데려왔는데 그 가운데 한상(韓詳)이 대사자의 관등을 받고 있음을 전한다.

안장왕과 한씨녀 이야기는 대체로 당대에 실제 있었던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씨녀와 연관된 인사들의 수도 5부 편입은 그에 따른 귀족들 간 갈등이나 불만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안장왕의 피살과 안원왕 말년 귀족들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고 추정하였다(노태돈, 1999). 이후 연구들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안장왕대의 새로운 정치 세력 유입 및 기존 세력과의 갈등구도 속에서 정국을 이해하였다(김진한, 2007; 정원주, 2013; 최일례, 2016).

2) 안장왕대 중국 남북조와의 관계

안장왕 즉위 이전 고구려 외교의 중심 대상은 북위였다. 문자왕대 고구려는 거의 매해 북위로 사신을 보냈으며, 한 해 두세 차례씩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북위 또한 마찬가지로였다. 『위서(魏書)』에 따르면, 주원옥(朱元旭, 479~545년)이나 풍원흥(馮元興, ?~532년)은 여러 차례 고구려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당시 북위 선무제(宣武帝)는 효문제(孝文帝)와 달리 고구려에 대해 유화책을 취하는 등 두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류가 활발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김진한, 2006).

북위의 대외정책에서 고구려는 비견할 만한 나라가 없을 만큼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三崎良章, 1982). 이를 반영하듯, 519년 문자왕이 죽자 북위의 실권자인 영태후(靈太后)는 동당(東堂)에서 거애(舉哀)를 행하고, 사신을 보내 최고위급 관작을 추증하였다.

그러나 안장왕이 즉위하면서 고구려와 북위 관계에서 일련의 변화가 감지된다. 안장왕대 대북위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안장왕의 책봉호(冊封號) 조정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북위 사이에 외교적 마찰이 확인된다. 문자왕 사후 북위는 고구려에 대홍려경(大鴻臚卿, 정3품)을 겸한 유영(劉永)을 파견하여 안장왕을 책봉하였다. 그런데 이듬해 고구려가 양에 사신을 보냈는데 양의 답사(答使)가 북위군에 사로잡혀 낙양(洛陽)으로 압송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 북위는 중서시랑(中書侍郎, 종4품상)을 겸한 손소(孫紹)를 다시 고구려에 사신으로 보냈다. 사신의 관품 변화가 눈에 띈다. 둘째, 고구려의 북위에 대한 견사(遣使)가 보이지 않는다. 안장왕 재위 기간 고구려의 대북위 사행은 523년 한 차례 정도 확인된다. 셋째, <한기묘지>에 따르면, 효창(孝昌, 525~528년) 연간 고구려가 북위의 변경을 침입하여 유인(流人)을 데려왔다고 전한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양국 관계가 변화된 배경은 무엇이며, 고구려가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였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가 이뤄졌다.

고구려와 북위 두 나라 관계가 변화된 배경은 주로 북위 측 사정에서 찾는다. 북위의 한화정책에 따라 지위가 낮아진 북경(北境) 선비 무인들의 반감이 6진의 난으로 폭발하였고, 이 난이 진압된 뒤에도 궁정 내분이 지방의 진장(鎭將)들과 연결되어 광범위한 내란으로 발전하여 고구려와 교섭이 일시 두절되었다(노태돈, 1999). 6진의 난 이후 혼란이 계속되자 고구려는 친북위 외교방침을 수정하였으며(김종완, 2002), 혼란을 틈타 북위에 침입하기도 했다(朱子方·孫國平, 1986; 井上直樹, 2001).

한편, 안장왕대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 변화에 대해 북위의 불안정한 내정뿐만 아니라 고구려 내부의 정국 동향과 남북방 관계를 주목한 건

해도 있다. 남쪽에서는 백제가 무령왕대 비약적인 성장을 하며 고구려에 대해 적극적인 공략을 벌였으며, 북쪽에서는 물길의 북위와 근거리 교역로를 확보함으로써 고구려 북변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켰다. 이렇듯 악화된 남북방 관계가 고구려 내부에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원 대륙에서는 내란에 접어든 북위에 대해 양 무제가 지속적인 북벌을 단행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관망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대북위 관계를 전면 검토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김진한, 2007).

다음으로 안장왕대 고구려가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한기묘지>에 따르면, 고구려는 효창 연간 북위의 변경을 침략하여 유인을 데리고 왔다(朱子方·孫國平, 1986). 이에 따라 고구려는 북위의 내란을 계기로 발생한 유인들을 확보함으로써 요서 일대로 진출하여 세력을 확대하려 했다거나(이성제, 2005) 평주(平州)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보았다(井上直樹, 2001).

북위의 내분에 따른 대륙 정세의 변동 국면에 북중국 주민의 상당수가 고구려로 피난해오는 등 그 여파가 밀려왔다. 하지만 고구려는 북중국 방면으로 진출할 의도가 없었고 중국 지역의 내분과 상쟁이 고구려 안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보기도 한다(노태돈, 1999). 또한 고구려가 북위의 변경을 공략하고 일부 유인 집단을 받아들인 점은 인정하지만 인접한 거란(契丹)이나 고막해(庫莫奚) 등은 지속적으로 북위와 교류하고 있음을 근거로 고구려가 이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뚜렷한 증거가 보이지 않음을 지적하였다(김진한, 2020).

한편, 안장왕 즉위 이전 고구려와 양의 교류는 북위에 비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대체로 두 차례(502·508년)에 걸친 양의 문자왕에

대한 책봉호 조정과 두 번(512·516년)의 고구려 견사 기사가 보인다. 이에 따라 책봉호를 통해 고구려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즉, 당시 고구려가 양으로부터 받은 책봉호를 송(宋)·제(齊) 시기와 비교하여 문자왕대 그 지위가 내려가고 있음을 지적한다(韓昇, 1995). 하지만 502년 받은 거기대장군(車騎大將軍)은 함께 진호된 국가들의 장군호 가운데 최고위직이며, 508년 무동대장군(撫東大將軍)은 개편된 장군호 24반(班) 가운데 제23반의 고위직 장군호였다(김종완, 2002). 더구나 제24반에 해당하는 장군호를 주변국 수장에게 진호한 사례가 없으며, 문자왕의 장군호만 조정하고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를 추가하였다는 사실(백다해, 2020)을 고려한다면 고구려는 양으로부터 주변국에 비해 높은 위상을 인정받았다.

안장왕은 즉위 이듬해인 520년 정월 양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양 무제도 곧 안장왕을 책봉하고 강법성(江法盛)을 사신으로 보냈으나 도중에 북위 병사에게 사로잡혀 낙양으로 압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안장왕은 남북조의 동향을 관망하는 가운데 북위가 내란에 빠진 사이, 526년과 527년 연이어 양에 사신을 보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고구려 대양 관계의 변화를 주시하고 그 배경으로 북위와의 관계 변화 및 백제 문제를 살펴보았다. 525~527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양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를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 악화를 보완하는 외교전술로 보거나(井上直樹, 2001), 북위 내부의 권력다툼에 따른 혼란과 문자왕대 후반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남북방 관계가 고구려 내부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자 양과 우호관계를 다져나간 것으로 보았다(김진한, 2007). 이 밖에 백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파악하거나(강진원, 2016; 최일례, 2016), 양이 강성해지고 백제가 중흥

하면서 고구려에 압력이 가중되자 친양(親梁)정책으로 전환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金錦子, 2016).

2. 백제의 대양 관계와 고구려의 대남방 관계

1) 백제의 대양 관계와 고구려의 백제 공격

(1) 백제의 친양정책

6세기 전반 백제와 양의 관계는 고구려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백제 무령왕은 일관되게 고구려에 대해 적대정책을 취하였는데 어린 시절과 청장년 시절 겪었던 경험과 무관치 않다. 무령왕은 475년 장수왕의 침입으로 개로왕이 살해되고 한성이 함락되는 상황과 웅진 천도 뒤에도 왕들이 살해되는 등 왕실의 권위가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이렇듯, 순탄치 않은 시절을 보낸 무령왕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고구려에 빼앗긴 옛 영토를 회복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삼았다. 무령왕은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 양에 대해 화친정책을 취하였다(이기백, 1973)

그런데 양이 50년 가까이 존속했던 것에 비한다면, 현재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백제와 양의 교류 기사는 몇 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백제의 견사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양의 책봉 기사(502·524년)가 2건, 백제의 견사 기사(512·521·534·541·549년)가 5건이다.

이 밖에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와 『법화전기(法華傳記)』에는 무령왕 때 백제의 사문(沙門)인 발정(發正)이 양에 유학한 이야기가 실

려 있어(牧田諦亮, 1977; 이기동, 2003; 조경철, 2015) 백제의 법화(法華) 신앙에 대한 일면을 알려준다. 또한 성왕대 백제가 요청한 열반경(涅槃經), 모시박사(毛詩博士), 공장(工匠)과 화사(畫師) 등을 양이 보내주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백제의 통교 목적을 잘 보여준다(김상기, 1973).

백제와 양의 관계는 고고자료를 통해 더 잘 드러난다. 1971년 발굴된 무령왕릉은 남조(南朝)의 무덤양식을 모방한 벽돌무덤으로 만들어졌으며, 인근에 자리한 송산리6호분에서는 “양의 벽돌을 모방하여 만들었다(梁官瓦爲師矣)”는 내용의 명문벽돌이 발견되었다. 특히, 2021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발굴조사를 통해 29호분의 실체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덤 입구를 폐쇄할 때 사용한 벽돌 가운데 “이것을 만든 사람은 건업인이다(造此是建業人也)”라는 당시 제작자의 출신지가 기록된 명문이 확인되기도 했다.¹ 이 밖에 무령왕릉의 각종 부장품 가운데 철제 오수전(五銖錢)은 양 무제 때 주조된 것으로 보이며, 청자육이호(靑磁六耳壺)는 중국 절강(浙江) 지방의 초기 청자로 판단된다(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3). 이렇듯, 양과의 통교는 단순한 외교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이기백, 1973).

512년에는 고구려와 백제 사신이 각각 3월과 4월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양에 입조하고 있어 두 나라 사이 외교 경쟁의 모습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양서(梁書)』 백제전에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했으며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 그리고 그해 무령왕이 영동대장군(寧東

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보도자료, 2022. 1. 27,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새로운 명문 벽돌 출토」.

大將軍)으로 책봉받았다'고 전한다. 당시 고구려와 백제 관계를 살피는 중요한 사료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백제는 고구려가 남북조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국제적 지위에 대해 항해서 이와 대등한 국가로서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해 양은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인정하였다(이기백, 1973; 유원재, 1991). 이렇듯, 백제는 고구려를 상대로 맞설 수 있을 만큼 국력이 회복되었으며(이기동, 2003; 정재윤, 2009) 백제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다(노중국, 2012). 나아가 521년 무령왕이 받은 영동대장군은 그 전해 안장왕이 받았던 영동장군에 비해 높은 작호임을 고려해 백제의 위상이 고구려보다 높았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박윤선, 2008; 양기석, 2019).

한편, 『양서』 백제전에 보이는 관련 사료가 과연 실상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이는 백제의 한성(漢城) 영유 관련 기사에 대한 불신론을 근거로 허위로 보고하거나 날조하는 것은 백제의 관용(慣用)수단이기 때문에 이 또한 과장한 것으로 보았다(津田左右吉, 1913). 또한 무령왕대 초를 제외한다면 고구려에 대해 수세에 몰렸음을 지적하며 『양서』 백제전에 보이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했다(累破句驪)”는 내용은 실상이 아니라 백제의 인식을 반영한 과장이나 대외선전이라고 파악했다(위가야, 2019).

그리고 도홍경(陶弘景, 456~536년)의 『본초경집주(本草經集注)』가운데에는 ‘백제가 지금 고구려에 신속해 있다’고 묘사한 내용이 있어(윤용구, 2005) 오히려 백제는 고구려에 신속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부에서는 『삼국사기』에 512년 이후부터 523년 고구려와 백제 간

에 전투가 재개될 때까지 전투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양서』 백제전에 보이는 “비로소 통호했다(今始與通好)”는 사료를 고구려와 백제가 통호한 것으로 이해하여 고구려와 백제가 화호(和好)관계에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서보경, 2003).

학계에서는 『양서』 백제전이 보여주는 사료를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입장에서 고구려와 백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세부내용에서는 백제의 국제적 위상이 고구려와 비교해 대등하거나 더 높았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양국이 대립이 아닌 우호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또한 『양서』 백제전에 보이는 사료를 백제의 과장된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견해나, 백제가 고구려에 신속한 내용을 담은 『본초경집주』와 같은 자료의 등장은 학계의 통설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당시 양국 관계의 실상에 대해서는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 시선이 아니라 시기별 변화양상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고구려의 백제 공격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은 6세기 초에도 이어졌다. 『삼국사기』는 무령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구려 수곡성(水谷城)을 치거나 변경을 침입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고구려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04년 북위 선무제를 만난 고구려 사신 예실불(芮悉弗)은 일부 공물이 갖춰지지 못한 책임을 백제에 떠넘기며 비난하고 있다.

이후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에는 고구려가 말갈(靺鞨)을 동원하여 공격하거나 백제를 직접 공격하는 기사가 줄곧 이어진다. 예를 들어, 506년 7월 말갈이 고목성(高木城)을 공격하여 600여 명을 죽

이거나 사로잡아갔다. 507년 백제는 말갈의 침입에 대비해 고목성 남쪽에 목책을 세웠으며, 장령성(長嶺城)을 쌓아 말갈에 대비하였다. 또한 507년 10월에는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백제 한성을 공략하고자 횡악(橫岳) 아래 나아가 진을 쳤으나 백제가 군대를 내어 공격하니 곧 퇴각하였다. 그리고 512년 9월에는 백제를 공격하여 가불성(加弗城)과 원산성(圓山城)을 함락하고 남녀 1,000여 명을 사로잡았으며, 무령왕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위천(葦川)의 북쪽에서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이상 고구려의 백제 공격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고목성(高木城), 장령성(長嶺城), 횡악(橫岳), 가불성(加弗城), 원산성(圓山城), 위천(葦川) 등 전투를 벌인 장소이다. 이들 지명 모두 『삼국사기』 권37 지리 삼국유명미상지분(三國有名未詳地分)조에 실려 있는 데서 보듯이, 그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관련 지명에 대한 위치 비정을 시도하였지만 통설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다.

이들 지명 가운데 한성도읍기 당시 고목성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일대로 보는 의견이 강하다(천관우, 1976). 마수책(馬首柵)은 고구려의 마홀군(馬忽郡)으로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지역으로, 횡악은 서울의 삼각산에 비정하고 있다(정구복 외, 2012). 이 밖에 가불성과 원산성 및 위천의 위치는 고구려와 백제, 말갈 간 교전지역의 흐름을 감안하여 한강 이북 지역으로 추정하지만(문안식, 2006; 장창은, 2014) 원산성은 마한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천안 일대나 금산, 전주, 음성 등에서 찾기도 한다(여호규, 2013; 김영관, 2020).

이렇듯, 관련 지명에 대한 위치 비정이 명확치 않은 가운데, 무령왕이 고구려 수곡성을 공격했다거나 한성을 순행하는 기사 등도 확인되고 있어 논란을 더하고 있다. 만일 『삼국사기』에 보이는 이들 기사를

그대로 신뢰하고 따른다면, 고구려와 백제의 전선이 경기도 북부와 황해도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학계의 통설로 자리 잡아왔던 고구려의 한강 유역 영유 주장과 배치된다.

이에 동성왕 이후 보이는 백제와 말갈의 충돌 기사는 초고왕~고이왕대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후대 사서 편찬 시 잘못 삽입된 것으로 보아 그 사실성을 부정하였다(임기환, 2007). 이와 동일선상에서 507년 고구려병과 연합한 말갈병의 한성 공략 기사 등은 4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상황을 전하는 기사가 잘못 배치된 편년의 오류 사례로 보았다(강종훈, 2006). 또한 웅진도읍기 고구려와 백제가 충돌하는 기사 가운데 등장하는 마수책, 치양성(雉壤城), 우두성(牛頭城), 한산성(漢山城), 고목성, 가불성, 원산성, 한북주군(漢北州郡), 독산성(獨山城), 금현성(錦峴城) 등은 한성도읍기 한강 유역이나 그 이북에 있었던 지명으로서, 한성 함락 이후 백제인들이 집단적으로 대거 남하하면서 지명이 이치(移置)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다(노중국, 2006).

사실상 고구려의 백제 공격 문제는 한강 유역의 향방에 대한 이해와도 직결된다. 주지하듯, 고구려와 백제는 한강 유역을 둘러싸고 직접적인 충돌을 벌였다. 학계의 통설은 475년부터 551년 나제연합군이 점령할 때까지 76년간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이다. 고구려 영유설을 뒷받침하는 문헌상 근거로 『삼국사기』에 보이는 551년 신라의 죽령 이외 고현(高峴) 이내 고구려 10군 공취² 및 한주(漢州)조 고구려 고지(故地) 관련 기사³와 『일본서기』에 보이는 551년

2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2년조; 『삼국사기』 권44 열전 거칠부조.

3 『삼국사기』 권35 지리 한주조.

백제의 6군 수복 기사⁴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고구려본기에는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뒤에도 한성 및 한산성을 경영하는 기사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한성 및 한산성 경영 기사를 신뢰하는 입장에서 한강 유역이 백제의 영유 아래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양기석, 1980; 성주탁·차용걸, 1981; 박찬규, 1991; 김영관, 2000). 일부 논자는 백제가 무령왕대 한강 유역을 회복하였다고 보기도 한다(김현숙, 2003; 주보돈, 2003a; 김병남, 2007; 장창은, 2010).

551년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탈환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언제부터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는가이다. 이에 연구자들이 주목한 해가 529년이였다. 백제 성왕이 즉위한 뒤, 고구려 안장왕은 백제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벌여나갔다. 특히 『삼국사기』에 보이는 529년 오곡(五穀)전투와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기도 고양군 고적조의 옛 고봉현과 왕봉 폐현 유래 기사에 보이는 한씨 미녀 일화를 근거로 고구려가 529년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다고 보았다(김영관, 2000; 김현숙, 2003; 문안식, 2006; 박현숙, 2010). 아울러 2005년 흥련봉2보루에서 발견된 ‘경자(庚子)’명 토기편을 근거로 아차산 일대의 보루가 529년에서 멀지 않은 이전 시기에 축조되었으며, 백제의 북진을 주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고 적어도 529년부터는 고구려가 한강 이북 지역을 영역지배하였다고 이해했다(장창은, 2010). 다만 안장왕대는 정치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된 시기로

4 『일본서기』 권19 흠명천황 12년조, “是歲 百濟聖明王 親率衆及二國兵二國謂新羅任那也 往伐高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六郡之地 遂復故地.”

한강 유역을 다시 점령할 만한 기반을 갖고 있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529년 오곡전투 한 번만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김수태, 2010).

한편, 통설에서는 웅진 천도 이후 보이는 『삼국사기』 소재 한성과 한산성 관련 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대체로 기사 자체를 아예 믿지 않는 불신론(津田左右吉, 1913; 이병도, 1977), 웅진 천도 이후 지명이 옮겨졌다고 보는 지명이동론(今西龍, 1934; 이기백, 1978; 노중국, 2006), 일부 지명의 이동 및 조작론(이도학, 1984), 기년 착종론(강중훈, 2006; 2014; 임기환, 2007; 2008)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강 일대는 물론 한강 이남인 경기 남부와 충청도, 강원도 일대에서도 고구려 고분 및 산성 등의 유적과 유물이 학계에 보고되면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영유하였다는 통설을 보강하고 있다(최종택, 1998; 양시은, 2010; 윤대준, 2010).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 문헌자료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사료 비판이 필수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다만, 불신론에 바탕을 둔 지명이동론이나 기년 착종론, 조작론 역시 명증(明證)된 것이 아닌 만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고자료에 대한 해석도 문제가 된다. 대체로 고구려의 토기 편년에 기초하여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기 편년이라는 것이 자의적이어서 연구자에 따라 그 편차가 너무 커 해석상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가지 제언하고 싶은 것은 고구려와 백제가 대립하였다는 인식이 강한 탓에 두 나라 사이 문화적 교류까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로가 대립하고 있을 동안에도 문화는 끊임없

이 교류된다. 그런 점에서 475년 백제가 한강 유역을 빼앗긴 이후 양국은 이를 둘러싸고 공방을 거듭하였지만 어느 한 쪽이 고정적으로 자신의 영토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주보돈, 2006)도 주의해볼 만하다.

2) 고구려의 대남방 관계

(1) 신라와의 관계

고구려와 백제가 대립관계로 일관할 때, 변수로 작용한 것이 신라의 동향이다. 대체로 6세기 전반 삼국 관계는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대항했다는 견해가 통설이다(진단학회, 1946; 노중국, 1981). 551년 백제와 신라가 함께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탈환한 만큼 별다른 의심 없이 5세기대 고구려와 신라 관계를 그대로 투영한 면도 없지 않았다. 다만, 이 시기 신라와 백제 관계를 동맹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이를 토대로 고구려와 신라 관계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사실 고구려와 신라 관계가 5세기와 같지 않다는 점은 여러 정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6세기 전반까지 고구려와 신라의 전쟁에 관한 직접적인 기사가 전하지 않으며(양기석, 1994; 노태돈, 1997),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한 백제와 신라의 공동 군사대응도 보이지 않는다(김병주, 1984; 김현숙, 2003). 『일본서기』에는 6세기 초 가야를 둘러싸고 백제와 신라가 각축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주보돈, 2003a). 또한 <충주고구려비>의 건립 연대와 내용을 문자왕대로 파악하여 고구려와 신라의 연계 가능성을 지적하거나(김현숙, 2003; 박성현, 2010),

504년 북위 선무제의 권고사항을 고구려와 신라 간 관계 개선의 근거로 들기도 한다(박성현, 2010).

특히, 『위서』에는 502년과 508년 사라(斯羅)가 북위에 조공한 기사가 보이는데, 이 사라를 신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末松保和, 1954; 坂元義種, 1978; 武田幸男, 1979; 서영수, 1981; 이기백·이기동, 1982; 양기석, 1994; 박진숙, 2000; 서영교, 2015; 조범환, 2016). 그 근거로 ‘사라’가 신라의 다른 표기라는 점(武田幸男, 1979), 서역에 보이는 사라는 이미 멸망하고 사라진 나라라는 점, 『북사(北史)』에 언급된 502년 서역 27국 견사 기사를 『위서』와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나라가 4개국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모두 서역의 나라라고 했을 것, 502년 고구려가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점을 들었다(서영교, 2015).

이에 따라 신라의 대북위 관계를 전제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을 펴고 있다. 6세기 초반까지 신라는 고구려에 예속되어 있었다고 보는 견해(武田幸男, 1979; 1980; 서영수, 1981), 신라가 고구려를 위협할 만큼 성장하였고 고구려도 외교전술에 따라 북위 외교를 중개한 것으로 보는 견해(木村誠, 1997), 6세기 초반 고구려와 신라 관계가 우호관계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견해(양기석, 1994; 박진숙, 2000; 서영교, 2015; 조범환, 2016)가 그것이다.

한편, 『삼국사기』에는 신라가 505년 실직주(悉直州)와 512년 하슬라주(何瑟羅州)를 설치하는 등 동해안 방면으로 북진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노태돈, 1997; 후보돈, 2003a). 고구려와 신라 연합설(連和說)의 근거가 된 ‘사라=신라’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서역에 사라국(斯羅國)이 있고, 그 전후에 기록된 국가들 모두 서역에 위치하였음을 들어 ‘사라=신라’설을 비판하였다(이문기, 1988; 李成市, 1999; 井上直樹, 2000).

또한 사라가 북위에 간 시기는 502년과 508년 3월이다. 502년은 어느 시점에 왔는지 알 수 없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508년 3월은 고구려의 파견 시기와 맞지 않다. 그렇다고 고구려 사신의 동행 없이 신라 사신이 단독으로 양해를 얻어 고구려를 통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연대나 내용을 문자왕대로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특히 고구려가 북위 선무제의 권고사항에 따라 신라와 화약을 맺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섭라(涉羅)가 신라인지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권고의 규정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실제와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김진한, 2020).

이 시기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자립했는가도 논란이다. 이 논란의 근거는 504년 예실불이 선무제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언급한 백제의 부용국(附庸國) ‘섭라’가 어디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이다. 대체로 학계에서는 제주도설과 신라설 두 가지가 유력하게 제기되었다. 이 두 설 모두 섭라의 특산물인 가(珂)를 근거로 삼았다.

최근에는 신라의 국호 설라(薛羅)가 ‘섭라’와 음운상 같다는 신경준의 주장과 ‘가’의 실체가 말재갈 장식보다는 옥의 범주에 포함되는 마노(瑪瑙)가 더 유력하다는 점을 근거로 ‘섭라=신라’설을 보강하였다(장창은, 2018). 이에 대해 이 시기 한반도 중서부 이남의 제해권은 백제의 통제하에 있었으므로 ‘백제의 섭라 병탄’ 언급에 보이는 섭라는 탐라를 지칭한다거나(박남수, 2018), 북위가 마노의 주요 산지를 제어할 수 있었던 만큼 굳이 고구려에 마노 공납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가’를 제주도 특산 패류(貝類)로 보고 섭라는 제주를 가리킨다는 반론(정운용, 2020)도 제기되었다.

이상으로 고구려와 신라 관계를 살펴보면 한 가지 유의해 볼 점은

‘섭라=사라=신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즉, 앞서 북위에 간 사신 예실불의 언급 가운데 백제에 병합된 것으로 나오는 섭라를 신라로 이해한 가운데(주보돈, 2006), 사라를 신라로 볼 수 있다면 고구려나 백제가 조그마한 나라라는 의미로 신라를 ‘사라’라 불렀는데 그렇게 표기된 것이 고구려를 매개로 하였기 때문일 여지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주보돈, 2019).

이렇게 볼 경우, 502년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북위에 갔기에 신라가 아닌 사라로 표기되었다. 고구려는 신라를 자신의 도움을 받은 ‘조그마한 나라’로 북위에게 인식시킨 것이 된다. 그런데 504년 예실불은 선무제와의 대화에서 공물을 갖추지 못한 이유를 백제가 섭라를 아울렀던 탓으로 돌리며 신라를 백제의 부용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502년 12월과 504년 4월 고구려는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다. 고구려는 시간상으로 16개월 만에 신라를 자신의 부용국처럼 표현했다가 다시 백제의 부용국으로 바꿔 말한 것이 된다. 외교가 자국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지만 고구려가 손바닥 뒤집듯 얼마 지나지 않아 신라를 자국의 부용국에서 백제의 부용국으로 표현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따라서 ‘섭라=사라=신라’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섭라와 사라의 실체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

아직은 6세기 중반까지 고구려에 대항하여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고 있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다만, 고구려와 신라 관계를 새롭게 보려는 주장의 근거를 들여다보면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장수왕대부터 양원왕대까지 한 세기를 고구려와 나제동맹의 대결로 이해하기에는 그 시간 속에 녹아 있는 삼국의 이해관계가 결코 한결 같지 않았다. 사람도 바뀌었고 상황도 바뀌었는데 고구려 대 나제동맹의 대결구도로 일

관해서 이해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 사이 삼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정치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2) 가야·왜와의 관계

고구려와 가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백제와 신라에 가로막혀 사실상 직접적인 교섭을 벌이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었다. 다만, 400년 광개토왕의 남정 당시 가야는 고구려와 직접 전투를 벌였으며, 481년에는 미질부(彌秩夫)까지 진군해왔던 고구려군에 맞서 백제와 신라 연합군의 일원으로써 싸웠다.

고구려와 가야가 5세기 이후 6세기 전반까지 일관되게 대립을 지속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료가 없어 알기가 어렵다. 『일본서기』에는 현종 3년(487년) 임나와 고구려의 교통 기사 이후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다가 흠명(欽明) 9년(548년) 고구려가 백제 마진성(馬津城)을 포위한 기사를 통해 고구려와 가야 관계를 추정할 만한 내용이 처음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그동안 가야세력은 백제나 신라와 함께 행동했기 때문에 고구려와 간접적으로나마 적대적인 입장에서 있었다고 이해해왔지만, 고구려와 가야 사이를 연결한 어떤 존재가 있었음을 인정하려는 견해도 있다(박윤선, 2010).

한편, 고고학적으로도 일부 고구려 계통의 유물이 보고되고 있지만 출토 상황이나 유물 상태가 좋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고구려와 가야가 의도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교류를 맺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하기 어렵다(김태식, 2006; 이영식, 2006).

다음으로 고구려와 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왜 관련 기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광개토

왕비)를 통해 5세기 고구려의 대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대체로 비문에 보이는 왜는 고구려적 천하의 바깥에 있는 이질적 존재로 간주되었으며(노태돈, 1999), 고구려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이자 고구려 천하관 속에 포함된 속민(屬民)과 다른 이차적인 존재로 파악했다(주보돈, 2005).

백제본기와 신라본기에 남아 있던 왜 관계 기사는 6세기에 접어들면 한국 측 자료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듯, 왜 관계 기사가 소멸한 원인을 두고 일본 학계에서는 다양한 설이 제기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삼국사기』가 왜 관계 기사를 편찬할 때 중국 사서에 기재된 왜 기사를 편년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보면서, 6세기 왜 관계 기사의 공백은 사실의 반영이나 사료의 결락이 아니라 중국 사서의 편년을 따르기 위해 편찬할 때 기사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鈴木英夫, 1985).

그러나 왜 관련 기사가 비단 한국 측 자료에서만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왜왕의 중원 왕조에 대한 견사는 478년 왜왕 무(武)가 표를 올려 관작을 주청한 이후 6세기 말까지 정식 국교가 중단되었다(西嶋定生, 1985). 앞서 왜는 266년 진(晉)에 견사한 이후 413년 동진(東晉)에 견사할 때까지 약 150여 년간 교류양상이 확인되지 않기도 했다. 따라서 6세기 전반 왜 관련 기사의 공백은 『삼국사기』 편찬자가 의도적으로 빼버린 것이 아니라 왜가 국제사회와의 교섭에 소극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런 가운데 『일본서기』에는 고구려와 왜의 교섭을 보여주는 기사가 두 건 보인다. 하나는 계체(繼體) 10년(516년) 백제 사신을 따라 고구려 사신 안정(安定) 등이 내조(來朝)하여 왜와 결호(結好)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백제와 고구려가 512년 전투 이후 교전 기사가 보이지

않는 등 잠시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을 동안 백제가 고구려의 왜 교통을 인도하였던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이홍직, 1954). 또한 기년(紀年)조정론에 따라 3년을 내려 519년 기사로 파악한 뒤, 고구려 안장왕이 백제와의 통호를 피하면서 백제의 중개에 따라 왜에 견사하여 신왕 즉위를 알리려 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三品彰英, 2002). 이 밖에 『일본서기』의 기록을 근거로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에 걸쳐 고구려와 일본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으며, 고구려는 일본의 지지를 얻어 신라와 백제에 대항하고자 516년 사신을 보내어 일본과 결호했다는 주장도 있다(朱旻暉, 1995).

근래에는 계체 10년조 기사에 ‘무인(戊寅)’이라는 일자와 고구려와 백제 사신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점, 사료에 보이는 인명과 외교용어 모두 백제나 한반도 계통 사료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어 『삼국사기』에 512년 이후부터 523년 전투가 재개될 때까지 전투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양서』 백제전에 보이는 관련 사료를 “여러 번 고구려를 파해 이제 비로소 우호관계를 맺게 되었다(稱累破句麗 今始與通好)”로 해석하여 고구려와 백제가 화호관계에 있었다고 했다. 결국 이를 근거로 백제가 고구려와 왜의 교섭을 주선하여 양국은 우호를 맺기에 이르렀다는 견해까지 나왔다(서보경, 2003). 『일본서기』 역주서에도 고구려가 왜에 파견한 최초의 사신으로 기록하는 등(전용신, 1989; 연민수 외, 2013) 양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는 입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계체 10년조 기사를 백제왕에 의한 위장 파견이 짐작되는 기술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영식, 2006). 더구나 무령왕 지식의 발견으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년조정론은 그 허구성이 밝혀진 만큼 이를

519년의 기사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와 왜의 통호관계를 보여주는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일본서기』에는 계체 10년을 전후로 고구려와 왜, 고구려와 백제 관계를 살필 만한 기사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고구려와 백제 전투 기사가 512년 이후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양국이 소강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521년에는 백제가 양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격파했다고 하는 등 적대관계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었다. 더욱이 『양서』 백제전에 보이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하고 이제 비로소 우호관계를 맺었다”에서 백제가 우호를 맺은 대상은 고구려가 아니라 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기사는 사실성이 의심된다. 설령, 고구려인 안정이 왜에 갔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고구려 사신의 대외 파견으로 볼 수 있을지는 주변 상황에 대한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흠명 원년(540년)조에는 이해 8월 백제, 신라, 임나와 함께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조공했음을 전한다. 540년 고구려의 대외 조공 기사는 천황의 입후(立后) 및 천도 등 치세의 시작과 함께 기록한 것으로, 주변국의 내조는 형식적 윤색 기사로 파악하고 있다(三品彰英, 2002; 이영식, 2006). 다만, 실제로 고구려인의 내조가 있었지만 이를 조공으로 꾸며낸 것인지, 고구려인이 내조했다는 사실 자체를 조작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일본서기』가 갖고 있는 사료적 윤색과 왜국은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그럼에도 『일본서기』에는 한국 측 자료에서 전하지 않는 술한 삼국 관계 기사가 실려 있어 이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만일, 이 시기 『일본서기』에서 언급한 대로 고구려가 백제를 따라 왜와 교섭을 했다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6세기 전반의 역사상은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할 점은 사실관계 확인이다.

3. 안원왕대 대남북조 관계와 대백제 관계

1) 안원왕대 중국 남북조와의 관계

안원왕대 고구려는 남북조에 꾸준히 견사했다. 특히 안장왕대와 달리 매년 북위(동위)에 사신을 보냈다. 북위는 안원왕에게 532년 ‘사지절 산기상시 거기대장군 영호동이교위 요동군개국공 고구려왕(使持節 散騎常侍 車騎大將軍 領護東夷校尉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을, 동위는 534년 중1품에 비견되는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을 더해 주었다. 520년 안장왕이 정3품에 해당하는 안동장군을 북위로부터 제수받았던 것에 비한다면 안원왕은 높은 책봉호를 받은 셈이다.

당시 안원왕이 받은 장군호는 장수왕, 문자왕에 비해서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북위 역사상 최고의 장군호였다(三崎良章, 1982). 더욱이 남북조시대 주변국이 받은 책봉호 중 장군호가 국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로 기능하기도 했던 사실(坂元義種, 1978)을 상기해본다면, 이는 고구려에 대한 높은 기대와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위의 안원왕 책봉에 대해서는 그 전체로 안원왕으로부터 사신의 내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坂元義種, 1981).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고구려의 견사는 북위의 외교정책과 어우러져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것이 안원왕에게 증여된 장군호에도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井上直樹, 2001). 이에 대해 북위의 책봉이 조공에 앞서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책봉의 명분을 내세워 북위 측이 먼저 관계 개선에 나섰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이성제, 2005).

사신의 입조를 통해 책봉의 수수가 이뤄짐이 일반적이지만 입조 유무와 관계 없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신의 입조 유무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고구려와 북위의 외교 재개 배경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기인한다.

북위 입장에서 살펴본 견해에서는 내란을 수습하고 있던 북위가 동북방의 안정을 위해 안원왕을 책봉해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먼저 관계 개선에 나섰을 것으로 보았다(이성제, 2005). 고구려 입장에서 살펴본 견해에서는 내부의 정권다툼으로 안장왕이 살해되고 뒤를 이어 즉위한 안원왕이 쿠데타에 따른 국내의 동요를 수습하고자 대외관계의 전환을 꾀하여 다시 북위에 조공하게 되었다고 보았다(井上直樹, 2001).

한편, 사치품을 비롯한 각종 문물에 대한 수요와 관련해 보기도 한다. 북위와 잦은 교섭을 가졌던 고구려가 안장왕대 10년 남짓 북위와 공식적인 외교를 중단함으로써 사치품을 비롯한 각종 문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귀족들의 불만이 안장왕의 정치행보에 대한 반발과 맞물려 왕에 대한 시해와 대북위 외교의 재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김진한, 2007). 이 밖에 안원왕은 집권 초기 안장왕대의 외교노선을 이어나갔고, 태자 책봉을 계기로 지지세력을 결집시켰으며 북조 역시 안정화에 접어들자 활발한 교섭을 이어갔다고 보았다(강진원, 2018).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안원왕대 대북위 관계에 영향을 미쳤던 이들은 누구였을까? 『삼국사기』에는 531년 안장왕이 뒤를 이을 아들이 없

이 죽자, 동생 보연(寶延)이 즉위했음을 전한다. 그런데 『일본서기』 계체기 25년 12월조에서는 안장왕이 시해되었음을 전한다. 또한 『양서』 고구려전에서는 안장왕이 526년에 죽고 아들 연이 즉위했다고 전한다. 이렇듯, 안장왕의 사망과 안원왕의 즉위를 둘러싸고 각 사서마다 달리 전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이들 기사를 주목하고 그 진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구려 정계의 향방에 관심을 기울였다.

안원왕의 즉위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안장왕의 시해 여부이다.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본기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전하지 않는 일면을 보여주는 사료로 왕위를 노리는 모종의 음모에 안장왕이 희생된 것으로 보았다(이흥직, 1954). 이에 따라 이들 기록을 토대로 안장왕의 시해와 안원왕의 즉위 과정을 해명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안장왕을 시해한 세력이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안장왕의 피살을 국내계 귀족 세력의 동향과 관련해 살펴보거나(임기환, 1992) 한씨녀와 연관된 인사들의 중앙 진출로 고구려 지배층의 통혼권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기존 질서와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안장왕이 피살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노태돈, 1999). 그리고 문자왕이 태손으로 왕위계승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까지 장수왕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었으며, 이때 억압받았던 대상들과 그와 연계된 정치 세력, 그 후손들이 안장왕 시해사건에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김현숙, 1999).

이 밖에 장수왕 말년에 탄압을 받았던 낙랑·대방계 귀족들이 안장왕의 왕권 회복 노력에 위기감을 느껴 시해한 것으로 보거나(조영광, 2003) 안장왕의 후계구도와 관련해 안원왕이 선수를 쳐 안장왕을 시

해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이도학, 2006). 또한 안장왕이 약화된 왕권을 일신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쳤으며 자신의 정책을 지지해 줄 세력을 규합하고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여 정계 개편을 시도하다가 시해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진한, 2007).

이렇듯, 당시 안장왕을 시해한 세력을 포함한 고구려 국내 정치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을지는 연구자들마다 이해가 다르다. 그런데 『일본서기』에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구였는지 짐작할 만한 단서가 남아 있다. 『일본서기』 흠명기에 인용된 백제본기가 전하는 양원왕의 즉위를 둘러싼 외척 간 세력다툼이 그것이다. 백제본기에 따르면, ‘안원왕은 정부인(正夫人)·중부인(中夫人)·소부인(小夫人) 세 명의 정실부인을 두었다. 그런데 정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으며, 중부인이 세자를 낳았는데 외가가 추군(麤群)이며, 소부인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외가가 세군(細群)이었다. 각기 그 부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전투를 벌였는데 세군이 패하였다’고 전한다. 안장왕의 시해로부터 안원왕, 양원왕으로 이어지는 왕위계승분쟁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6세기 전반 고구려 정국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본기의 기록은 당시 사정을 알려주는 사료로 신뢰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보듯, 『일본서기』에는 안원왕대 정치 세력으로 추군과 세군이 등장한다. 학계에서도 추군과 세군의 의미와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그 결과 추군과 세군을 털이 굵고 가는 동물로써 부족을 식별한 고대적인 잔재이거나 대소가(大小家)라는 뜻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이흥직, 1954). 또는 추군과 세군 두 외척 간의 싸움을 왕위 계승과 정치지향이라는 두 측면이 함께 내재한 것으로 보았다. 즉, ‘추(麤)’는 거칠고 크다는 뜻인 반면, ‘세(細)’는 작고 섬세하다는 정

반대의 뜻을 지닌 것으로 고구려 사회가 나아갈 지향에 대한 입장에서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거칠고 크다는 것은 곧 고구려적인 지향을, 가늘고 자세하다는 것은 중국적(한문화적) 지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했다(주보돈, 2003b).

한편, 추군과 세군을 지역과 연관시켜 정치 세력을 구체화시키기도 했다. 즉 세군계는 고구려 초기 이래 중앙귀족으로 성장한 전통적인 구 귀족 세력으로 국내(환도) 지역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국내 지역과 연고를 맺고 있는 중앙귀족까지를 모두 포괄한 하나의 정치세력권으로 보았다. 그리고 추군계는 평양 천도 이후 국내계 구 귀족 세력이 위축되면서 평양 지역에 기반을 둔 낙랑·대방계 지방호족세력과 중국계 망명인들로 왕권의 뒷받침을 받으며 장수왕과 문자왕대를 거치며 구 귀족 세력과 대립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했다고 보았다(임기환, 1992). 이에 대해 ‘추’와 ‘세’를 ‘멀고 가깝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백제에서 멀리 떨어진 국내성 지역에 세력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집단을 추군으로,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가던 정치집단을 세군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남무희, 2007).

이렇듯, 추군과 세군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어떠한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평양계 세력인지 국내계 세력인지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이들이 안원왕대 정치적 지배세력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추군과 세군의 타협 속에 안원왕의 정치적 행보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양원왕 즉위 뒤에도 추군계가 외척으로서 줄곧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고구려가 대북조 관계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추군계가 안원왕대 대북위 외교 재개에 중요한 구실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김진한, 2007).

안원왕이 즉위한 뒤에도 고구려의 양에 대한 견사는 꾸준히 이어졌다. 『양서』에 따르면 “526년 안(安: 안장왕)이 죽자, 아들 연(延: 안원왕)이 [왕위에] 올랐다.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니 조서로 연이 작위를 잇게 했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안원왕 즉위조에는 “양 고조가 조서를 내려 습작케 했다”고 나온다. 안장왕의 사망연도는 앞서 본대로 531년이며, 보연(寶延)은 그해 왕위에 올라 양에 사신을 보냈고 안원왕에 대한 책봉도 이때 이뤄졌다.

531년 책봉 수수 이후 고구려의 대양 사신 파견은 532·534·535·541년 네 차례 확인된다. 이와 달리 고구려는 안원왕 즉위 이듬해인 532년부터 사망하기 전해인 544년까지 매년 북조(북위, 동위)로 사신을 보냈다. 이와 비교하면 대양 관계의 비중은 안장왕대에 비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안원왕의 대양 관계에 대해 동위의 불만이나 갈등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안장왕대 양이 파견한 고구려 사신을 낙양으로 압송한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이는 당시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재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듯, 북위는 6년여에 걸친 6진의 난을 진압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크게 약화되어 결국 동위와 서위로 분열하였다. 이로써 동위와 서위, 양이 경쟁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고구려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발맞추어 양에 대한 견사를 이어나갔다. 동위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 상대이자 적인 서위가 존재하고 있었기에 양으로 사신을 보내는 고구려에 별다른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김진한, 2007).

한편, 안원왕대 대양 관계를 5세기 중엽 이래 형성된 기본적인 대외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려는 견해도 있다. 안원왕은 집권 초기 정

국 장악의 한계와 북위의 내정 혼란에 따라 안장왕대의 외교노선을 이어 대양 외교에 관심을 기울여 나갔다. 이는 북위에 대한 견제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백제가 중흥의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물품 수요의 충족이라는 면에서도 양과의 교섭을 지속해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533년 태자 책봉을 계기로 지지세력을 결집시켰으며 북조 역시 안정화에 접어들자 기존 북조 중심의 대외노선으로 전환하였다고 보았다(강진원, 2018). 안원왕대 대양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부진한 편이다. 사료 부재의 한계가 있지만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2) 백제와의 관계

529년 오곡전투 이후 10여 년간 고구려의 대백제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비단 사료 부재만이 아니라 고구려 안팎의 사정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안원왕대 고구려 국내 상황은 매우 어수선하여 자연재해가 잇따르는 등 내부를 추스르는 데 힘을 모아야 했다. 백제는 가야를 둘러싸고 신라와 미묘한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538년 사비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이런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양국 관계는 소강상태가 이어졌다(김진한, 2020).

그런 가운데 백제의 선제공격으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540년 9월 성왕이 연회(燕會)를 보내 우산성(牛山城)을 공격했으나 안원왕이 정예 기병 5,000명을 보내 쫓아냈다. 우산성전투는 529년 오곡전투로부터 551년 한강 유역을 둘러싼 전투로 이어지는 사건의 흐름 속에 있다. 그런 점에서 백제가 고구려와의 소강상태를 끝내고 우산성을 공격하였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학계에서도 우산성전투를 주목하고 있지만 우산성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산성은 540년 고구려와 백제 간 전투 이전에 두 차례 더 확인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에는 496년과 497년 고구려와 신라가 전투를 벌인 곳으로 처음 우산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496년 7월 고구려가 우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신라 장군 실죽(實竹)이 나와 니하(泥河) 위에서 물리쳤으며 497년 8월에는 고구려가 우산성을 함락시켰다.

그런데 우산성은 5세기 말부터 6세기 전반에 한정해서만 나온다. 『삼국사기』 삼국유명미상지분조에 우산성이 표기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 위치는 미상이다. 학계에서도 의견만 분분할 뿐 통설은 없다. 대체로 산성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496·497년 고구려와 신라 간 전투에 보이는 우산성과 540년 고구려와 백제 간 전투에 보이는 우산성을 동일한 성으로 볼 것인지(이하 ‘동일설’), 다른 성으로 볼 것인지(이하 ‘별개설’)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동일설은 우산성이 고구려·신라 간 전투와 고구려·백제 간 전투가 벌어졌던 곳을 주목하였으며 니하의 위치를 비정의 중요 근거로 활용하였다. 별개설은 540년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선을 어디로 설정하느냐가 위치 비정의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우산성의 위치에 대한 여러 견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우산성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마리로 『삼국사기』 삼국유명미상지분조에 보이는 두 우산성이 동일한 성인지, 별개의 성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서는 모두 충청도 청양현에 우산성이 있었다고 나온다.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는 평안도 삼화에 우산성이 있다고 나

표1 우산성의 위치에 대한 견해

구분	논자	위치
동일설	津田左右吉(1913)	충북 보은 주변 일대
	酒井改藏(1970)	강원도 춘천 우두산성
	양태진(1989)	충북 보은, 충주 부근
	김진한(2007)	조령을 중심으로 한 소백산맥 일대
	박성현(2010)	충북 충주 일대
	강민식(2013)	충북 영춘
별개설	김병남(2006)	황해도 금천군 우봉면 일대
	전덕재(2014)	충남 천안시 직산면 혹은 연기군 전의면 또는 충북 진천군

표2 니하의 위치에 대한 견해

구분	논자	위치
동일설	안정복(『동사강목』)	덕원 일대
	정약용(『팔해고』)	강릉 북쪽 니천수
	서병국(1981)	강릉 연곡천
별개설	김정호(『대동지지』)	덕원 일대
	津田左右吉(1913), 이강래(1985), 홍영호(2010), 장창은(2012)	남한강 상류
	서병국(1982), 김택균(1997)	강릉 연곡천
	서영일(1999)	강릉 부근
기타설	酒井改藏(1970)	남한강 상류
	이지린·강인숙(1988), 양태진(1989)	낙동강 상류
날조설	池内宏(1960)	

온다. 이들 우산성이 동시대에 있었던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위치를 전혀 달리하는 두 우산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 문헌에 기재된 우산성이 『삼국사기』에 보이는 우산성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특정한 성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두 우산성을 각각의 시대상황 속에서 분석해 본 뒤 서로 비교함으로써

공통성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듯하다.

우산성과 더불어 논란이 되는 지명이 니하이다. 니하와 관련한 사료는 국내서와 국외서로 나뉘 볼 수 있다. 국내서로는 『삼국사기』 지마이사금 14년(125년)조, 자비마립간 11년(468년)조, 소지마립간 3년(481년)조·18년(496년)조, 문자왕 5년(496년)조 등 다섯 곳에 니하가 나온다. 『삼국유사』에는 말갈·발해조에 지마왕 14년(125년)과 관련한 사례가 보인다. 국외서로는 『신당서(新唐書)』에 발해와 신라의 국경으로서 니하가 있다.

니하의 위치 비정과 관련해서는 『삼국사기』와 『신당서』에 보이는 니하를 동일한 것으로 볼지(이하 ‘동일설’), 별개로 볼지(이하 ‘별개설’)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이 밖에 양 사서에 소재한 니하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이하 ‘기타설’) 위치를 비정하거나 『삼국사기』 소재 니하를 날조되었다고 보는 견해(이하 ‘날조설’)도 있다. 이상의 견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동일설의 경우에는 신라와 발해의 국경으로서 니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동해안 일대에 자리한 덕원이나 강릉에서 그 위치를 찾았다. 별개설의 경우에는 『삼국사기』 소재 니하와 관련된 지명이나 말갈의 침입 사건 등을 근거로 덕원, 강릉, 남한강 상류 등으로 위치 비정을 달리하였다. 기타설의 경우, 하슬라를 실직성 이남 지역에서 찾은 뒤, 니하를 실직성과 하슬라 사이에 있는 오늘날 낙동강 상류라고 추정했다. 현재 학계에서는 『삼국사기』와 『신당서』에 보이는 니하를 달리 보려는 입장이 강하며, 남한강 상류를 그 위치로 추정하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참고문헌

- 김진한, 2020,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문안식, 2006,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3, 『武寧王陵 發掘調査報告書』.
-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 연민수 외, 2013, 『역주 일본서기 2』, 동북아역사재단.
- 이기백·이기동, 1982, 『韓國史講座 I-古代篇』, 일조각.
- 이병도, 1977,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 이성제,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 국학자료원.
- 이지린·강인숙 저, 사회과학출판사 편찬, 1988, 『고구려 역사』, 논장.
-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 , 2020,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온샘.
- 전용신 역, 1989, 『完譯 日本書紀』, 일지사.
- 조경철, 2015, 『백제불교사 연구』, 지식산업사.
- 진단학회, 1946, 『國史教本』, 軍政廳 文教部.
- 강민식, 2013, 「5세기 후반 삼국의 전투와 대치선」, 『軍史』 87.
- 강종훈, 2006,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사료 계통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2.
- , 2014, 「5~6세기 삼국 간 국경의 변동에 관한 제설(諸說)의 검토」, 『대구사학』 116.
- 강진원, 2008, 「高句麗 始祖廟 祭祀 研究」, 『한국사론』 54.

- _____, 2016, 「고구려 安臧王의 대외정책과 남진」, 『大東文化研究』 94.
- _____, 2018, 「고구려 安原王 대의 정국 동향과 대외정책」, 『동아시아고대학』 51.
- 김병남, 2006, 「백제 성왕대 북방영역 관련 지명의 분석」, 『한국상고사학보』 52.
- _____, 2007, 「백제 무령왕 때의 대내외적 상황과 영역의 변화」, 『한국사상과 문화』 37.
- 김병주, 1984, 「羅濟同盟에 관한 研究」, 『한국사연구』 46.
- 김상기, 1973, 「熊津時代に 있어서의 百濟의 大陸關係」, 『武寧王陵 發掘調査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 김수태, 2006, 「백제 성왕대의 변경: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44.
- 김영관, 2000, 「百濟의 熊津遷都 背景과 漢城經營」, 『忠北史學』 11·12.
- _____, 2020, 「웅진시대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 양상과 영역」, 『한국고대사탐구』 34.
- 김종완, 2002, 「南朝와 高句麗의 關係」, 『高句麗研究』 14.
- 김진한, 2006, 「文咨王代の 對北魏外交」, 『한국고대사연구』 44.
- _____, 2007, 「6世紀 前半 高句麗의 政局動向과 對外關係」, 『軍史』 64.
- 김태식, 2006, 「5~6세기 高句麗와 加耶의 關係」, 『북방사논총』 11.
- 김택균, 1997, 「東濊考」, 『강원문화연구』 16.
- 김현숙, 1999, 「6세기 고구려 集權體制 動搖의 一要因」, 『경북사학』 22.
- _____, 2003, 「熊津時期 百濟와 高句麗의 關係」,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 남무희, 2007, 「安原王·陽原王代 정치변동과 고구려 불교계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45.
- 노중국, 1981, 「高句麗·百濟·新羅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동방학지』 28.
- _____, 2006,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 _____, 2012, 「무령왕대 백제의 동아시아 상에서의 위상」, 『백제문화』 46.
- 노태돈, 1997,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고구려관계 기사 검토」, 『경주사학』 16.
- 민철희, 2002, 「高句麗 陽原王·平原王代の 政局變化」, 『사학지』 35.
- 박남수, 2018,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탐라문화』 58.
- 박성현, 2010, 「6세기 초 고구려·신라의 화약과 정계」, 『역사와 현실』 76.
- 박윤선, 2008, 「백제와 송·제·양 교섭기사에 대한 고찰」, 『역사문화연구』 31.

- 박진숙, 2000, 「百濟 東城王代 對外政策의 變化」, 『백제연구』 32.
- 박찬규, 1991, 「百濟熊津初期 北境問題」, 『사학지』 24.
- 박현숙, 2010, 「5~6세기 삼국의 접경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 『한국고대사연구』 58.
- 백다해, 2020, 「6세기 초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양교섭(對梁交涉)」, 『동북아 정세와 고구려 역사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서병국, 1981, 「新唐書渤海傳所載 泥河의 再檢討」, 『동국사학』 15·16.
- , 1982, 「泥河史論의 展開」, 『關大論文集』.
- 서보경, 2003, 「5세기 말~6세기 초 한반도 諸國과 倭國의 關係」, 『선사와 고대』 18.
- 서영교, 2015, 「『三國志』『魏略』의 ‘斯羅國’과 『魏書』의 ‘斯羅」, 『역사학연구』 59.
- 서영수, 1981, 「三國과 南北朝 交涉의 性格」, 『동양학』 11.
- 성주탁·차용걸, 1981, 「百濟儀式考」, 『百濟研究』 12.
- 양기석, 1980, 「熊津時代의 百濟支配層研究」, 『사학지』 14.
- , 1994, 「5~6世紀 前半 新羅와 百濟의 關係」,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15.
- , 2019, 「백제의 외교」,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동북아역사재단.
- 양시은, 2010,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 『고고학』 9-1.
- 양태진, 1989, 「高句麗 領土 연구 - 『三國史記』를 중심으로」, 『군사』 18.
- 여호규, 2013,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高句麗와 百濟의 國境 變遷」, 『백제문화』 48.
- 위가야, 2019, 「백제 무령왕대 ‘更爲強國’설의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95.
- 유원재, 1991, 「武寧王代의 對外關係」, 『百濟武寧王陵』,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忠淸南道.
- 윤대준, 2010, 「475~551년 한강 하류 유역 領有國 문제에 관한 考察」, 『정신문화연구』 33-1.
- 윤용구, 2005, 「고대중국의 동이관(東夷觀)과 고구려」, 『역사와 현실』 55.
- 이강래, 1985, 「『三國史記』에 보이는 靺鞨의 軍事活動」, 『領土問題研究』 2.
- 이기동, 2003, 「百濟 武寧王과 그時代」, 『인하사학』 10.
- 이기백, 1973, 「百濟史上的 武寧王」, 『武寧王陵 發掘調査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 , 1978, 「熊津時代 百濟의 貴族勢力」, 『백제연구』 9.

- 이도학, 1984,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系の檢討」, 『한국사연구』 45.
- , 2006, 「高句麗의 內紛과 內戰」, 『고구려연구』 24.
- 이문기, 1988, 「6世紀 新羅 「大王」의 成立과 그 國際的 契機」, 『신라문화재학술 발표논문집』 9.
- 이영식, 2006, 「가야와 고구려의 교류사 연구」, 『한국사학보』 25.
- 이흥직, 1954, 「日本書紀所載 高句麗關係 記事考(一)」, 『동방학지』 1.
- 임기환, 1992, 「6·7세기 高句麗 政治勢力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
- , 2007, 「웅진시기 백제와 고구려 대외관계 기사의 재검토」, 『백제문화』 37.
- , 2008, 「『삼국사기』 백제본기 대외관계 기사의 재구성 시론」, 『한국고대사 연구』 52.
- 장창은, 2010, 「5~6世紀 高句麗의 南下와 漢江 流域의 領域向方」, 『백산학보』 88.
- , 2012, 「4~5世紀 高句麗의 南方進出과 對新羅 關係」, 『고구려발해연구』 44.
- , 2018,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耽羅文化』 57.
- 전덕재, 2014, 「新羅의 東北地方 國境과 그 變遷에 관한 고찰」, 『軍史』 91.
- 정운용, 2020, 「三國時代의 耽羅 關聯 史料」, 『신라사학보』 49.
- 정원주, 2013, 「安藏王의 始祖廟 親祀와 政局運營」, 『백산학보』 96.
- 정재윤, 2009, 「5~6세기 백제의 南朝 중심 외교정책과 그 의미」, 『백제문화』 41.
- 조범환, 2016, 「新羅 智證王代 北魏에 사신 파견과 목적」, 『서강인문논총』 46.
- 조영광, 2003, 「5세기 말~6세기 초 고구려의 정치동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08, 「長壽王代를 전후한 시기 고구려의 政局과 體制 변화」, 『軍史』 69.
- 주보돈, 2003a, 「熊津都邑期 百濟와 新羅의 관계」,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 , 2003b, 「三國時代 地方統治體制의 定着과정 - 高句麗의 事例를 중심으로」,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 2005, 「5세기 高句麗·新羅와 倭의 관계」, 『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 2006,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 , 2019, 「신라 국가 발전기 대외관계와 그 전개」,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고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 천관우,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 최광식, 1989, 「三國의 始祖廟와 그 祭祀」, 『大丘史學』 38.
- 최일례, 2015, 「고구려 시조묘 제사의 정치성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2016, 「고구려 안장왕대 정국 변화와 그 動因」, 『한국고대사연구』 82.
- 최종택, 1998,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진출과 백제」, 『백제연구』 28.
- 홍영호, 2010, 「『三國史記』 所載 泥河의 위치 비정」, 『韓國史研究』 150.
- 金錦子, 2016, 「安臧王時期高句麗與南北朝關係探析」, 『朝鮮·韓國歷史研究』 17.
- 朱旻暉, 1995, 「高句麗與日本的交往」, 『社會科學戰線』 1995-5.
- 朱子方·孫國平, 1986, 「隋『韓暨墓誌』跋」, 『北方文物』 第1期.
- 韓昇, 1995, 「『魏伐百濟』與南北朝時期東亞國際關係」, 『歷史研究』 1995-3.
- 今西龍, 1934,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 末松保和, 1954,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 三品彰英, 200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下卷, 天山舍.
- 池内宏, 1960, 『滿鮮史研究』 上世第2冊, 吉川弘文館.
-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 鈴木英夫, 1985, 「朝鮮史料の倭人·倭國-5世紀を中心に」, 『東アジアの古代文化』 44.
- 牧田諦亮, 1977, 「百濟益山遷都에 對한 文獻資料」, 『馬韓百濟文化』 2.
- 木村誠, 1997, 「中原高句麗碑立碑年次の再檢討」,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 武田幸男, 1979, 「新羅官位制の成立」, 『朝鮮歷史論集』 上卷, 龍溪書舍.
- 三崎良章, 1982, 「北魏の對外政策と高句麗」, 『朝鮮學報』 102.
- 西嶋定生, 1985, 「四-六世紀の東アジアと倭國」, 『日本歷史の國際環境』, 東京大學出版會.
- 井上直樹, 2000, 「高句麗の對北魏外交と朝鮮半島情勢」,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8.
- , 2001, 「『韓暨墓誌』を通してみた高句麗の對北魏外交の一側面-六世

- 紀前半を中心に, 『朝鮮學報』 178.
- 酒井改藏, 1970, 「三國史記の地名考」, 『朝鮮學報』 54.
- 津田左右吉, 1913, 「長壽王征服地域考」, 『朝鮮歴史地理』 第壹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 坂元義種, 1981, 「南北朝諸文献に見える朝鮮三國と倭國」,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3, 學生社.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의 천하관

이정빈 |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

5세기를 전후한 고구려의 금석문(金石文)을 보면 자국과 국제관계 인식이 드러나 있는데, 이는 ‘천하(天下)’라는 현실에서 하나의 세계(世界)로 인식되었다. 이를 천하관(天下觀)이라고 한다.

고구려의 천하관은 자국을 중심으로 하였다. 천손(天孫)인 태왕(太王)이 다스리는 국토가 천하의 중심이었고, 주변의 여러 나라는 태왕의 질서를 지키고 조공(朝貢)해야 할 신하와 같았는데, 그들이 천하의 외곽이었다. 다만 고구려 태왕의 천하는 동아시아 주요 강국의 천하와 구분하였다. 동아시아의 여러 권역에서 주요 강국을 중심으로 한 복수의 천하가 병립한다고 여기며, 그 속에서 고구려 중심의 천하를 상정한 것이다.

고구려의 천하관은 4세기 무렵에 형성되어 후기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천하관이 곧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현실 그대로는 아니었다. 천하관은 어디까지나 고구려 왕실과 지배층의 관념적인 국제관계 인식이자 이상(理想)이었다. 그러므로 타국의 인식과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유리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6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변동하며 천하관의 이상과 국제관계의 현실 간의 틈새는 더욱 큰 폭으로 벌어졌다. 다만 고구려의 천하관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다. 4세기 이후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현실에 토대를 두고 형성되었고, 6세기 중반까지 고구려가 추구한 이상으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기능하였다.

4~6세기 중반 동아시아는 주요 강국이 병립하며 다원적인 국제질서를 형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각지에서는 자국 중심의 천하관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 역시 주요 강국의 하나로 성장하면서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표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원 왕조의 화이(華夷) 관념을 수용하였고 유교정치사상을 통해 왕권을 수식하기도 하였는데, 그 바탕에는 태왕이 천손(天孫)이라는 구래(舊來)의 신화적인 세계관이 자리하였다.

고구려의 천하관은 정치사상의 측면에서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제관계와 인식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각지의 역사적 특징을 밝히는 데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1. 4~6세기 고구려와 동아시아 국제질서

4세기에 접어들며 고구려의 대외활동은 한층 적극적인 양상을 보

였다. 먼저 311년(미천왕 12년) 서안평(西安平)을 공격해 차지한 사실이 주목된다. 당시 서안평은 서진(西晉, 265~316년) 요동국(遼東國)에 소속된 현(縣)의 하나였다. 현의 치소는 지금의 중국 요령성 단둥(丹東)에 소재한 애하첨고성(愛河尖古城)으로 파악된다.

고구려는 이미 2세기 중반부터 후한(後漢, 25~220년), 조위(曹魏, 220~265년)와 공방·진퇴를 거듭하며 서안평을 차지하고자 하였다. 서안평이 위치한 압록강 하구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압록강 하구는 황해·발해 연안의 교통로상 요지였다. 그러므로 311년 서안평 확보는 고구려의 영역 확장에서 발판이 마련된 것과 같았다. 이제 압록강 중류를 중심으로 한 내륙간지대에서 발해·황해 연안의 주요 거점과 평야지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李丙燾, 1976).

4세기 전반 고구려의 대외활동은 서방과 남방을 중심으로 하였다. 서방으로 요동 지역을 두고 모용선비(慕容鮮卑) 세력과 경쟁하였고, 남방으로 낙랑(樂浪)·대방(帶方) 두 군현세력을 축출하였으며, 이후 대동강 유역을 두고 백제와 각축하였다. 하지만 경쟁과 각축의 과정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4세기 후반까지 고구려는 서방과 남방 중 어느 한쪽에서도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도리어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340년대 전반 모용선비 계통의 왕국이었던 전연(前燕, 337~370년)의 공격을 받아 도성 환도성(丸都城)이 함락되었고, 왕족과 귀족을 비롯한 5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371년 고국원왕(故國原王, 재위 331~371년)은 평양성에서 백제의 공격을 방어하다가 전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성장을 거듭하며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미 4세기 전반부터 북부여 지역까지 세력범위에 두었고, 4세기 후반

까지 요동의 천산산맥(千山山脈) 동부와 대동강 이북의 영역을 차지하였다(노태돈, 2014). 부여 계통은 물론이고 중원지역 북부·요동 방면의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낙랑·대방 지역의 주민을 포섭하였고, 전연·전진(前秦, 351~394년)과 활발히 교섭·교류하였다. 주변의 문물을 수용하였고,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李基東, 1996; 李成市, 1998).

372년(소수림왕 2년)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太學)을 설립하였으며, 373년(소수림왕 3년) 율령(律令)을 반포하였다. 특히 율령의 반포가 주목된다. 율령은 일원적 법체계를 의미하는데 중앙집권적 영역 국가체제의 완비를 함의하였기 때문이다(盧重國, 1979). 이러한 대내의 국가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고, 대외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광개토왕(廣開土王, 재위 391~412년) 때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다. 영역과 세력범위가 급속히 팽창하였다.

광개토왕대 고구려는 백제를 압박하면서 한강 하류까지 남하하였고, 이에 저항하였던 백제와 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낙동강 유역의 신라와 가야 일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모용선비 계통의 왕국이었던 북연(北燕, 407~436년)을 제압해 요동 지역을 온전히 차지하였고, 두만강 유역의 동부여를 복속시켰다. 요하 상류의 거란(契丹)와 연해주 일대의 숙신(肅愼, 읍루)의 일부 부락을 세력범위에 두었다(孔錫龜, 1998).

고구려의 영역과 세력범위는 장수왕(長壽王, 재위 413~491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427년(장수왕 15년)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 정책을 강화하였다. 475년 백제 한성(漢城)을 함락시켰으며, 소백산맥 북쪽의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장창은, 2014). 흥안령산맥(興安嶺

山脈) 동쪽의 지두우(地豆于)를 압박하였고, 그 일부를 세력범위에 두었다(노태돈, 1999).

이처럼 광개토왕과 장수왕 재위기 영역과 세력 범위의 확장을 통해 5세기 고구려는 동북아시아 일대 최대 영역의 최강국으로 부상하였다. 동북아시아 최강국의 지위는 6세기 중반까지 유지되었다. 150년이 넘도록 구가된 장기간의 전성(全盛)이었다. 고구려의 전성은 대내적인 국가체제 정비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4~6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였다. 국제정세 변화의 서막은 서진의 쇠퇴였다.

서진은 팔왕(八王)의 난(291~306년)으로 내분에 휩싸였는데, 영가(永嘉, 307~312)의 난으로 결국 남천(南遷)하였다. 이제 중원의 북부는 유라시아 초원지역에서 유목생활을 영위하였던 흉노(匈奴)·갈(羯)·선비(鮮卑)·저(氐)·강(羌)의 오호(五胡)가 차지했다. 그들은 연이어 여러 왕국을 수립하며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이른바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이었다. 한족(漢族)이 세운 중원 왕조의 중심지가 양자강(揚子江)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그 자리를 북방의 유목 종족이 차지하였다. 고구려가 서안평을 차지하고 영역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던 무렵이다.

4세기에 이어 5세기까지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변화의 연속이었다. 오호십육국시기는 439년 북위(北魏, 386~534년)가 중원 북부를 장악하며 종식되었는데, 북위 왕조는 탁발선비(拓跋鮮卑) 계통이었다. 북위는 유목 계통의 종족과 중원지역의 한족을 융합해 국가체제를 정비하며 번영하였는데, 동위(東魏, 534~550년), 북제(北齊, 550~577년)에서 서위(西魏, 535~556년), 북주(北周, 557~581년)에 이르기까지 중원 북부의 여러 왕조가 그로부터 비롯하였다. 이를 통틀어 북조(北朝)라고 한다.

같은 시기 중원 남부에서는 동진(東晉, 317~419년)에 이어 송(宋, 420~479년), 제(齊, 479~502년), 양(梁, 502~557년), 진(陳, 557~589년)이 양자강 하류의 건강(建康: 南京)을 중심으로 한족의 왕조를 유지하였다. 이 중에서 송부터 진까지를 남조(南朝)라고 한다.

북조와 남조는 국력면에서 ‘남약북강(南弱北強)’의 형세였다고 하지만(朴漢濟, 1982), 각각은 서로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추구하였고, 어느 한쪽이 동아시아 전역에 패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 무렵 동아시아에서는 중원지역의 남북조 이외에도 여러 강국이 병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방의 초원 일대에서는 4~6세기 전반까지 유연이 강성하였고, 서방의 티베트고원과 오아시스로 일대에서는 4~7세기 전반까지 모용선비 계통의 토욕혼(吐谷渾)이 왕성하였다. 그러므로 북조와 남조는 물론이고 유연과 토욕혼 또한 역학관계의 연동성에 의해 상호 간 세력균형을 유지하였다.

예컨대 북위 군대가 북진하여 유연을 공격하면 남조의 군대가 북진하였고, 북위 군대가 남진하여 남조를 공격하면 유연의 군대가 남진하였다. 북위 군대가 북방의 유연과 남방의 남조를 공략하지 못하고 번번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었다. 4~6세기 동아시아에서는 주요 강국이 병립하며 다원적인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다(노태돈, 1999).

이처럼 동아시아의 다원적인 국제질서 속에서 5~6세기 중반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으로 부상하였고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북조와 남조 그리고 유연과 두루 교섭하며 상호 간의 역학관계를 조율하고자 하였고, 그들이 동북아시아 일대의 국제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동아시아의 다원적인 국제질서 속에서 하나

의 축을 구성하였던 것이다(노태돈, 1999).

이와 같은 까닭에 북제의 위수(魏收)는 『위서』 동이전의 서문에서 고구려를 동번(東蕃)의 으뜸(冠)이라고 하였고, 남제는 고구려가 강성해서 자국의 칙서(勅書)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동아시아 주요 강국이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이성제, 2005).

동아시아의 다원적인 국제질서는 국제관계의 실상만이 아니라 이념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종래 중원지역의 한족 왕조에서 마련되었던 중화(中華)의식과 화이(華夷) 관념이 변모하였던 것이다. 중화는 ‘중원(中原)이라는 지역’을, 화하(華夏)란 ‘한족(漢族)과 그 문화’를 의미하는데, 중원지역을 장악한 왕조의 정통성을 함의하였다. 이러한 중화의식에 기초해서 주변 여러 나라를 이적(夷狄)으로 배척·천시한 화이 관념이 마련되었다(박한제, 2019).

일찍이 춘추시대 말기부터 전국시대를 지나며 화이 관념이 발생하였고, 화이를 포괄한 천하(天下)를 상정하였다. 나아가 진(秦)과 한(漢)에서 황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에 적용되었다(호리 도시카즈, 2021). 이와 같은 국제관계 인식과 정책은 한 왕조에서 유교정치사상의 왕도정치(王道政治) 이념에 입각해 당위성을 갖추었는데, 비록 명실상부하기는 어려웠지만, 조공·책봉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金翰奎, 1982; 渡邊信一郎, 2003; 홍승현, 2009; 미조구치 유조 외 지음, 2011). 중원의 한족 왕조였던 서진 역시 중화의식과 화이 관념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추구하였다.

그런데 서진이 남천하면서 중원지역을 장악한 중화는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 의식은 여전하였다. 비록 현실에서 중원지역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동진과 남조의 여러 왕조는 교주군현(僑州郡

縣)을 설치하며 관념적이거나 실지(失地)를 복구하며 중화의 정통을 자부하였다.

종래 이적으로 취급되었던 오호 제국과 북조의 여러 나라 역시 중화를 자처하였다. 예컨대 전진의 부견(符堅, 재위 357~385년)은 스스로 중국으로 규정하고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홍승현, 2009). 북위에서는 동진과 남조의 여러 나라를 지방정권으로 간주하였고, 그들처럼 교주군현을 두어 천하의 중심으로 자임하였다(최진열, 2018).

이를 위해 오호 제국과 북조의 여러 나라는 중화의식과 화이 관념을 분식하던 유교정치사상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자국의 군주 또한 덕을 갖추고 천명(天命)을 받아 중화의 제왕이 되었다고 하였고, 중원 왕조의 정통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중원 왕조의 배타적 중화 의식과 화이 관념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던 것이다(박한제, 2019).

비단 오호십육국과 북조의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그러하였다. 예컨대 478년 유연은 남조의 송에 외교문서를 보내 자신이 ‘중원 세력을 이기고 중화를 광복(光復)한다’고 하였다. 토욕혼의 모용복련주(慕容伏連籌, 재위 490~529년)는 북위와 교섭하면서 ‘북조에 준하는 관사를 두고 여러 나라에 칭제하였고 스스로 대국으로 과시하였다’고 한다. 중화와 같은 지위를 가졌다고 내세운 것이다. 동아시아의 다원적인 국제질서 속에서 북수의 ‘중화’가 출현하였던 셈이다(박한제, 2019).

북수의 ‘중화’는 동아시아 각지에서 자국을 중심으로 한 천하관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비단 고구려만 아니라 백제·신라·왜 역시 시간적인 선후를 달리하면서 중화 내지 그에 준하는 천하의 중심국으로 자신하였다(酒寄雅志, 2001; 川本芳昭, 2002). 그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고구려의 천하관이었다. 고구려의 천하관은 5세기 금석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 왕실의 천손의식과 태왕 중심의 천하관

〈집안고구려비〉, 〈광개토왕릉비〉(이하 〈능비〉), 〈모두루묘지〉, 〈충주고구려비〉 등 5세기를 전후한 고구려의 금석문을 보면 자국과 주변 국과의 국제관계 인식이 엇보이는데, 이는 현실에서 하나의 세계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세계 인식을 천하관이라고 부른다(노태돈, 1999; 2009).

천하의 중심은 고구려였고, 고구려의 중심은 국왕이었다. 4~5세기 금석문에서 국왕은 주로 태왕이라고 칭하였다. 고대 예맥(濊貊)과 한(韓) 계통의 여러 나라에서는 정치적 지배자를 가(加)·간(干)·한(旱) 등으로 불렀다.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에서 3세기 중반 고구려의 지배층 역시 대가(大加)와 소가(小加) 혹은 제가(諸加)라고 하였다. 다만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듯 제가의 상위에 국가의 최고 지배자로 왕(王)이 군림하였고, 이미 1세기를 전후한 국제관계에서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위략(魏略)』에 따르면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 고조선에서 왕을 칭하였다고 하는데, 고구려도 국초부터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노태돈, 1999; 2009).

태왕은 왕의 칭호를 격상시킨 것이다(坂元義種, 1978; 梁起錫, 1983). 〈능비〉의 호태왕(好太王)이나 〈집안고구려비〉의 호태성왕(好太聖王), 〈모두루묘지〉의 성왕(聖王)·성태왕(聖太王), 〈충주고구려비〉의 대왕

(大王) 등도 왕의 존칭이었다. 다만 태왕은 선대의 왕 또는 성왕과 구분되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새로이 제정된 왕의 칭호였다. 대체로 4세기 중반 고국원왕대를 전후해서 태왕의 칭호 즉 태왕호가 등장하였던 것이다(武田幸男, 1989;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4; 여호규, 2014).

태왕호의 등장은 3~4세기 왕권의 성장을 반영하였다. 이미 2세기 후반 고국천왕(故國川王, 재위 179~197년)대를 전후해서 부자상속의 왕위 계승이 정착되어 갔으며(李基白, 1996), 3세기 후반까지 5나부(那部) 연맹의 국가체제가 재편되고 있었다. 5나부의 제가는 왕도(王都)와 왕기(王畿)로 이주해 이를 중심으로 편성된 방위명(方位名)의 부(部)에 편제되었고, 국왕이 수여한 관등과 관직을 받았다. 국왕 아래의 중앙귀족으로 전환한 것이다.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후반까지 지속된 일련의 국가체제 정비였다(노태돈, 1999; 임기환, 2004; 김현숙, 2005; 여호규, 2014). 이러한 국가체제 정비의 결과 국왕 중심의 정치질서가 구축되었고, 국왕의 권위는 고양되었다.

국왕의 권위는 의례와 건국신화를 통해 부여되었다. 이 중에서 건국신화는 『구삼국사(舊三國史)』 동명왕본기(東明王本紀) 및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주요 내용은 이미 『위서(魏書)』 고구려전뿐만 아니라 5세기 고구려의 금석문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능비〉에서 역대의 국왕은 추모왕의 후손이었고, 추모왕은 천제(天帝)·황천(皇天)의 아들이자 하백(河伯)의 외손이었다고 하였다. 〈집안 고구려비〉에도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¹ 〈모두루묘지〉에서 역시 추모왕

1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개창하였다. [추모왕은] □□□아들이고, 하백의 자손으로, 신령이 도와 보호하고 음덕으로 보살피 나라를 열고 강토를 개척하였으니, 후손이 대를

이 하백의 손자이자 일월(日月)의 아들이었다고 하였다.² 왕실은 물론이고 여러 귀족 가문이 공유한 건국신화의 내용이었다(徐永大, 1995).

천제·황천은 하늘의 신이었다. 천상(天上)의 지고신(至高神)이었다. 일월은 천상의 별자리 중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믿었기에 하늘 신을 함의하였다. 하백은 고대 중국에서 황하(黃河)의 신으로, 후한~동진에서 천후(川后)라고도 하였다. 백(伯)이나 후(后)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천제에 버금가는 최고위 신이었다. 『구삼국사』 동명왕본기³를 보면 건국신화 속의 하백은 고구려와 부여 일대의 하천을 주관하였고, 하천 또는 물의 신(水神)으로 수중 세계를 다스린 것으로 묘사되었다.⁴

고구려의 건국신화는 <능비>를 비롯한 여러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하늘신의 아들이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추모왕(朱蒙)이 탄생하였다고 전한다. 고구려의 시조는 하늘신의 아들, 다시 말해 천자(天子)였고(노태돈, 1999; 2009), 하백 즉 수신(水神)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이다. <능비>에서 추모왕은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를 떠오르게 하였다. 부여군의 추격을 받아 위기상황에 놓이자 신에 호소해 얻은 도움이었다. 하늘신은 추모왕이 왕위를 기꺼이 여기지 않자 천상의 황룡(黃龍)을 보내주었다. 추모왕의 뜻을 헤아린 것이다. 신의 보호를 받았고, 천상과 소통하였던 셈이다. 신적 권능이었다.

이어 [왕위를] 계승하였다(始祖鄒牟王之創基也。□□□子，河伯之孫，神靈祐護蔽蔭，開國辟土，繼胤相承).

- 2 『위서』 고구려전에서는 추모왕의 이름이 주몽(朱蒙)으로 나오는데, 스스로 일자(日子)이자 하백의 외손이라고 하였다.
- 3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수록된 「동명왕편(東明王篇)」에서 인용하였다.
- 4 추모왕의 모친은 하백의 장녀인 유화(柳花)로 나오는데, 그는 청하(淸河)·웅심연(熊心淵)·우발수(優渤水)를 무대로 활동하였다. 대체로 압록강 유역이었다고 전한다. 또한 하백은 수중(水中)의 궁(宮)에 거처했다고 하였다.

이처럼 건국신화 속에서 추모왕은 천상과 천하를 매개하였고, 신적 권능을 갖고 있었다(노태돈, 1999; 2009). 비단 추모왕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왕위에 오른 역대 고구려의 국왕 역시 그러한 신적 권능을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다. 국왕의 신적 권능은 민의 삶과 무관치 않았다. <능비>에서 광개토왕의 치세에 나라와 민은 부강하였고, 오곡(五穀)은 풍성히 익었다고 하였다. 동명왕본기에서 유화는 추모왕이 부여를 떠날 때 오곡의 종자를 주었다고 하였고, 추모왕은 그를 신모(神母)라고 하였다. 유화가 가진 농업신의 성격을 말해준다(김철준, 1990). 광개토왕의 치세에 영위된 민생(民生)의 안녕은 그러한 왕실의 신성한 혈통과 권능을 통해 보장되었다고 믿었다. 왕권의 정당성이자 권위의 원천이었다.

천상에서 부여된 국왕의 권위는 천하에서 행사되었다. 천하의 범위는 고구려의 영역을 넘어섰다. <능비>에서 광개토왕의 무위(武威)가 사해(四海)에 떨쳤다고 하였다. <모두루묘지>에서는 “천하사방(天下四方)이 이 국군(國郡)을 가장 신성히 여긴다”고 하였다. 사해와 천하사방은 같은 뜻으로, 중심국의 주변을 의미하였다. 물론 중심은 고구려였다. <충주고구려비>에 보이는 ‘대왕국토(大王國土)’였다. 고구려의 영역이 천하의 중심이었다(노태돈, 1999). 고구려의 국왕은 천하 중심국의 지배자로서 주변지역에까지 권위를 발휘하였던 것이다.

국왕의 권력 역시 고구려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았다. <충주고구려비>에 보이듯 고구려의 국왕은 수천(守天)의 주체였다. 이때 수천의 천(天)은 천제·황천인 하늘신이었고, 보다 구체적으로 하늘신을 중심으로 한 우주의 도리 내지 질서를 의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집안고구려비>에서 천도(天道)를 받았다고 한 구절이 참고된다. 그리고 <능

비)에서 광개토왕의 “은택이 황천의 뜻에 흡족했다고 하였다(恩澤洽于皇天)”고 한 사실이 주목된다. 고구려의 국왕은 하늘신의 후손이었기에 그의 뜻을 계승하여 부합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수천의 주체인 고구려의 국왕은 우주질서의 수호자였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 국왕의 통치는 천상의 우주질서를 천하에 구현하는 것과 같았고, 천하의 여러 나라는 그 질서에 순응해야 하였다. <능비>에서 백제와 신라, 그리고 동부여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민(屬民) 내지 신민(臣民)이었고, 이 때문에 조공해 왔다고 하였다. 속민은 광개토왕대부터 조공했다고 하였다. 고구려의 주변국은 국왕의 신속(臣屬)으로 조공의 의무를 가졌다고 한 것이다(武田幸男, 1989; 노태돈, 1999).

<능비>에서 백제와 신라의 국왕은 고구려 국왕의 노객(奴客)을 자처하였다. <모두루묘지>에 보이듯 노객은 국왕의 신민(臣民)을 의미하였다. 고구려와 주변국의 주종관계는 국왕과 국왕의 군신관계를 통해 성립하였던 것이다(梁起錫, 1983; 武田幸男, 1989). <능비>에서 백제 국왕은 ‘궤왕(跪王)’하고 스스로 맹세했다고 하였다. <충주고구려비>에서 고구려 국왕은 ‘궤영(跪營)’에서 신라 측에 교서를 내렸다고 하였다. 궤왕과 궤영은 주종관계를 확인하는 의례 및 그 공간으로 파악된다(武田幸男, 1989; 임기환, 2020). 형식을 갖춘 의례와 맹세를 통해 고구려와 주변국의 주종관계를 재정립하였던 것이다.

고구려와 주변국의 주종관계는 우주질서와 같았으므로, 이탈과 교란의 행위는 엄중히 대응하여야 하였다. 토벌(討伐)이었다. <능비>를 보면 패려(穽麗)·백제·동부여가 토벌의 대상으로 나온다. 군신의 주종관계를 이탈하였거나 그와 같은 질서를 교란시켰기 때문이었다. 왜역시 토벌 대상이었다. 법도를 어기고 대방의 경계에 침입하자 광개토

왕이 몸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소탕했다고 하였다. 다만 토벌 대상 중에서 왜는 백제·동부여 등과 구분되었다.

〈능비〉에 따르면, 백제는 맹세를 위반하고 왜와 화통(和通)하였다. 백제와 왜의 화통은 맹세의 위반으로, 군신의 주종관계에서 이탈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고구려와 왜가 군신의 주종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왜의 경우 속민으로 표현하지도 않았고 조공의 의무를 가졌다고 하지도 않았다. 왜는 천하의 외부에 위치하였다고 상정한 것이다(노태돈, 1999; 이성시, 2001). 중심과 주변 그리고 그 외부로 구성된 천하의 모습이었다. 이 중에서 천하 외부세력의 침입은 우주질서를 교란하는 것과 같았다. 침입자가 부각될수록 질서를 회복한 광개토왕의 업적은 더욱 찬양받을 수 있었다. 이른바 신묘년(辛卯年) 기사를 비롯해 〈능비〉에서 왜와 관련한 광개토왕의 무력이 강조된 까닭이었다(노태돈, 1999; 이성시, 2001).

물론 고구려 국왕의 질서가 무력만으로 준수된 것은 아니었다. 〈능비〉에서 광개토왕은 군신의 의(義)에 복종하지 않고 저항한 백제의 군주를 은혜로이 용서하였고, 배반한 동부여에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동부여인은 광개토왕의 교화를 사모하여 귀순했다고 하였다. 광개토왕은 신라의 귀순을 수용하고 구원하였는데, 은혜롭고 자애롭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모두루묘지〉에서 모두루의 조상은 북부여에서 귀순하였는데, 공적을 세웠기에 대대로 은혜를 입어 관인(官人)이 되었다고 하였다. 고구려 국왕의 질서에 순응하면 무력으로 응징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며 포용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왕의 은혜와 교화는 유교정치사상의 왕도정치를 떠올리게 한다. 실제 〈능비〉를 보면 다수의 표현이 『오경(五經)』과 『맹자(孟子)』

를 비롯한 유교경전과 역사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인의(仁義)를 내세운 왕도정치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三岐晁, 1992; 李道學, 2006). 유교정치사상을 수용한 일면이었다. 유교정치사상은 372년 태학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보이는데, 유교의 각종 문물 역시 함께 수용되었을 것이다.

예컨대 조공이 주목된다. 조공은 중원 왕조에서 제도화한 국제관계의 한 형식으로 유교정치사상에 의해 수식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충주고구려비>에서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東夷)라고 한 사실이 주목된다. <능비>에서는 『삼국지』 동이전의 읍루를 숙신이라고 하였는데, 고대 중국에서 숙신의 조공은 제왕의 덕치(德治)를 상징하였으므로, 조위~서진에서는 읍루를 숙신이라고 하였고, 그의 조공을 중시하였다. <능비>에서 읍루를 숙신이라고 한 것은 조위와 서진에서 제기한 화이 관념과 공간 인식을 수용한 모습이었다(여호규, 2017). 중원 왕조에서 자국과 주변국을 화이로 구분하였듯 고구려도 주변국을 이적으로 간주하였고, 그와 조공·책봉의 국제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연호(年號)도 주목된다. <능비>에 보이듯 광개토왕은 영락(永樂)이란 연호를 사용하였고, 여타 명문자료를 통해 살필 수 있듯이 적어도 6세기 이후까지 연수(延壽)·연가(延嘉)·영강(永康)·건흥(建興)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연호는 한 왕조에서 제정한 기년법(紀年法)으로, 천자의 관상수시(觀象授時)를 함의하였다. 유교정치사상의 소산이었다(정운용, 1998).

이처럼 고구려는 화이 관념과 조공·책봉, 그리고 연호 등 유교정치사상에 입각해 수식된 국제관계의 이념과 형식을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고구려와 주변국의 국제관계에 적용된 각종 제도와 문물은 유교정

치사상과 더불어 수용되었을 것이다(梁起錫, 1983).

다만 고구려에서 한족이 수립한 중원 왕조의 유교정치사상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이진 않는다. 오호십육국 및 북조의 여러 나라와 교류하며 변용된 유교정치사상을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 측의 선택적 수용과 재변용이 상정되는 것이다(崔珍烈, 2012). 더욱이 고구려의 천하관은 단지 유교정치사상만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었다.

유교가 정치사상으로 기능한 것은 한 왕조에서부터였는데, 이때 천자의 권위는 천명을 통해 부여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상(商)에서 주(周)로 왕조가 교체되며 나타난 천(天) 관념의 변화가 고려된다. 상 왕조에서 지고신은 제(帝) 또는 상제(上帝)였는데, 그는 공간적인 하늘(自然天)과 구분되었다. 제·상제의 뜻은 불변의 숙명(宿命)이었고 주술을 통해서나 파악할 수 있었다(미조구치 유조 외, 2011; 조우연, 2019).

이와 비교해 주 왕조에서는 공간적인 하늘에 신격을 부여하였다(人格天). 주 왕조대의 천제는 상 왕조대의 제·상제가 가졌던 지고신의 성격을 계승했지만, 천하에 적극적으로 선의를 발현하는 인격신이었고, 인간세계와 상호 작용하였다. 덕이 있는 위정자에게 천명을 부여해 천하에 통치를 맡겼으며, 재이(災異)와 같은 건고(謹告)를 보내 덕치를 인도하였다고 믿었다. 상 왕조에서 제·상제와 천자는 혈연적인 관계였다면, 주대부터 천제와 천자의 혈연적인 관계는 상정되지 않았다. 천명은 덕을 갖춘 위정자에게 옮겨갈 수 있었다. 이른바 역성혁명(易姓革命)이었다. 한 왕조의 유교정치사상은 그와 같은 천명사상에 기초하였다(미조구치 유조 외, 2011).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국왕은 천제의 자손이었다. 상 왕조대와 같이

혈연적인 관계가 설정되었다. 유교정치사상의 천명사상과 차이가 있었다. 국왕의 덕은 권위를 수식하였지만 필요적인 조건은 아니었다. 천부적인 성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고구려의 천하관 속에서 왕권을 수식하였던 관념적 기초는 유교정치사상보다 신화적인 세계관에 입각해 있었다고 이해된다(노태돈, 1999; 2009).

고구려의 신화적인 세계관은 원시의 수렵·채집사회에서부터 전래 되어 온 샤머니즘에서 비롯하였다. 샤머니즘은 샤먼을 중심으로 한 종교 내지 사상을 말한다. 예컨대 수렵·채집생활이 오래도록 유지되었던 시베리아 여러 종족의 신화를 보면, 그 속의 세계는 천상의 신계(神界)와 천하의 인간계(人間界)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양자를 매개한 것이 샤먼이었다(서영대, 2003). 한국 고대 여러 나라의 국왕은 샤머니즘에 기초해 왕권을 수식하였다. 사제왕(司祭王)의 면모를 보였던 것이다. 옛 부여의 풍속(舊夫餘俗)에서 농경의 풍흥에 따라 국왕을 교체 또는 처형하기도 하였다는 전승이 이를 잘 보여준다(노태돈, 2009).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국왕이 천손으로 표현된 것도 사제왕의 면모를 보여준다. 『삼국지』 동이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3세기 중반 고구려의 동맹(東盟)에서는 천신(天神)제사와 수신(隧神)제사가 동반되었는데, 수신은 수신(水神)으로 지모신(地母神)이자 농업신의 성격을 지녔다(三品彰英, 1973; 徐永大, 2003). 그러므로 동맹은 건국신화를 재현한 것으로 이해되는데(徐永大, 2003), 동맹을 통해 보건대 건국신화의 원형은 전통적인 샤머니즘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된다(노태돈, 1999; 2003). 이에 천하관의 관념적 기초는 국초부터 형성되어 있었고, 일찍부터 주변국과의 국제관계에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윤상열, 2008).

다만 샤머니즘 세계관이 곧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천하관과 같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잘 알려진 것처럼 <능비>에 보이는 고구려의 건국신화는 부여의 동명신화(東明神話)를 차용한 것으로, 이는 4세기 전반 고구려가 북부여 지역을 통제한 이후에 성립하였다고 이해된다(노태돈, 1999). 건국신화 성립 전후의 차이가 고려된다. 부여의 동명신화를 차용함으로써 고구려 건국신화의 공간적 무대와 더불어 천하의 범위는 보다 확장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392년(고국양왕 9년)에 국사(國社)를 건립하고 종묘(宗廟)를 수리한 사실이 주목된다. 국사의 건립은 국왕 중심의 일원적인 사직제사체계를 의미하였고, 종묘의 수리는 왕실 계보의 정립을 의미하였다(趙仁成, 1991). 이 무렵 <능비>에 보이는 것처럼 추모왕(주몽)을 시조로 한 왕계(王系)가 정립되었던 것이다. 왕호(王號)도 함께 정리된 것으로 추정된다(임기환, 2002).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왕실의 정통성과 신성성은 한층 부각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건국신화의 시간적 범위 역시 확대되며 유구성이 강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4세기 후반까지 건국신화와 왕계는 꾸준히 정비되었고, 이에 따라 천하관의 시공간이 확장·확대되었다. 더욱이 5세기 고구려의 천하관이 샤머니즘 내지 신화적인 세계관 그대로는 아니었다. 유교정치사상을 수용해서 천하관을 수식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변용의 모습은 오호 제국의 시조 전승과 천왕(天王) 관념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오호 제국의 여러 나라 역시 샤머니즘 내지 신화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유교정치사상을 수용해서 국왕의 권위를 수식하였다(시노하라 히로타카, 2004).

이상과 같이 건국신화와 왕계의 정비 그리고 유교정치사상의 수용

을 참조해볼 때,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의 천하관은 비록 전통적인 샤머니즘 세계관에 기초하였다고 하지만, 4세기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그 모습을 갖추었다고 파악된다. 그러면 5세기 이후 고구려의 천하관은 현실의 국제정치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였을까. 언제까지 유지되었을까.

3. 천하관의 이상과 국제관계의 현실

고구려의 천하관 속에서 천하는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상(放射狀)의 공간으로 구획되었다(여호규, 2017). 크게 보면 천하의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천하의 내부는 다시 두 종류의 공간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천하의 중심 공간으로 고구려의 영역이 있었고, 둘째 천하의 외곽 공간으로 속민 즉 주변국의 영역이 있었다. 천하의 외부 공간은 속민이 아닌 주변국으로, 왜 등이 해당하였다. 고구려는 천하의 내부 공간에 국왕의 질서를 관철하고자 하였다(林起煥, 1996; 노태돈, 1999). 고구려의 천하관 속에서 추구된 국제관계의 이상이였다.

그런데 5~6세기 중반 고구려의 천하관이 단지 국제관계의 이상으로 현실과 전혀 무관하지만은 않았다. <능비>에서 신라와 속신은 나라의 일을 고구려에 논의하였다고 하였다. 신속국의 내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셈이다. <충주고구려비>에서 신라 국왕은 ‘매금(寐錦)’이라고 하였는데, 고구려와 신라 국왕은 형제 내지 상하의 수직적 관계였다. 또한 신라를 동이라고 하였고, 신라 국왕과 그 신료에게 의복과 물품을 하사하였다. 신라의 영역 내에 고구려의 관인과 군대를 파견하

였고 인력을 모집하였다. 중원 왕조의 화이 관념을 적용하여 신라를 낮추어 보았고, 수직적 국제관계를 관철하고자 하였으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여러 문헌사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라의 왕족을 인질로 삼기도 하였다. 대체로 4세기 후반~5세기 중반의 사정이었다.

고구려와 주변국의 수직적 관계는 우주의 질서와 같다고 하였다. 이에 토벌이란 전쟁의 명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구려의 군사적·정치적 우위가 유지되었던 5~6세기 중반까지 천하관의 이상은 일정한 구속력을 지닐 수 있었다. 주변국의 조공이 이를 보여준다. 예컨대 504년 북위에 사신으로 간 예실불(芮悉弗)의 발언을 보면(『위서』 권100 고려), 고구려는 일찍이 부여의 황금과 섭라의 가옥(珂玉)을 공물로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의 부여와 섭라의 공물은 정치적 복속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능비>의 표현대로 하자면 조공이었다.

주변국의 조공은 책봉이 수반되었다고 보인다. <충주고구려비>에 보이는 의복과 물품 사여의 의례가 그와 밀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임기환, 2020). 중원 왕조와 주변국의 조공·책봉 관계가 고구려와 주변국의 수직적 국제관계에 원용되어 실제로 행사되고 있었던 것이다. 5~6세기 중반 동아시아 주요 강국은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고구려와 주변국의 수직적 국제관계 역시 공인하였다.

예컨대 후연을 비롯하여 북조의 여러 왕조는 평주목(平州牧), 요동국왕(遼東國王), 대방국왕(帶方國王) 등의 책봉호를 수여하였는데, 이는 고구려의 현실적인 세력범위를 인정하였음을 말해준다(武田幸男, 1989). 북위의 세종(世宗, 宣武帝, 재위 499~515년)은 고구려가 대대로

상장(上將)의 지위를 갖고 해외(海外)를 전제(專制)한다고 하였다. 비록 북위 세종의 발언이 자국의 이해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하나, 고구려를 동북아시아 강국으로서 그 일대의 패권을 공인하고 있었음을 전제한 것이었다.

그런데 천하관을 통해 제시된 국제관계의 이상이 현실과 언제나 일치할 수만은 없었다. 이를 위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고구려와 중원 왕조가 관계이다. 고구려의 천하관 속에서 중원 및 북방 초원의 주요 강국은 천하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았다. 동아시아 주요 강국의 천하는 고구려의 천하와 구분되었다. 동아시아 내에 몇 개의 천하가 병립하였다고 본 셈이다. 다원적인 천하관이었다(노태돈, 1999).⁵ 그런데 현실의 국제관계에서 고구려와 여타의 천하는 서로 무관할 수 없었다.

고구려는 일찍이 한 왕조대부터 역대의 중원 왕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였다. 4세기 이후 5~6세기 중반에도 마찬가지였다. 전연·전진에 이어 후연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고, 413년 동진에 사신을 파견한 이후 남조 여러 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5세기 중반 북위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고구려와 오호 제국 및 남북조의 조공·책봉 관계는 상대 측에서 추구한 국제관계의 이상이 었다. 하지만 고구려의 입장에서 오호 제국, 남북조와의 조공·책봉 관계는 실리를 고려한 것으로 명목적인 성격이 강하였다(徐榮洙, 1981; 노태돈, 1999).

5 후대의 사례이지만, 이승휴(李承休, 1224~1300년)의 『제왕운기(帝王韻紀)』(1287년)와 권제(權趾, 1387~1445년)의 『동국세년가(東國世年歌)』(1436년)를 보면 고려와 조선이 중원 왕조와 구분되는 또 하나의 천하(乾坤)로 상정되었던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조공·책봉 관계를 통해 고구려는 자국의 세력범위를 보장받으려 하였다(여호규, 2005), 조공에 수반되었던 교역상의 이득을 얻으려 하였다(徐榮洙, 1981). 조공·책봉 관계의 형식에 철저히 구속받지도 않았다. 예컨대 5세기 후반 북위의 방량(房亮)은 고구려에 사신으로 갔는데, 의례상의 마찰을 빚었다고 전한다. 고구려가 북위 측에서 요구한 조공·책봉 관계의 형식을 거부한 사례의 하나였다. 그뿐만 아니라 고구려는 서로 적대적이었던 남조·북조와 각기 교섭하였고, 북위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유연과 교류하였다. 이른바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란 조공·책봉 관계의 정형에서 벗어난 국제관계였다(노태돈, 1999).

이와 같은 이유에서 고구려는 남북조의 이해관계와 다른 방향에서 대외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436년 북연(北燕)의 수도 화룡성(和龍城: 遼寧省 朝陽)에 군대를 보내 북위 군대와 대치하기도 하였고, 북위와 요서 지역을 두고 경쟁하기도 하였다. 비록 조공·책봉 관계의 형식을 준수하기도 하였지만 실리를 더욱 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노태돈, 1999).

고구려의 이러한 국제관계와 대외정책에 남북조는 물리적인 실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5~6세기 중반 고구려와 남북조의 조공·책봉 관계는 국제관계의 형식과 내용이 항상 일치하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노태돈, 1999). 고구려와 주변 여러 나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천하관에서 설정한 수직적 국제관계는 고구려의 이상이었고, 상대 측의 입장은 다를 수 있었다.

먼저 백제의 사례를 주목해 보자. <능비>에 보이듯 고구려는 백제를 속민으로 인식하고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다. 패전한 백제는 고구려에 복속을 맹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백제가 곧 고구려 중심

의 국제질서에 순응한 것은 아니었다. 백제는 남북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와 더불어 물길·신라 등과 교섭하며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까닭에 472년 백제의 개로왕은 북위에 보낸 표문에서 고구려를 북적(北敵)으로 표현하였고, ‘승냥이와 이리(豺狼), 추악한 무리(醜類), 어린아이(小豎)’ 등으로 낮추어 불렀다. 나아가 6세기 전반 무령왕(武寧王, 재위 501~523년)은 남조의 양(梁, 502~557년)에 사신을 보내 “자주 고구려를 격파하였다”고 전했다. 백제는 고구려 중심의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추구하였다.

예컨대 부여 구아리 출토 ‘대왕천(大王天)’ 명문이나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봉영기의 ‘대왕폐하(大王陛下)’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왕을 높여 대왕(大王)이라고 하였고, 황제와 같은 격으로 존칭하였다. 대왕 아래에 좌현왕(左賢王)·우현왕(右賢王)·소왕(小王) 등을 두기도 했다. 『양직공도(梁職貢圖)』에 보이듯 5세기 전반 양과 교섭하면서 주변국을 방소국(旁小國)이라고 하였다. 자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를 과시하였던 것이다. 5세기 후반 탐라국(耽羅國)을 속국으로 삼고, 그 국왕에게 좌평(佐平)의 관호를 사여하기도 하였다.

일찍이 369년 근초고왕(近肖古王, 재위 346~375년)은 영산강 유역의 침미다례(枕彌多禮)를 공격하며 그곳을 남만(南蠻)이라고 하였다. 가야 여러 나라에 부자 내지 형제 관계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주변국에 화이관념을 적용하였고,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적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백제의 국제관계 인식은 그 나름의 천하관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李鎔賢, 1999; 노중국, 2012; 양기석, 2013a). 고구려는 백제를 천하의 외곽에 위치한 주변국으로 자국의 속민이었다고 인식하였지

만, 백제는 그와 같은 고구려의 천하관에 포섭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과시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신라의 사례를 살펴보자. <능비>와 <충주고구려비>를 통해 보건대 4세기 후반~5세기 중반 신라는 고구려 중심의 국제질서에 포섭된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이미 5세기 중반부터 신라는 고구려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이탈하고자 하였다. 가령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450년 신라는 실직에서 사냥하던 고구려의 변장(邊將)을 살해하였다. 신라 눌지왕(訥祗王, 재위 417~458년)이 사과함으로써 사태는 수습되었다고 하지만, 이 사건은 신라가 고구려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탈피해 간 모습을 보여준다(장창은, 2014). 5세기 후반부터 신라는 백제와 연합해 고구려의 남진을 방어하였고, 6세기 이후 양·진(陳)·북제·수·당 등 중원의 여러 왕조와 교섭하였다. 동아시아의 다각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자국의 실리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특히 6세기 전반 국가체제 정비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였는데, 이에 따라 신라 국왕의 권위 역시 고양되었다. 법흥왕대(法興王代, 514~540년)에 수용된 불교가 그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 신라의 국왕을 전륜성왕(轉輪聖王)에 비견하였고, 왕실이 전생에 석가모니의 가문이었다고 하였다. 비단 불교만 아니라 종래의 신앙과 유교정치사상도 왕권의 수식에 활용하였다.

『삼국유사』에 보이는 천사옥대(天賜玉帶) 설화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늘신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와 같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선덕여왕(善德女王)을 성조황고(聖祖皇姑)라고 하였듯 신성시하였다. 이와 같은 왕권의 수식과 권위의 고양은 자국 중심의 국제관계 인식과 밀접하였다(노태돈, 2002).

지증왕(智證王, 재위 500~514년)은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며 ‘망라사방(網羅四方)’의 의미를 부여하였고, 진흥왕(眞興王, 재위 540~576년)은 561년 건립한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에서 ‘사방군주(四方軍主)’를 설정하였듯 자국 중심의 천하를 상정하였다(朱甫暉, 1998; 윤선대, 2021). 또한 진흥왕대에 건립한 여러 순수비(巡狩碑)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유교정치사상을 수용해 중화의식과 화이 관념을 나타냈다(盧鏞弼, 1996; 酒寄雅志, 2001).

536년(법흥왕 23년)부터 건원(建元)이란 연호를 시작으로 650년(진덕왕 4년)까지 개국(開國)·대창(大昌)·홍제(鴻濟)·건복(建福)·인평(仁平)·태화(太和)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643년(선덕여왕 12년) 황룡사(皇龍寺)에 구층목탑을 건립하고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조공해 오기를 기원하였다.⁶

이처럼 6세기 이후 백제와 신라 역시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한층 분명히 보였는데, 이는 양국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성장은 국제관계의 현실에서 더 이상 고구려의 정치적·군사적 우위가 유지되기 어려운 사정과 표리를 이루었다. 결국 6세기 중반 고구려는 대내적인 정치 갈등과 대외적인 위기 속에서 백제와 신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한강 유역을 상실하였다(노태돈, 1999).

이에 따라 천하관에서 추구한 고구려 국제관계의 이상은 한층 약화되고 현실적인 인식이 보다 강화된 양상을 보였다고 짐작된다. 특히 6세기 후반 이후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

6 황룡사구층목탑 설화는 고려시기의 윤색으로 보기도 한다(武田幸男, 1986; 신동하, 2001; 윤경진, 2014).

인다. 수(隋, 581~618년)가 중원지역을 통일하고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부상하며 종래의 다원적 국제질서가 해체되었다. 수에 이어 당(唐, 618~907년) 역시 7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최강국으로 부상하며 일원적 국제질서를 추구하였다.

수와 당은 고구려에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강요하였다. 변경지대에서 갈등이 확대되고 전쟁 발발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고구려는 수·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고구려의 천하관은 현실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천하관은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예컨대 546년(양원왕 2년) 혹은 604년(영양왕 15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포시 절골터 금동판 명문>을 보면, “바라건대 왕의 신령이 도솔(兜率)로 올라가셔서 미륵(彌勒)을 뵈고 천족(天族)을 함께 만나셔서 사생(四生)이 모두 경사스러움을 입으소서”라는 구절이 나온다(이승호, 2015). 불교의 미륵사상과 그의 세계관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천족이란 표현이 주목된다. 천족은 황족(皇族)이란 뜻으로 고구려의 국왕이 천손이었음을 함의하였다(노태돈, 2009; 이승호, 2015).

이와 관련하여 『주서』 고려전에 보이는 신묘(神廟)가 주목된다. 두 곳의 신묘에서는 각기 부여신(夫餘神)과 등고신(登高神)을 모셨다고 하였다. 『주서』 찬자는 이를 각각 하백의 딸(부여신)과 주몽(등고신)이었다고 풀이하였는데, 시조의 사당으로 본 것이다. 신묘에는 관원을 파견해 수호한 것으로 보아 국가적인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당서』와 『신당서』를 보면 요동성(遼東城)에 주몽의 사당이 있었는데, 645년 당의 공격을 받아 함락될 위기에 처하였을 때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였다. 요동성은 지금의 요령성 요양(遼陽)에 소

재하였던 지방의 주요 대성(大城) 중 하나였다. 왕실의 시조가 국가적으로 신앙되며 지방의 주요 거점과 민간으로 확대된 모습이었다. 중앙의 왕실과 지배층뿐만 아니라 지방의 민까지 두루 시조를 신앙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신앙 속에서 7세기까지 고구려의 국왕은 천손으로 그 권위를 상실하지 않았다. 6세기 중반 이후 귀족연립정권이 수립되면서 왕권이 동요하고, 심지어 642년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그 가문이 정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이 존속한 까닭이었다(노태돈, 1999).

이처럼 고구려에서는 후기까지 국왕을 천손으로 인식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고구려는 후기까지 자국을 천손이 다스리는 나라이자 천하의 중심국으로 자부하였다고 여겨진다. 천하관이 지속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다만 6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고구려의 정치적·사회적 변화 속에서 천하관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 가와카쓰 요시오 지음, 임대희 옮김, 2004, 『중국의 역사-위진남북조』, 혜안.
- 高句麗研究會, 1996,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학연문화사.
- 孔錫龜, 199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서경문화사.
- 宮崎市定 著, 任仲赫·朴善姬 譯, 1996, 『中國中世史』, 신서원.
- 金哲垞, 1975,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 , 1990,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金翰奎, 1982, 『古代中國의 世界秩序研究』, 一潮閣.
- , 2005, 『天下國家-전통 시대 동아시아 세계 질서』, 소나무.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 盧鏞弼, 1996, 『新羅眞興王巡狩碑研究』, 一潮閣.
- 노중국, 2012,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 2009,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 , 2014, 『한국고대사』, 경세원.
- 동북아역사재단, 2007,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2020, 『고구려 중기의 정치와 사회』(고구려 통사 3), 동북아역사재단.
-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지음, 조정우 옮김, 2016, 『하버드 중국사 남북조 분열기의 중국』, 너머박스.
- 미조구치 유조 외 지음, 김석근·김용천·박규태 옮김, 2011, 『중국사상문화사전』, 책과함께.
- 박성봉, 2015, 『고구려의 남진 발전과 사적 의의』, 경인문화사.

- 박한제, 2019, 『중국중세 호한체제의 정치적 전개』, 일조각.
- 양기석, 2013a, 『백제 정치사의 전개과정』, 서경문화사.
- _____, 2013b, 『백제의 국제관계』, 서경문화사.
-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 李基白, 1996,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 _____, 2011, 『한국사학사론』, 일조각.
- 李基白·李基東, 1982, 『韓國史 講座-古代篇』, 一潮閣.
- 이도학, 2006,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서경문화사.
-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이성지 지음, 박경희 옮김, 2001, 『만들어진 고대-근대국민 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삼인.
- 이성제,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北朝와의 對立과 共存의 關係를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 全海宗, 1979, 『韓國과 中國』, 知識産業社.
- 全海宗 外, 1988, 『中國의 天下思想』, 民音社.
- 조우연, 2019, 『天帝之子-고구려의 왕권전승과 국가제사』, 민속원.
- 朱甫暎, 1998,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 韓國史研究會 편, 1987,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三知院.
- _____, 2008,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상, 지식산업사.
- 한국의교사편찬위원회, 2019,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고대편』, 동북아역사재단.
- 호리 도시카즈 지음, 정병준 외 옮김, 2012,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동국대학교출판부.
- 홍승현, 2009, 『중국과 주변-중국의 확대와 고대 중국인의 세계 인식』, 해안.
- 金昌鎬, 1987, 「中原高句麗碑의 재검토」, 『韓國學報』 47, 一志社.
- 김수태, 2014,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新羅史學報』 32.

- 金哲俊, 1971, 「東明王篇에 보이는 神母의 性格에 대하여」, 『惠庵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 惠庵柳洪烈博士華甲紀念事業委員會.
- 盧明鎬, 1999, 「高麗時代의 多元의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 盧重國, 1979, 「高句麗律令에 관한 一試論」, 『東方學志』 21.
- 盧泰敦, 1976, 「高句麗의 漢水流域 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13.
- , 1984, 「5, 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 , 1988,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의 天下觀」, 『韓國史論』 19.
- , 2002, 「삼국시대인의 천하관」, 『講座 韓國古代史』 8,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박인호, 2015, 「이승휴의 천하관과 영역인식」, 『朝鮮史研究』 24.
- 邊太燮, 1979, 「中原高句麗碑의 內容과 年代에 대한 檢討」, 『史學志』 1.
- 徐永大, 1995, 「高句麗 貴族家門의 族祖傳承」, 『韓國古代史研究』 8.
- , 2003, 「高句麗의 國家祭禮 - 東盟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20.
- 徐榮洙, 1981, 「三國과 南北朝交涉의 性格」, 『東洋學』 11.
- , 2006, 「광개토태왕비의 재조명」, 『史學志』 38.
- 篠原啓方, 2000, 「「中原高句麗碑」의 釋讀과 內容의 意義」, 『史叢』 51.
-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4a, 「高句麗의 天의 構造」, 『韓國學報』 117.
- , 2004b, 「高句麗의 太王號와 太王家認識의 確立」, 『韓國史研究』 125.
- , 2009, 「북연을 둘러싼 고구려의 정책과 국제질서인식-대북 위, 대소관계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36.
- , 2011, 「고구려의 天 그리고 천하관」, 『내일을 여는 역사』 44.
- 신동하, 2001, 「신라 佛國土思想과 皇龍寺」, 『新羅文化祭學術會議論文集』 22.
- 안정준, 2019,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遼東'과 고구려의 國際秩序 인식-「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국제질서 인식의 역사적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95.
- 양기석, 1983, 「4~5C 高句麗 王者의 天下觀에 대하여」, 『湖西史學』 11.
- , 2011, 「百濟 武寧王代의 自尊의 天下觀」, 『중원문화연구』 16·17.
- 여호규, 2005, 「「광개토태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對中認識과 대외정책」, 『역사

- 와 현실』 55,
- , 2009, 「〈廣開土王陵碑〉에 나타난 高句麗 天下의 공간범위와 주변 族屬에 대한 인식」, 『역사문화연구』 32.
- , 2017, 「고구려와 중국왕조의 만주지역에 대한 공간인식」, 『韓國古代史研究』 88.
- 연민수, 2012, 「廣開土王碑에 나타난 高句麗의 南方 世界觀」, 『한일관계사연구』 43.
- 윤경진, 2014, 「신라 통일기 금석문에 나타난 天下觀과 歷史意識-三韓一統意識의 성립 시기 고찰」, 『史林』 49.
- 윤상열, 2008a, 「고구려 前期 天下觀의 형성과 전개」, 『白山學報』 81.
- , 2008b, 「고구려 中期 天下觀의推移」, 『高句麗渤海研究』 30.
- , 2010, 「高句麗 天下觀의 형성배경 연구-지배구조와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2015, 「고구려 後期 天下觀念의 변화상과 그 의미」, 『白山學報』 101.
- 윤선태, 2013, 「백제목간의 연구현황과 전망」, 『백제문화』 49.
- , 2021, 「『昌寧拓境碑』의 '四方軍主'와 新羅의 天下觀」, 『韓國古代史研究』 102.
- 李基東, 1996, 「高句麗史 발전의 劃期로서의 4世紀-慕容 '燕'과의 항쟁을 통해 서」, 『東國史學』 30.
- 이도학, 2003, 「韓國史에서의 天下觀과 皇帝體制」, 『전통문화논총』 1.
- 李丙燾, 1979, 「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 『史學志』 13, 檀國史學會.
- 이승호, 2015, 「新浦市 절골터 金銅板 銘文 검토」, 『木簡과 文字』 14.
- , 2020, 「고구려의 稱元法과 年號 운용」, 『사학연구』 138.
- 李熙眞, 2014, 「고구려의 천하관과 중국관계에 대한 재해석-北魏와 고구려 관계의 핵심기사를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30.
- 임기환, 1996,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民'의 성격」, 『高句麗研究』 2.
- , 2002, 「고구려 王號의 변천과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28.
- , 2014,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時制 서술법과 歷史觀」, 『嶺南學』 26.
- , 2020, 「충주고구려비의 高麗 大王과 東夷 寐錦」, 『韓國古代史研究』 98.
- 全德在, 2004, 「新羅의 對外認識과 天下觀」, 『歷史文化研究』 20.

- 정운용, 1998,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의 年號」, 『韓國史學報』 5.
- 정효운, 2012, 「羅·唐연합군' 용어와 고구려의 천하관」, 『한일관계사연구』 43.
- 조영광, 2015,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대외 관계와 고구려 천하관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東北亞歷史論叢』 49.
- 趙仁成, 1991, 「4, 5세기 高句麗 王室의 世系認識 變化」, 『韓國古代史研究』 4.
- 조희승, 2015, 「광개토왕릉비연구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1)-고구려사람들의 천하관과 《왜》관계기사, 수묘인연호문제를 중심으로」, 『역사과학』 2015-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_____, 2016a, 「광개토왕릉비연구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2)-고구려사람들의 천하관과 《왜》관계기사, 수묘인연호문제를 중심으로」, 『역사과학』 2016-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_____, 2016b, 「광개토왕릉비연구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3)-고구려사람들의 천하관과 《왜》관계기사, 수묘인연호문제를 중심으로」, 『역사과학』 2016-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_____, 2016c, 「광개토왕릉비연구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4)-고구려사람들의 천하관과 《왜》관계기사, 수묘인연호문제를 중심으로」, 『역사과학』 2016-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채웅석, 2012, 「『帝王韻紀』로 본 李承休의 국가의식과 유교관료정치론」, 『국학연구』 21.
- 崔珍烈, 1999, 「三國時代 天下觀念과 그 현실적 변용-遙領·虛封·'四方'將軍의 수용을 중심으로」, 『서울大 東洋史學科論集』 23.
- _____, 2012, 「高句麗 廣開土大王 전후 王號의 性格-五胡諸國·北魏의 諡號·廟號 및 遊牧國家의 可汗號와의 비교」, 『韓國古代史研究』 67.
- _____, 2018, 「5~6세기 2개의 遼東-北魏의 天下觀과 역사왜곡이 만들어낸 高句麗의 요동과 북위의 요동」, 『東北亞歷史論叢』 62.
- 하일식, 2000, 「당 중심의 세계질서와 신라인의 자기인식」, 『역사와 현실』 37.
- 渡邊信一郎, 2003, 『中國古代の王權と天下秩序-日中比較史の視點から』, 校倉書房.

-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廣開土王碑」研究序説』, 岩波書店.
- 三品彰英, 1973, 『古代祭政と穀靈信仰』, 平凡社.
- 酒奇雅志, 1983, 『古代東アジア諸國の國際意識-“中華思想”を中心として』, 歴史學研究 別冊特輯.
- ,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 阪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 近藤浩一, 2014, 「6世紀百濟の思想的基盤と天下觀の形成」, 『京都産業大學日本文化研究所紀要』19.
- 武田幸男, 1978, 「高句麗好太王碑文にみえる歸王について」,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上, 吉川弘文館.
- , 1986, 「倉寺緣起からみた新羅人の國際觀」, 『中村治兵衛古稀紀念 東洋史論叢』, 刀水書房.
- 浜田耕策, 1987, 「朝鮮古代の「太王」と「大王」」, 『咆沫集』5.
- 李成市, 1995, 「新羅僧慈藏の政治外交上の役割」, 『朝鮮文化研究』2, 東京大學文學部.
- , 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 李鎔賢, 1999, 「「梁職貢圖」百濟國使條の「旁小國」」, 『朝鮮史研究會論文集』37, 綠蔭書房.
- 川崎晃, 1992, 「高句麗好太王碑と中國古典」, 『古代國家の歴史と傳承』, 吉川弘文館.
- 川本芳昭, 2002, 「漢唐間における「新」中華意識の形成-古代日本・朝鮮と中國との關連をめぐって」, 『東洋史論集』20.

고구려와 주변국과의 문물교류

7장 중국 및 북방과의 문물교류

8장 백제·신라·가야 및 왜와의 문물교류

중국 및 북방과의 문물교류

박아림 |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고구려는 모용선비가 세운 삼연(三燕: 전연·후연·북연)을 포함한 오호십육국, 탁발선비가 세운 북위, 서진에서 동진, 송·제·양·진으로 이어지는 남조의 정치·외교적 교섭과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중기에 해당하는 4~6세기에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고구려사에서 중국 제국(諸國) 및 북방민족과의 문물교류는 중요한 주제이나 현존하는 사료의 부족으로 전체적인 양상을 살피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문헌사료에 나타난 전체적인 대외관계를 기반으로 실제 발굴된 고고자료를 연동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시기별로 문물교류를 보여주는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성과를 요약하고 주요 논쟁점을 서술하면서 최근까지 새로 나온 고고자료를 추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첫째, 중국 위진십육국 왕조와의 문물교류, 둘째, 중국 남북조와의 문물교류, 셋째, 북방유목민족 및 서역과의 문물교류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시기별·계통별 문물교류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진십육국시기의 문물교류에서는 삼연과의 인적 교류, 중국계 이주민의 양상,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문물교류 관계 유물, 선비계 마구와 중장기병술 유입에 있어서 전연과 후조의 역할, 안악3호분 등 고구려 초기 벽화고분과 위진십육국시기 고분미술과의 관계 등을 살펴본다.

중국 남북조와의 문물교류는 불교문화와 고분미술 두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불교문화 분야는 불교 승려를 포함한 인적 교류와 불교 조각과 건축 등 방면에서의 교류상을 알아본다. 고분미술 분야에서는 북위 수도 평성(平城)이었던 산서성 대동에서 발굴된 벽화고분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최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고구려와 북위와의 문물교류상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북방유목민족 및 서역과의 문물교류에서는 먼저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서역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서역적 요소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북방유목민족과의 관계는 최근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돌궐과 소그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 위진십육국 왕조와의 문물교류

고구려와 중국 위진십육국시기 여러 왕조와의 문물교류는 먼저 북방민족인 모용선비가 3세기 초부터 5세기 전반까지 200여 년 동안 중

국 동북지역과 중원지역에 세운 전연·후연·서연·남연·북연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서진 말기에 일어난 영가(307~312년)의 난 이후 한족들이 유망하게 되고, 여러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민정책을 폈다. 당시 고구려에는 산둥, 하북 일대에서 온 유이민과 망명객이 늘고, 약탈 또는 전쟁으로 인한 포로가 유입되는 등 빈번한 인적 이동과 교류가 일어났다(이기동, 1998; 전호태, 1993; 2000).

오호의 화북지방 대이동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99년 하남성 정주 부근에 245년 관구검이 강제로 끌고 온 고구려인 포로의 후예가 수 천 명이나 되고 고국천왕 19년(197년) 많은 한인이 피난하여 들어왔다는 기록 등으로 보면, 2~3세기부터 이미 양 방향으로 일어난 인적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연시기 고구려와 중국 간 인구 이동의 사례로는 4세기 후반 후연(384~409년)이 건국 후 곧바로 고구려에 내투한 유주·기주 유민을 적극 초무한 일이나, 전연의 봉유가 345년 모용황에게 낸 헌책에서 10만 호의 고구려, 백제, 우문부, 단부의 사민들이 귀국을 원하므로 국도에서 서경의 제성으로 옮겨 안무 감독할 것을 제안한 사실, 342년 모용황이 환도성을 함락할 당시에 5만 명의 고구려인을 포로로 끌고 간 사건,진의 마지막 동이교위직 최비(崔毖)가 한족 유민의 보호자를 자임하면서 모용외를 공격하려다가 미천왕 20년(319년) 고구려로 도망한 사건 등이 잘 알려져 있다(이기동, 1998). 이러한 다양한 인적 이동의 사례는 문물교류의 동반도 촉발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문물교류 면에서 위진십육국시기의 인적 이동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건은 340년대 전연(337~370년)의 환도성 공략과 그에 따른 고구려

인의 이주이다. 342년 전연 모용황의 침략에 따라 고구려의 왕모(王母)와 왕비 및 남녀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자, 343년에 왕제를 전연에 보내 많은 보물을 바치고 칭신 입조하여 미천왕의 시신을 돌려받았으며, 355년에는 볼모를 주고 조공을 하여 왕모를 돌려받았다.

이 시기에 전연으로 이동한 고구려 인질들의 활동상을 보면, 도성과 왕궁의 숙위를 담당하거나 전연의 관직을 얻거나 동상(東庠)과 같은 학교에서 수학하면서 전연의 호한 융합 문물을 경험하고 이후 전진-남연 또는 고구려에서 활동함으로써 국가체제 정비와 문물교류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이정빈, 2017).

고구려인이 중국 내지로 이동한 것과 반대로 전연의 내분기인 333~336년 및 전연과 후조(319~351년)가 각축전을 벌이던 338년경에 중국계 망명인이 대거 고구려로 내투했다. 이들 망명자 집단이 문물교류에서 한 역할도 주목된다. 330년대 후조와 전연, 선비 단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후조와 내응하였던 전연의 동이교위 봉추, 호군 송황, 거취령 유흥 등이 고구려로 망명하였다. 한인 관료 출신 송황은 모용황 휘하에서 동이호군을 지내다가 338년에 모용황에게 등을 돌리고 후조에 내응하였다가 패배하자 고구려로 도망하여 11년간 고구려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치적 망명생활을 하였다. 349년 고구려는 전연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그를 돌려보냈는데, 다시 전연으로 돌아간 송황은 모용황의 한화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한인 관료의 고구려 망명은 소수림왕 3년(373년)의 율령 반포에 영향을 미쳤다. 고구려는 처음에는 중국계 망명객들을 집안 우산하3319호묘의 피장사처럼 국내성 일대에 거주하게 하다가, 342년 이후 낙랑·대방 지역을 본격적으로 경영하면서 서북한 각지로 대거 이주시켰다(여호규, 2009;

공석구, 2000; 2004).

4세기에 고구려로 이주한 중국계 인물은 수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주민의 신분은 왕, 관리, 승려, 전쟁포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요서 지역에서 고급관리를 역임한 전연의 모용평, 진 동이교위 평주자사 최비, 전연의 동수, 곽충, 동이교위 봉추, 호군 송황이 있으며, 승려로는 전진의 순도, 아도, 담시 등이 있다. 전쟁포로로는 302년 낙랑군 남녀 2,000명, 315년 현도군, 385년 요동군, 현도군의 1만 명 등이 있다(공석구, 2016).

고구려로 이주해 온 중국계 인물들의 고분 형식은 수도 지역과 그의 지방 간에 차이가 있다. 국내성에 배치된 인물의 경우(우산하3319호묘), 외부는 고구려 전통 묘제인 적석총, 내부는 중국 전통 묘제인 전축분을 선택하여, 고구려 수도에 지어진 중국 망명객의 고분이라는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그림1, 그림 2). 지방인 낙랑·대방군 고지에서는 전축분을 계승하거나 전축분에 석재를 추가하기도 하고 석실봉토분을 새롭게 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중원 왕조(동진, 후조)의 연호를 채용하거나 관직을 사용하여 독자적 성격을 드러냈다(공석구, 2016). 낙랑·대방 지역의 전축분은 낙랑·대방군 멸망 이전부터 축조되기 시작하여 100여 년 정도 존속하였다. 전축분에 돌친장으로 축조된 서읍태수 장씨묘(342년)와 대방태수 장씨묘(348년), 석재를 일부 가미한 전축분인 동리묘(353년) 등은 중원 왕조의 혼란기에 이주해 온 집단이 낙랑·대방 지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석재와 혼합하여 축조한 전축분의 특징을 보인다(공석구, 2016; 2020).

정사년(丁巳年) 와당(그림3)의 출토로 357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우산하3319호묘의 피장자는 소수림왕, 고국원왕으로 보기도 하



그림1 | 우산하3319호묘 외관(김광섭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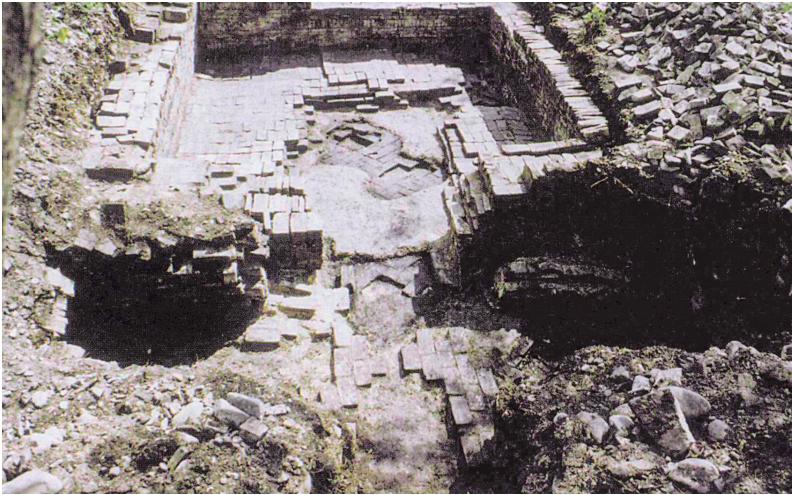


그림2 | 우산하3319호묘 내부 전경(孫仁杰 外, 2007)



그림3 | 우산하3319호묘 출토
정사년 와당
(孫仁杰 外,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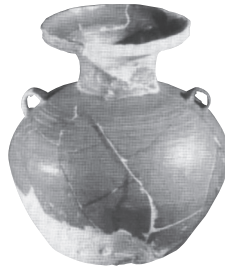


그림4 | 우산하3319호묘 출토
청자반구호(吉林省集
安市文物局, 2008)



그림5 | 절강성박물관 소장
청자계수호
(방병선, 2012)

나, 동진 출신으로 중량을 역임한 인물과 그의 부인의 합장묘로 여겨진다. 342년 고구려 정벌에 참전했던 전연의 왕우(王禹)나 한수(韓壽)의 묘, 동진에서 온 최비의 묘로 보기도 한다(정호섭, 2010). 이 무덤은 계단 전실 적석총인데 벽화 잔편이 발견되어 인물 및 생활풍속도가 그려졌을 것으로 본다(정호섭, 2010). 이 무덤에서 나온 중국 동진제 청자반구호(그림4)는 강소성 남교 온교묘, 인태산 왕홍 부부묘에서 출토된 청자와 형태상 유사하다(강현숙 외, 2020). 또 일부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계수호는 중국 절강성박물관 소장의 청자계수호(그림5, 351년)와 서안 동진 태화 3년묘 출토 청자점채계수호(368년) 등과 형태 및 제작 시기가 근접한 동진대 유물이다. 계수호는 서진시대 청자로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며, 부장품과 위세품으로 사용된 기형이다. 동진대 계수호의 계미는 호형(弧形) 손잡이로 바뀌었으며 상단은 반구에 접합되고 하단은 견부에 장식되었다(방병선, 2012).

우산하3319호묘 출토 청자반구호와 절강성박물관 소장 청자계수호와 같은 문물교류를 보여주는 다른 사례로는 집안 마선구2100호묘 출

토 철경이 있다. 철경은 고구려 고분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부장품이다. 이 철경은 휴흑칠(髹黑漆)이 되어있으며 천부조(淺浮彫)로 사엽문이 장식되었고 양각으로 ‘부(富)’자와 ‘자(子)’자가 남아 있어 길상문자로 보인다. 문양이나 양식이 감숙성 무위 뇌대묘에서 나온 도금은철경과 유사하다.

우산하3319호묘는 건축 면에서 공주 무령왕릉과 같은 전축분이다. 무령왕릉은 송산리6호분과 함께 웅진기 백제 왕실이 남조의 전실묘를 수입한 사례인데, 이때 조와공과 조묘공도 남조에서 백제로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주경미, 2020). 이로 미루어 우산하3319호묘 경우에도 고구려에 흔하지 않은 전축묘를 축조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조와공, 조묘공, 그리고 벽화제작공이 357년경 국내성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다.

고구려 고분 출토 중국계 유물에 대해서는 최근의 무령왕릉 출토 청자와 동경에 관한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무령왕릉 동경은 제작국과 유통 경로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백제 제작설과 중국 남조 제작설, 그리고 일본 제작설 등이 있다. 일본 학자들은 무령왕릉 출토 동경이 중국 한대의 동경을 모방해서 만든 ‘방제경’이며 제작지는 중국 남조로 추정하였으나, 중국 학계에서는 남조 유물로 잘 발견되지 않는 형식의 동경으로 남조에서 제작하였다고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동경 제작에 백제 공방과 장인이 관여한 것은 분명하므로 중국 한대 혹은 낙랑시대 이후 내려오는 오래된 전통을 계승하여 무령왕릉 연간에 백제에서 새로 제작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주경미, 2020). 우산하3319호묘 출토 유물에 대해 제작지와 유통 경로, 제작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관 자료를 찾아내어 연구하고 무령왕릉 동경과 같이 문양의

도본이나 화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와 삼연 간의 문물교류에 대해서는 선비계 마구와 중장기병술의 유입에서 전연설과 후조설이 대립되고 있다. 고구려 고분에서 보이는 마구의 부장과 보요 장식 장신구 및 모티브 등은 고구려가 4세기 중엽 전연에서 취사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본다. 고구려의 4, 5세기 부장품을 보면, 4세기 중엽 전연 전성기의 문물로서 인적·물적 교류 속에서 전연의 문물이 그대로 고구려에 유입되었으며, 특히 전연의 마구와 보요 장신구는 고구려에서 변용, 발전 과정을 거쳐 도입, 발전되었다고 본다(강현숙, 2006). 4세기 중엽 판비와 환판비라는 새로운 형식의 재갈이 등장하는데, 이는 4세기 중반 무렵부터 이루어진 고구려와 전연과의 갈등 및 우호관계를 배경으로 전연의 영향을 받아 고구려가 독자적 제작방법으로 재지화된 사례이다(정동민, 2011).

한편, 선비계 마구와 중장기병술의 유입에서 후조의 역할을 주목하기도 한다. 고구려는 4세기 초반에 친연관계였던 후조로부터 중장기병을 처음 도입하였고, 이후 4세기 중반 전연계 인물들의 대거 망명, 혹은 342년 고구려와 전연의 전쟁을 계기로 전연의 유형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중장기병의 출현을 의미하는 전마구는 마구이면서 무기의 성격도 동시에 있어 다른 마구와 별개로 하나의 무기로 고구려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정동민, 2007; 2017). 338년경 축조되었다고 보는 우산하992호묘의 마주(馬冑)도 전연을 견제하기 위하여 후조에서 중장기병을 도입한 사례로 본다. 반면, 고구려와 전연의 중장기병 유물이 세부기법 등에서 처음부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모용선비 전연이 오호십육국시기의 혼란을 맞아 큰 시차 없이 독자적으로 중장기병술을 도입, 발전시켰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전호태, 2017).

보요가 달린 금제나 금동제 장신구도 4세기 삼연과의 외교관계에서 고구려의 취사선택으로 변용, 발전되어 도입된 문물이다(강현숙, 2006). 위진남북조시대 보요관의 유행은 모용선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보요관은 모용선비 묘장에서 3세기대부터 4세기 전반의 것까지 집중적으로 나오며, 주로 전연·후연·북연의 수도였던 요령성 조양에서 출토된다. 태왕릉과 우산하992호묘의 보요 장식은 요령성 북표 서관영자1호묘(풍소불묘) 출토 보요관 장식과 유사하다. 모용선비 장인의 보요 기법이 고구려로 전수되는 과정은 중앙아시아에서 내몽고 지역 선비 금공 장인을 거쳐 요서 모용선비의 금공 장인, 그리고 고구려로의 전파경로가 제시되었다(이송란, 2011; 2015).

전연은 370년 전진(351~394년)에 의해 멸망하는데, 전진은 모용선비에 대한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전진은 376년에 전량을 멸망시키고 서역을 점령하여 서북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전연의 인구를 관중으로 사민시켜 동북지역과 서북지역 간의 교류를 조성하였다.

고구려는 372년 전진의 부견이 보낸 승려 순도와 아도 및 불상, 경문을 받아들이고 국내성에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지어 두 승려가 머물게 하였다. 순도와 아도를 위하여 건축한 초문사와 이불란사는 오호십육국시기의 불교 건축과 조각이 유입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380년대에는 전진의 수도로 고구려와 서역 등 많은 나라가 동시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러한 빈번한 사신 방문은 해당국 간의 교류를 촉진하였을 것이다.

불교 전래 이후 하서주랑 일대가 전진의 지배 아래 있던 376~386년 전진과 고구려 간의 문물교류는 하서 지역 벽화고분과 고구려 벽화고

분 간의 친연성에서 보인다. 감숙성 지역의 위진십육국시기 벽화고분은 종렬 배치 구조를 갖고 있으며, 현실세계와 천상세계로 벽화가 구성되었고, 화덕·영락·동복 등 일부 부장품에서 고구려 벽화고분과 특징을 공유한다. 하서 지역이 전진의 세력권에 들어가고 고구려와 전진이 국경을 맞대게 된 4세기 후반 하서 지역 벽화고분과 고구려 벽화고분 간에 문물교류가 이루어진 것이다(강현숙, 2005). 반면, 요서와 요동 지역 벽화고분은 고구려와 매장구조 및 묘실벽화에서 차이점이 많으며, 벽화도 적극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강현숙, 2000; 2002).

전진은 394년에 멸망하였는데, 전진이 해체된 후에 중원이 다시 내전에 휩싸이자 유주와 기주의 유민들이 다수 고구려로 유입하였으며, 하북·산둥·하남 지역의 문물도 고구려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전진의 멸망 이후 요장의 후진(384~417년), 모용수의 후연(384~409년), 여광의 후량(386~403년), 걸북국인의 서진(385~431년) 등이 건국되었다. 전진에 기반한 여광이 세운 후량이 구자국을 정복함으로써 구자의 음악과 악기가 중원에 전해졌는데, 고구려 삼실총에 보이는 서역계 악기의 출현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살펴볼 수 있다. 후진의 요흥은 고장(姑臧)에 근거를 둔 남량(397~414년)을 평정하고, 하서 인구 1만여 명을 장안에 이주시켰으며, 401년에는 키질 출신 명승 구라마습을 장안으로 데려와 불교를 발전시켰다.

고구려는 모용선비가 세운 삼연과 밀접한 정치·외교관계 및 문물교류를 맺으면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연을 견제하기 위하여 서북 지역의 전진·후조·토욕혼·유연과도 활발하게 접촉하였다. 특히 고구려는 전연을 견제하기 위하여 330~340년대에 후조와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었다. 330년(미천왕 31년) 후조에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을 도

모하였으며, 332년 고구려 사신이 우문부의 사신과 함께 후조를 방문하여 석록(石勒)의 환대를 받았다. 후조와 교류를 시작한 이래, 후조와 내용한 전연 한인 관료(송황)의 망명, 전연과의 협공을 도모한 군사 교류, 낙랑·대방 지역 전축분에서 발견되는 후조의 연호 기년과 같은 사례에서 후조와의 가까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강선, 2001; 여호규, 2000). 하남·하북·산동을 포함한 영토를 다스린 후조와의 대외교류는 330~340년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전연이 낙양을 포함한 하남 지역을 점령하는 350~370년대의 영토 확장 시기보다 앞선다.

낙랑·대방군 지역에서는 서진·동진·후조·전진·후연의 연호 기년이 발견되는데, 황해도 신천 출토 건무 9년(343년) 명전, 건무 16년(350년) 명전 등 340년대의 후조 연호가 많이 나온다. 후조와의 가까운 관계는 낙랑·대방군 지역에서 발견된 연호 기년 중에서 후조와 전진의 연호 기년이 신속하게 채용되었는데, 기년명 전축분을 조영한 인물들이 후조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공석구, 2003; 여호규, 2009).

후조의 석록은 호족(胡族) 출신 군벌로 주미에 대한 경배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석록이 경배한 주미를 든 묘주 초상이 요령성 요양 상왕 가촌묘, 조양 원대자묘, 안악3호분(그림6), 덕흥리벽화고분, 감숙성 주천 정가갑5호묘(그림7)에서 삼족 빙궤와 함께 발견되어 주미가 북방 지역에서 정치가의 위세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이송란, 2005). 석록은 서역 승려 불도징을 초청하였는데, 불도징은 제자들과 함께 893곳에 불교사원을 건립하였다. 후조의 열성적인 사원 건립은 이후 북연·전진·후진·북위 등 북방민족이 건립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사원이 건립된다(양은경, 2007). 338년 후조의 석호가



그림6 | 안악3호분 묘주도(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a)



그림7 | 정가갑5호묘 묘주도(徐光冀, 2011c)

불도징을 동반하여 요서를 공격할 때에 불도징이 교화했다는 용맥의 무리에 고구려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전연은 후조를 멸망시키고 수도를 업으로 이동하면서 후조의 발달된 불교와 불교문화 를 체험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년)에 전진의 부견으로부터 불교를 받아 들여 공인하였고, 불교를 전한 순도와 아도를 위하여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지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고구려의 불교 도입이 전진이 아닌 후조를 통하여 334~348년에 이루어졌다면 이제까지 알려진 공식 전래보다 20~30년 앞서게 된다. 375년으로 비정되는 안악3호분의 연화문은 불교 공인 이전에 불교문양이 전파되었을 사례로 언급되고 있으며, 장천1호묘 보살상과 삼실총 보살형 수문장상은 중앙아시아 불교식굴의 보살상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이러한 사례의 배경에 후조에서 활동한 구자국 출신 서역승 불도징의 포교를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후조는 적극적으로 불교사원을 건립하였는데 고구려 최초의 절인 초문사가 건립되는 것이 375년 불교 공인 직후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미 불교 건축과 미술이 유입되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상태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전진, 후조와의 교류는 벽화고분을 그다지 적극적으로 채용하지 않은 전연과 달리 고구려가 하북, 하남, 산둥 지역과 유사한 벽화 주제와 구성의 벽화고분을 적극적으로 축조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박아림, 2012).

고구려 고분벽화의 기원과 전개에 대해서는 중국의 동북지역 요령성 한~위진 벽화고분이 일찍부터 주목받아 고구려 벽화와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다. 중국 위진시기 고분벽화는 한대 고분벽화 및 화상석과

더불어 고구려 벽화의 대외문물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회화자료이다. 동북지역의 한~위진 고분벽화는 내몽고와 섬서 북부를 포함하는 북방지역의 동한 후기 고분벽화와 제재 및 표현에서 유사한 특징을 공유한다. 동한 후기에 와서 동북, 내몽고, 하서를 잇는 벽화문화권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북지역 벽화고분이 요양 한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비교적 동일한 고분구조 및 벽화체제를 보여주는 반면, 하서 지역의 동한 후기~서진의 벽화고분은 무위·주천·둔황 등에 분포되어 보다 다양한 발전양상을 보여준다.

지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가까운 요령 고분벽화는 고구려 벽화의 형성과 발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요령 벽화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요령에서 고구려로의 단선적 영향관계가 아닌 것으로 본다(강현숙, 2005; 전호태, 2007). 삼연의 중원으로의 영토 확장과 사민정책은 삼연 이전에 형성된 벽화고분의 전통을 중원에서 서북과 동북 지역으로 전파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는 4세기 초 낙랑·대방을 다스리고, 4세기 말 요동 전역을 영역 내에 두면서 정치 영역이 확대되고 문화적으로 성장하면서 4세기 중엽부터 고구려 고분벽화 제작이 본격화한다(전호태, 2005). 고구려의 대표적 초기 벽화고분인 안악3호분(357년)의 묘주로 추정되는 동수는 전연 출신으로 336년 고구려로 망명하였으며, 덕흥리벽화고분(408년)의 묘주 진은 전진 또는 후연 출신으로 대략 4세기 후반경에 고구려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342년 전연 모용황의 국내성 침입을 선비 문물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동수의 망명보다 6년이 늦다. 354년으로 비정하기도 하는 원대자묘와 칠성산96호묘의 부장양상이

유사하여 전연의 문물이 시차 없이 고구려에 전달된 것으로 여겨진다. 342년 전연 모용황이 국내성에 침입한 후 전연과 화친을 도모하면서 전쟁과 우호 관계 속에서 영락장식 장신구나 마구류 등 전연의 특징적 문물이 고구려로 유입되었다(강현숙, 2005). 그러나 모용황이 침입한 집안 지역의 4세기 후반 벽화고분(만보정1368호묘, 우산하3319호묘 등)과 삼연의 벽화고분은 구조나 벽화 내용에 차이가 있다.

삼연시기(3세기 말부터 437년까지 130년간) 벽화고분은 주로 요서 지역의 조양, 북표에 위치하며 고분 구조와 벽화 내용에서 한족과 모용선비의 문화가 혼합된 것으로 요동, 중원 지역과 다르다(강현숙, 1995; 2000). 요서 지역인 조양 일대의 묘실 벽화고분은 단칸 구조이다. 중원 지역의 동한시기 전축분의 종렬 배치 구조는 위진대에 동북과 서북 지역으로 전파된다. 요동 지역인 요동반도 남단의 여대 영성자묘와 길림성 집안 우산하3319호묘 등이 종렬 배치 전축분이다. 우산하3319호묘는 중국계 이주민의 고분으로 여겨지는데, 중원의 종렬 배치 전축분 형식에 고구려 고유의 적석층 외형을 가졌다.

벽화 내용 면에서는 우선 모용선비가 벽화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 지역처럼 많은 벽화고분이 남아있지 않아 비교가 쉽지 않다. 원대자묘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묘주 초상, 수렵, 사신, 역사 등 많은 주제가 고구려 고분벽화와 친연성이 보인다(그림8, 그림9). 묵서명을 통해 354년으로 비정되는 원대자묘 벽화는 요양 지역 벽화고분에서 보이지 않던 여러 가지 새로운 제재가 출현하는데, 1세기 앞선 요양 지역의 벽화고분과 다른 벽화 제재가 외부에서 유입되어 고분의 벽화 구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말해준다. 원대자묘와 같은 요서지역 4세기 석실 벽화고분과 북위 수도 평성(대동) 호벽 전실묘(弧壁 塼室墓)



그림8 | 원대자묘 묘주도
(徐光冀, 2011b)



그림9 | 원대자묘 수렵도(徐光冀, 2011b)

의 기원을 고구려 석실분과 낙랑 지역 전실묘에서 찾고, 고구려 주민, 요동과 낙랑의 군현계 주민이 이주한 결과로 보기도 한다(李梅田, 2012; 王連龍, 2018; 윤용구, 2021).

고구려 벽화문화의 연원에서 안악3호분의 동수와 같은 중국계 망명객들의 이동으로 어떠한 벽화고분 양식이 전파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인물의 이동과 벽화 양식의 전파가 반드시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쉽지 않다.

한편 전연의 모용선비가 벽화고분이라는 장의미술 형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전연이 수도를 중원으로 옮기고 낙양을 포함한 하남 지역을 점령하는 350~370년대의 영토 확장 시기는 고구려에서 안악3호분이 조성되고 전진이 고구려로 불교를 공식 전래하는 시기에 해당된다. 삼연의 영토는 요령성에 국한되지 않고 하북·산동·하남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지역의 확보는 해당 지역의 문화가 삼연문화에 취합되어 고구려로 전달되도록 도왔을 것이다. 이는 안악3호분에 보이는 하북·산동·하남 지역의 고분벽화와 화상석 문화의 혼재를 설명해준다.

357년에 제작되었다는 안악3호분의 고분 구조는 산동성 기남 동한 화상석고분, 요령성 요양 동한~위진 벽화고분, 벽화 주제는 하북성 안평 녹가장 동한 벽화고분, 요령성 요양 상왕가촌 벽화고분, 조양 원대자 벽화고분(전호태, 2007), 묘지 형식은 낙랑·대방군 고지의 고분과 하남·산동·절강 지역의 한대 고분(김근식, 2020)과 연관되어, 4세기 중반 고구려 고분미술에 담긴 다양한 문화교류의 모습이 확인된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형성에는 위진시기 하서 지역의 벽화고분도 중요시된다. 정가갑5호묘의 벽화 제재와 구성 배치는 천장 전체에 펼쳐

진 운기문의 배치라든가 운기문과 신수(神獸)의 조합, 묘실 안에 목조 가옥 구조를 재현한 점 등 신망~동한 전기 하남 지역에서 궁륭형 천장이 발달한 전축분의 특징과 유사하며, 고구려 벽화고분과도 친연성이 보인다. 고구려와 하서 지역 고분벽화와와의 친연성은 서한 이후 벽화문화의 전파 과정과 동한 후기부터 북방지역을 따라 형성된 벽화문화권의 교류가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연원에 대한 고찰은 3~4세기에 벽화고분이 조성된 동북과 하서 지역만이 아니라 그 이전인 한대부터 각 지역별로 발달한 고분벽화와 화상석의 특징, 그리고 상호 교류관계를 깊이 있게 고려하면서 폭넓은 시각으로 조망해야 한다.

고구려 초기 고분벽화와 위진십육국시기 고분벽화의 발달을 보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단순히 전파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적·시기적 편차를 가지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위진 벽화고분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고구려 벽화고분의 연원은 인접한 동북·하북·산동만이 아니라, 보다 시야를 넓혀 중원·관중·북방·하서가 중축과 횡축으로 연결된 교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중국 남북조와의 문물교류

고구려와 남북조 간의 문물교류는 위진시기부터 시작된 다양한 인적 이동과 공식적인 사절 왕래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북위와 90회 이상, 남조와 50회 이상의 사절단 왕래와 책봉 기록이 전

한다. 고구려인의 중국 이동에 대해서는 4세기 초 낙랑군 소멸 후 수·당과의 전쟁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한 동이계 주민, 낙랑·요동 등 군현 민과 부여·고구려에서 포로로 잡혀 강제 이주된 유민의 궤적을 보여주는 출토 자료가 최근에 새롭게 제시되었다. 요서·평성·관중에서 넓게 확인되는 동이계 주민은 원래 모용선비에 의하여 요서 대릉하 지역으로 교치(僑置) 혹은 강제 이주되었다. 이후 전연·후연·북연의 지배하에 있다가 북위에 의하여 후연이 멸망한 후인 398년, 뒤이은 432년 북연을 정복함에 따라 평성 일대로 대규모 사민이 이루어졌고 다시 북위의 낙양 천도에 따라 관중 지역까지 이동하게 된다. 낙랑 왕씨(王氏), 발해 고씨(高氏) 등 동일 가계의 묘지명이 평성과 낙양에서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요서의 대릉하 유역으로부터 평성을 거쳐 관중에 이르는 이주민의 이동 경로를 살펴볼 수 있다(윤용구, 2021).

남북조시기 북위는 고구려와의 문물교류에서 위진시기의 삼연과 전진, 후조와 유사한 외래문화의 통로 역할을 하였다. 북위의 북중국 정복활동은 다양한 문화를 융합시켰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화요소는 북위를 통해 고구려로 흘러들어갔다. 고구려 중기의 벽화고분은 중국 남북조의 벽화고분과 화상석곽, 북조의 불교석굴과 도상의 특징을 공유하거나 양식 발달을 같이하고 있어 문헌으로 찾아볼 수 없는 밀접한 문물교류를 증명한다.

1) 불교 분야

고구려 불교 분야에서 인적 교류는 중국에서 활동한 고구려 구법승과 공양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에서 활동한 고구려 구법승들에

대한 기록은 중국 고승전에 5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 특히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초에 많이 보인다. 고구려 구법승들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면서 동아시아 불교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 출신으로 중국에서 활동한 인물은 승량, 실법사, 인법사, 파야, 지덕, 지황, 정법사 등이 있다(정호섭, 2018).

고구려 요동성 출신인 승량은 5세기 후반에 중국에 가서 신삼론학을 연구하였다. 승량이 찾아가서 삼론을 학습한 지역은 하서주랑의 돈황 또는 대동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대동은 북위 수도 평성으로 운강석굴 건립에 참여했던 석공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동할 때, 승량이 이들의 무리에 섞여서 남조의 건강 지역으로 내려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승량이 거주한 서하사는 운강양식의 불상이 조성되어 ‘강남의 운강’으로 알려져 있었다.

실법사와 인법사는 진 멸망 전후 중국에서 활동하였는데, 실법사는 601년부터 3년간 대승경론을 강의하였고, 인법사는 개황 연간(581~600년)에 촉 지방으로 가서 삼론을 강의하였다. 실법사와 인법사는 동문 후배로 여겨지며, 승량과 함께 세 명의 삼론학 연구 승려로 강남에서 크게 활약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구려의 파야는 남조 진의 수도 금릉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596년 천태산으로 가서 천태교를 수행하였다. 지덕은 홍인의 뛰어난 제자이자 유명한 선승으로 인정받은 고구려 출신 승려이다. 지황은 577년 진에서 활동하며 설일체유부에 밝았던 고승으로 유명하였다. 중국 고승전에 남은 이들 고구려 승려들의 활동은 남북조와 수·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이들의 활동을 통해 고구려의 사상적 문물교류를 살펴볼 수 있다(김상철, 2007; 2008; 남무희, 2011; 2017; 정호섭, 2018). 또한 576년 북제에 갔던 고구려 승려

의연은 법상의 가르침을 받고 귀국하여 고구려의 불교 이론을 심화시켰다. 의연은 북제에서 여러 불교 전적을 가져왔으며, 북제 불상도 고구려에 전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최성은, 2020).

고구려인들이 중국 내지에 조성한 불교 사원과 석굴의 존재도 주목된다. 북위의 수도였던 하남성 낙양과 감숙, 섬서 지역 북부 등에 고구려인들이 거주하면서 불사활동을 한 석굴들이 남아 있는데 감숙, 섬서 등의 고구려 공양인들은 신분 계층이 높지 않은 이들인 반면, 낙양의 고구려인들은 최고 권력층으로 대조된다. 북위와 고구려의 결혼연맹 형태를 통해 북위에 들어온 선무제의 어머니 문소황후 고씨와 북해왕의 어머니 고태비는 풍태후 집정시기였던 5세기 후반대에 평성으로 이주하였고, 494년 효문제의 천도로 낙양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불사활동을 하였다. 반면 감숙, 섬서 북부지역에 거주하며 불사활동에 참여한 고구려인들은 전쟁 등을 통한 강제 이주, 또는 부락을 이끈 부족장과 부락민의 중국 투항 혹은 이주로 추정한다. 전연은 342년에 고구려, 346년에 부여를 공격하여 남녀 5만여 명을 전연으로 호송하였고, 전진은 전연 인구와 ‘잡이’ 10만 호를 장안을 중심으로 한 관중에 이주시켰는데, 이 가운데 부여인과 고구려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섬서 북쪽과 감숙 지역에는 고구려인들이 부락을 이루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고구려 복식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양은경, 2007).

현존하는 고구려 불상은 대부분 6세기대로 편년되며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재질은 금동상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며 중국의 북위 말~북제대 조각양식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양은경, 2008). 최근의 연구에서는 남조와 북조의 영향이

보다 상세하게 분석되고 있다. 장천1호묘 전실 북벽의 불상과 서울 덕섬 출토 금동불좌상은 선정인에 통견의 법의를 입고 사자가 대좌 좌우에 앉은 형식이다. 400년경 유사한 중국 불상으로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포그미술관 금동불좌상, 중국 병령사 11호, 12호 불삼존도의 불상(420~427년경)이 있다.

고구려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은 중국 남조 불상과 이에 영향을 받은 북위 불교 조각의 여러 요소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고구려 불상 특유의 양식이 나타난다. 새롭게 출토된 남북조시대 불상들과 비교하면 상호, 착의형식, 수인, 옷주름 표현 등 요소로 보아 불상의 조성 시기를 520년 이전으로는 올릴 수 없으므로 명문에 새겨진 연가 7년 기미는 539년으로 편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최성운, 2017).

평안남도 평원 원오리사지에서 발견된 312점의 불보살상은 중국 북위의 사원불사, 사연불도, 영녕사, 업남성 사원지에서 발굴된 소조상과 출토 상황과 내용, 출토지의 성격, 제작기법, 봉안장소 면에서 비교된다. 사연불도, 영녕사의 목탑지에서는 대·중·소·극소형의 소조상이 출토되었으며, 불상·보살상·제자상·역사상·비천상·공양자상·연화화생상·동물상·불감·연꽃장식·식물문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제작틀에서 찍어낸 것과 손빚기로 성형한 방식을 사용하였고 소성을 한 예와 자연건조 시킨 예가 있다. 마지막에는 채색을 더하였다. 고구려의 원오리사지 출토 토제여래입상(그림 10)은 성형 이후 소성을 거쳤으나 중국의 경우 사연불도의 몇몇 예를 제외한 나머지 소조상들은 자연건조를 했다는 점에서 제작기법에 차이가 관찰된다. 원오리사지 출토품이 중국에 비해 간단한 성형기법을 채택한 이유는 형상의 크기가 중국보다 작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원오리사지 출토 소조상은 크기



그림 10 원오리사지 출토 토제여래입상 (전호태 외, 2009)

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금당에 봉안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목탑 속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양은경, 2009).

평양 토성리에서 출토된 3점의 도제불상상범은 소조불상을 제작하기 위한 거푸집으로, 고구려 불교 초기 여래좌상의 도상과 양식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불상범 1점의 여래좌상 형식은 북위시대인 5세기부터 중국 섬서, 감숙 지역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북중국의 불상 양식이 고구려 불교 조각에 영향을 미친 이른 사례로 이해된다. 이는 중국 남북조 불교 조각에서 나타나는 도교적인 요소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데, 낙랑시기부터 평양 지역에 퍼져 있던 서왕모 신앙이 고구려 불교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평양 토성리 출토 도제불상범 2점의 상현좌 옷주름은 남조 불상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남제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찍이 5세기 무렵에 고구려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형태의 상현좌 옷주름은 남제 다음 왕조인 양대에 이르러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로 변화되었으나 고구려에서는 고식적 표현이 계속되었다. 토성리에서 출토된 두 종류의 불상범 양식은 고구려 초기 불교 조각의 형성에 북조와 남조의 불교 조각이 고르게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최성은, 2015).



그림11 |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전호태 외, 2009)

한편, 불교의 전파와 발달로 고구려에서는 4세기 말경 권운문와당을 대체하여 연화문와당이 사용되었다. 집안 산연화총, 산성하332호묘, 산성하983호묘, 환인 미창구1호묘 등 5세기 중엽 고분에 출현한 연화문장식은 불교 공인 이후 불교의 확산에 따른 결과이다(강현숙, 2013). 한편 고구려 귀면문와당은 입의 모양에 따라 역사다리꼴과 장방형 두 종류로 구분된다. 역사다리꼴 귀면문와당은 북위 수도였던 대동 명당유지 및 낙양 영녕사지 출토품과 유사한데, 시기를 6세기의 1/4분기로 비정한다(강현숙·양시은·최종택, 2020).

고구려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그림11)의 계보, 문양, 구성요소 등을 살펴보면 고구려에서 금동관을 착용한 목조보살상이 제작되



그림12 | 안악3호분의 묘주부인도(남북역사학자협의회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06)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남아 있는 고구려의 불상은 주로 금동을 사용하여 소조로 제작되었다. 북위의 수도였던 대동과 낙양의 주요 황실사찰에 봉안된 불교조각상의 재료로는 금, 금동, 옥, 금실, 색실과 진주 등이 확인된다. 북조와 달리 남조의 문헌기록에서는 나무를 재료로 한 불교조각상이 많이 확인된다. 북조보다 남조에서 목조 불교조각상이 많이 조성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청암리토성 금동관은 고구려와 남조 불교의 교류를 보여준다(양은경, 2011).

고구려의 향로는 불교를 매개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주로 고분벽화에 나타난다. 불교 공인 이전의 향로는 안악3호분 벽화(그림12), 불교 공인 이후의 향로는 쌍영총과 장천1호묘 벽화를 통해 알



그림13 | 장천1호묘의 보살과 비천(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b)

수 있다. 안악3호분 묘주부인도의 향로는 중국 남조 계통의 향로를 수용한 것이고, 쌍영총 공양행렬도의 향로는 동진의 청자등 또는 청자향로와 기형 면에서 유사하여 고구려의 향로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李溶振, 2010).

고구려의 건축에서 불탑은 8각 평면을 가진 것이 주목되는데, 이는 중국 서북부 지역의 북량 소탑에서 확인되는, 고대 중국의 천문학적 우주관이 투영된 8괘 사상과 습합된 열반경 등의 8천신(天神)사상과 미륵 신앙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강병희, 2010).

고구려 중기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에 대해서는 중국 북량, 북위시기의 불교석굴미술에서 주로 연원을 찾는다. 장천1호묘의 보살상(그

림13)은 병령사 169굴(420년) 북벽의 보살상으로 대표되는 북량의 양주양식과 연관되는데, 북위가 439년 감숙 지역을 점령하면서 감숙에서 평성으로 양주 인구가 이동하여 전파된 양식이다. 고구려 감신총의 신상형 인물에 보이는 불교적 도상의 특징은 돈황의 북량, 북위 석굴불상과 유사한데, 이는 감신총의 묘주가 하서 지역과 연관된 인물이거나 혹은 이 지역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였던 인물임을 추정하게 한다. 중국 오호십육국시기에 북방민족 국가들의 초기 불교문화가 고구려에 전파되면서, 감숙 지역의 불교문화가 중원을 거치지 않고 고구려로 전래되었다고 본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소재 가운데 감숙 지역 석굴벽화의 제재와 도상적 상관성을 보여주는 예로서는 불·보살상과 비천, 연화문, 연화화생문, 화염문, 공양인행렬도, 묘주초상 등이 있다(김진순, 2008).

삼실총의 역사상은 중앙아시아미술이 유입된 북위 운강석굴의 역사상과 평성시기 북위 고분벽화와 석곽벽화에서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환문총의 환문은 불상 두광의 생략적 표현, 또는 연화문의 간략화된 표현으로 본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전형적인 천장 구조 형식인 모줄임천장(말각조정)은 북위 운강석굴의 제9굴과 제10굴 천장에 비친 등과 함께 장식문양으로 출현한다(그림 14, 그림 15). 모줄임천장 형식은 서아시아에서 기원하여 지중해에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분포하는데, 의례적 건물에 많이 사용된다(김병모, 1987). 이미 357년에 말각조정을 사용한 안악3호분을 고려하면 고구려 벽화고분의 모줄임천장은 낙랑·대방군 지방에 존재하던 모줄임천장 건축법의 전통과 지식을 토대로 새로 북위와의 문물교류를 통해 실견하게 된 석조건물의 말각조정을 배워 고



그림 14 | 상영총의 모줄임천장(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b)



그림 15 | 윤강석굴 제10굴의 모줄임천장(필자 촬영, 2000)

구려 석실묘에 실현시킨 것으로 본다(김원룡, 1984). 아마도 산동, 하남 등의 한대 화상석과 벽화고분에서 사용되던 모줄임천장 형식이 위진십육국시기 고구려와 북위로 전파되었을 것이다.

운강석굴의 불감 지붕 위에 출현하는 삼각형 화염문도 고구려 각저총과 무용총, 쌍영총에 보이는 것으로, 북위보다 50년 이상 앞선 고구려 벽화의 화염문을 현존 유물로 판단하면 고구려가 오히려 중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위의 화염문이 대동과 고원에 한정되어 나타나므로 운강석굴을 지으면서 요동의 모용선비, 고구려인 등 중국 전역에서 36만 명을 대동으로 이동시킨 태무제의 사민정책으로 고구려의 화염문이 북위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이송란, 1998).

삼각형 화염문이 나타나는 운강석굴 제9굴과 제10굴은 5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굴로서 천인·역사·신수·산악(수미산) 등 다양한 도상과 문양이 고구려 고분벽화와 친연성을 보인다. 북위 고분미술의 도상과 문양이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불교미술, 장식문양과 융합되어 있다(주경미, 2020). 이는 고구려 중기 고분벽화의 문화적 다양성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성된 당시 북위의 국제적 미술문화를 살필 수 있어 중요하다.

2) 고분미술 분야

최근에 북위 수도 평성이 있었던 산서성 대동 지역에서 북위 벽화고분이 여러 기 발견되었다. 북위 벽화고분은 고구려 초기 벽화고분보다 조성이 늦어 고구려의 벽화가 북위의 벽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고구려 벽화고분과 동 시기 중국 위진남북조~수·당 벽화고분과의 비교는 1980년대 이후부터 고분 구조, 벽화 제재와 배치

등 여러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북위 벽화고분은 한·위 벽화 전통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포함한 동북지역과 하서 지역의 위진 문화요소를 흡수, 계승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낙양으로 천도하면서 남조의 묘장예술을 흡수하는 동시에 불교예술 형식을 융합하여 북위 특유의 다원적인 새로운 묘장장식예술을 만들었다고 본다.

고구려 중기 고분미술과의 문물교류를 보여주는 북위의 벽화고분은 수도였던 산서성 대동과 하남성 낙양에 주로 분포한다. 묘실, 목관, 석관, 석곽의 회화와 조각 등을 포함하여 북위의 벽화고분은 20기 이상이다. 대동 지역에는 탁발선비가 398년 평성으로 천도하고 494년 낙양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1세기 동안 주요 묘장이 조성되었다. 이전에는 북위 벽화고분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고구려 중기 벽화의 생활풍속도와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대동 지역에서 2005년 사령묘(435년), 2008년 동가만묘(양발호묘, 461년), 2009년 운파리로묘, 어동신구 문영북로묘, 2011년 장지랑묘(460년), 2014년 운파로 화우 석곽묘, 2015년 부교발전창 석곽묘(469년), 2017년 어동신구13호묘(가보묘, 477년), 2018년 사령건재시장 석곽묘, 2019년 운파리 화우 이기묘, 2019년 이전창37호묘, 2020년 평성구 칠리촌묘 등 새로운 벽화고분이 계속 발굴 소개되고 있다.

적석총과 석실봉토분이 중심인 고구려 벽화고분과 비교하면 대동 지역 북위 벽화고분은 대개 전실묘와 토동묘 두 종류이고 경사진 묘도를 갖고 있어 구조상 차이가 난다. 북위 고분의 회화 형식은 묘실벽화와 석장구(석곽, 석관, 석상) 및 목관의 채화 또는 조각, 병풍 등 부장기물의 채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구려는 묘실벽화가 주종이며 강서대

묘 등에서 칠관 잔편이 나왔으나 현재로서는 칠관화가 어느 정도 제작,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

평성시기 후반부로 가면 벽화가 석곽이나 석관, 칠관 등으로 옮겨 가면서 묘실 내 벽화가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북위가 천도한 낙양 지역에는 벽화고분이 적고 대개 520~530년대의 것이며 보존상태도 좋지 않다. 6세기 전반에 고구려가 여전히 활발하게 벽화고분을 지은 것과는 대조된다. 대신 낙양에서는 석관이 대표적인 장구로 사용되었다. 30여 건이 발견된 북위 화상석 장구 가운데 낙양 지역에서 약 18건이 발견되었고, 보존이 양호한 사례는 14건이다. 북위 석관의 화상자료는 청룡과 백호 등 사신 도상 외에 도교의 승선(昇仙) 도상과 유교의 효자 도상과 수목·산석·가옥 등 현실 제재를 추가하여 내용이 풍부해진다. 대동의 벽화고분에 묘주도·수렵도·행렬도가 주로 그려진 반면, 낙양의 석장구에는 사신과 승선, 산수 등이 선각화로 새겨졌다. 고구려 후기의 벽화 주제인 사신도·승선도·산수도는 낙양 지역 석장구의 선각화 주제와 연관되며, 사신과 산수의 양식적 발달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비록 벽화와 선각화라는 제작 매체와 기술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고구려와 북위가 화본 등을 통하여 장의미술의 주제와 양식을 교류 또는 공유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최근 활발하게 발굴되고 있는 대동 지역의 북위 고분은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문화적 포용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오호십육국시기에 북방민족이 세운 여러 나라의 정복활동과 사민정책으로 북중국 여러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와 혼합이 이루어졌는데, 북위시기에도 북위의 동북과 서북 지역 정복활동으로 수도 평성에 여러 지역의 문화가 복합적으로 흘러들어 한, 위진, 십육국시기의 고분미술과 불교미술이 하나

로 융합된다.

북위의 평성시대 전기(398~465년)에는 서진·한조·후조·전연·전진 간의 문화교류, 후연·후진·대하·북연·북량·유연·동진·유송 간의 문화왕래에 더하여, 북위의 정복전쟁으로 한족, 흉노족, 고차인, 모용선비족, 고구려인, 강족 등 대규모 사민 인구가 평성으로 이동하였다. 북위 수도 평성의 건설에 많은 고구려인이 참여한 사실은 『위서』 권2 태조기 천흥 원년 정월조에 기록되어 있다. 천흥 원년은 398년으로, 탁발부가 산동성 육주에서 평성으로 옮긴 인구 중에 ‘고려’, ‘잡이’ 등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용부와의 전쟁으로 인해 화룡성으로 옮겨진 고구려인이 다시 평성으로 이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에는 고구려의 묘장문화, 하북·산서의 서진 묘장문화, 위진시기 오환·흉노의 묘장문화, 한조·후조·대하 및 중원 지역 전연·후연의 묘장문화가 모두 한곳에 융합된다.

고구려 중기 고분벽화와 많은 친연성을 보이는 북위의 평성시기 묘실벽화, 석곽벽화, 목관채화는 묘주연회도, 수렵도, 행렬도, 부속건물도 등 일정한 주제가 유사한 구도와 배치로 반복된다. 북위의 고분벽화는 동북지역의 고구려 벽화를 포함하여 여러 지역에서 유입된 문화요소의 융합이 관찰된다. 북위 벽화의 묘주연락도, 거마출행도, 산림수렵도, 문리무사도는 삼연과 고구려 문화요소, 장원생활도는 하서와 동북 요소, 복희여와도와 청룡백호도는 하서 요소, 진묘무사와 진묘수는 중원 요소가 크다고 본다. 수면·역사·운기문과 사신 등 대표적 기금이 수 제재는 동북과 하서 지역에서 모두 발견된다.

북위 사령묘(435년)의 묘주도(그림 16)는 덕흥리벽화고분(408년)과 쌍영총 등 고구려 벽화고분의 묘주도 형식을 따르고 있다. 사령묘의 묘



그림 16 | 사령묘의 묘주부부도(徐光冀, 2011a)



그림 17 | 해흥석당의 묘주부부도(大同北朝藝術研究院 編, 2016)

주도는 산서성 대동의 동가만묘와 운파리로묘, 내몽고자치구 유수량촌묘, 서경박물관 소장 해흥석당(458년)(그림 17) 등으로 이어지는 북위 고분 묘주도의 전형이다. 동가만묘, 운파리로묘, 유수량촌묘의 묘주도는 모두 호인의 가무 기악과 함께 그려지는데, 이는 고구려의 무용총, 수산리벽화고분에 보이는 묘주와 가무 또는 곡예의 구성과 같다.

산서성 대동 지가보 석곽묘는 묘주 좌우에 연꽃을 든 시종들과 날개 옷을 입은 천인들이 등장하는데, 안악2호분의 비천 아래에 행렬하는 연꽃을 든 인물들과 구성이 유사하다. 고구려와 북위 벽화에 보이는 연꽃을 든 인물의 행렬 묘사는 불교석굴의 공양인상을 받아들여 고분미술에 표현한 결과이다.

북위의 묘실벽화는 석장구로 옮겨지면서 구성이 간결해진다. 해흥석당의 묘주부부도는 고구려의 쌍영총, 북위 동가만묘와 운파리로묘의 묘주상과 구도 및 형식에서 거의 같다. 서경박물관 소장의 석판에는 작은 나무들이 둘러싼 야외공간에서 묘주 부부가 손님 및 악사들과 함께 연회를 즐기고 있고, 다른 석판에는 가옥 안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인물들과 여러 대의 수레, 천막을 포함한 부속건물들, 생산활동 등이 담겨 있다. 묘주 부부의 크기가 다른 인물들과 비슷하게 묘사되고 가무, 연회 등 화면이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되어 장천1호묘의 전실 북벽에 그려진 야외연회도 구성과 흡사하다. 해흥석당과 서경박물관 석판의 화면 곳곳에 묘사된 키가 작고 둥근 잎이 달린 나무의 표현은 덕흥리벽화고분과 장천1호묘의 나무를 연상케 한다.

사령묘에는 덕흥리벽화고분과 같은 대규모 행렬도가 있어, 안악3호분에서 덕흥리벽화고분, 약수리벽화고분으로 이어지는 고구려의 행렬도 형식을 잇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가만묘와 운파리로묘는 행렬

도 대신 수렵도가 묘실 한쪽 벽면에 크게 묘사되었다(그림18). 운파리로묘의 수렵도는 중앙에 큰 나무가 화면을 반으로 나누고 있으며, 동가만묘 수렵도는 화면 중앙에 지그재그 방향으로 뺨은 산악을 배치하여 화면을 양분하고 산악 좌우로 기마반사자세를 포함하여 각 4명씩의 기마 또는 도보 수렵 인물들을 배치하고 다양한 동물들을 아외의 빈 공간에 채워 넣었다. 동가만묘의 수렵도를 가로지르는 산천(山川)의 표현은 덕흥리벽화고분의 천장 은하수에서 연원한 동북 요소로 본다. 산악의 형태나 산 위에 낮게 자란 나무의 형상, 그리고 수렵 인물들의 동세와 화면 구성 등이 덕흥리벽화고분, 약수리벽화분, 무용총(그림19), 장천1호묘와 유사하여 5세기경 동북아시아 지역 수렵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고구려와 북위의 공통적인 수렵도 형식은 내몽고 지역의 유수량촌묘에서도 출현한다. 하류가 화면 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고, 소·호랑이·멧돼지 등 다양한 동물들을 대각선 방향의 산악과 수렵 인물과 함께 운동감 있게 배치하여 북방민족 사이에 공유한 수렵도 특징이 잘 묘사되었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묘실 입구에 주로 그려지는 묘를 지키는 수문장상은 갑주무사형 수문장과 불교의 보살 또는 천왕형 수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북위의 수문장 역시 동 시기적 특징을 공유한다(박아림, 2021). 북위 벽화고분 진묘무사의 도상은 무사·시종형(사령묘)에서 보살·천왕형(산서성 회인묘, 문영로묘, 운파리로묘)으로 변천한다(그림20).

사령묘의 진묘무사상은 묘실 남벽에 넓은 소매에 적색포를 입고 칼과 방패를 든 한 쌍의 무사상과 용도 양 벽에 인면신수와 함께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든 한 쌍의 무사상이 출현한다. 용도 양 벽의 벽화는 진묘무사와 진묘수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고구려 무덤의 용도



그림18 | 운파리로묘의 수렵도(大同市考古研究所, 2011)



그림19 | 무용총의 수렵도(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b)



그림20 | 문영로묘의 수문장도
 (大同市考古研究所, 2011)



그림21 | 쌍영총의 수문장도
 (오른쪽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쌍영총 전실과 용도 견취도 일부, 왼쪽은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b)

에서도 각저총에는 개가, 환문총에는 커다란 진묘수가 그려져 있어 묘를 지키는 신수 도상이 고구려와 북위에 공통적으로 출현한다. 사령묘의 우락부락한 수문장은 쌍영총의 수문장(그림 21)과 같이 벽사로서의 상징성이 강조되어 있다.

북위 영빈대도16호묘(산서성 대동)의 진묘무사상은 손에 긴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연화좌 위에서 있어 전통적 진묘무사상에 불교적 요소가 추가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표현은 고구려 통구 사신총의 연꽃 위에서 있는 천왕형 수문장과 유사하다.

고구려 중기 고분벽화의 사신과 서수 도상을 북위 사례와 비교해 보면, 고구려의 사례가 북위보다 선행하여 출현한다. 양국 고분벽화에 그려진 천상세계 제재의 연원은 중국 섬서성 정변이나 감숙성 돈황 같은 북방지역의 위진시기 벽화고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위 사마금룡묘(산서성 대동) 석관상의 인수조(人首鳥)와 영빈대도90호묘의 관달개에 그려진 천하성운도 등은 덕흥리벽화고분의 전실 천장벽화에서 연원을 찾는다. 고구려 덕흥리벽화고분과 무용총 천장의 다양한 천상 제재 벽화는 4세기 동아시아 벽화고분의 천장벽화에서 보기 어렵다. 그 연원은 위진시기 감숙성 불야묘만묘와 정가갑5호묘, 동한대 섬서성 정변현 양교반진 거수호묘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은하수, 복희, 여와, 청룡, 백호, 견우와 직녀 등으로 구성된 거수호묘 천상도는 덕흥리벽화고분 천상도의 연원을 북방기류가 흐르는 섬북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박아립, 2019).

고구려와 북위의 서수 도상 출현을 비교해보자. 먼저 고구려의 경우 5세기 고분벽화 천장 평행고임 부분에 사신 도상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무용총은 사신의 방위 개념에 따라 동서에 청룡과 백호를 배치하



그림 22 | 무용총의 서수와 천인(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b)

고, 현무와 주작은 정식 출현 전이라서 남북에는 다른 도상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22). 장천1호묘도 동서쪽 평행고임에 청룡, 백호가 출현하나, 남북 방향에 현무가 출현하지 않았고 주작은 유사한 형태로 여러마리가 줄지어 그려진다. 삼실총도 사신이 서수의 일부로 인식되어 현무와 여타 서수들이 평행고임에 줄지어 출현한다. 5세기 후반의 쌍영총은 전실 동·서벽에 청룡, 백호가 크게 그려져 두 사신의 중요도가 인식되었으나 주작은 쌍으로 천장 평행고임에, 현무는 묘주부부도 측면에 쌍으로 그려져 사신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 한대부터 고분미술에 중심제재로 사용된 사신 도상이 아마도 문물교류 과정에서 모본이 고구려에 전해지면서 도상의 조합방법

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공간 배치 면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허술하게 배치되었거나, 사상이나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북위의 5세기 벽화에서는 사신의 개념이나 도상이 고구려 5세기 전반 벽화와 차이가 없어 유사한 형태의 서수 모본으로 사령묘와 운파리로묘의 벽면 상단에 모본의 틀을 간직한 채 방형 공간 안에 그려져 있다. 평성시기 고분의 서수 표현은 사령묘와 같이 벽면 상단 장방형 구획 안에 그려져 화본 형태를 그대로 본뜬 경우도 있는 반면, 해흥석당과 같이 문지기상과 서수상이 한 화면에 어지러이 혼합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화면의 무질서함은 석곽, 석당이라는 구조의 화면적 제약도 작용했겠지만, 모본 배치에서 특정한 규칙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화면 구성의 규율을 알지 못한 지역 화공(석공)의 조합방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무용총 8단 천장과 삼실총 3단 천장의 좁은 공간에 배치된 여러 종류의 서수나, 사령묘와 운파리로묘 벽면 상단에 일렬로 배치된 이러한 서수의 모본 원형은 하서 지역 감숙성 돈황 불야묘만 위진 채회전묘(그림 23)와 고대 지경과 위진 벽화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 한대에 중원지역에서 사용되던 서수 도상의 모본이 위진시기에 하서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북방기류 경로를 따라 고구려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박아림, 2019).

문물교류의 형태로 전달된 고분미술의 화본은 한번 전달된 이후에는 상당히 긴 생명력을 가지고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오회분 4호묘와 5호묘에 그려진 여러 신선들이나 해신·달신 체재(그림 24)는 유사한 사례가 동한대 화상석과 벽화에서 자주 관찰된다. 동한대에 만들어진 다양한 고분미술 모본이 위진남북조시대에 들어와 부활하여



그림23 | 불야묘만37호묘의 주작(戴春陽, 1998)

변용, 사용된다는 점은 고분미술 모본의 축적과 전래양상을 짐작하게 한다.

북위 채회관화 가운데 잘 알려진 영하회족자치구 고원묘에서 나온 칠관화(486년경)에는 한대 고분미술의 대표 제재인 동왕공과 서왕모가 관뿔개에 출현하고 있으며, 좌우 측판 상단에 효자고사도가 삼각형 화염문으로 구획된 공간에 그려져 있다(그림25). 오회분 4호묘와 5호묘에 한대 화상석에서 보이는 여러 신화 속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고구려와 북위 고분미술에 북고풍의 제재가 5~6세기에 다시 출현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5세기 고구려 벽화에 한대 고분미술의 제재나 표현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이 시기 대외 교류의 한계로 인하여 오래전에 전해진 모본을 사용하거나 기존의 전통 모본이 부활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고구려 벽화의



그림24 | 오회분4호묘의 해신과 달신(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b)



그림25 | 고원묘의 효자고사도(寧夏回族自治區固原博物館, 1999)

도상 형성을 관찰해 보면, 문물교류 과정에서 들어온 외래 화본이 오랜 기간을 거쳐 계승, 발전되는 특징이 보이므로 해당 화본을 포함한 문물의 전파 경로와 전파 시기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도상은 세대를 이어 전래되는 것이어서 시기에 따라 사라지기도 하지만 한 세대를 지나 다시 출현하기도 한다.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새롭게 등장하는 귀갑문, 연화문 등을 이용한 순수장식문양도 벽화는 대동 호동1호묘 출토 칠관화와 고원묘 출토 칠관화 및 낙양 출토 북위 석관의 선각화 등과 표현과 배치 방식이 유사하여 고구려와 북위 고분미술의 동 시기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중기에는 생활풍속도가 중심이었다가 후기에는 사신·신수·산수 도상이 중심이 된다(그림 26). 한편 평양 외곽의 강서 지역에서는 묘주도, 행렬도를 그리는 전통이 타 지역보다 늦게까지 잔존한다. 쌍영총, 대안리1호분 등 5세기 중엽과 후반의 벽화고분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안악3호분, 덕흥리벽화고분의 사례 후에도 고구려가 유입해오는 중원지역의 이주민을 계속 이 지역에 이주하여 살게 한 것이 배경이라고 생각된다(공석구, 2020).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사용된 도상이나 장식문양은 4세기까지 축적된 고분미술 전통을 기반으로 5세기에 이르러 고구려에 새롭게 유입된 불교미술과 중앙아시아미술이 혼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북위 수도 평성의 운강석굴 조성에 고구려인을 포함한 각국의 장인들이 함께 작업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불교미술과 고분미술의 모본을 공유하고 장인들이 서로 교류하는 경로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440~461년 북위와 고구려 간에는 사신 파견이 중지되었고, 460년



그림26 | 오회분4호묘의 사신과 장식문양(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b)

에 북위가 운강석굴을 개착하면서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고분미술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461년의 동가만묘에는 묘주도·수렵도·가무연희도로 구성된 생활풍속도가 그려진다. 그런데 469년의 부교발전창 석곽묘에서는 불교석굴 내부를 재현한 불·보살상과 공양인, 호법신으로 석곽 내부를 구성하여, 점차 묘실 벽면에 그려지던 생활풍속도 중심의 벽화가 석곽, 목관으로 옮겨 가 간략하게 그려지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양국 모두 생활풍속도를 그리는 계세사상보다 불교적·도교적 내세관을 포함한 새로운 사후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서 고구려에서는 후기에 사신도 벽화가 중심이 되고, 북위에서는 묘실벽화가



그림27 | 북위 석관의 사신과 장식문양(필자 촬영, 2010, 낙양 관림박물관)

사라지는 대신 석관에 사신도 중심의 석관 선각화가 새겨지는 것이다 (그림27). 고구려 후기와 북위 평성시기 후기부터 낙양시기까지 공통적으로 생활풍속도가 사라지는 것은 양국이 사후세계관과 그것이 반영된 고분미술에서 사상사적·미술사적 흐름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 고분미술에서 불교미술 도상이 장의미술로 편입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사례가 장천1호묘 전실 천장의 불·보살상 예불도(그림28)이다. 묘실 내에 불교 사원 또는 석굴의 미술을 재현한 것으로 동아시아



그림 28 | 장천1호묘의 불상예불도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b)

아 장의미술에서 드문 사례이다. 북위에서도 장의용 석곽의 벽화에 불교미술을 그대로 가져와 불교 석굴벽화의 구성을 재현한 사례가 2015년에 발견되어 주목된다. 부교발전창 석곽묘 내부에는 이불병좌상, 호인 승려와 선비 복장의 남녀 공양인, 2명의 수문장, 박산향로 등이 벽화로 그려졌다(그림 29). 섬서성 정변 팔대량1호묘도 소그드 공양인과 승려, 불탑, 수문장 등



그림 29 | 부교발전창 석곽묘의 이불병좌상
(大同市博物館 編, 2018)

불교적 색채가 짙은 고분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들 북위 고분벽화는 고구려와 북위에서 장의미술과 불교미술의 공존현상 및 내세관의 변천을 잘 보여준다.

고구려와 북위가 불교미술을 고분미술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불교 도상을 장의미술에 직접적으로 적용한 또 다른 사례로는 보살형 또는 천왕형 수문장상이 있다. 고구려 삼실총 제1실 입구에 그려진 보살형 수문장, 북위의 회인묘(산서성 삭주) 용도 동·서벽 수문장, 문영로묘(산서성 대동) 용도 동벽 수문장, 장지랑묘(산서성 대동) 석곽 앞벽 수문장 등이다. 고구려와 북위의 불교식 문지기상과 유사한 불교석굴의 보살상으로는 신강위구르자치구 키질 제171굴(417~435년) 보살상, 병령사 제169굴(서진, 420년) 6호감 좌측 미륵보살, 천제산 제4굴(북위) 중심주 서면 보살 등이 있다. 이들 이질적 수문장상들은 고구려와 북위의 고분미술을 담당화 화공이나 각공 집단이 여러 갈래의 문화 계통을 가진 다양한 외래계 미술문화를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박아림, 2019).

또한 고구려와 북위 고분벽화의 수문장, 우인, 괴수의 표현에서 옷 끝단이 좌우로 갈라진 천의를 입고 있음이 주목되는데, 고구려 덕흥리 벽화고분과 무용총의 천인, 병령사 제169굴 6호감 좌측 연꽃을 든 공양인, 맥적산 석굴 제115굴(502년) 우벽 인연(因緣) 고사의 괴수가 입고 있는 천의 등에서 유사한 표현을 볼 수 있다.

고구려와 북위 고분벽화의 수문장상이 한대의 전형적인 문지기상에서 불교미술의 신장형으로 바뀌는 급격한 양식적 변화는, 불교미술의 유입을 배경으로 불교 도상의 전파와 불교적 내세관의 유행을 잘 보여준다. 불교미술의 신장상이 고분미술의 문지기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고분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묘주를 묻는 장의미

술의 장소에서 신앙관이 표출되는 종교적 장소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종교미술은 장의미술 못지않게 일정한 교리나 경전에 따라 상징성을 가진 제재가 만들어진다. 외래미술인 불교미술의 도상과 제재의 전파에는 불교미술에서 휴대가 가능한 견화나 지화 형태의 화본이나 소형 불·보살상이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상징성의 변화에는 사상의 변화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겠지만, 고분을 축조하고 장식한 화공, 장인 집단의 정체성, 어쩌면 불교석굴에서 작업한 경험이 있었던 이들의 작업경험도 특정 장소에 특정 제재를 배치하는 데 일정한 작용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보살형 문지기, 천왕형 문지기가 많이 유입되어 들어온 이유는 돈황석굴에서 발견된 견화 사례와 같이 다수의 천왕, 보살 견화가 존재하므로 이들 견화, 지화가 작고 휴대가 간편하여 유입이 쉬웠을 것이다. 벽화는 현장에 가서 실견하지 않은 이상 접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모본으로 전달된 것은 견화나 지화였을 것이다(박아림, 2019).

한편, 고구려 후기 고분벽화에 사신도가 묘실벽화의 중심제재로 등장하게 된 데에는 고구려와 남조의 교섭을 배경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고구려는 송에 19회, 남제에 4회, 양에 11회, 진에 6회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양과는 백제의 사신 파견보다 2배 많은 기록이며, 특히 520년대부터 북위, 유연과의 복합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고구려는 적극적으로 양과 교섭하게 된다(백다해, 2020). 5세기 중엽인 463년 장수왕의 송 효무제 책봉문에서 송이 유연에 사신을 파견하려 할 때 중재하는 등 고구려는 유연, 북위, 남조의 송 등과 모두 활발한 외교관계를 맺었다.

따라서 고구려 후기 고분벽화는 주제 구성 면에서 중국 남조의 화상 전묘와 연계하여 발전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소성 남경 서선교



그림30 | 남조묘의 사신도(필자 촬영, 2018, 남경박물관)

묘, 단양 호교 오가촌묘 등 남조 화상전묘는 대개 단실 전축묘이며 묘 실이나 용도의 한 벽면을 청룡과 백호 또는 죽림칠현 도상을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다(그림30). 고구려와 남조 송·제·양·진과의 교섭은 고구려가 남조의 발달된 화상전묘의 청룡·백호·천인 도상을 도입하여 묘 실벽화에 표현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김진순, 2009; 박아림, 2022).

3. 북방유목민족 및 서역과의 문물교류

고구려 벽화고분과 서역미술과의 관계에 주목한 초기의 연구자는 독일 유학 후 안악3호분을 포함하여 북한의 고고학 유적 발굴을 주도



한 북한 학자 도유호이다. 그는 고구려의 고임식 천장을 ‘파르티아류 건축’ 특징의 하나로 보고, 고구려가 흉노나 돌궐과 접촉하여 장성지대에 흐르던 문화의 조류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기마수렵의 모티프 역시 시리아의 두라 에우로포스벽화를 사례로 들면서 파르티아와 연관된 것으로 보았다. 안악3호분 발굴 시에 현실 동벽 무용수의 눈동자가 노란 빛깔로 표시된 것을 목격하여 고구려 벽화에 서역인의 출현을 처음 제시하였다. 고구려가 서역과 초기에는 간접적으로, 후에는 직접적 교류를 하여 고구려 고분에 서역문화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도유호, 1959).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서역과의 문물교류상은 서역의 미술과 건축기법, 악기 전래, 복식 교류 등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정수일, 2005). 연구가 점차 심화되면서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는 서역계 인물과 문물,

장식요소를 구분하고, 그것이 관념인지 실제인지를 분별하는 작업과 전파 경로를 유추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강현숙, 2013; 전호태, 2012).

집안 지역 벽화고분의 경우, 요령 벽화고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평양·안악 지역의 한(漢)계 벽화고분과 다르며, 하북-산동-요령으로 이어지는 교류로가 아닌, 중국 서북지역이나 북방지역과의 폭넓은 교류를 상정하게 한다. 3~4세기 중국에서 벽화고분 축조가 쇠퇴하는 동안 고구려는 벽화 장식을 위한 새로운 예술적 자극을 중국 북방 지역과 하서 지역의 고분벽화와 불교석굴예술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박아림, 2015).

고구려와 시차 없이 문물을 교류하던 삼연의 수도가 있던 조양은 실크로드의 연장선 끝에 있는 중심교역지로서 소그드인의 집단거주지가 위치하였으며, 소그드가 왕래한 하서-포두-호화호특-대동-적봉-조양으로 이어지는 북중국루트에 위치하였다. 조양은 가장 동쪽에 있는 소그드 상인들의 취락지이며 사마르칸드로 가는 기점이었다. 조양에서는 7세기 중엽 전후의 전형적인 소그드 금은기가 출토되기도 하였다(권영필, 2007). 또한 조양은 전진의 수도 장안에서 고구려로 연결되는 불교문화의 전파경로나 북위 불교미술의 고구려로의 전파에서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하였다. 조양 북탑 출토 소조불상은 감숙성 병령사 석굴 제169굴의 서진대 불상, 막고굴 제268굴·272굴, 금탑사 동·서굴 불상 등 감숙 지역 오호십육국시대 불상과 유사한 점이 지적되었다. 오호십육국시대 감숙 지역 불상의 대의(大衣) 표현 수법은 신강위구르 자치구 쿠체, 호탄 등 서역 불상과 직접적 영향관계를 보인다(양은경, 2007).

고구려 고분벽화와 북위 고분미술과의 두드러진 연관성은 ‘북방기

류'라는 용어로 설명되는데,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관계를 한문화 중심이 아닌 북방문화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이다. 이러한 북방기류론은 북방민족 간에 문화적 연대가 형성되었으며 고구려의 조형이 북방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고구려 벽화의 일정한 문양과 특정한 양식적 표현이 서역미술, 특히 돈황벽화의 유사한 사례들의 선구가 되고 있어 이러한 고구려의 조형성이 북방의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흐르는 현상을 설명한다(권영필, 1996). 남북조시기에 오면 고구려가 북방기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동시에 고구려와 하서 지역과의 문화교류가 양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권영필, 1997). 이는 북방지역을 통한 고구려와 서역의 교류가 양방향으로 오랜 시기 동안 꾸준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 무용총 벽화와 관련하여 실크로드 동북루트가 만주를 통해 한국으로 연결된다고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 무용총에 보이는 고구려의 기마반사자세는 북방의 유목문화와 연관된 낙랑을 통해 전래된 것으로 추정하는 동시에 돈황 제249굴, 제285굴(6세기 중엽, 서위) 수렵도와 유사하여 고구려와 북중국 북방과 문화교류가 행해졌을 것으로도 본다(권영필, 2007). 고구려가 북위와의 접촉을 통해 가깝게는 북위 수도인 평성의 문화를, 멀게는 북위가 치중하던 하서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고구려는 두 지역을 발판으로 중앙아시아 문화를 간접적으로 흡수하였고, 북위가 439년 북량을 멸망시키고 돈황을 영토화한 후로는 더욱 직접적으로 중앙아시아 문화를 받아들이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권영필, 1997; 2007).

무용총을 포함하여 집안 지역 묘주도에 묘사된 의자는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불교사원에서 유래하여 북방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이방인들이 사용한 것이 전래되어 중국에 정착한 것으로 직접적인 중앙아시아



그림31 | 장천1호묘의 야외연회도(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b)

문화와의 교섭 증거로 제시되기도 하였다(이송란, 2005).

각저총과 무용총에는 심목고비(深目高鼻)의 서역계 씨름인이 등장하며, 장천1호분 앞방 북벽에는 여러 명의 서역계 인물들이 곡예사나 마부 등으로 등장한다(그림31).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서역계 인물들에 대해서는 후조로부터 온 갈호나 그 후예(전호태, 1993) 또는 소그드인으로 추정되어(이송란, 1998). 서역인의 직접적인 유입을 상정하게 한다(전호태, 1993; 이송란, 2005). 소그드인들은 일찍이 한대부터 중국에서 활동하였는데, 고구려의 경우 안악3호분 주실 가무기악도의 가무인(그림32)과 같이 고구려 연회에 소그드 예인들이 표현되어 고구려와 소그드 간의 교류를 짐작하게 한다(이송란, 2005).

한편, 이러한 서역계 인물의 표현에 대해서 중원 요소와 비중원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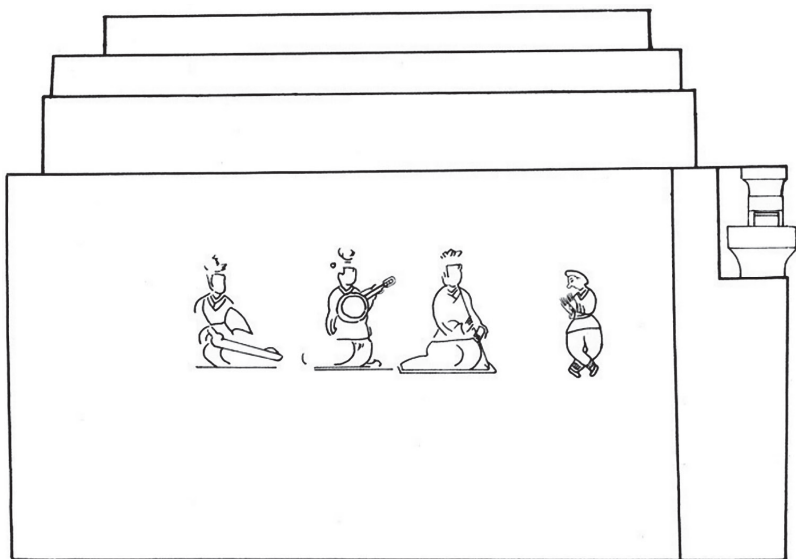


그림32 | 안악3호분의 가무기악도(모사선화, 전호태, 2012)

로 나누기도 한다. 중원 요소로는 수박희나 씨름, 평복의 수문장, 비중원 요소로는 기마자세의 하늘을 받드는 역사와 갑옷 차림의 수문장이 있다. 이들이 실제 서역인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서역인에 대한 이미지를 관념과 결부시켜 표현한 것인지, 혹은 도상화된 이미지를 그대로 모방하였는지는 좀더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장의예술의 하나로 중국에서 유입되었지만, 서역계 인물이 표현된 제재는 관념과 도상화된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고구려의 실제가 반영되었다. 서역계 인물로 표현된 비중원적 제재가 표현되기 시작하는 5세기 전·중엽에는 고구려에 서역계 주민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중국 북방왕조로부터의 불교 수용과 확산이 고구려화된 서역인과 서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강현숙, 2013).



그림33 | 안악3호분 부벽도에 그려진 유리옹기(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b)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다양한 문화요소를 보아, 고구려와 북위 사이의 상설사행로와 유연을 매개로 한 고구려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북방 교역로(적어도 430년대 말부터 이루어진 유연과의 교섭)를 통하여 새로운 벽화 요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된다(전호태, 2002). 같은 시기의 고분벽화 가운데 서역계 문화요소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장천1호묘 벽화는 실제 서역 출신일 가능성이 있는 백희기악도의 서역계 인물들과 간다라미술의 영향을 보여주는 불상예불도 등으로 북위를 통한 간접적 유입, 유연을 통한 직접 교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전호태, 2015). 479년 고구려가 유연과 대흥안령 동남부에 있는 지두우 분할 점령을

도모한 사건도 유연 지역을 통한 교류가 집안 지역 5세기 고분벽화에 중앙아시아 문화요소가 도입되는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림34 | 서관영자1호묘 출토 유리기
(필자 촬영, 2006, 요령성박물관)

안악3호분 부석도에 그려진 유리용기(그림33)와 유사한 유물이 나온 중국 고분으로는 1956년 발굴된 서관영자1호묘(415년)가 있다. 풍소불묘(馮素弗墓)라고도 불리는 이 묘에서 출토된 5점의 유리기(그림34)는 현대의 불투명한 유리와 달리 초록빛을 띠는 투명유리로 서방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북연 풍씨는 유연과 통혼하였고 유언이 당시 막북을 접거하여 서역 제국과 연관된 점을 고려하면 풍소불묘의 동로마 유리기는 유연을 통해 전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북위를 비롯한 북조의 상류층 분묘에서는 서방에서 제작되어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공예품이 종종 출토되는데, 특히 금이나 보석을 사용하여 만든 반지나 장신구류, 유리기 등이 많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서역 요소의 일부는 중원을 거치지 않고 유연과의 교류를 통하여 초원길로 고구려에 바로 전해져 수용되었을 수 있다. 고구려의 문물교류에서 초원길의 역할은 잘 알려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브궁전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35). 이 벽화에 그려진 조우관을 쓴 두 명의 사신에 대해서는 신라인으로 보는 견해(김원룡, 1976; 1984)와 고구려인으로 보는 견해(박진욱, 1988)가 있는데, 최근에는 고구려인으로 보는 설이 우세하다(우덕찬, 2004; 지배선, 2011; 이재성, 2013). 실제 고구려 사절이 소그드왕국의 땅 사마르칸트로 가기 위해 선택한 길은 돌궐제국의 영역을 지나는 초원길로 추정



그림35 | 아프리카시아브궁전벽화의 외국사절도(모사복원도 일부, 동북아역사넷 제공)

한다(전호태, 2012).

한편, 아프리카시아브궁전벽화와 돈황 불교석굴벽화 등 조우관을 쓴 인물이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고대 한국인을 그린 것이라기보다 당으로부터 모본이 전해져서 그려진 고대 한국인에 대한 하나의 전형적 도상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정호섭, 2013).

최근에는 당시 강국이 서돌궐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던 사실에 주목하여 아프리카시아브궁전벽화가 중국 당이 아닌 돌궐의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보기도 한다. <켈 테긴 비문>(그림36)에 보이듯이 6세기 이래 고구려와의 교류를 통해 돌궐인들이 고구려에 대해 가지게 된 이미지가 강성한 당의 사절과 함께 바르후만왕의 치세를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등장인물로 벽화에 묘사될 수 있었다(이성제, 2019).

고구려 고분벽화를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여러 나라의 범위를 넘어

서서 북방과 서역을 포괄한 유라시아문화 차원에서 조망하여 흉노, 스키타이, 그리스·로마, 쿠산, 에프탈, 사산조페르시아, 비잔틴 제국 등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다양한 문화요소를 구별하여 고구려 벽화의 원류를 살펴본 연구도 진행되었다(박아림, 2015). 고구려 벽화고분의 유라시아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북방초원의 유목세계에서 확인되는 고임식 천장가구, 기마반사자세, 팔메트 문양의 사례를 들어 알타이 지역에서 고구려로의 문물전파 가능성이 제시되었다(정석배, 2017).



그림36 | 킨 테긴 비(필자 촬영, 2019, 몽골 호쇼차이담박물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 중기의 북방민족과 중국 여러 나라들과의 문물교류는 위진십육국시기와 남북조시기에 걸쳐서 다양한 인적 이동과 교류, 사회문화적 교류, 불교 사상과 미술의 전파, 고분미술의 시기별 변천과 상호 영향, 고분미술과 불교미술의 융합 등 방면에서 상호 양방향적으로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졌다. 최근 대동 지역과 성락 지역에서 고고 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고구려와 북위 간의 직접적인 교류와 북위를 매개로 한 북방지역과 중앙아시아지역과의 교류가 더욱 상세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현숙, 2005, 『고구려와 비교해본 중국 한, 위·진의 벽화분』, 지식산업사.
- 강현숙·양시은·최종택,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 공석구, 1998, 『고구려 영역확장사 연구』, 서경문화사.
- 공주박물관 편, 2020,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국제학술대회 무령왕릉, 새로운 반 세기를 준비하며』.
- _____, 2021,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학술대회, 무령왕릉을 다시 보다』.
- 권영필, 1997, 『실크로드 미술』, 열화당.
- _____, 2007,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 권영필 외, 1996, 『고구려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 _____, 2007,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 권영필·김호동 편, 2007,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숲.
- 김두진, 2016, 『삼국시대 불교신앙사 연구』, 일조각.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06, 『(남북공동)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실태 조사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2020, 『고구려통사 3-고구려 중기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2018,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고대편)』, 동북아역사재단.
- 박아림, 2015, 『고구려 고분벽화 유라시아문화를 품다』, 학연문화사.
- _____, 2022, 『중국 한당 벽화』, 학연문화사.
-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연구』, 사계절.

- _____,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7, 『중국 화상석과 고분벽화 연구』, 솔.
- _____, 2016a, 『고구려 벽화고분』, 돌베개.
- _____, 2016b, 『고구려 생활문화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20, 『고구려 벽화고분의 과거와 현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전호태 외, 2009,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2』, 동북아역사재단.
- 정호섭, 2011,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a, 『조선유적유물도감 5』.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b, 『조선유적유물도감 6』.
- 지배선, 1998, 『중세 중국사 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 강병희, 2010, 「한국 고대 동아시아 사상의 교류: 고대 중국 건축의 8각 요소 검토-고구려 8각 불탑의 조망을 위하여」, 『韓國思想史學』 36.
- 강선, 2001, 「고구려와 전연의 관계에 대한 고찰」, 『고구려연구』 11.
- 강현숙, 1995, 「中國 古代墓制에 對하여」, 『한국고고학보』 32.
- _____, 2000, 「中國 東北地方 石室封土壁畫墳의 地域的 特徵에 對하여」, 『한국고고학보』 43.
- _____, 2013, 「高句麗 古墳 壁畫에 표현된 觀念과 實際-西域系 人物을 中心으로」, 『역사문화연구』 48.
- 孔錫龜, 2000, 「고구려의 남진과 벽화고분」, 『한국고대사연구』, 20.
- _____, 2003, 「4~5세기 고구려에 유입된 중국계 인물의 동향-문헌자료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32.
- _____, 2004, 「중국에 유입된 중국계 인물의 동향」, 『고구려연구』 18.
- _____, 2016, 「4세기 高句麗 땅에 살았던 중국계 移住民」, 『고구려발해연구』 56.
- _____, 2020, 「고구려의 낙랑군·대방군 지역 지배」, 『고구려통사 3-고구려 중기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 김성철, 2008, 「승랑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III」, 『한국불교학』 50.
- 김원룡, 1976,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宮殿壁畫 使節圖」, 『考古美術』 129·130.
- _____, 1984, 「고대한국과 西域」, 『美術資料』 34, 국립중앙박물관.

- 김진순, 2008,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와 그 연원」, 『美術史學研究』 258.
- , 2009, 「高句麗 後期 四神圖 고분벽화와 古代 韓·中 문화 교류」, 『선사와 고대』 30.
- 남무희, 2017, 「고구려 승량이 중국불교에 미친 영향」, 『한국불교사연구』 11.
- 도유호, 1959, 「고구려 석실봉토분의 유래와 서역문화의 영향」, 『문화유산』 4.
- 박아림, 2007, 「高句麗 集安地域 中期 壁畫古墳의 西域的 要素 研究-中國 北朝 古墳美術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50.
- , 2008, 「고구려 벽화의 북방문화적 요소」, 『東北亞歷史論叢』 22.
- , 2012, 「중국 위진 고분벽화의 연원 연구」, 『동양미술사학』 1.
- , 2014, 「고구려 고분벽화와 북방문화」, 『高句麗渤海研究』 50.
- , 2019, 「5세기 고구려와 북위의 고분미술의 畫稿의 전래와 적용」, 『高句麗 渤海研究』 64.
- , 2020, 「중국 섬북과 내몽고지역 동한시기 벽화묘 연구」, 『동양미술사학』 10.
- , 2021, 「북위 평성시기 고분미술의 변천과 융합」, 『中央아시아研究』 26-2.
- 박진욱, 1988, 「쏘련 사마르칸트 아흐라샤브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3, 사회과학출판사.
- 방병선, 2012, 「중국 남북조시대 자기 鷄首壺의 연원과 양식」, 『동양미술사학』 1.
- 백다해, 2020, 「6세기 전반 고구려와 양 교섭의 실상」, 『지역과 역사』 46.
- 서운경, 2010, 「북위 평성기 사령벽화고분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67.
- 양은경, 2007, 「고대 한국인의 중국 내 사원, 불상 조성과 중국 불교문화와의 관계-삼국~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강좌 미술사』 29.
- , 2007, 「遼寧省 朝陽 北塔 出土 塑造像 研究」, 『미술사학연구』 256.
- , 2008, 「대륙과 해양을 품은 고구려 불교조각」, 『선사와 고대』 28.
- , 2009, 「고구려 소조불상과 중국 소조불상의 관계」, 『동북아역사논총』 24.
- , 2011, 「高句麗 清巖里土城 부근 출토 金銅冠의 系譜와 主人公에 대한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34.
- 여호규, 2000,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36.

- _____, 2009, 「4세기 高句麗의 樂浪·帶方 경영과 中國系 亡命人の 정체성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181.
- 우덕찬, 2004, 「6~7세기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교섭에 관한 연구」, 『韓國中東學會論叢』 24-2.
- 윤용구, 2021, 「북위대 낙랑·고구려계 이주민 - 평성 출토 문자자료를 중심으로」, 『동서인문』 17.
- 이기동, 1998, 「고구려의 건국: 고구려사 발전의 획기로서의 4세기-모용 '연'과의 항쟁을 통해서」, 『강좌 미술사』, 한국미술사연구소.
- 이성제, 2019, 「650년대 전반기 투르크계 북방세력의 동향과 고구려-고구려 사절이 아프리카시암 궁정벽화에 그려진 배경에 대한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65.
- 이송란, 1998, 「高句麗 古墳壁畫의 天上表現에 나타난 火焰文의 意味와 展開」, 『미술사연구』 220.
- _____, 2005, 「고구려 집안지역 묘주도 의자의 계보와 전개」, 『선사와 고대』 23.
- _____, 2015, 「보요기법과 누금세공기법으로 본 신라 금공예의 수용 과정」, 『고문화』 86.
- 李溶振, 2010, 「三國時代 香爐 研究」, 『한국고대사탐구』 5.
- 이재성, 2013, 「아프라시암 宮殿址 壁畫의 “鳥羽冠使節”에 관한 고찰-高句麗에서 사마르칸드(康國)까지의 路線에 대하여」, 『중앙아시아연구』 18-2.
- 임기환, 1995, 「4세기의 고구려의 낙랑, 대방지역 경영」, 『역사학보』 147.
- 전호태, 1993, 「고구려 장천1호분벽화의 서역계 인물」, 『蔚山史學』 6.
- _____, 2005, 「5세기 평양권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문화의 정체성」, 『고구려발해연구』 18.
- _____, 2009, 「한당 고분벽화의 지역문화」, 『역사문화연구』 33.
- _____, 2012,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교류」, 『한국고대사연구』 68.
- _____, 2015, 「고구려 장천1호분 연구」, 『高句麗渤海研究』 52.
- 정동민, 2007, 「高句麗 重裝騎兵의 모습과 도입시점에 대한 小考」, 『전통문화연구』 6.
- 정석배, 2017, 「고구려 고분에 보이는 몇 가지 유라시아 문화 요소」, 『한국 문화 원

- 류와 일타이 신문화 벨트』2, 한국학중앙연구원.
- 정수일, 2005,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서역 교류상 시고」, 『고구려연구』 14.
- 정호섭, 2013, 「鳥羽冠을 쓴 人物圖의 類型과 性格-외국 자료에 나타난 古代 한 국인의 모습을 중심으로」, 『영남학』 24.
- _____, 2018, 「삼국유사의 고구려 불교사 서술과 그 한계」, 『史學研究』 130.
- 주경미, 2020, 「무령왕릉 출토 금속공예품의 현황과 특징」, 공주박물관 편, 『무령 왕릉 발굴50주년 국제학술대회 무령왕릉,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며』.
- 지배선, 2011, 「사마르칸트(康國)와 고구려 관계에 대하여-고구려 사신의 康國 방문 이유」, 『白山學報』 89.
- 최성운, 2015, 「平壤 土城里 출토 陶製佛像範과 高句麗 佛教彫刻」, 『미술자료』 88.
- _____, 2017, 「중국 남북조시대 불교조각을 통해 본 고구려 延嘉 7년명 금동여래 입상」, 『先史와 古代』 51.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吉林集安高句麗墓葬報告集』, 科學出版社.
- 吉林省集安市文物局, 2008, 『高句麗王城王陵及貴族墓葬』, 上海世界圖書出版公司.
- 大同北朝藝術研究院 編, 2016, 『北朝藝術研究院藏品圖錄』, 文物出版社.
- 大同市博物館 編, 2018, 『融合之路』, 安徽省美術出版社.
- 戴春陽, 1998, 『敦煌佛爺廟灣西晉畫像塼墓』, 文物出版社.
- 山西省考古研究所·大同市博物館 編著, 2006, 『大同南郊北魏墓群』, 科學出版社.
- 徐光冀, 2011a, 『中國出土壁畫全集 2-山西』, 科學出版社.
- _____, 2011b, 『中國出土壁畫全集 8-遼寧, 吉林, 黑龍江』, 科學出版社.
- _____, 2011c, 『中國出土壁畫全集 9-甘肅, 寧夏, 新疆』, 科學出版社.
- 孫仁杰 外, 2007, 『集安高句麗墓葬』, 香港亞洲出版社.
- 寧夏回族自治區固原博物館, 1999, 『原州古墓集成』, 文物出版社.
- 王銀田, 2017, 『北魏平城考古研究: 公元五世紀中國都城的演變』, 科學出版社.
- 倪潤安, 2020, 『光宅中原: 拓跋至北魏的墓葬文化與社會演進』, 上海古籍出版社.
- 韋正, 2013, 『魏晉南北朝考古』, 北京大學出版社.

- 大同市考古研究所, 2011, 「山西大同雲波里路北魏壁畫墓發掘簡報」, 『文物』
2011-12.
- 李梅田, 2012, 「魏晉南北朝墓葬中的弧壁磚室現象研究」, 『中國國家博物館館
刊』7.

백제·신라·가야 및 왜와의 문물교류

정호섭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위치하여 중원과 북방지역의 문화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다른 주변국들과도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고구려는 동아시아에서 군사강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선진적인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구려는 백제, 신라, 가야, 왜 등과의 교류를 통해서 선진문화를 전파하였기 때문에 이들 주변 나라들이 고구려에 영향을 받은 바가 적지 않다. 이처럼 고구려는 유라시아 역사와 문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북아시아 역사·문화 형성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구려 남정(南征)의 영향은 매우 컸기 때문에 고구려 문화가 한국 고대문화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한편, 고구려는 다종족 국가로서 다양한 문화기반을 확보하고 있었

기에 포용력, 개방성, 국제성 등을 갖출 수 있었다. 고구려 문화는 바로 이러한 기반 위에서 꽃을 피웠다. 고구려는 문화적 독자성과 보편성, 개별성과 국제성을 잘 조화시켜 동아시아 여러 민족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북방적 요소와 중원의 요소를 혼합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고, 삼국이나 왜에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고구려 문화는 동아시아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와 주변국 특히 한반도 제국(諸國) 및 왜와의 문물교류를 이해하는 것은,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북방·중원-고구려-백제·신라·가야-왜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고구려의 문화사적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구려와 주변 나라들의 문물교류에 대해서는 사신 파견 등 외교 관련 기록 이외에 문헌기록이 소략하기 때문에 고고학, 미술사 등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백제와의 문물교류

고구려와 백제는 4세기 이후 국경을 접하면서 지역의 지배권을 둘러싼 각축전을 벌였다. 문헌기록상으로 양국 관계는 주로 대립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문화교류에 관한 기록은 거의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두 나라가 많은 전쟁을 겪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문물교류는 이루어지며, 전쟁이 인적·물적 교류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고구려와 백제의 문물자료 사이에 유사한 요소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양국 사이의 직접적인 인적 교류 과정에서 문물교류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와 함께 두 나라는 초기부터 낙랑군 등 중국계 문화의 영

향을 받아 동아시아문화권의 보편적인 문화적 속성도 병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4세기 이후에는 고구려가 북방의 왕조들로부터의 문화를 수용한 것에 비하여, 백제는 주로 해양을 통한 교류로 남조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양상은 두 나라 간 문화적 공통성과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양국 간 문물교류의 결과로 확인되는 요소들은, 주로 한성기에는 고분문화, 전쟁과 점유에서 확인되는 문물자료 등이고, 웅진시기 이후에도 건축기술, 고분벽화, 불교문화 등의 사례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와 백제가 국경을 마주했던 시기에는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나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양국 간의 문물교류에 대한 계기와 과정을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정치적·군사적으로 전쟁을 반복하였고 해도, 그 과정에서 문화적 교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백제의 물질자료에 나타나는 고구려 문화와의 유사성에 주목하며,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양국 사이에 직·간접적인 문화교류의 흔적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문헌기록과 물질자료에서 확인되는 양상을 통해 고구려와 백제의 문물교류를 이해해 보자.

1) 고분과 고분벽화

고구려와 백제 간의 문화교류 흔적이 나타나는 사례로는 백제 지배계층의 무덤과 그 무덤 내부에 그려진 고분벽화를 들 수 있다. 고분의 사례로는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의 보급 및 확산과 적석총(積石塚)의 영향을 들 수 있고, 고분벽화의 사례로는 부여 능산리1호분과 공

주 송산리6호분이 있다.

백제 석촌동고분에 있는 적석총 계통의 무덤은 고구려와의 관계성이 논의되고 있다. 석촌동 1~4호분은 고구려식 적석총과 백제식 적석총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전자는 내외부를 석재로 축조한 반면, 후자의 경우 외부는 석재로 축조하였으나 내부는 점토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정치영, 2017). 고구려식 적석총은 석촌동 1호분 남분과 3호분이 해당한다. 이 중 3호분은 40~50cm 정도 점토를 깔아 정지작업을 한 후 지대석이 위치한 외곽에 20cm로 돌을 깔고 그 위에 장대석을 한 줄 배열하고 석렬 내부를 석재로 채웠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축하여 2·3단을 쌓았고, 1단 주위에 버팀석을 세웠다. 이러한 축조 방식은 천추총이나 태왕릉, 장군총 등 고구려 계단식적석총(階段式積石塚)의 축조방법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강현숙, 2016).

한편 백제식 적석총은 석촌동 1호분 북분과 2호분, 4호분이 있다. 이 중 2호분은 지면을 정지한 후 돌로 석축을 만들고 내부공간에 할석을 깔고 그 위에 점토나 사질토를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축조되었다(강현숙, 2016). 이러한 백제식 적석총에 대해서는 현지 선행 묘제가 고구려 적석총의 요소를 반영하여 변화한 것으로 보는 견해(임영진, 1995), 고구려 적석총이 도입되어 외부만 돌로 축조하고 내부는 흙으로 채웠다고 보는 견해(박순발, 1998), 즈석분구묘(冢石墳丘墓)가 백제식 적석총으로 변화되었다는 견해(김승우, 2000), 계단식적석총에 즈석분구묘 축조방식이 채용된 것으로 보는 견해(강현숙, 2005) 등이 있다. 이들 적석총의 존재는 고구려 적석총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전하는 백제 건국세력이 고구려로부터 출자했다는 전승이 물질자료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적석총 조영세력을

온조계로 이해하거나(강인구, 1991), 3세기 중엽 압록강 이남 지역에 거주하던 고구려계 이주민이 조영했다고 보는 견해(임영진, 2003) 등이 있다. 그런가 하면, 백제 건국세력의 고구려 출자를 부인하며 석촌동3호분은 백제 지배세력이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고구려 묘제를 채용한 결과라고 보기도 한다(이도학, 1995). 한편 석촌동의 계단식적석총은 매장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공주 송산리 및 수촌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제단시설과 유사하다고 본 견해도 있어(이남석, 2013), 그 성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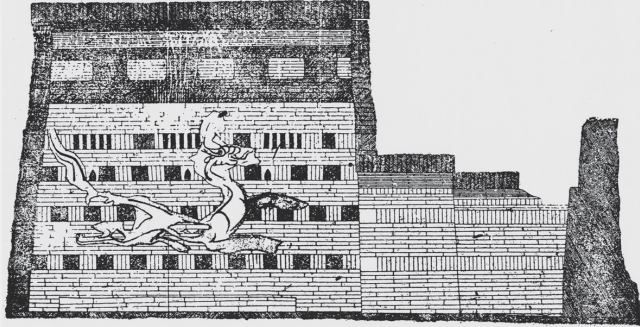
백제 고분벽화의 대표적 사례로 공주 송산리6호분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문화의 요소도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나타내는 사례 중 하나이다. 1933년에 발견된 송산리6호분은 이 시기 백제의 일반적인 묘제인 지하로 묘광을 파서 장방형의 묘실과 남벽 중앙에 이중구조의 연도를 조성한 백제의 횡혈식고분이다. 이 무덤은 송산리고분군의 무덤들이 주로 횡혈식석실분인 데 반해, 무령왕릉과 함께 벽돌로 축조한 몇 되지 않는 사례이다. 이들은 웅진시기에 국한되어 백제 왕실이 중국 남조의 전축분을 모방하여 축조되었다(이남석, 2016). 그런데 송산리6호분에서는 네 벽에 진흙을 바르고 그 위에 사신도를 그린 벽화가 존재하는데, 남조의 영향력이 강한 건축형식과는 달리 내부에 그려진 사신도의 경우 고구려의 사신도 벽화와 유사하여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산리6호분이 고구려의 사신도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으로 비정하면서, 당시 적대적이었던 고구려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고구려의 영향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다(강인구, 2002). 그러나 정치적 대립관계 속에서도 문화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점과 그 양식을 볼 때 고구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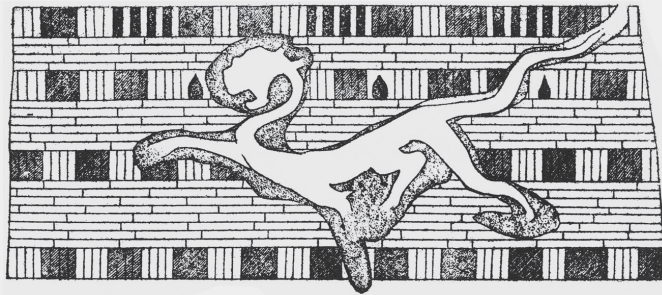
영향력을 받은 벽화로 보는 견해도 있다(정호섭, 2011; 전호태, 2019). 이 같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벽화는 이 시기 고구려와의 문화교류 및 수용이 일정 수준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피장자가 이 문화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나 혹은 적극적인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정호섭, 2011). 다만 이 시기 벽화가 고구려의 문화 전파 또는 수용의 결과였다고 해도 그 제작기법은 백제의 묘제에 맞게 고구려의 보편적인 기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신도를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주작의 경우 좌우에 해와 달을 거느리는 단독상인데, 이는 고구려의 고분벽화나 중국 남북조의 사신도와도 다른 형태로서 백제식으로 변형되었다고 해석된다(전호태, 2019).

능산리1호분의 경우는 능산리고분군 내에서 유일하게 벽화가 확인되는 유적으로, 사비기 백제 고분에서도 유일한 사례이다. 능산리1호분의 벽화는 송산리6호분처럼 네 벽면에 사신도를 그렸으며 천장에는 연꽃과 구름 문양이 있다. 그 제작기법에 관해서는 한 장의 화장암 관석을 물갈이하여 벽면을 축조한 기법, 사신도나 연꽃·구름 문양도 모두 고구려의 영향이 나타나는 그림으로 지적된 바 있다(關野貞, 1941; 梅原末治, 1947; 김원룡,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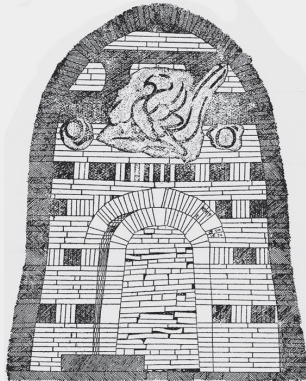
또한 능산리1호분의 사신도는 청룡과 백호가 진파리1호분 벽화의 그것과 구성만이 아니라 세부묘사까지 닮은 부분이 매우 많다(전호태, 2019). 예컨대 백호가 혀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나 백호 주변으로 구름이 날아가는 모습 등은 6세기 전반에 축조된 진파리1호분의 백호와 구도상에서 매우 닮은 것으로 지적된다. 고구려 진파리1호분 벽화뿐만 아니라 진파리4호분과 수렵총에 보이는 사신과 일월이 같이 배치되는 부분도 벽화의 구성면에서 일정한 유사성이 보인다(정호섭,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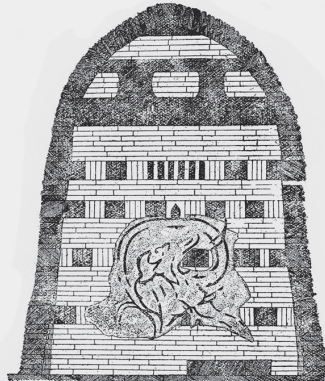
동벽의 청룡



서벽의 백호



남벽의 주작과 일월



북벽의 현무

그림 1 | 공주 송산리6호분



그림2 | 부여 능산리1호분의 백호와 월상(月像)



그림3 | 고구려 진파리1호분의 백호



그림4 | 부여 능산리6호분 천장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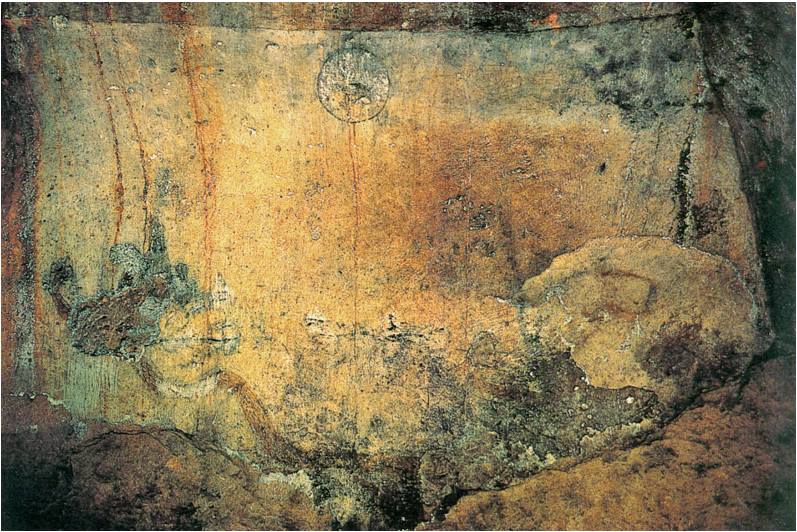


그림5 | 고구려 수렵총의 청룡도와 일상(日像)

다만 진파리1호분의 백회 그림은 역동성 면에서 백제의 벽화를 앞서고 있는데, 이는 벽화 전통을 오랫동안 보유한 고구려와 그렇지 못한 백제의 수준 차이에서 기인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밖에도 고구려 후기 석벽화들은 지금도 보존상태가 좋은 편인 반면, 능산리1호분의 석벽화는 훼손이 매우 심하여 안료와 벽 사이의 접착성분 차이와 같은 기술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정호섭, 2011).

2) 토기 제작기술

백제의 물질자료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분야는 토기에 관한 연구였다. 백제 토기에서 고구려 문화 요소는 사비시기에 가장 두드러지며, 한성시기와 웅진시기 토기에는 고구려의 영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기존 연구에서는 백제 한성시기에 유행한 흑색마연토기가 고구려 토기의 영향력을 받아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김원룡, 1986). 흑색마연토기는 고구려 노남리형 토기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표면을 마연하고 무늬를 내는 효과가 백제의 흑색마연토기 제조기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백제의 흑색마연토기는 고구려의 토기들과 기형이 다를 뿐만 아니라, 흑색마연기법은 고구려 고유의 제작법이 아닌 초기철기시대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강현숙, 2007). 또 서울 몽촌토성 내에서도 고구려의 원통형 삼족기나 심발에 가까운 양이부호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475년 한성 함락을 전후하여 고구려가 이 성에 주둔하면서 남긴 유물로 추정되고 있다(최종택, 1998; 1999; 양시은, 2014).

반면, 사비시기의 백제 토기 중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토기는 매우 다양하여 이배(耳杯), 대부발(臺付鉢), 자배기, 대상과수부호, 대상과수부뚜껑, 암문토기, 시루 등이 있다(박영민, 2002). 사비시기에 출현한 백제 토기는 크게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계통과 고구려 토기의 영향을 받은 계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山本孝文, 2005), 후자의 경우 일상생활용 토기부터 고급 기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고 있다. 이들 중 고구려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토기로는 이배와 대부발을 들 수 있는데, 이배의 경우 부여 관북리, 부소산성, 궁남지, 화지산, 능산리사지, 익산 왕궁리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배는 사발 모양의 몸체에 양 측면이 평행으로 절단된 악(顎)이 부착된 형태로 한성시거나 웅진시기의 백제 토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다. 이는 오히려 한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고구려의 구의동유형 토기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로, 최근에는 고구려 아차산일대보루에서도 같은 형태의 이배가 출토되었다(양시은, 2014). 이들은 고구려 중기인 4~6세기로 편년되며 바닥에 굽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전의 부착 수법 등에서 백제 후기의 이배와 매우 유사하다. 이후 이러한 양식의 토기가 백제에도 전해져 사비 천도 이후인 6세기 후반 이후에 출현하여 부여·익산 등 중양지역에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김용민, 1998).

또 주로 부여 능산리사지와 신암리·동남리 및 익산 왕궁리 등에서 출토되는 대부발, 혹은 뚜껑과 함께 합(盒)으로 불리는 토기도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사례로 여겨지는데, 이들은 주로 백제 후기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생활용기 및 화장용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강인규, 1977; 윤무병, 1994). 이들은 백제 한성시기에 보이는 완 계통 토기와는 제작기법이나 형태상 차이를 보이며, 고구려의 토기인 구의동유형에

속하는 평저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곧 이들 토기가 백제에 유입되고, 이후 굽이 달리는 등의 일정한 변화를 거쳐 정착되었다고 본다(김용민, 1998). 나아가 뚜껑을 갖춘 합도 고구려의 청동합과 경주 호우총(壺杆塚) 출토 청동합을 잇는 계통에서 파생되었을 것으로 보며, 백제의 토기합도 이들 청동합을 모방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난영, 1992).

이와 같은 고구려 토기들은 6세기 전반대부터 출현하며 토기의 형태만이 아니라 제작기법 및 소성기술까지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구려 토기 제작기술을 보유한 공인의 이주 가능성이 지적된다(土田純子, 2009). 예컨대 암문토기의 경우는 부여 일대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는데 암문이 정형화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백제로 이주한 고구려인이 제조하였거나 백제 도공의 현지 제작품으로 비정된다(김종만, 2007). 반면 6세기 중·후반에는 부여 정암리 가마터나 청양 관현리 가마터에서 자배기 및 대상과수부사이호 등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토기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백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고구려 토기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병호, 2013). 한편, 토기 제작의 좀 더 구체적인 계기로 551년 성왕대 한강 유역 점령을 지목하기도 한다. 이 지역이 475년 고구려의 침공 이후 줄곧 고구려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나, 이후 551년 성왕의 이 지역 탈환으로 인해 아차산일대보루 등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토기 문화가 백제로 유입되었다는 것이다(김용민, 1998).

이들 토기는 주로 6세기대 고구려 토기가 아니라 이전 시기인 5세기 고구려 토기의 전통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양시은, 2011), 고구려에서 6세기 후반경에 사용된 호자가 부여 부소산성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사비시기 백제에서 고구려 토기의 제작기술 교류가 더욱 장기적

으로 유지되었을 가능성도 지적된다(김종만, 2007). 주목되는 점은 같은 시기 고구려 토기에서도 백제 토기의 영향력이 확인되고 있어서, 이러한 토기 제작의 문물교류가 한 방향으로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연천 호로고루나 은대리성, 파주 주월리, 청원 남성곡 유적 등에서 백제 토기 특유의 타날문이나 유사한 형태를 가진 토기들이 확인된다. 이는 백제 공인이 고구려에서 토기 제작에 참여한 사례로 추정하기도 한다(박순발, 2005).

3) 기와 제작기술

백제의 와당(瓦當)에서도 고구려와의 문물교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웅진시기 단계에서도 이미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무령왕릉에서 나타나는 백제 문화는 주로 중국 양(梁)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이들 사이에서 고구려 문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판단침형 와당 형태는 무령왕릉 출토 은제탁잔, 왕비두침의 문양에서도 확인된다. 탁잔 몸체 밑 부분에 새겨진 연꽃의 경우 8엽겹꽃잎형으로 이는 6세기 백제 와당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양이다(박용진, 1983). 이들은 5세기 후반 이래 평양 일대의 고구려 문화가 백제에 수용되어, 이후 백제식 변형을 거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전호태, 2019). 웅진시기에는 주로 판단용기식 및 판단원형돌기식의 문양을 취했던 반면, 이와는 별개의 고구려와 유사한 와당이 등장하고 있다. 나아가 이 시기 와당은 색조면에서도 고구려와 같은 적색와당이나 고구려의 형태와 유사한 연화문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구려 장인 기술의 영향을 받아 와당 제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로 여겨진다.

고구려 장인들의 기술력 지도를 통해서 와당이 제작되었다고 추정한다면, 고구려의 한성 침공과 같은 전쟁을 치른 직후에도 백제는 고구려와 일정한 문물교류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512년 한강 유역을 둘러싼 무령왕대 백제의 대고구려전이 이후 521년까지 전쟁 기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양국 간 전쟁이 소강상태가 되었고 이 시기에 고구려와 일정한 통호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곧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해도 전후 평화 기간을 양자 간의 일정한 문화교섭이 이루어진 배경으로 추정한 것이다(조원창, 2008).

한편, 사비 천도 이후에는 고구려 와당의 영향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등장하여 이 시기에는 고구려 장인이 직접 현지에 거주하며 와당을 제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와당 중에서 표면에 백회칠을 하는 기법은 백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고구려만의 제와기술이며, 이외에도 자방의 귀목형 등에서 고구려의 제와술을 엿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한 연구에서는 사비시기에 들어와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국가 간에 제와기술의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장인들이 직접 유입되는 예도 있었던 것으로 본다. 백제는 새로운 와전(瓦塼) 제작을 위해 중국 양에서 장인을 초청하거나 일본에 와박사를 보낸 사례도 있다. 고구려와 백제 간에 기와 제작자 교류는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이들 기술 전파 사례를 볼 때 장인의 교환이나 유입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조원창, 2008).

4) 불교

삼국이 불교를 공인한 시점은 사서마다 각기 다른 시점으로 나타나며, 그 사상적인 내용에서도 이질적인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불교 승려를 통한 사상 교류는 삼국의 정치적·군사적 대립과는 별개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백제 불교 문화의 성격에 대해서는 중국 불교의 영향, 특히 백제가 가장 활발하게 정치·문화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던 남조의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백제에는 남조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 유입 경로가 존재했으며, 특히 불교에 있어서 남조만이 아니라 ‘왕즉불(王卽佛)’사상으로 나타나는 북조 불교의 요소도 수용하였다.

그런데 백제가 북조 불교의 요소를 수용하는 과정에 대해 추적하며, 이를 고구려를 통하여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 교류 흔적은 사서상에서 거의 확인하기 어렵지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등장하는 개로왕대의 고구려승 도림(道琳)에 관한 기록이 주목된다. 개로왕이 고구려에서 간자(間者)로 파견한 도림의 모략으로 무리한 토목공사를 단행한 결과 민심의 이반과 재정탕진을 초래하게 되고, 한성 함락과 개로왕의 폐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전한다. 도림의 역할을 허구로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하지만(이도학, 1985), 도림이 불승(佛僧)이었던 사실에 착안, 고구려와 백제 간의 불교문화 교류라는 측면에서 이 시기 개로왕의 정책과 백제 불교의 모습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즉 개로왕이 도림을 측근으로 두었던 것을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한 고구려 불교의 수입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남조 불교보다는 ‘왕즉불’ 전통의 북조 불교에 관심이 있던 개로왕이

북조 불교 계통인 고구려 승려들을 백제로 유입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조경철, 2010; 2015). 또 개로왕 재위 18년인 472년에 북위(北魏)에 사신을 보내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당시 표문(表文)에서 북위를 “대대로 신령하신 교화를 받았다”는 구절에 주목하여, 이전 시기부터 북조와 문화적 교류가 있었으며 이러한 양국 간 교류가 도림이 고구려 승려로서 개로왕의 측근에서 활동한 배경이었다고 지적한 것이다(길기태, 2012). 이들 견해에 따르면 도림의 백제 내 활동은 고구려와 백제가 북조 불교 문화를 수용 혹은 교류하는 양상으로 이해된다.

한편 삼국시대 말기에 일어난 고구려 승려 보덕의 백제 이주에서도 양국 간 불교문화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도림의 사례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서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보덕은 연개소문 집권 이래 도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믿지 않아 650년 백제의 완산주 고대산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그런데 『삼국유사』 보덕이암조(普德移庵條)에서는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하면서 신통력으로 방장(方丈)을 날려 완산주 고대산으로 옮겼다는 경복사(景福寺)의 ‘비래방장(飛來方丈)’ 설화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사료는 고구려가 무덕(武德)·정관(正觀) 연간에 당으로부터 도사를 받아들여 노자(老子)를 강론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도교를 숭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보덕과 같은 불승이 백제로 피신했던 상황을 전한다. 고구려 내에서 도교 전래에 따라 불교 교단에 대한 통제가 심했으며, 보덕은 폐불 정책이나 거주지인 반룡사 파괴 등 핍박으로부터 도피하여 망명했다고 이해하고 있다(정선여, 2007; 남무희, 2001; 조법중, 2013).

그런데 보덕이 백제로 이주를 선택한 것은 이곳이 전통적으로 불교 숭상의식이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으며, 더 나아가 단순 도피

가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불교문화의 포교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특히 ‘비래방장’ 설화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그의 이주는 단신이 아니라 집단적인 이주였고, 『삼국유사』에 보덕에게는 11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하며, 보덕이암조에서는 대원사(大原寺), 유마사(維摩寺) 등 이들 제자가 세운 사찰을 나열하고 있기에 보덕과 그의 집단들이 백제로 이주한 이후 거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창건되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김복순, 2004). 특히 보덕이 완산주의 고대산으로 이주한 것은 신라 하대 진감국사의 행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고구려인들이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곧 불교 교단의 집단적인 이주를 통해 이 지역에 고구려계 불교가 상당 수준으로 번성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백제 멸망 이후 이 지역에서 보덕의 사상은 백제 유민들에게 선호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멸망 이후 유민들의 유입도 다수 이루어져 안승이 보덕국을 세우는 기반이 되었다는 추측도 있다(노용필, 1989). 나아가 『대각국사문집』에 원효와 의상도 수학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사상교류의 측면으로 볼 때 고구려 불교가 백제를 거쳐 신라에까지 전파된 사례로, 특히 원효와 의상이 650년 중국행을 시도한 것이나 의상이 이후 『열반경』을 중시했던 사례들은 모두 보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김복순, 2004).

5) 건축과 기타

건축양식에 있어서도 고구려의 문화전파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은데, 먼저 연가(煙家)와 온돌이 있다. 연가는 배연시설인 굴

뚝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기둥 몸체를 구성하는 연통(煙筒)에 이어져 그 끝부분을 장식하는 구조물이다. 백제에서 최초로 확인된 연가는 1993년 부여 능산리사지의 제3건물지였는데, 당시에는 그 기능을 알지 못하여 ‘보주형토기(寶珠形土器)’라고 칭하며 토기의 일종으로 분류했다(국립부여박물관, 1997). 이후 같은 능산리 지역에서 보다 상태가 양호한 연통토기가 출토되어 이것의 용도가 분명해지고 고구려와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백제의 연가는 부여 능산리사지를 비롯해서 관북리, 동남리, 화지산,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사덕 등지에서 출토되었는데, 집안(集安) 우산하묘구(禹山下墓區)에서 출토된 유사한 토기를 기준으로 하여 4~6세기 무렵에 출현한 것으로 편년된다. 비록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백제의 연가 제작이 고구려 문화와 일정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김용민, 2002).

한편, 부여 정동리나 능산리사지 등에서는 할석이나 판석을 이용하여 긴 온돌을 만들고 굴뚝을 구비한 난방시설이 확인된다. 온돌시설은 초기철기시대부터 사용된 고구려 특유의 난방시설로서(송기호, 2006) 집안 동대자유적이나 평양 정릉사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정릉사지처럼 사찰 내에 온돌시설이 존재하는 것은 중국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례이다(양은경, 2013). 그런데 백제 능산리사지에서도 강당지와 북편 1·2·3건물지에서 온돌시설이 확인되며, 건물지의 온돌은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는 거주지를 위한 시설로 파악된다(국립부여박물관·부여군, 2008). 이들 온돌시설은 연가의 출현과 함께 고구려식 난방시설이 백제에 전파된 결과로 백제 내에서도 온돌과 함께 연가 등 난방시설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류기정, 2003).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토기가 주로 부엌살림용품, 특히 부뚜막 시설

이 많은 점에 착안하여 토기를 제작한 집단이 온돌과 같은 고구려의 주 생활과 식생활에 익숙하였으며, 곧 이들 지역에 고구려계 주민집단이 이주했던 흔적으로 보기도 한다(강현숙, 2007).

이와 같은 난방시설에 더하여 사비시기 불교 건축양식 전반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유추하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5~7세기 사원의 금당이나 목탑에 주로 이용된 이중기단의 경우 고구려의 청암리사지 팔각건물지나 백제의 정립사지 금당지, 군수리사지 금당지 등에서 확인되는데, 백제의 이중기단은 시기적으로 좀 더 빠른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출현했다고 추정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이중기단 양식은 일본 아스카사(飛鳥寺) 금당지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고구려 문화의 요소를 유입한 백제가 일본에 전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이병호, 2013; 2017).

또 백제의 1동 2실 건물지도 능산리사지 강당지를 비롯하여 익산 왕궁리, 미륵사지 강당지와 승방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이다. 그런데 고구려에서는 이보다 앞선 시기인 집안 동대자유적 제1건물지에서 앞서 살펴본 온돌 구조와 함께 같은 1동 2실의 양식을 갖추고 있어 능산리사지 강당지와 전체적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이를 들어 백제의 1동 2실 건물 형식 자체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설립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김길식, 2008).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철축의 경우 백제 철축으로 이해되기도 하였으나, 한성 함락 이후 고구려군이 주둔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최종택, 2000). 고분 부장품 중 재갈이나 등자와 같은 마구에서 고구려와 형태와 재질, 제작방법에서 일정 부분 유사성이 간취되기 때문에 이를 고구려의 영향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징은 신라와 가야에서도 나타나며, 보다 넓게는 중국 동북지방의 삼연(三燕)

마구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와 백제의 직접적인 문물 교류의 결과로 단정 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북방 기마민족의 문화가 고구려를 거쳐 백제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강현숙, 2007).

2. 신라와의 문물교류

고구려와 신라가 본격적으로 접촉하는 시기는 4세기 후반부터다. 이 시기 신라의 나물마립간은 고구려를 경유하여 북중국의 전진(前秦)과 수교하였으며, 고구려의 원병을 빌어 왜의 발호를 저지하였다. 특히 <광개토왕비>에 기록된 영락 10년 경자년에 이루어진 보기(步騎) 5만 명을 동원한 신라 구원은 신라의 고구려에 대한 예속을 심화시켰다. 신라의 왕위 계승 후보자였던 실성과 복호는 고구려에 인질로서 한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으며, 신라의 왕위 계승에 고구려가 개입하여 실성을 살해하고 놀지를 즉위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충주고구려비(忠州高句麗碑)>의 신라매금(新羅寐錦)에 대한 의복 사여 및 신라토내당주(新羅土內幢主)의 존재 등을 통해서도 고구려에 대한 신라 예속의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5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신라는 백제와 수호하고 고구려 변장(邊將)을 살해하는 등 점차 고구려의 예속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보이며 6세기 중반에는 북진하여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였다.

고구려와 신라의 문물교류는 이러한 양국 간의 정치적 변동 과정에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예컨대 5세기 초부터 6세기 전반에 이르는

동안 신라의 중앙지배층 묘제인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된 부장품은 고구려를 통해 입수되거나 영향을 받은 품목이 많으며, 착장형 장신구와 마구·마주·금속용기·유리용기·장식보검 등이 고구려를 거쳐서 반입되었거나 고구려 문화의 요소가 나타난다(홍보식, 2018). 다만 양국 간의 문물교류와 관련되어 현존하는 자료들은 대다수 신라 영역에서의 고구려 영향을 나타내고, 고구려 유적에서 신라의 문물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고구려에서 신라로 이입된 여러 요소 중에 인적·물적 교류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불교

고구려와 신라의 인적 교류는 불교의 전래와 관련이 깊다. 5세기 신라 눌지왕 시기 사문(沙門) 목호자가 고구려로부터 일선군에 이르러 모례의 집에 거처하며 불교를 전파하였고, 6세기 중반 고구려의 정치적 혼란기에는 승려 혜량이 그의 문하를 이끌고 신라로 귀부하였다. 특히 혜량의 신라 망명에 대한 전말은 『삼국사기』 거칠부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거칠부는 젊은 시절 고구려를 정탐하고자 불경을 강경(講經)하던 혜량의 문하에 머물러 있었는데, 혜량이 거칠부가 신라에서 온 것을 알고 그의 귀국을 종용하였다. 혜량의 은혜를 입은 거칠부가 551년 장수가 되어 고구려를 침입하자 혜량은 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움을 이유로 그 무리를 거느리고 거칠부에게 항복하고 신라로 망명하였다고 전한다. 혜량은 신라에서 승통이 되었고 신라는 비로소 백고좌회와 팔관지법을 두었다고 한다. 혜량은 고구려에서 신라로 망명하기 전 금강산의 장안

사에서 주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김수진, 2020), 거칠부가 죽령 바깥 고현 이내의 10군을 취할 때 거칠부에게 망명 의사를 표현하였다. 승려 신분으로 아국정란(我國政亂)을 이유로 신라에 망명한 혜량은 ‘정치난민’과 ‘종교난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장창은, 2020). 이렇듯 고구려에서 건너온 혜량은 신라 진흥왕대의 불교정책에 대한 중요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백고좌회, 팔관지법이나 황룡사 창건에도 혜량의 발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며(김복순, 2010; 후보돈 2014), 이러한 과정에서 혜량을 통해 고구려 불교 및 북조 불교가 신라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한다(주보돈, 2014).

한편 『삼국사기』 거칠부전에서 혜량이 임명되었다는 ‘승통’은 『삼국사기』 잡지, 『삼국유사』 자장정율조의 세주에서는 ‘국통’ 또는 ‘사주’라고 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혜량이 동위(東魏) 승관제에 존재했던 국통(國統)이라는 명칭을 파악하고 있었던 고구려의 고승대덕으로서 신라에 승관제를 성립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도 본다(문무왕, 2019). 혜량이 임명되었다는 사주는 ‘사찰을 관장하는 책임자’라는 직임으로도 풀이되는데, 그 직임은 내외 사찰의 법회에 한정되었으며, 혜량은 대왕흥륜사의 사주로서 외사의 팔관회까지 관장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박남수, 2013).

불교 조각에 있어서도 경주 송화산 출토 석조반가사유상,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반가사유상 등은 고구려 평천리 반가사유상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 신라 불상에 고구려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기도 하다.

2) 고분과 고분벽화

고구려와 신라의 문물교류 양상 중 특기할 점 중 하나가 바로 벽화고분이다. 경북 영주 순흥에 위치한 읍내리벽화고분(영주 순흥 벽화고분)과 어숙지술간묘(영주 순흥 어숙묘)는 석실봉토분이자 무덤 내부 현실과 연도의 벽과 천장에 회를 바른 후 인물, 생활풍속, 연꽃 등을 그린 벽화고분이다. 피장자는 고구려 출신이거나 고구려와 강한 관련성을 지닌 신라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벽화고분이 발견된 순흥은 죽령 이남에 위치하며 5~6세기 무렵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신라의 북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벽화고분이 확인된 것은 고구려에서 당시 유행하던 벽화고분 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

두 벽화분에서는 공통적으로 고분 구조와 벽화 내용에서 고구려 문화요소가 확인된다. 읍내리벽화고분의 경우 현실에 마련한 시상대와 측면의 화염문, 연도 좌·우벽에 그려진 역사가 그렇고, 어숙지술간묘의 경우 무덤 내에 장막을 걸었던 흔적, 사신과 생활풍속이 결합한 벽화가 있었던 점 등이다(강현수, 2003). 그러나 고구려 고분에서 읍내리 벽화고분 석상과 같은 높은 시상대가 발견된 바가 없고, 벽화의 내용도 고구려 벽화와 다소 차이가 나는 점은 설명이 어렵다.

아울러 두 고분의 내부에서는 각각 간지년(干支年)을 포함한 명문(銘文)이 발견되어 벽화분의 축조연대를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던져준다. 1985년 발견, 조사된 읍내리벽화고분의 현실 남벽에는 “己未中墓像人名 / □□”라는 2행의 묵서 명문이 쓰여 있었고(이명식·이희돈, 1995), 이보다 앞서 1971년에 발견된 어숙지술간묘에는 문비(門扉) 안쪽에



그림6 | 영주 순흥 읍내리고분벽화의 명문

“乙卯年於宿知述干”이라는 여덟 글자가 주칠(朱漆)로 각자(刻字)되었음이 확인되었다(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4).

어숙지술간묘의 을묘년에 대해서는 대체로 6세기에 해당하는 535년이나 595년으로 보고 있다. 어숙지술간이라는 표기가 ‘인명(人名)+지(知)+관등(官等)’이라는 신라 중고기의 인명 표기방식이고, 술간(述干)과 같은 외위 관등의 출현이 중앙집권국가의 틀을 갖추는 법흥왕 이전 시기를 상회할 수 없으며, 연도 천장에 그려진 능숙한 필치의 연화도를 볼 때 법흥왕대 불교 전래 직후 을묘년인 535년보다는 그다음 을묘년인 595년에 가깝다는 것이다(진홍섭, 1984). 다만 술간이라는 관직이 지방에서 더 이른 시기에 쓰였음을 고려하여 535년이 을묘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진홍섭, 1986).

읍내리벽화고분 묵서명의 연간지는 발굴 당시부터 대다수 기미년으로 판독하였고, 해당 기미년에 대해서 5~6세기 사이의 넓은 시간 속에서 탐색이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539년과 479년이 기미년의 유력한 대상으로 떠올랐다. 읍내리벽화고분의 조사 책임자는 신라가 소백산맥 이남의 고구려를 축출한 것이 551년 이후이고, 어숙지술간묘가 595년으로 편년된다면 읍내리고분은 구조상 이보다 선행하므로 묵서의 ‘기미’는 539년이며 따라서 고구려의 벽화고분일 것으로 파악하였다(이명식, 1986). 그리고 어숙지술간묘의 축조 연대가 535년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 양 고분의 시기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미년을 539년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진홍섭, 1986).

반면 벽화의 내용이나 양식적 측면에서 읍내리벽화고분이 고구려 초기 및 중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그중에서도 산악도는 고구려 덕흥리고분이나 무용총의 것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기미년을 479년이나 539년으로 비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안휘준, 1986), 벽화에 사신도가 등장하지 않고 삼족오 일상(日像)으로만 방위가 표시되고 고식풍의 벽화인 점에서 기미년이 479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하였다(이은창, 1987). 또한 읍내리벽화고분은 4~5세기 고구려 벽화의 전통을 따른 인물풍속도 고분으로 고졸한 표현이 역력한 데다 고구려의 유행경향과 비교할 때 6세기보다는 5세기에 조성되었고, 구름무늬, 연꽃무늬, 어형기, 역사상 등은 덕흥리벽화고분, 삼실총, 무용총, 수산리벽화고분에 그려진 5세기대 벽화와 가까워 기미년이 479년에 해당한다고도 하였다(이태호, 2010). 이 외에 서체적으로 필법에 예의(隸意)가 보이기 때문에 기미년을 419년으로도 보았다(임창순, 1986).

한편, 읍내리벽화고분은 구조적으로 고구려의 ‘ㄱ’자형 석실분 문화

와 신라의 동침향(東寢向) 시상대를 갖는 장방형 묘실과 결합한 ‘고구려 계 신라 고분’으로 볼 수 있다(이희돈, 1989). <충주고구려비>의 건립을 5세기 중반 전후로 파악하는 견해에서는 기미년을 소지왕의 날이군 순행 이전인 479년으로 보고, 고구려 세력에 우호적 입장을 취한 신라 출신 묘주가 고구려 문화를 수용한 결과 황혈식석실분과 벽화가 나타났으며, 연도 설치나 순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의 고유 묘제·장제가 혼합되었다고 보기도 하였다(정운용, 1999).

이렇듯 읍내리벽화고분의 기년은 목서의 연간지를 기미(己未)로 판독한 상태에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근래에 이르러 기해(己亥)로 이해하기도 한다. 발굴 직후에도 기미가 아닌 기해로 판독하는 의견이 있었다(東潮, 1987). 이후 읍내리벽화고분 목서의 연간지 중 ‘미(未)’로 판독한 글자는 ‘해(亥)’의 이체자로 기미년이 아니라 기해년으로 읽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김재홍, 2019). 이러한 이해에서 읍내리벽화분에 그려진 역사나 해 안의 새, 머드나무 등 회화의 제재와 기법이 고구려 고분벽화와 비교할 때 6세기 전반에서 더 올라가기 어려워, 신라 영역 안에서의 불교 신앙 확산과 공인, 그리고 고구려·백제 등에서의 회화 양식 전파와 순흥이라는 신라 변경에서의 소화 과정을 고려해볼 때, 간지년은 579년 기해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하였다(전호태, 2020).

3) 적석목곽분의 고구려 계통 유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적석목곽분에서는 고구려에서 신라로의 문화 이입 양상을 보여주는 유물이 상당수 발굴되었다. 처음 신라 고분에

서 고구려 관련 유물이 발굴된 것은 서봉총이었다. 1926년 서봉총 발굴 시에 북분에서는 은합 하나가 출토되었는데, 뚜껑 내부에는 “연수 원년 태왕치세 삼월 중에 태왕이 교시하여 은 세 근 여섯 량으로 뚜껑을 만들었다(延壽元年太歲在○卯三月中 太王教造合杆用三斤六兩)”가 새겨져 있었고, 겉면 바닥에는 “연수 원년 태왕치세 신○ 삼월에 태왕이 교시하여 은 세 근으로 합을 만들었다(延壽元年太歲在辛○三月 國太王教造合杆三斤)”가 새겨져 있었다. ‘연수’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한 적이 없고 한국의 문헌기록에도 보이지 않는 연호이다. 이에 은합의 제작 주체 및 시기를 둘러싸고 현재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은합의 제작국과 관련해서는 크게 고구려설과 신라설로 나뉘며, 연수 연호가 사용된 시점도 신묘년과 결부하여 4세기 초반부터 7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개진되었으나, 451년설과 511년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서봉총 은합의 연수 연호에 대해서는 4세기 초반 고국원왕 연호로 보는 입장이 가장 이른 시기로 이해하는 것이다. 고구려에서 십자형 꼭지손잡이를 가진 금속제합이 나타난 중심 시기는 4세기이며, 391년 신묘년은 영락 연호가 사용되므로 연수는 고국원왕 즉위년인 331년이 고 은합우는 고구려에서 즉위기념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다(강현숙, 2012).

다음으로 391년에 연수 연호가 사용되었고 은합은 고구려에서 제작된 기물이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고국양왕의 몰년인 391년에 내려진 ‘불법구복(佛法求福)’의 하교(下敎)와 관련하여 고국양왕의 수명을 연장하길 바라는 연수와 관련이 있거나(古江亮仁, 1989), 이때에 개최된 국가의례에 사용된 기물로 이해하고 있다(신정훈, 2014). 또한 십자형 꼭지손잡이 형태를 가진 칠성산96호분과 황남대총 남분 출토 합

을 비교하여 적석목곽분의 연대 등을 종합해볼 때 연수 원년은 391년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최병현, 1992). 호우총 출토 청동합의 제작 시기가 415년인 점에 근거해 서봉총의 조성 시기를 4세기 말~5세기 초로 보면서 연수 원년을 391년, 은합은 신라에서 제작한 것으로 본 견해도 있다(박진욱, 1964).

한편 연수 원년 은합은 451년에 고구려에서 제작했다고 보는 연구(坂元義種, 1968; 이병도, 1979; 김창호, 1991; 정운용, 1998 등)가 있는데, 대체로 범흥왕대 신라 연호와 태왕이 처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은합이 고구려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서봉총 은합우의 신묘 표기처럼 연간지가 나누어진 예가 황해도 봉산 대방군 태수 장무이묘 출토 문자벽돌과 신천 간성리 출토 벽돌에서 발견되고, 집안 칠성산96호묘에서 십자형 꼭지손잡이 동합이 출토된 점에서 고구려 제작설에 기반하여 연수 원년을 451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小田富士雄, 1979),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의 연가 연호와 연수 연호는 장수왕대의 연호로 상호 연관된다고 보고 연수 원년을 451년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김영태, 1997). 한편 연수 원년 신묘년을 451년으로 보면서도 신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호우총 청동합 제작 시기와 견주어 제작국과 연대를 파악하기도 하였고(이홍직, 1954), 서봉총 은합의 글자 새김방식이 호우총 청동합보다 낙후된 점에서 신라에서 제작한 것으로 이해하고 고구려의 연수 연호를 신라 눌지왕이 받아들여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손영중, 1966).

마지막으로 연수 원년을 511년 신묘년으로 보는 경우는 은합의 제작국이 고구려가 아닌 신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서봉총 은합 발견 초기부터 제기되었는데, 일본의 오오미 미즈

오(近江水尾)고분 및 경주 금관총, 금령총 등의 출토유물과 비교하여 연수를 지증왕대의 일년호(逸年號)로 보았다(濱田耕作, 1929). 또한 연수 연호가 노년에 즉위한 지증왕과 관련되며, 태왕도 신라 국왕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지증왕대인 511년으로 보기도 한다(穴澤昧光, 1972). 십자형 꼭지손잡이 형식이 출토된 집안 칠성산96호묘, 경산 조영동II-1호분, 경주 천마총, 은령총, 황오리16호분, 황남대총 남분, 서봉총 출토 7개 합 의 재질과 제작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서봉총 은합우를 신라에서 제작하였을 것으로 이해하는 연구에서도 은합의 제작 시기를 지증왕의 장수 기원과 연관시켰다(박광열, 1999).

그 밖에 은합의 지증왕대 신라 제작설과 관련하여 서봉총에서 출토된 금관과 청동초두 뚜껑에 새겨 장식된 것과 지증왕의 어머니 조생부인(鳥生夫人)을 연결하여, 지증왕이 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은합을 만들었다고 보기도 하며(김병모, 1998), 은합의 연수 연호를 도교의 불로장생 표현인 ‘연수익수(延壽益壽)’의 줄임말로 보기도 한다(김태식, 2003). 나아가 은합의 연간지를 뚜껑 안쪽과 합 의 밑바닥에 나누어 표기한 것은 은합의 제작 주체인 태왕의 장수를 염원했던 도교적 산물일 것으로 이해하였다(장창은, 2015).

고구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물은 경주 호우총에서도 출토되었다. 1946년 국립박물관에서는 경주 노서동에 있는 고분을 발굴조사하였는데, 남북으로 잇대어진 고분의 남쪽 고분에서 명문이 새겨진 호우(壺杆)가 출토되었다. 발견된 호우에 새겨진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 십(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이라는 명문에 따라 이 호우가 장수왕 3년(415년)인 을묘년에 고구려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는 데 큰 이견이 없다. 다만 호우총에 공반된 유물의 형식이 6세



그림7 | 호우총 청동합

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후기 적석목
곽분 출토유물과 평행하거나 늦은
형식을 지니고 있어 호우의 전세기
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박광열, 1999).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고구려에 붙모로 갔다가 돌
아온 복호나 그의 권속이 호우를
전했으며, 복호의 직계나 자손이

배장분인 호우총에 묻힐 때 호우를 같이 부장했거나(김용성, 2006), 광
개토왕 안장 1년 기념제사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것을 사절로 참석
했던 신라 사신이 경주에 가져왔다고 이해하기도 한다(고광의, 2004).
그 밖에 호우총의 호우, 서봉총의 은합, 고구려 태왕릉의 ‘호태왕’명 동
령(銅鈴)에서 모두 ‘태왕’과 명문 마지막에 숫자가 기재된 것에 주목하
여 호우를 고구려에서 신라로 전해진 도량형 기물로 보기도 한다(조우
연, 2017).

마구와 관련해서도 고구려 영향이 보인다. 경주 황남동109호분
3·4곽, 황남대총에서는 몽고발형주, 패갑, 환두대도, 등자 등 갑주와
마구가 부장된 채 발견되었는데, 이를 고구려계 문물로 보면서 경자년
호태왕군의 남정이 유입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최종규, 1983). 한편, 경
주 황남동109호분 3·4곽에서 갑주와 마구들이 완비되었으나 경주 주
변지역에서 이에 선행하는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신라 사회에서 갑주
와 마구 확산의 직접적 계기를 400년 고구려군의 남정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강현숙, 2008).

또한 신라 적석목곽분 출토 금속제장신구 가운데에는 고구려의 영



그림8 | 황남대총 출토 은제비갑과 은관

향을 받은 것이 많다. 특히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은관과 금동관 1점은 형태상 차이가 있지만 깃털모양 장식과 중간의 다각형 장식이 집안의 고구려 관식과 비교된다. 또 황남대총 북분 출토 태환이식은 굽은 고리 아래 조롱박 모양으로 생긴 수하식을 매달았는데 고구려 이식과 매우 유사하며, 금동식리는 신라 금동식리와 달리 바닥에 못이 없어 외부 이입품의 후보지로 고구려를 지목하기도 한다(이한상, 2010).

4) 신라 왕경의 조영과 고구려척

한국의 고대문헌에서는 고구려척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에서 9세기에 편찬된 『영집해(令集解)』에 고구려척의 존재를 알려주는 기사가 있다. 『영집해』 권12 진령(田令)에는 “고려 5척(高麗五尺)”이란 표현이 보이는데, 일본에서는 고구려에서 전래한 척도를 고려척(高麗尺)이라 불렀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고려 5척이 대척(大尺) 6척에 상당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대척은 당대척(唐大尺)을 가리

키며 30cm 내외의 길이였다. 현재의 길이로 환산하면 고려척은 당척의 1.2배에 해당한다. 이 고려척에 대해서 18세기에 이미 일본에서 『수서(隋書)』 율령지에 기록된 동위척의 길이가 『영집해』에 기록된 고구려척과 비슷한 길이임에 주목하여 고구려에서 동위척을 사용하였고, 이것이 일본에 전래하였다고 보았다(狩谷掖齋 著, 富谷至 校注, 1978). 이러한 견해는 그 후 깊은 영향을 끼쳐서 평양성 외성의 도시유적이 35.6cm의 동위척을 이용하여 조영되었다고 하였고, 이것이 일본의 호류사(法隆寺) 건축에도 이용된 것으로 보았다(關野貞, 1941). 또한 신라의 황룡사에도 동위척이 사용되었다고 보았다(藤島亥治郎, 1969).

하지만 『수서』 율령지의 동위척은 ‘진전척(晉前尺: 23.1cm)의 1.5008척’이라는 기록은 오기(誤記)이며 『송사(宋史)』 율령지에서 ‘진전척 1.3008척’으로 기록된 것이 정확하므로, 계산하면 동위척은 30cm 내외가 된다고 한다(馬衡, 1932; 曾武秀, 1990). 즉 35.6cm에 해당하는 척도는 동위척이 아닌 고구려척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안학궁, 정릉사, 금강사, 강서대묘, 평양성 외성을 재검토한 결과 각 건물 및 평면도에서 35cm 내외의 고구려척을 사용했다고 보았다(박찬홍, 1995). 신라에서도 고구려척을 이용한 모습이 보이는데, 통계적 접근을 이용하여 황룡사의 금당과 목탑의 영조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척보다 35cm 내외의 고구려척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이해한다(권학수, 1999). 또한 황룡사의 창건과 중건 시에 모두 고구려척을 이용했다고 보기도 한다(유태용, 2005).

한편, 평양성 외성에 고구려척을 이용한 사례를 참조한다면 황룡사를 위시한 신라 왕경의 조영 과정에도 고구려척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고 보는 견해에서는 당의 영향을 받기 이전인 7세기 전반 이전에 황룡사와 분황사 일대를 중심으로 일차적 가로구획이 이루어졌는데, 고구려와의 지리적·정치적 관계를 고려하거나 대로·중로·소로라는 도로체계의 유사성 및 가로구획 측량 기준으로 고구려척을 사용한 점을 염두에 둘 때 고구려 장안성과의 관련성이 고려된다고 한다(김희선, 2010). 다만, 당대척의 1.2배인 고구려척은 일본 고대자료에 의하면 7~8세기 초 양전을 위한 척으로 사용되었고, 이성산성에서 발견된 소위 ‘고구려척(35.6cm)’은 촌과 분이 표시된 부분이 23.7cm의 한척(漢尺)이므로, 이를 1.5배 한 고구려척은 어떠한 특수 목적으로 제작한 척도이거나 양전용 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윤선태, 2002; 이우태, 2007; 이종봉, 2016). 그리고 성덕왕 21년(722년)에 축조된 경주 관문성 석각에 의하면 8세기 초반 당시 신라의 1척은 29.4cm이므로(박방룡, 1982), 그 이전 시기 신라에서 35.6cm의 고구려척을 사용했다면 언제까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가야와의 문물교류

4세기 초 중국에서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시대가 전개되면서 대립과 융합의 혼란이 연쇄되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고구려는 낙랑·대방군을 멸망시키면서 점차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진입하였다. 낙랑·대방군의 멸망은 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역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특히 한반도 서북부지역에서 일본열도로 이르는 교역로가 침체하였다.

이에 기존의 교역로를 대신하여 한반도 북부에서 경주 지역으로, 그리고 경주 지역에서 낙동강 하구로 연결되는 교역로가 활성화되었다(이현해, 2001).

낙랑과의 원거리무역을 통해 발전해나갔던 김해의 금관가야(구야국)의 영도력은 당면상황에 크게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4세기 이후 낙랑 계통의 위세품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낙랑·대방군 소멸 이후 가야 여러 세력이 중국 및 북방 문물을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성동고분군에서 로만글라스, 중국 동북계 마구와 청동용기 등이 출토되어(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가 기존의 교역로를 이용하여 전연(前燕)과 교섭하는 등 중국 및 북방 세력과 교섭하였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김일규, 2016; 심재용, 2016; 조성원, 2017; 백진재, 2019).

한편, 고구려가 전연과의 전쟁으로 주춤한 사이에 백제는 근초고왕 즉위 이후 대외적인 팽창을 전개하였고 그에 따라 옛 대방군 지역을 차지하였다. 백제는 낙랑을 대신하여 교역창구 기능을 맡게 되었고, 가야와 왜로 연결되는 교역로를 개척하였다. 백제가 대외적 팽창을 이루던 때에 고구려의 소수림왕은 대내적인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백제를 견제하는 방편에서 신라와 우호관계를 맺었다. 고구려와 신라의 밀접한 관계는 377년, 381년 전진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동행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여러 고구려계의 유물은 양국의 문화적 교류를 추정하게 한다(신가영, 2020). 그에 따라 가야 지역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및 중국의 문물도 고구려와 신라의 교류를 매개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이영식, 2006).

고구려와 가야의 직접적인 교류 흔적은 많지 않지만, 가야 지역에서 지속해서 고구려계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5세기 이후 고구려의 남진(南進)과 고구려·백제·신라의 역학관계는 가야 세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에 따라 고구려와 가야는 일시적으로 교류 또는 대립한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고구려가 가야 사회에 제한적으로나마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신가영, 2020). 따라서 문헌자료와 물질자료를 통해 고구려와 가야의 교류 형태와 내용을 파악해 보자.

1) 금석문과 문헌상의 교류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391년 즉위하면서 한반도의 정세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광개토왕은 즉위 직후 백제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수십 개의 성을 빼앗았다. 한반도 내에서의 패권이 백제에서 고구려로 이동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가야 제국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고구려와 가야의 접촉은 <광개토왕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문에 따르면, 399년 백제와 왜가 화통하자 신라는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구원 요청을 하였고, 이에 400년 고구려는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의 군사가 임나가라 종발성까지 이르렀고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을 두었다고 한다.

이 안라인수병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안라국(安羅國)과 연결지어 왜와의 관련성에 주목하기도 한다(那珂通世, 1958; 末松保和, 1961). 반면, 해당 서술이 적대세력에 대한 비문의 일반적인 서술과 달라 고구려의 원군으로 이해한 견해도 있다(山尾幸久, 1989). 또 ‘안

(安)’을 서술어로 파악하고 ‘신라인을 안치하여 수병하게 하였다’로 해석하기도 하는데(王健群, 1984), 비문에서는 신라인을 ‘라인(羅人)’으로 약칭한 사례가 없고 신라와 임나가라가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서법상 알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武田幸男, 1989). 그 외에 ‘라병(羅兵)’으로 해석하거나(高寬敏, 1990), 고유명사로 이해하는(이영식, 2006)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통설적으로 ‘안라’를 지명 또는 국명으로 이해함에 따라 고구려와 안라가 적대관계였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그러나 ‘안라’가 고구려와 연합하여 왜군을 물리쳤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山尾幸久, 1989; 유우창, 2005). 또 임나가라에 대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이 고구려에 귀순하여 항복하였다는 기록에 따라 고구려와 가야가 우호관계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이해하거나(白承忠, 1995; 유우창, 2013), 수병을 둔 것을 바탕으로 그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없다고 한 견해도 있다(신가영, 2020).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임나가라를 김해와 고령 중 어느 지역으로 파악하느냐와 안라인수병에 대한 해석에 따라 나뉜다. 그러나 왜가 임나가라로 패주하였고 금관가야와 왜의 연계를 고려하였을 때 임나가라는 대체로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김태석, 1994; 이용현, 2013).

이후 고구려와 가야의 관계에 대한 기록은 5세기 후반 전쟁상황과 관련하여 확인된다.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킨 고구려는 금강 유역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고구려와 가야의 지리적 거리는 이전보다 더욱 가까워졌고, 고구려의 팽창에 위기감을 느낀 백제는 신라와 연합하였다. 고구려의 남정 이후 가야 제국의 중심이 된 대가야 역시 이러한 군사 협력관계에 참여하였다(이문기, 1995; 양기석 2007).

『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3년 기록에 의하면 가야가 백제,

신라와 함께 고구려의 침입을 막은 사실이 있다. 이때의 가야는 대가야로 추정된다(노중국, 1995). 고령 지역에 위치하였던 대가야는 백제와 육로를 통해 쉽게 교류할 수 있었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김규운, 2011). 이에 앞서 대가야는 479년에 남제와 교섭하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백제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이용현, 2001; 양기석, 2007). 고구려가 진군했던 미질부(彌秩夫)는 포항시 흥해읍 일대로 비정되는데, 고구려가 신라 왕경과 가까운 지역까지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적으로 백제보다 대가야가 가까웠으므로 대가야는 신속하게 군사를 신라로 보냈다(신가영, 2020).

이처럼 대가야는 백제,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의 침입을 막아내는 한편,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대가야가 고구려와 교섭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도 보인다. 『일본서기』 권15 현종(顯宗) 3년 기록은 대산성전투를 전하는 기록이다. 기생반숙네(紀生磐宿禰)는 백제계 목씨 세력이며, 계책을 제공한 임나의 나기타갑배(那奇他甲背)는 대산성전투의 핵심인물로 특정지역의 재지세력이라고 이해된다(신수진, 2016). 백제의 적막이해(適莫爾解)를 죽인 곳이 고구려의 이림(爾林)이었으므로, 임나 측에서 고구려와 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구려와는 교섭했지만 백제와는 대립관계에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대산성전투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후 고구려와 대가야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교섭은 일회성으로 끝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신가영 2020).

6세기 이후 백제와 신라가 가야 지역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임에 따라 가야는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통해 자주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안라는 고구려와 교섭을 시도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일본서기』에 보인다. 『일본서기』 권19 흠명(欽明) 9년 하(夏)4월 임술삭조와 권19

흥명 10년 하6월 을유삭조는 마진성(馬津城)전투와 관련된 것으로, 고구려가 548년 백제의 독산성(獨山城)을 공격한 것과 동일한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다(김태식, 2014; 신가영, 2020). 그 내용에 따르면 백제는 사로잡은 포로를 통해 안라가 고구려에 사신을 파견한 사실을 알게 된다. 즉, 고구려의 백제 공격에 안라가 개입한 것이다(남재우, 2003; 이영식, 2016). 안라가 고구려에 사신을 파견한 목적에 대해서는 백제의 압력을 완화하고 가야연맹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김태식, 2014), 이후 관련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 고구려에 사신을 보낸 연나사(延那斯), 마도(麻都)는 6세기 대외교섭에 참여한 인물들로, 이들이 신라와 우호관계에 있던 것으로 파악하여 안라가 ‘반백제’, ‘친신라’적인 대외교섭을 전개하였다고 추정하기도 한다(박윤선, 2010; 이영식, 2016; 신가영, 2020).

2) 고고·미술자료를 통해 본 교류

고구려와 가야가 일찍부터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물질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함안 말산리3호 목관묘와 함천 저포리D-40호분에서는 2조의 돌대를 가진 철부가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유물은 길림성의 유수 노하십 중층41호, 집안 산성하191호 적석묘와 연해주의 뿔채문화와 같이 1~2세기 부여와 고구려의 중심지에서 특징적으로 분포한다(이재현, 2005). 3세기 초로 비정되는 김해 대성동45호분에서 출토된 유건철부 역시 같은 특징을 보인다(신경철 외, 2000; 이영식, 2019). 그 외에도 여러 유적에서 고구려 및 북방 계통의 문물이 확인됨에 따라 일찍부터 가야 지역은 철을 북방으로 수출하고 반대급부로 철제문물을

수입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4세기 이전까지 고구려와 가야 지역은 낙랑·대방군을 통해 어느 정도 문물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세기 이후 고구려는 낙랑군·대방군을 멸망시키고 남정을 추진하면서 신흥 선진국으로 두각을 드러내게 되었고, 이는 가야의 교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해, 창원, 고성 등에서 확인된 3세기까지 선진문물 대부분이 한(漢) 계통이었다면, 부산 복천동고분군과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토되는 4세기 유물에서는 고구려 계통 문물이 출현한다.

특히 4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부산 복천동고분군의 경우 최고 계층의 분묘라 할 수 있는 73호분에서 갑주가 출토되었다. 복천동고분군의 갑주 보유층 확산 양상은 5세기 전반대로 이어져 소형 분묘에서도 갑주가 부장된 양상을 보인다. 또한 갑주와 함께 마갑과 마주 등 중장기 마전술과 관련된 무구도 출현한다. 이러한 변화는 갑주의 직접적인 도입이라기보다는 고구려 기병으로부터 받은 자극에 의한 변화로 이해된다. 즉, 고구려의 남정을 계기로 새로운 무장체계와 접한 가야는 새로운 갑주문화를 수용하였을 것이다(송계현, 2005).

5세기 중엽 함안 마갑총에서 출토된 마갑도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말갑옷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마갑은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획득했으며 위신재(威信材)로 부장되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이영식, 2019).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고구려와 가야 사이에서 교역을 통한 문물교류보다는 전쟁을 통한 문물의 노획 형태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갑주와 마구의 계통에 대해 대성동고분군의 유물을 부여 계통으로 보거나(신경철 외, 2000), 복천동고분군의 유물을 고구려 계통(송계현, 1999; 강현숙, 2003), 혹은 부여와 고구려 이전의 선비 계통(김

두철, 1998; 이상률, 1999)으로 보는 의견 등 다양하다. 그러나 갑주와 마구가 출토되는 4세기부터 6세기까지에 상응하는 형식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다수의 유물이 고구려 계통인 것으로 볼 수 있다(이영식, 2006).

가야의 무구류와 관련지어 김해 대동면 덕산리 출토로 전해지는 기마인형토기는 가야의 중장기마전사를 보여주는 특징적인 자료이다. 철갑으로 중무장한 말과 전사의 모습은 4세기 이래 김해 지역 중장기마전사의 모습으로 말의 몸에는 마갑(馬甲)을 둘렀고 말 등에는 전사가 앉아 있다. 전사의 머리에는 투구가 씌워있으며 목에는 목가리개를 두르고 몸에는 판갑옷을 걸쳤다. 양손에는 각각 쇄투집창과 방패를 들고 있다(김태식, 2002).

이처럼 토기로 형상화된 기마전사는 가야의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고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안악3호분(357년), 덕흥리벽화고분(408년) 및 약수리벽화고분에 나오는 행렬도이다. 안악3호분과 덕흥리고분벽화의 중장기병은 모두 묘주행렬도의 가장 바깥쪽에서 일렬로 행진하고 있고, 그 안에는 중장보병이 주인을 호위하고 있다. 반면, 약수리고분벽화에서는 행렬 대부분이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고, 묘주 뒤쪽으로 대형 중장기병대가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고구려의 중장기병이 호위병적인 성격에서 독립된 기마전사단으로 변화하게 된 시기를 5세기 초로 이해하고 있다(이난영·김두철, 1999). 이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며, 거의 같은 시기 신라와 가야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는 고구려와 가야 사이의 교류가 이전보다 빈번했음을 의미하며, 시기적으로는 고구려의 남정 이후가 된다. 고구려와 가야의 교

류는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신라를 매개로 하였거나 신라가 고구려의 권위를 빌리기 위해 증여했던 위세품으로 파악된다(이영식, 2006).

갑주 등의 무구류가 4세기대까지는 낙동강 하류지역에 한정되었다면, 5세기에 들어서는 가야 전역으로 확산하고 그 출토량도 급증한다. 이러한 변화는 고구려 교류의 중심이 가야 남부에서 북부로 바뀌게 된 상황을 보여준다. 5세기 전반의 합천 옥전23호분은 이전 단계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갑주, 마주, 마갑, 마구 등과 같은 중장기병 관련 유물이 부장되어 있는데, 이는 4세기 전반부터 갑주와 마구의 부장이 차례대로 진행되어 오던 김해 대성동고분군이나 부산 북천동고분군과 구별된다(이영식, 2006).

6세기 전반 고구려와 가야의 교류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11호분에서 출토된 금상감 환두대도 명문이 주목되기도 하였다. 이 고분군은 1911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에 의해 처음 알려졌으며, 1918~1919년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등에 의해 일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穴澤嘯光·馬目順一, 1975; 김수환, 2013). 그 외에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발굴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고 충분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1984년 국립진주박물관 개관 시 환두대도를 전시하기 위해 보존처리가 이루어졌고, 이에 X선 촬영을 한 결과 상감된 문자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국립진주박물관, 1984). 당시 대략 7자 정도의 글자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최초로 판독되었다. “乙亥年□扞率□”으로 판독함에 따라(田中俊明, 1987) 백제의 대도(大刀)로 이해하기도 하였다(김창호, 1989). 그러나 당시 촬영 각도 문제와 명문을 반대로 읽은 오류가 지적되어 이 판독안은 곧 철회되었다. 1990년에는 표면의 녹을 제거하

여 상감된 명문을 노출시키고 새롭게 X선을 촬영하여 “[上]音先人貴口刀”로 판독하였다(한영희·이상수, 1990). ‘상(上)’은 ‘하(下)’, ‘도(刀)’는 ‘내(乃)’일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으며(국립중앙박물관, 1991), ‘부(音)’는 ‘부(部)’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뒤의 ‘선인(先人)’을 고구려의 관등명으로 이해하고 고구려와 관련이 있는 유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한영희·이상수, 1990; 이문기, 1992; 이영식, 1993).

그에 따라 환두대도를 신라가 고구려에 대한 신속관계를 가야 진출의 기회로 삼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파악하기도 한다(이영식, 2006).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는 고구려에서 환두대도가 출토된 예가 없고, ‘상(上)’으로 판독하는 것과 ‘부(音)’를 ‘부(部)’의 약자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의문, 그리고 제작기법이나 출토유물의 빈도 등을 이유로 대도를 백제(최종규, 1992; 홍성화, 2013; 김낙중, 2014; 高田貫太, 2014; 이현태, 2018), 혹은 대가야(이한상, 2010; 김우대, 2011; 박천수, 2012; 김도영, 2014) 계통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최근에는 신라 계통일 가능성도 제기되어(홍승우, 2021) 이 환두대도를 바탕으로 고구려와 가야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1963년에 발견된 고령 고아리벽화고분에서는 가야 유일의 벽화가 발견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 고분은 축조 시기를 특정할 만한 유물이 적어 백제 웅진기 고분과의 형식 비교를 통해 6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홍보식, 2003).

고분 내 현실과 연도의 천장에는 연화문이 상당수 남아 있다. 탈락된 부분이 많지만 대체적인 윤곽은 파악할 수 있으며, 고구려 쌍영총 계통이면서 백제 송산리고분 벽화와 통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9 | 고령 고아리벽화고분 천장 벽화

(김원룡, 1964). 이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연화문을 검토하여 고구려와의 상호 문화교류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였다(진홍섭, 1978). 반면, 최근에는 백제의 횡혈식석실분 연화문과의 유사성이 지적되어 백제의 영향을 받아 가야의 방식으로 재창조되었다고 보거나(전호태, 2005), 가야 멸망 후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조원창, 2008), 백제 계통의 묘제와 벽화 전통을 수용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백제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문화전파의 연속선상으로 이해하는(정호

섭, 2014) 등 연화문 벽화의 계통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 당시 연화 문양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서 두루 쓰였으므로 기원과 계통이 한 지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양은경, 2017).

4세기 이후 가야 지역에서는 호미, 작살 등이 보이는데, 고구려에서 4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형태와 유사하다. 호미는 부산 북천동67호분, 함안 도항리22호분에서 보이고, 작살은 금관가야의 대성동2호분과 부산 북천동10호분에서 보인다. 이들은 모두 고구려에서 확인되는 것과 그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김재홍, 2011).

4. 왜와의 문물교류

고구려와 왜의 관계는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중국 정사 ‘25사(史)’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중 양국 관계가 처음 확인되는 사례는 『일본서기』 응신천황(應神天皇) 28년(297년) 9월조이다. 이에 따르면 고구려가 일본국에 견사조공(遣使朝貢)하고 표를 올렸는데, 태자가 그 표를 읽고 노하여 고구려 사신에게 표문의 무례함을 꾸짖었다고 한다. 이 구절은 대체로 간지(干支)를 2주갑 내려 417년(장수왕 5년)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삼국사기』 등 여러 자료와 비교하면 이 시기는 고구려와 백제가 항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성은 부정되고 있다(武田幸男, 1989). 또 『일본서기』 인덕천황(仁德天皇) 12년 7월 조에는 고구려가 철로 만든 방패와 과녁을 공납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거 고구려가 왜에 대해 준대한 태도로 임한 기

역을 반영한 설화로 보거나(이흥직, 1971), 『일본서기』 편찬자가 조작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池内宏, 1970).

고구려와 왜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일찍부터 <광개토왕비>가 가장 주목을 받아왔다. <광개토왕비>에는 왜와 관련한 기록이 다수 등장하는데, 특히 신묘년조와 관련하여 한·일 간 오랜 논쟁을 지속해 왔다. 이후 고구려와 왜의 접촉 기록은 보이지 않다가 6세기 후반에서야 왜와 본격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고구려와 왜가 통교한 배경에 대해서는 6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주목된다.

고구려의 문화가 왜로 전파된 것은 물질자료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고구려 승려나 사신의 파견을 통한 직접교류에서 파생된 물질문화에 고구려 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구려 승려 가운데 도왜하여 일본에서 활동하였던 인물도 적지 않다. 평원왕대 혜편(惠便)과 법명(法明), 영양왕대 일본에서 활약한 후 고구려로 다시 돌아와 입적한 혜자(惠慈), 영양왕대 활동했던 승룡(僧隆)·운충(雲聰)·담징(曇徵)·법정(法定), 7세기 중엽에 일본에서 행적이 보이는 대법사(大法師), 도현(道顯) 등이 있다. 또한 중국에서 유학하고 고구려로 돌아온 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한 삼론학 관련 승려인 혜관(慧灌)과 도등(道登)도 있다(정호섭, 2018). 이들의 활동을 통해 고구려와 왜의 교류 및 문화전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해방 이후 고구려를 비롯한 한국 고대국가의 왜로의 문화전파에 대한 연구가 한반도 고대국가들이 시혜적으로 행한 것이며,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의 표현이라는 기본 관점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한국-일본이라는 문화적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교류’를 일방적 문화전파로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차원에

서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문헌기록과 물질자료를 통해 고구려와 왜의 인적 교류 및 문물교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광개토왕비>의 고구려와 왜

5세기에 세워진 <광개토왕비>에는 왜(倭), 왜인(倭人), 왜적(倭賊), 왜구(倭寇)가 다수 등장하여 고구려와 왜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소위 ‘신묘년(辛卯年)’조라고 불리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왜가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여 신민(臣民)으로 삼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19세기 말 일본 관학자들은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속민으로 조공해왔는데,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제, □□, 신라를 격파하여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보고, 왜가 고구려의 속민이었던 백제와 신라를 정복하여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하였다(那可通世, 1893; 横井忠直, 1898). 이러한 견해는 훗날 ‘임나일본부설’로 이어지게 된다(末松保和, 1959). 이후 이 기사는 주어를 고구려로 봐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흔들리게 되었고(정인보, 1955), 심지어 일본군에 의한 비문조작설까지 제기되기에 이른다(이진희, 1972). 현재는 신묘년조에서 백제와 신라를 왜의 신민으로 설정한 것은 고구려가 예부터 속민에 대한 해방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명분이었다고 보거나(연민수, 1995), 영락 6년 기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王健群, 1984) 등으로 추측한다. 이렇게 신묘년조의 주체에 대해서는 고구려 혹은 왜로 보는 입장이 나누어진다. 현재는 <광개토왕비>가 세워질 당시 상황을 볼 때 고구려의 입장에서 과장하여 기사를 서술했다고 해석하는 쪽이 우세하다(조영광, 2015).

〈광개토왕비〉에 따르면, 영락 9년(399년) 왜는 백제와 화통(和通)하여 신라를 공격하였다. 이듬해에는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하여 왜병을 격파하였고, 영락 14년에는 왜군이 대방계(帶方界)를 공격했다고 나온다. 고구려는 강력하게 남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왜는 백제와 화통하는 존재로 나온다. 이는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하고, 따라서 왜를 적개심 넘치는 대상으로 기술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연민수, 2012). 한편 왜는 광개토왕의 교화가 미치는 관적(官的) 질서의 편제 대상으로서 고구려의 천하관에 속하는 존재로 인식했다고도 본다(이도학, 2012).

2) 570년대 고구려와 왜의 외교

6세기 후반에 고구려와 왜가 통교한 배경으로는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주목된다. 551년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상실하였고, 신라는 554년 관산성전투, 562년 대가야 병합 등 영역을 확장하였다. 진흥왕은 568년에 북쪽으로 진출하여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구려는 다소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신라는 중국의 남북조와도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했다. 북제와는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진으로는 사절을 보내면서 외교의 폭을 넓히고 있었다(井上直樹, 2008). 이러한 신라의 위협은 고구려가 570년 대 왜 외교를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津田左右吉, 1924; 이흥직, 1971; 李成市, 1990).

한편 이러한 신라가 행정구역을 재편하고 영토를 일부 후퇴하는 정황을 통해 신라군이 퇴각하고 있었고, 북제와 신라의 관계도 일시 진행

되었을 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한다. 또 당시 고구려는 장안성을 축조하면서 내부로 체계적인 방어를 구축하는 한편, 외부로는 활발한 대외관계를 통해 안정된 상황을 조성하려고 했을 것임으로, 고구려의 대외 외교도 그러한 방향의 일환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이성제, 2009).

고구려와 북조의 관계도 대외 외교와 관련된다. 고구려와 북제 관계는 553년 유민 송환 문제와 문선제(文宣帝)의 ‘지영주(至營州)’ 등 문제로 악화되어 갔다. 이때를 기점으로 고구려의 대북제 군사(遣使) 빈도가 줄어든다. 564년과 565년의 사신 파견 역시 백제·신라의 동향과 관련될 뿐 큰 의미는 없었다(井上直樹, 2008). 중국에서는 남북조시대가 점점 종식되어 갔으며, 결국 수(隋)가 통일을 이루게 된다. 이제 고구려는 6세기 무렵 급성장한 신라의 위협에 대비하는 동시에 중국 정세의 변화에도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왜도 가야의 멸망으로 한반도 일대의 관계망을 상실하여 새로운 정책 변화가 요구되었다(김선민, 2007).

570년대 이후부터 보이는 고구려와 왜의 관계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서기』 흠명천황(欽明天皇) 31년 4월조를 보면, 570년 월인(越人) 강정신거대(江滄臣裾代)가 경(京)에 이르러, 고구려 사절이 표류하여 월(越)의 해안에 도착했는데 군사(郡司)가 몰래 숨겨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천황이 안타깝게 생각하여 산성국(山城國) 상락군(相樂郡)에 객관(客館)을 세워 고구려 사절을 돌보게 하였다고 한다. 흠명천황 31년 5월조에는 왜 중앙에서 사자를 월 지역으로 보내 고구려 사절을 대접하였다. 고구려 대사(大使)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도군(道君)에게 물건을 돌려주라고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고구려의 대외 외교는 적극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즉, 고구려가 진(陳)과의 교류를 전제로 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부차적 접근이고, 말 그대로 표착·우발적이었다고 보는 것이다(新川登龜男, 1994). 진으로 파견된 사절의 표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김선민, 2007). 또 그 이전까지 고구려의 대외 외교는 민간 차원의 루트였으며, 공식적 통로는 전혀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이성제, 2009).

한편, 당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춘 고구려의 전략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平野卓治, 2004). 정황상 고구려가 새로운 대외전략 상대로 왜를 선택할 이유는 충분하였다(이성제, 2012). 아무튼 고구려가 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외교를 시도하고 있는 점은 특기된다.

왜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서기』의 칙(勅)에 ‘지덕위위(至德魏魏)’·‘인화방통(仁化傍通)’·‘홍은탕탕(洪恩蕩蕩)’ 등으로 표현하여 왕위(王威)를 드러내고 있다(이홍직, 1971). 이는 왜의 대백제·신라 외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식으로, 그만큼 왜가 고구려를 특별히 의식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선민, 2007). 군사가 고구려 사신을 은닉한 이유와 강정 신거대가 이를 천황에게 알린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될 고구려와 왜 교류의 출발을 암시하는 설화적 내용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이홍직, 1971).

양국 간의 정보 무지 상태, 고구려와 월 지역의 교류 양상 등을 통해 고구려 사절의 이동경로를 추정하기도 한다. 고대 한반도와 왜의 교통은 주로 한반도 남부를 거쳐 큐슈(九州)로 이동하였는데, 고구려가 백제·신라와 적대하여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없었다. 고구려 사절은 신라군의 방해를 벗어날 수 있고 거리도 짧은 동해 횡단코스를 선택하였다

(연민수, 2007; 井上直樹, 2008; 이성제, 2012).

흫명천황 31년 7월 임자삭조를 보면, 왜는 고구려 사절을 극진히 대접하고 산성국 상락관(相樂館)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즉 고구려 사절이 1개월 이상 걸려 근강(近江)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연회를 베풀 배정에 대해서는 고구려에 대한 왜의 경계심으로 보는 동시에, 빈례(賓禮)가 성립하기 이전 왜의 객관 영접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平野卓治, 1988). 본래 의례대로라면 고구려 사절을 상락관에 안치한 뒤 입경(入京)과 국서의 전달 과정이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다(이성제, 2012). 조물(調物) 검사와 국서(國書) 수령은 고구려 사신이 직접 천황을 만나지 않고 행해지고 있었다(김선민, 2007). 그런데 왜국 내에서 흫명천황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민달천황(敏達天皇)이 즉위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고구려 사절은 상락관에 국서도 아직 전달하지 못한 채 머무르고 있었다. 민달천황 원년 5월 임인삭조와 병진조를 보면, 천황이 고구려 사인(使人)의 행방을 묻고 비로소 고구려의 표소(表疏)가 전해지게 된다. 이때 고구려의 국서를 아무도 읽을 수 없었는데 왕진이(王辰爾)만이 읽어 내어 천황의 칭찬을 받는다. 고구려의 국서는 까마귀 깃털로 작성되었고, 왕진이가 그 깃털을 밥의 증기로 찢 다음 비단으로 눌러 숨어 있는 글자를 모두 밝혀내었다. 왜 조정이 고구려 사절이 도착하고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국서를 접수하는 태도는 그만큼 왜가 고구려 국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당시 고구려왕인 평원왕의 의중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한편, 왜는 571년 신라에 사자를 파견하였는데, 이때의 사자 파견을 고구려와의 관계로 연결지어 보기도 한다(김은숙, 1994). 왜가 고구려 사절의 방문을 빌미로 신라에 압박을 가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는

신라가 왜에 사절을 보낸 점과 아울러 이해하면 고구려-왜-신라 간의 급격한 외교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이성제, 2009).

민달천황 2년 5월 병진삭 무진조를 보면, 고구려 사절이 다시 ‘월해치안(越海之岸)’에 도착하였다. 이번에도 풍랑으로 피해를 보고 익사자도 많았다고 한다. 왜는 번번이 길을 잃는 점을 의심하면서 이번에는 이들을 받지 않고 방환(放還)시키는 조치를 내린다. 이는 10달 전 ‘사처(賜妻)’ 조치에 대비하면 매우 다른 대응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 배경으로 이번 사절이 조물과 국서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송사(送使)격으로 고구려로 향한 왜 사신이 고구려인 2명을 바다에 던져 넣고 단독으로 귀환한 배경도 선진문물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렸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이영식, 2006).

민달천황 3년 5월 경신삭 갑자조를 보면, 고구려 사절이 다시 ‘월해치안’에 도착한다. 제3차 외교사절이다. 이들은 송사의 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그 이유를 듣기 위해 왔다고 하였다. 이에 왜에서는 그 진상을 조사하고 난파(難波)의 송사를 처벌하였다. 이 내용은 고구려 사절의 귀국 사정에서 발생한 불상사의 연속을 보여준다. 기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나, 이러한 사건의 연속은 양국 간의 알력을 암시한다. 왜의 신하들 사이에 고구려와의 통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김선민, 2007).

3) 고구려승의 도왜활동

『일본서기』 추고천황(推古天皇) 3년 5월조에 보이는 승려 혜자의 도왜 기사에 따르면, 혜자는 왜에 도착해서 황태자(厩戸皇子)의 스승이 되

었다고 한다. 이 갑작스러운 도왜의 배경으로 고구려 왕권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지적된다. 즉 당시 등장한 수·당과의 관계나 신라와의 전투 상황을 살펴면서, 고구려가 벌인 대왜 외교의 상징으로 추측한다(坂元義種, 1979; 李成市, 1990; 이성제, 2009). 이는 북제 등 중국 왕조와의 관계 설정과도 연결된다. 570년대 고구려가 북제와의 관계 악화를 바탕으로 외교적 고립을 타파할 목적으로 왜에 사신을 보낸 상황과 비슷한 것이다(山尾幸久, 1989).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 왜 역시 601년 고구려와 백제로 동시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를 통해 고구려-백제-왜를 잇는 연합전선의 구축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연민수, 2007). 왜의 경계심을 품지 않게 할 목적으로 승려를 보냈다는 의견도 있다. 왜는 588년에 아스카사를 건립하고 백제에서 승려 혜충·영근(令斤) 등을 받아들였다. 고구려는 왜의 이러한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고 자국계 승려를 통해 왜국 내에서 고구려의 입지를 높이려고 한 것이다. 그 속에서 혜자의 역할을 중요시하게 보는 것이다(井上直樹, 2011).

추고천황 시기 성덕태자(聖德太子)가 추진했던 대수(對隋) 외교에 고구려승 혜자의 영향력을 추정하기도 한다. 『수서』 왜국전에 보이는 607년 견수사(遣隋使)가 가져간 왜의 국서에는 “해 뜨는 곳(日出處)의 천자(天子)가 서(書)를 보내는데, 해 지는 곳(日沒處)의 천자는 별 탈 없으신가”라고 묻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에 수 양제는 매우 불쾌해하고 오랑캐의 글을 다시는 올리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백제·신라와 달리 고구려는 자국의 건국신화, 천하관 등이 확립되어 있었고, 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자존의식이 강고하였다. 이러한 정신체계를 성덕태자의 스승 혜자가 전수하였고, 그 결과가 견수사의 국서에 반영되었다

고 보는 것이다(山尾幸久, 1967; 坂元義種, 1979; 李成市, 1990).

혜자 이후로는 『일본서기』 추고천황 10년 윤10월조에 나오는 602년 승룡·운충의 파견과 추고천황 13년 4월조에 나오는 605년 왜의 불교 사원 조영에 관련한 고구려왕의 황금 전달 사례가 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요서를 공격하자, 수 문제가 고구려에 원정군을 파견하고 고구려왕의 관직을 삭탈하는 등 첨예한 대립상황을 들고 있다. 고구려의 위기상황과 수와의 관계 악화를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坂元義種, 1979). 다른 배경으로 백제를 들기도 한다. 『삼국사기』 등에 보이는 고구려와 백제의 교전 기사를 살피고, 고구려가 백제 견제를 목표로 왜에 접근했다는 것이다(김현구, 1985).

『수서』 백제전에 607년 무렵 고구려와 백제가 내통하고 있었다는 자료에 주목하여, 당시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찍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고(津田左右吉, 1964),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왜에 파견된 수사(隋使) 배세청(裴世淸)의 활동에서 찾기도 한다. 즉, 왜에서 활동 중인 고구려승 혜자와 백제승 혜충 등의 활동을 보고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맺은 것으로 잘못 인식했다는 것이다(井上直樹, 2011).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 8년조 등을 보면 이 무렵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고 있고, 고구려 승려는 계속해서 왜로 건너갔다. 610년에 해당하는 『일본서기』 추고천황 18년 3월조에 보이는 담징과 법정(法庭)의 도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특히 담징은 610년 백제를 거쳐 일본에 건너가 채색과 종이·먹·연자방아 등의 제작방법을 전하였다고 한다. 담징과 법정 파견 이후 고구려는 수와 전면전을 하게 된다. 615년의 상황에서 『일본서기』 추고천황 23년 11월조에 혜자가 고구려로 귀국했다고 전하고

있다.

당이 건국된 618년 고구려는 왜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때 고구려는 수의 원정군에 승리한 사실을 알리고, 수군(隋軍)의 포로 및 그때 포획한 고취(鼓吹)와 노(弩) 등을 헌상하였다. 그 배경에는 친수(親隋) 태세를 취하고 있던 왜에 수의 멸망을 알리면서 고구려와의 화친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거나(坂本太郎·家永三郎·井上光貞·大野晉 校注, 1967), 한반도 정세상 고구려의 위상을 각인시키려 했다는 견해(井上直樹, 2011) 등이 있다.

잠시 보이지 않던 고구려의 대외 외교는 625년에 재개되는데, 『일본서기』 추고천황 33년 정월조에 승려 혜관이 파견되었다. 혜관의 파견에 대해서는 신라에 대한 견제로 이해하지만 당시 고구려는 대당 외교에 집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왜 외교는 저조하였다. 630년에 해당 하는 『일본서기』 흠명천황 2년 3월조에는 고구려가 다시 왜에 사신을 보내는데, 이때는 승려가 아닌 관리를 파견하였다. 이는 백제와 대립하던 신라가 629년부터 고구려를 침략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해하고 있다(井上直樹, 2011).

4) 고고·미술자료를 통해 본 교류

1972년 일본 나라현 아스카에서는 다카마쓰고분(高松塚)벽화가 발견되었고, 1983년에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기토라고분(キトラ古墳)에서도 벽화가 발견되었다. 이 고분들은 7세기 말~8세기 초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706~719년으로 한정 짓기도 한다(有賀祥隆, 2006).

다카마쓰고분벽화에 그려진 치마 양식을 고구려 수산리고분의 벽화

와 비교하지만, 수산리고분벽화가 비교적 이른 시기인 5세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연대 차이가 크다. 따라서 다카마쓰고분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형식상 고구려 고분과의 관련성은 없으며 벽화 또한 중국식과 고구려식이 혼합된 복합적 양식으로 보았다(奈良縣教育委員會·明日香村, 1972). 아울러 고구려 멸망 뒤 고구려계 도래인인 황서조본실인(黃書造本實人)의 관여 가능성을 언급하거나(井上薰, 1972), ‘고려화사’ 자마려(子麻呂)와 가서일(加西溢) 등 고구려계 화가들이 참여하였고 이들의 기법이 벽화에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永島暉臣愼, 2005).

두 고분의 사신도(四神圖) 양식을 통해 고구려 벽화와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즉 수·당의 사신은 청룡과 백호로만 한정되고 점점 크기가 거대화하는 데 반해, 고구려와 이 두 고분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和田萃, 1999).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과서 등에서 다카마쓰고분의 여인인물상을 수산리고분의 여인인물상과 비교하여 복식의 유사성을 통해 고구려 영향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소 잘못된 이해로 보인다. 다카마쓰고분의 여인상은 당(唐)풍 여인상의 전형적 모습이다.

아스카사는 발굴조사에 따르면, 남대문에서 중문으로 들어가고 그 북쪽에는 기단 위에 탑이 있으며, 탑을 중심으로 세 방향에 중금당·동금당·서금당이 있다. 동·서 금당은 기단 위에 초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폭이 좁은 소초석(小礎石)을 사용한 구조를 가진다고 한다. 이처럼 각 금당이 탑을 둘러싸고, 다시 회랑이 금당을 둘러싸고 있다. 이 양식은 고구려의 금강사로 추정되는 청암리폐사(靑巖里廢寺)와 유사하다고 보았다(奈良文化財研究所 編, 1958). 『일본서기』 추고천황조에는 백제로부터 사리가 들어오고 승(僧)·사공(寺工)·노반박사(鑪盤博士)·

와박사(瓦博士)·화공(畫工) 등이 도래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추고천황 4년에 도왜한 고구려승 혜자는 백제승 혜총과 함께 아스카사에 주석하였다. 아스카사가 백제의 기술로 건립되었을 수도 있지만, 고구려 가람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奈良文化財研究所 編, 1958; 淺野清, 1958; 齊藤忠, 1976).

호류사 금당벽화를 담징이 그렸다는 기록은 1852년 이 절을 방문하고 벽화를 본 소감을 남긴 고경당(古經堂) 양제철정(養鵜徹定, 1814~1891)에 의해서이다. 일본 학계에서는 한 사람의 수법이 아닐 뿐 아니라 요철법·채색법·인물묘사법 등이 서역화풍에 토대를 두고 당풍으로 변형된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여 담징의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7세기 후반 하쿠호시대(白鳳時代)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징이 금당벽화를 그렸다는 것은 메이지시대(明治時代) 이후의 속전(俗傳)으로 현존 호류사 금당벽화를 담징 개인의 직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이홍직, 1957). 또한 호류사가 670년에 불탔기 때문에 610년에 건너간 담징이 그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안휘준, 1989). 그러나 담징이 금당벽화를 그렸다는 인식은 오세창(오세창, 1928), 문일평, 에카르트(Andreas Eckardt)를 거쳐 이병도로 이어져 왔다(이병도, 1948). 고대 한·일 교류는 문헌기록이나 여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므로 전승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강인구, 1977, 『백제고분연구』, 일지사.
- 국립부여박물관, 1997, 『국립부여박물관』, 삼화출판사.
- 국립부여박물관·부여군, 2008, 『陵寺: 扶餘 陵山里寺址發掘調査 進展報告書』.
- 국립중앙박물관, 1991, 『特別展伽耶: 神秘的古代王國』.
- 國立晉州博物館, 1984, 『圖錄 國立晉州博物館』.
- 김리나, 2003, 『한국고대불교조각비교연구』, 문예.
- 김병모, 1998,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 김원룡, 1968, 『韓國美術史』, 汎文社.
- , 1986,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 김재홍, 2011, 『한국 고대 농업기술사 연구-철제 농구의 고고학』, 고고.
- 김태식, 2014, 『사국시대의 사국관계사 연구』, 서경문화사.
- 김현구 등, 2003,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연구Ⅱ』, 일지사.
- 김희선, 2010, 『동아시아 도성제와 고구려 장안성』, 지식산업사.
- 남재우, 2003, 『安羅國史』, 혜안.
- 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金海 大成洞古墳群: 85호분~91호분』.
- 송기호, 2006, 『한국고대의 온돌-북옥저, 고구려, 발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신경철 외, 2000, 『金海大成洞古墳群 I』, 경성대학교박물관.
- 오세창, 1928, 『槿域書畫徵』, 경성구락부.
- 이난영, 1992, 『한국고대금속공예연구』, 일지사.
- 이난영·김두철, 1999, 『韓國의 馬具』,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이남석, 2016, 『유적과 유물로 본 웅진시대의 백제』, 서경문화사.
- 이도학, 1995, 『백제 고대국가 연구』, 일지사.

- 이문기,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2권(신라1·가야 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이병도, 1948, 『새국사교본』, 同志社.
- 이영식, 2016, 『가야제국사연구』, 생각과종이.
- 이현태, 2018, 『가야문화권의 문자자료』, 디자인공방.
- 이흥직, 1971, 『韓國古代史研究』, 新丘文化社.
- 진호태, 2005, 『가야의 불교와 고분벽화』, 울산대학교출판부.
- 정선여, 2007, 『고구려 불교사 연구』, 서경문화사.
- 조경철, 2015, 『백제 불교사 연구』, 지식산업사.
- 진홍섭, 1978, 「高句麗가 百濟·新羅에 끼친 繪畫上의 영향」, 『彩研』3.
- 최병현,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 홍보식, 2003, 『신라 후기 고분문화 연구』, 춘추각.
- 강인구, 1991, 「初期 百濟古墳의 檢討-建國과 관련하여」, 『백제연구』22
- , 2002, 「백제왕릉 피장자 추정」, 『삼국시대연구』2.
- 강현숙, 2003, 「考古學에서 본 4·5세기 高句麗와 伽耶의 成長」(제9회 가야사학술 회의).
- , 2003, 「高句麗 壁畫墳과 新羅 榮州地域 壁畫墳 比較 考察」, 『白山學報』67.
- , 2005, 「서울 지역의 적석총에 대하여」, 『鄉土서울』66.
- , 2007, 「고구려와의 문물교류」, 『백제의 문물교류』(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10),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 2008, 「古墳 出土 甲冑와 馬具로 본 4, 5세기의 新羅, 伽倻와 高句麗」, 『신라문화』32.
- , 2012, 「高句麗 古墳과 新羅 積石木槨墳 交叉編年에서의 몇 가지 論議」, 『韓國上古史學報』78.
- , 2016, 「석촌동고분군과 중국 길림성 집안 고구려 왕릉」, 『근초고왕과 석촌동고분군』.
- 고광의, 2004, 「書體를 통해서 본 高句麗 正體性-廣開土太王碑體의 형성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18.

- 권학수, 1999, 「黃龍寺 建物址의 營造尺 분석」, 『韓國上古史學報』 31.
- 김기태, 2012, 「漢城百濟의 對外交流와 佛敎」, 『백제연구』 55.
- 김규운, 2011, 「5世紀 漢城期 百濟와 加耶 關係」, 『중앙고고연구』 9.
- 김길식, 2008, 「百濟 始祖 仇台廟와 陵山里寺址」, 『韓國考古學報』 69.
- 김낙중, 2014, 「가야계 환두대도와 백제」, 『百濟文化』 50.
- 김도영, 2014, 「三國時代 龍鳳文環頭大刀의 系譜와 技術 傳播」, 『中央考古研究』 14.
- 김두철, 1998, 「전기가야의 마구」, 『加耶史論集』 1.
- 김복순, 2004, 「삼국의 불교와 사상교류」, 『신라문화』 24.
- , 2010, 「신라의 백고좌법회」, 『新羅文化』 36.
- 김선민, 2007, 「六세기 후반 倭의 高句麗 인식」, 『동아시아 속에서의 高句麗와 倭』.
- 김수진, 2020, 「6세기 신라의 영역 확장과 이주자」, 『한국학연구』 55.
- 김수환, 2013, 「일제강점기 창녕·양산지역의 고적조사-고적조사 5개년기의 고분 발굴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영남지역에서의 고적조사』, 학연문화사.
- 김승욱, 2000, 「漢城百濟의 形成過程과 對外關係」, 『百濟史上的 戰爭』,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김영태, 1997, 「高句麗 因現義佛像의 鑄成時期-延嘉·延壽의 長壽王 年號 可能性 試考」, 『佛敎學報』 34.
- 김용민, 1998, 「泗泚時代 百濟土器 研究-扶蘇山城出土品을 中心으로」, 『文化財』 31.
- , 2002, 「백제 煙家에 대하여」, 『文化財』 35.
- 김용성, 2006, 「호우총의 구조 복원과 피장자 검토」, 『선사와 고대』 24.
- 김우대, 2011, 「制作技法을 中心으로 본 百濟·加耶의 裝飾大刀」, 『嶺南考古學』 59.
- 김원룡, 1964, 「高靈 古衙洞 壁畫古墳 略報」, 『美術史學研究』 44.
- 김은숙, 1988, 「서문씨의 귀화 전승」, 『역사학보』 118.
- , 1994, 「6世紀 後半 新羅와 倭國의 國交成立過程」,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14.
- 김일규, 2016, 「금관가야와 중국의 교류」, 『금관가야 고분의 축조세력과 대외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김재홍, 2019, 「함안 성산산성과 출토 목간의 연대」, 『목간과 문자』 22.
- 김종만, 2000, 「扶餘 陵山里寺址에 대한 小考」, 『新羅文化』 17·18.
- , 2007, 「百濟土器의 新研究」, 서경문화사.
- 김창호, 1989, 「伽耶지역에서 발견된 金石文 자료」, 『鄉土史研究』 1.
- , 1991, 「古新羅 瑞鳳塚 출토 銀盒 銘文의 검토」, 『歷史教育論集』 16.
- 김태식, 2002, 「廣開土王代 高句麗와 伽耶의 관계」,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3.
- , 2003, 「신선의 왕국, 도교의 사회 신라-적석목곽분과 그 시대를 중심으로」, 『문화재』 36.
- 김화영, 1967, 「三國時代 蓮花文 研究」, 『歷史學報』 34.
- 남무희, 2001, 「高句麗後期佛教思想 研究」, 『國史館論叢』 95.
- 노용필, 1989, 「普德의 思想과 活動」, 『한국상고사학보』 2.
- 노중국, 1995, 「大伽耶의 政治·社會構造」, 『伽耶史研究-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춘추각.
- 동북아역사재단, 2010, 『고대 환동해 교류사 1부』, 동북아역사재단.
- 류기정, 2003, 「泗泚期 구들시설 建物址에 대한 一考」, 『國立公州博物館紀要』 3.
- 문무왕, 2019, 「삼국시대 승관제 성립을 통해 본 국가불교」, 『신라문화』 54.
- 박광렬, 1999, 「新羅 瑞鳳塚과 壺杆塚의 絶對年代考」, 『韓國考古學報』 41.
- 박남수, 2013, 「신라 중고기 초의 僧政과 寺主」, 『신라문화』 42.
- 박방룡, 1982, 「新羅關門城의 銘文石考察」, 『美術資料』 31.
- 박선희, 2006, 「銀盒杆 명문의 연대 재검토에 따른 서봉총 금관의 주체 해명」, 『白山學報』 74.
- 박순발, 1998, 「백제 국가의 형성연구」, 서울대학교 博士學位論文.
- , 2005, 「고구려와 백제」, 『고구려와 동아시아』(고려대학교박물관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박영민, 2002, 「백제 사비기유적 출토 고구려계 토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2연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박용진, 1983, 「百濟瓦當의 類型研究-수막새기와를 중심으로」, 『百濟瓦塼圖錄』,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박윤선, 2010, 「6세기 중반 고구려와 신라의 통호와 이나사·마도」, 『역사와 현실』 77.

- 박진욱, 1964, 「신라 무덤의 편년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4-4.
- 박찬홍, 1995, 「高句麗尺에 대한 研究」, 『史叢』 44.
- 박천수, 2012, 「東京國立博物館 所藏 傳 加耶地域 出土 銘文環頭大刀가 提起하는 諸問題」, 『백제와 주변세계』, 진인진.
- 백승충, 1995, 「加耶의 地域聯盟史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백진재, 2019, 「4~5세기 전후 가야와 주변정세-가야제국의 대외교섭과 광개토왕 남정을 중심으로」, 『가야 기마인물형토기를 해부하다』, 주류성.
- 山本孝文, 2005, 「百濟 泗泚時期 土器樣式의 成立과 全開」, 『百濟 泗泚時期 文化의 再照明』, 춘추각.
- 서보경, 2016, 「同祖 계보의 변화를 통해 본 王人, 王辰爾系 씨족」, 『한일관계사연구』 53.
- 손영중, 1966, 「금석문에 보이는 삼국 시기의 몇 개 연호에 대하여」, 『역사과학』 1966-4.
- 송계현, 1999, 「우리나라 甲冑의 變化」, 『고대전사-고대 전사와 무기』, 부산북천 박물관.
- , 2005, 「고구려의 신라 구원과 가야와 왜의 무기체계 변화」, 『高句麗研究』 21.
- 신가영, 2020, 「가야 諸國과 고구려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98.
- 신수진, 2016, 「5세기 후반 加羅國의 성장과 帶山城 전투의 성격」, 『韓國史研究』 172.
- 신정훈, 2014, 「新羅 瑞鳳冢의 銀盒 年代와 그 築造時期에 대한 신검토」, 『국학연구논총』 13.
- 심재용, 2016, 「金官加耶의 外來系 威勢品 受用과 意味」, 『嶺南考古學』 74.
- 안휘준, 1986, 「己未年銘 順興 邑內里 古墳壁畫의 內容과 意義」, 『順興邑內里壁畫古墳-學術發表 및 討論』.
- , 1989, 「三國時代 繪畫의 日本傳播」, 『국사관논총』 10.
- 양기석, 2007, 「5世紀 後半 韓半島 情勢와 大加耶」,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서울기획.
- 양시은, 2011, 「남한에서 확인되는 高句麗의 時·空間의 正體性」, 『考古學』 10-2.
- , 2014,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46.

- 양은경, 2013, 「陵寢制度를 통해 본 高句麗, 百濟 陵寺의 性格과 特徵」, 『고구려 발해연구』 47.
- , 2017, 「가야 연화문과 가야 불교」, 『고고광장』 21.
- 연민수, 1995,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대외관계」, 『삼한의 사회와 문화』, 신서원.
- , 2007, 「6~7세기 高句麗의 對倭關係」, 『한일관계사연구』 26.
- , 2012, 「광개토왕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남방 세계관」, 『한일관계사연구』 43.
- 유우창, 2005, 「대외관계로 본 가라국의 발전-5세기대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16.
- , 2013, 「가야-고구려 동맹의 형성과 추이」, 『역사와 세계』 44.
- 유태용, 2005, 「한강유역에서 출토된 고구려자에 대한 一考」, 『高句麗研究』 20.
- 윤무병, 1994, 「百濟王都泗沘城研究」, 『學術院論文輯』 人文社會科學篇 33.
- 윤선태, 2002, 「韓國 古代의 尺度와 그 變化-高句麗尺의 誕生과 관련하여」, 『國史館論叢』 98.
- 이근우, 2004, 「왕인의 『친자문』·『논어』 일본전수설 재검토」, 『역사비평』 69.
- 이남석, 2013, 「백제 적석총의 재인식-석촌동 백제 고분군의 묘제 검토」, 『선사와 고대』 39.
- 이도학, 1985, 「漢城末·熊津時代 百濟王位繼承과 王權의 性格」, 『韓國史研究』 50·51.
- , 2012, 「광개토왕대의 남방 정책과 한반도 제국 및 왜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67.
- 이명식, 1986, 「順興 邑內里 壁畫古墳의 歷史的 環境」, 『順興邑內里壁畫古墳-學術發表 및 討論』,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 이명식·이희돈, 1995, 『順興邑內里壁畫古墳 發掘調查報告書』, 大丘大博物館.
- 이문기, 1995, 「大加耶의 對外關係」, 『加耶史研究-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춘추각.
- 이병도, 1976, 「백제학술 및 기술의 일본전파」,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 1979, 「慶州 瑞鳳塚出土 銀合銘文考-특히 延壽年號를 中心으로」, 『故衣그노엘追悼기념논문집』; 2012, 『두계이병도전집』 4, 한국학술정보.
- 이병호, 2011, 「일제강점기 백제고지에 대한 고적조사사업」, 『韓國古代史研究』 61.
- , 2013, 「百濟寺院과 日本 飛鳥寺 三金堂의 源流」, 『百濟研究』 57.

- _____, 2016, 「식민지기 부여 지역 폐사지 조사와 일본인 고고학자」, 『韓國考古學報』 98.
- _____, 2017, 「백제 사원과 삼국의 불교문화 교류」, 『보조사상』 49.
- 이상률, 1999, 「加耶의 馬冑」, 『가야의 대외교섭』(제5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발표문).
- 李成市, 1990, 「高句麗와 日隋 外交 -이른바 國書 문제에 관한 一試論」,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上, 창작과비평사.
- 이성제, 2009, 「570年代 高句麗의 對倭交涉과 그 의미-새로운 對外戰略의 추진 배경과 내용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2.
- _____, 2012, 「高句麗와 倭의 關係-570~572년 고구려 사철의 越 표착과 귀환 과정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53.
- 이영식, 1993, 「昌寧 校洞 11號墳 出土 環頭大刀銘」, 『宋甲鎬教授停年退任紀念論文集』.
- _____, 2006, 「5~6세기 고구려와 왜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 _____, 2006, 「가야와 고구려의 교류사 연구」, 『韓國史學報』 25.
- _____, 2019, 「가야왕릉묘역 출토유물로 본 가야와 동아시아의 교류-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을 중심으로」, 『東아시아古代學』 55.
- 이용현, 2001, 「가야의 대외관계」,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 해안.
- _____, 2013, 「광개토왕비문의 고구려와 가야」,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 역사재단.
- 이우태, 2007, 「高句麗尺 再論-高句麗尺과 高麗術의 關係를 중심으로」, 『동북아 역사논총』 17.
- 이은창, 1987, 「順興 己未中墓의 思想史의 研究」, 『嶺南考古學』 4.
- 이재현, 2005, 「금관가야의 성장과 대외교역-교역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加耶의 海上勢力』,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이종봉, 2016, 「韓·中·日 古代時期 度量衡制 比較 研究」, 『지역과 역사』 38.
- 이태호, 2010, 「高句麗와 新羅 미술이 공존하는 榮州 順興의 邑內里壁畫古墳과 台庄里 於宿墓」, 『美術資料』 67.
- 이한상, 2010, 「大加耶의 성장과 龍鳳紋大刀文化」, 『新羅史學報』 18.
- _____, 2010, 「신라고분 속 외래문물의 조사와 연구」, 『중앙고고연구』 6.

- 이현혜, 2001, 「加耶의交易과 經濟-낙동강 하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 해안.
- 이홍직, 1954, 「延壽在銘 新羅 銀合杆에 대한 一·二의 考察」, 『崔鉉培博士還甲 紀念論文集』.
- _____, 1957, 「日本書紀所載高句麗關係記事考」, 『동방학지』 3.
- 이희돈, 1989, 「順興 己未年銘 壁畫墳에 대하여」, 『斗山金宅圭博士華甲紀念 文化人類學論叢』.
- 임영진, 1995, 「百濟漢城時代 古墳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_____, 2003, 「積石塚으로 본 百濟 建國集團의 南下過程」, 『선사와 고대』 19.
- 임창순, 1986, 「順興 古墳壁畫에 있는 文字」, 『順興邑內里壁畫古墳-學術發表 및 討論』,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 장창은, 2015, 「瑞鳳塚 출토 銀盒의 성격 재검토」, 『한국학논총』 43.
- _____, 2020, 「삼국시대 ‘難民’의 발생 배경과 동향」, 『한국고대사탐구』 36.
- 전호태, 2019, 「백제 고분벽화 연구」, 『역사와 경계』 112.
- _____, 2020, 「영주 신라 벽화고분 연구」, 『先史와 古代』 64.
- 井上直樹, 2008, 「1945년 이후 일본에서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선사와 고대』 28.
- 정운용, 1998,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의 年號」, 『韓國史學報』 5.
- _____, 1999, 「順興 邑內里壁畫古墳의 新羅史의 意義」, 『白山學報』 52.
- 정인보, 1955, 「廣開土境好太王陵碑文釋略」, 『白樂濬博士紀念國學論叢』, 思想界社.
- 정치영, 2017, 「석촌동고분군 조사 현황과 연구 동향」, 『석촌동 고분군 집중토론 집-’70~’80년대 발굴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성백제박물관.
- 정호섭, 2011, 「백제 벽화고분의 조영과 문화 계통」, 『한국고대사연구』 61.
- _____, 2014, 「가야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의 조영과 성격」, 『先史와 古代』 40.
- _____, 2018, 「삼국유사의 고구려 불교사 서술과 그 한계」, 『사학연구』 130.
- 조가영, 2012, 「석촌동 고분군의 축조 양상 검토-고분 분포를 중심으로」, 『한국사 고사학보』 75.
- 조경철, 2010, 「백제 불교의 중국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상사학』 36.
- 조법중, 2013, 「『삼국유사』 ‘보장봉노 보덕이암’에 나타난 보덕 관련 공간 검토」,

- 『제40회 신라문화제 제35회 학술회의 발표문』.
- 조성원, 2017, 「4세기 금관가야의 대외관계 검토」, 『고고광장』 21.
- 조영광, 2015,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대외 관계와 고구려 친하관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49.
- 조우연, 2017, 「“太王敎造”: 4~5세기 고구려 銘文 器物 재검토」, 『高句麗渤海研究』 57.
- 조원창, 2008, 「연화문으로 본 고령 고아동 대가야 벽화고분의 추가장 시기 검토」, 『百濟文化』 39.
- _____, 2008, 「熊津~泗泚期 瓦當으로 본 高句麗 製瓦術의 百濟 傳播」, 『白山學報』 81.
- 주보돈, 2014, 「거칠부의 出家와 出仕」, 『한국고대사연구』 76.
- 진홍섭, 1984, 「榮州順興壁畫古墳調査報告」, 『榮州順興壁畫古墳發掘調査報告』,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 _____, 1986, 「於宿述千墓와 新發見 己未銘壁畫古墳」, 『順興邑內里壁畫古墳-學術發表 및 討論』,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 최종규, 1983,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 『釜大史學』 7.
- _____, 1992, 「濟羅耶의 文物交流-百濟金工 II」, 『百濟研究』 23.
- 최종택, 1998,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진출과 백제」, 『백제연구』 28.
- _____, 1999, 「高句麗 土器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0, 「몽촌토성 출토 철촉 재고」, 『文化財』 33.
- 土田純子, 2010, 「泗泚樣式土器에서 보이는 高句麗土器의 影響에 대한 검토」, 『韓國考古學報』 72.
- 한영희·이상수, 1990, 「昌寧 校洞 11號墳 出土 有銘圓頭大刀」, 『考古學誌』 2.
- 홍보식, 2018, 「나제동맹기 백제-신라의 문화교류」, 『한국학논총』 49.
- 홍성화, 2013, 「古代 韓半島系 大刀 銘文에 대한 재조명」, 『동양예술』 21.
- 홍승우, 2021, 「창녕 교동11호분 출토 명문대도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01.
- 馬衡, 1932, 『隋書·律曆志』十五等尺」; 曾武秀, 1990, 「中國歷代尺度 概述」, 『中國古代度量衡論文集』.

- 王健群, 1984,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 高田貫太, 2014, 『古墳時代の日朝關係』, 吉川弘文館.
- 關野貞,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 김현구, 1985,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 那珂通世, 1958, 『外交釋史』, 岩波書店.
- 奈良文化財研究所 編, 1958, 『飛鳥寺發掘調査報告』, 眞陽社.
- 奈良縣教育委員會·明日香村, 1972, 『壁畫古墳高松塚調査中間報告』.
- 末松保和, 1961, 『任那興亡史』(增訂三版), 吉川弘文館.
- 梅原末治, 1947, 『朝鮮古代の墓制』, 座右寶刊行會.
-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 이진희, 1972, 『廣開土王陵碑の研究』, 吉川弘文館.
- 井上章一, 1994, 『法隆寺への精神史』, 弘文堂.
- 津田左右吉, 1924, 『古事記及日本書紀の研究』, 岩波書店.
- 坂本太郎·家永三郎·井上光貞·大野晉 校注, 1965, 『日本書紀』下(日本古典文學大系 68), 岩波書店.
- _____, 1967, 『日本書紀』上(日本古典文學大系 67), 岩波書店.
- 古江亮仁, 1989, 「慶州瑞鳳塚出土合杆の銘文についての二・三の問題」, 『朝鮮學報』130.
- 高寬敏, 1990, 「永樂十年, 高句麗廣開土王の新羅救援戰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27.
- 高田良信, 1993, 「百濟觀音像の傳來と名稱起源の考察」, 『百濟觀音』, 法隆寺(初出 1987).
- 關野貞, 1928, 「高句麗の平壤及び長安城に就いて」, 『史學雜誌』39-1;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 那珂通世, 1893, 「高句麗古碑考」, 『史學雜誌』4-9.

- 東潮, 1987, 「新羅・於宿知述干壁畫墳に關する一考察」, 『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上)-岡崎敬先生退官記念論集』, 同朋舎.
- 藤島玄治郎, 1930~1938, 「朝鮮建築史論其1-5」, 『建築雜誌』44; 1969, 『朝鮮建築史論』.
- 末松保和, 1959, 「高句麗好太王碑文」, 『歴史教育』74.
- 濱田耕作, 1929, 「慶州の瑞鳳塚」, 『考古遊記』, 刀江書院; 1939, 「新羅の寶冠」, 『考古學研究』, 座石寶刊行會.
- 山尾幸久, 1967, 「大化前後の東アジアの情勢と日本の政局」, 『日本歴史』229.
- 小嶋芳孝, 1990, 「高句麗・渤海との交流」, 『海と列島文化1-日本海と北國文化』, 小學館.
- 小田富士雄, 1979, 「集安高句麗積石墓遺物と百濟・古新羅の遺物」, 『古文化談叢』6.
- 小泉惠英, 1998, 「百濟觀音像」, 『法隆寺美術: 論争の視点』, グラフ社.
- 狩谷齋齋 著, 富谷至 校注, 1978, 「本朝度攷」, 『本朝度量權衡攷』, 現代思潮社.
- 新川登龜男, 1994, 「高句麗と日本(倭)」, 『日本古代文化史の構想』, 名著刊行會.
- 永島暉臣慎, 2005, 「高句麗壁畫古墳の四神圖墓の出現」, 『高句麗壁畫古墳』, 共同通信社.
- 有賀祥隆, 2006, 「キトラ古墳の白虎をみるために-あるいは高松塚古墳壁畫比較論」, 『キトラ古墳と發掘された古墳たち』, 飛鳥資料館.
- E.F.フェノロサ 著・森東吳 譯, 1978, 「朝鮮と日本の初期佛教美術」, 『東洋美術史綱』上, 東京美術.
- 田中俊明, 1987, 「象嵌銘文劔」, 『アサヒグラフ』, 朝日新聞社.
- 井上直樹, 2008, 「五七〇年代の高句麗の對倭外交について」, 『年報朝鮮學』11.
- , 2011, 「六世紀末から七世紀半ばの東アジア情勢と高句麗の對倭外交」, 『朝鮮學報』221.
- 井上薰, 1972, 「白鳳・奈良朝の黃文畫師」, 『壁畫古墳高松塚』, 奈良縣教育委員會・明日香村.
- 齊藤忠, 1976, 「飛鳥時代寺院の源流としての高句麗寺院の一形式」, 『日本古代遺跡の研究 論考編』, 吉川弘文館.

- 池内宏, 1970, 「西紀第五世紀の間におけるわか國と大陸との關係」, 『日本上代史の一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 津田左右吉, 1964, 「長壽王征服地域考」, 『津田左右吉全集』 11, 岩波書店.
- 淺野清, 1958, 「飛鳥寺の建築」, 『佛教藝術』 33.
- 坂元義種, 196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大王」の成立をめぐつて」, 『史林』 51-4;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 , 1979, 「推古朝の外交-とくに隋との關係を中心に」, 『歴史と人物』 100.
- 平野卓治, 1988, 「日本古代の客館に関する一考察」, 『國學院雜誌』 89-3.
- , 2004, 「日本古代の王權と交通-倭王權と高句麗の公的交通の始まりと展開」,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21.
- 穴澤味光, 1972, 「慶州 金鈴塚考-古新羅王族墓の編年 序列」, 『古代文化』 24-12.
- 穴澤味光・馬目順一, 1975, 「昌寧校洞古墳群-梅原考古資料を中心とした谷井濟一氏發掘資料の研究」, 『考古學雜誌』 60-4.
- 和田萃, 1999, 「四神圖の系譜」,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80.
- 横井忠直, 1898, 「高句麗古碑考」, 『會餘錄』 5, 博聞社.

찾아보기

ㄱ

- 가야 91, 92, 189, 203, 218, 222, 232
각저총 308, 317, 332
간다라미술 334
갈(羯) 247
감신총 306
강(羌) 247
강서대묘 376
개로왕 161, 176, 179~182, 185, 186
거기대장군(車騎大將軍) 173
거란(契丹) 52, 60, 92~94, 185, 246
거수호묘 317
거칠부 365, 366
견수사(遣隋使) 396
경자년 출병 75, 77, 78, 90, 91, 96
고구(高仇) 116
고구려척 376
고국양왕 14, 28, 29, 31~34, 36
고국원왕(故國原王) 14, 20, 22~29,
32, 33, 43, 63, 64, 86, 245
고담덕(高談德) 60
고막해(庫莫奚) 185
고아리벽화고분 386, 387
고운(高雲) 59, 60
고원묘 320, 322
고원묘 효자고사도 321
고임식 천장가구 337
고호(高湖) 49
곽충 283
관구검(卍丘儉) 15, 281
관미성(關彌城) 66, 67, 70, 71, 139
관산성전투 391
관현리 가마터 356
광개토왕(廣開土王) 13, 33, 45, 54,
63, 65, 69, 82, 84, 86~90, 93,
95, 97, 98, 246
광개토왕(릉)비 55, 57, 63, 65, 69,
73, 75, 79, 81, 83, 84, 88, 92,
95, 97, 188, 364, 379, 389, 391
교주군현(僑州郡縣) 249
구법승 298
『구삼국사(舊三國史)』 252
국내성(國內城) 20, 282
국사(國社) 260

공남지 355
 공룡형 천장 297
 권운문와당 303
 귀갑문 322
 귀면문와당 303
 근초고왕 43, 63
 금강사 376, 399
 금관가야 378, 380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 301
 금탑사 330
 기마반사자세 331, 337
 기주(冀州) 48
 기토라고분(キトラ古墳) 398

ㄴ

나불이사금 75, 78, 86, 89
 나제동맹 139, 202, 221
 낙랑 왕씨(王氏) 298
 낙랑군(樂浪郡) 13~18, 24~26, 245
 낙양 309, 310, 322, 324
 낙평왕(樂平王) 비(丕) 112, 116, 149
 남도(南道) 21, 22, 34
 남성곡 유적 357
 남소성(南蘇城) 23, 51, 53
 남연(南燕) 61, 62, 163
 남제(南齊) 159, 160, 174, 186, 201
 남조묘 사신도 328
 노객(奴客) 68, 70, 76, 85, 86
 뇌대묘 286

눌지왕(訥祗王) 188, 266
 능산리사지 355, 362, 363
 능산리1호분 350, 352
 능산리6호분 353
 니하(泥河) 189, 233, 233, 235

ㄷ

다카마쓰고분(高松塚) 399
 다카마쓰고분벽화 398
 단로성(檀盧城) 95
 단부(段部) 17
 담덕(談德) 41
 담시 283
 담징(曇徵) 389, 400
 대가야 381
 대동 308~310
 대릉하(大陵河) 53, 54
 대방국왕(帶方國王) 262
 대방군(帶方郡) 13, 15~18, 24~26,
 84~86, 245
 대방태수 장씨묘 283
 대법사(大法師) 389
 대성동고분군 378, 385
 대성동2호분 388
 대성동45호분 382
 대안리1호분 322
 덕흥리벽화고분 290, 293, 311, 313,
 314, 317, 322, 369, 384
 도곤성(都坤城) 65

- 도등(道登) 389
 도림(道琳) 359
 도압성(都押城) 29
 도유호 329
 도항리22호분 388
 도현(道顯) 389
 독산성주 75, 87
 돈황 299, 306, 317, 331
 돈황 불교석굴벽화 336
 돈황석굴 327
 돌궐 336
 동가만묘(양발호묘) 309, 313, 323
 동가만묘 수렵도 314
 동남리 362
 동대자유적 363
 동리묘 283
 동명신화 260
 동부여 43, 92, 96~98, 246
 동수(冬壽) 26, 283, 293, 296
 동위(東魏) 191, 247
 동이교위(東夷校尉) 191, 194, 195
 동이중랑장(東夷中郎將) 191, 192, 194
 동진(東晉) 248
 동황성(東黃城) 27
 두라 에우로프스벽화 329
 등고신(登高神) 268
- ㄱ**
- 마선구2100호묘 285
 마운령비 391
 마진성(馬津城)전투 382
 막고굴 330
 만보정1368호묘 294
 말갈(靺鞨) 189, 213~215, 235
 매금(麻錦) 261
 명활성(明活城) 88, 189
 모두루묘지 251, 252~256
 모줄임천장(말각조정) 306
 목저성(木底城) 51, 52, 58, 62
 몽촌토성 354, 363
 무도국(武都國) 172
 무령왕 201, 204, 208, 210~214, 216
 무령왕릉 211, 286
 무용총 308, 313, 314, 317, 318, 331,
 332, 369
 무용총 수렵도 315
 목호자 365
 문영로묘 326
 문영로묘 수문장도 316
 문자왕 159, 174, 194, 195, 201, 202,
 204~209, 218, 220, 226, 228,
 230, 235
 문제(文帝) 163, 169
 물길(勿吉) 159, 160, 161, 176, 179,
 183, 184, 204, 208
 미륵사지 363
 미사흔 79
 미질부(彌秩夫) 189, 381

- 미창구1호묘 303
- 미천왕 14, 15, 17, 18, 22, 23, 27,
28, 30
- ㅂ**
- 바르후만왕 336
- 박산향로 325
- 박제상 144
- 발해 고씨(高氏) 298
- 방량(房亮) 264
- 방제경 286
- 백고좌회 366
- 백신토곡(帛愼土谷) 95, 96
- 백잔(百殘) 73
- 백제 13, 14, 16, 17, 20, 24~28~33,
36, 56, 57, 63, 81, 85, 87, 89,
90, 159, 161, 169, 176, 179, 181,
183~190
- 백호 310
- 백희기악도 334
- 법명(法明) 389
- 법정(法定) 389
- 법흥왕(法興王) 266
- 병령사석굴 330
- 병령사 11호, 12호 301
- 병령사 제169굴 미륵보살 326
- 보덕(普德) 360
- 보요관 288
- 보주형토기(寶珠形土器) 362
- 복련주(伏連籌) 193, 194
- 복천동고분군 383, 385
- 복천동10호분 388
- 복천동67호분 388
- 복호(卜好) 79, 142
- 『본초경집주(本草經集注)』 212
- 봉추 282, 283
- 부견(符堅) 29, 250, 288, 292
- 부교발전창 석곽묘 309, 323
- 부교발전창 석곽묘 이불병좌상 325
- 부소산성 355, 356, 362
- 부여신(夫餘神) 268
- 북도(北道) 21, 22, 34
- 북량(北凉) 162, 168
- 북방기류 331
- 북연(北燕) 42, 57, 59, 62, 193, 246
- 북위 48, 60, 73, 159~162, 164~167,
169, 171~173, 175~184, 186,
187, 191, 193, 194
- 북제(北齊) 191, 247
- 북주(北周) 247
- 불교미술 322, 324~326
- 불도징 290, 292
- 불·보살상 306
- 불야묘만묘 317
- 불야묘만37호묘 주작 320
- 비래방장(飛來方丈) 설화 360
- 비천 306
- 빨체문화 382

入

사구성(沙溝城) 55, 56

사구성(沙口城) 56, 138

사덕 362

사라(斯羅) 219~221

사령건재시장 석곽묘 309

사령묘 309, 312~314, 319

사령묘 묘주도 311

사마(司馬) 47

사마금릉묘 317

사마르칸드 330, 335

사방군주(四方軍主) 267

사신도(四神圖) 349, 350, 399

사지절 도독백제제군사 진동대장군
백제왕 128

사지절 도독백제제군사 진동장군 백
제왕 125

사지절 도독영주제군사 정동대장군
고구려왕 낙랑궁 127

사지절 도독영주제군사 정동장군 고
구려왕 낙랑궁 123

사표(沙表) 170

산성하332호묘 303

산성하983호묘 303

산연화총 303

삼각형 화염문 308

『삼국사기』 63, 65, 73, 75, 81, 87,
88, 388

『삼국사기』 백제본기 348, 358

삼년산성 189

삼론학 299

삼실총 289, 306, 369

삼실총 보살형 수문장상 292

상왕가촌묘 290

서관영자1호묘(풍소불묘) 288, 335

서봉총 77, 371, 373, 374

서봉총 은합 371

서선교묘 327

서안평(西安平) 15, 245

서위(西魏) 247

서용교위(西戎校尉) 195

서읍태수 장씨묘 283

서천왕 95, 96

석관 310, 324

석노(石柵) 133

석륵(石勒) 290

석현성(石峴城) 66, 67, 70, 71

선무제(宣武帝) 195, 206, 213, 219~
221, 262

선비(鮮卑) 247, 287

섭라(涉羅) 220, 221

성덕태자(聖德太子) 396

성조황고(聖祖皇姑) 266

세군(細群) 229, 230

소그드 330~332

소도성(蕭道成) 174

소수림왕 14, 28, 29, 31, 33~36, 43,
64, 93

소안(邵安) 183
 속민(屬民) 75, 79
 손수(孫漱) 116
 송(宋) 159, 160, 162, 164~174, 248
 송산리6호분 211, 286, 349, 350, 351
 송황 282, 283, 290
 수곡성(水谷城) 24, 29, 64, 67, 71
 수렵도 314
 수렵총 353
 수박회 333
 수산리벽화고분 313, 369
 숙군성(宿軍城) 51, 53, 54, 57, 62
 숙신(肅愼) 92, 94~96, 170, 171, 246
 순도(順道) 29, 283, 288, 292
 순수비(巡狩碑) 267
 승랑 299
 승룡(僧隆) 389
 시조묘(始祖廟) 204, 205
 식신(息愼) 94
 신라 16, 30~32, 34, 43, 72, 75~77,
 80, 86, 88, 159, 160, 161, 176,
 179, 187~190
 신라매금(新羅寐錦) 364
 신라성(新羅城) 67, 89, 90
 신라토내당주(新羅土內幢主) 78, 364
 신묘(神廟) 268
 신묘년(辛卯年) 68, 83~85, 390
 신성(新城) 20, 51, 53, 54
 신수(神獸) 297

실법사 299
 실성이사금 75, 78, 79
 실직성(悉直城) 189
 『십육군춘추집보』 111
 십자형 꼭지손잡이 371~373
 쌍영총 308, 311, 317, 318, 322
 쌍영총 공양행렬도 305
 쌍영총 모줄임천장 307
 쌍영총 수문장도 316
 ○
 아도 283, 288, 292
 아스카사(飛鳥寺) 363, 396, 399
 아신왕 69, 71, 72, 82, 85
 아차산일대보루 355, 356
 아프라시아브궁전벽화 335, 336
 안라국(安羅國) 379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 379
 안악2호분 313
 안악3호분 290, 293, 296, 313, 322,
 329, 384
 안악3호분 가무기약도 333
 안악3호분 묘주도 291
 안악3호분 묘주부인도 304, 305
 안악3호분 부역도 334, 335
 안원왕 201, 202, 206, 226~232
 안장왕 194, 195, 201, 202, 204~209,
 212, 216, 224, 226~229, 231
 안학궁 376

『양직공도(梁職貢圖)』 265
 애하첨고성(霽河尖古城) 245
 약수리벽화고분 313, 384
 양(梁) 248
 어동신구 문영복묘묘 309
 어동신구13호묘(가보묘) 309
 어숙지술간묘(영주 순흥 어숙묘) 367,
 369
 여노(餘奴) 174
 여례(餘禮) 179
 『역림(易林)』 134
 연가(煙家) 361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 372
 연군(燕郡) 51, 54, 57, 62
 연수(延壽) 371, 372
 연연(蠕蠕) 118
 연화문 306, 322, 386
 연화문와당 303
 연화화생문 306
 염수(鹽水) 94
 영락(永樂) 41
 영락 5년 93, 94
 영락 6년 68, 83, 85
 영락 8년 95
 영락 9년 73, 84, 85, 88, 89
 영락 10년 73, 85, 89
 영락 14년 73, 84
 영락 17년 57
 영락 20년 97
 영빈대도16호묘 317
 영성자묘 294
 영주자사(營州刺史) 195
 『영집해(令集解)』 375
 영태후(靈太后) 206
 영호동이중랑장(領護東夷中郎將) 107
 예성강 63, 65, 69
 예실불(芮悉弗) 195, 213, 220, 262
 오가촌묘 328
 오곡전투 217, 232
 오제(吳提) 121
 오회분4호묘 319, 320, 321, 323
 오회분5호묘 319, 320
 옥전23호분 385
 은교묘 285
 은돌 361, 362
 왕궁리 355, 362, 363
 왕준(王遵) 15
 왕즉불(王卽佛)사상 359
 왜(倭) 43, 68, 72~75, 77, 80~83,
 85~90, 92, 176
 요동국왕(遼東國王) 262
 요동군 16, 47
 요동성 58, 62
 요하(遼河) 53, 54, 61
 요해(遼海) 107
 용성(龍城) 45, 47, 54, 58
 우문부(宇文部) 17, 19~21
 우산성(牛山城) 189, 232~234

- 우산성전투 232, 233
 우산하992호묘 288
 우산하992호묘 마주(馬冑) 287
 우산하3319호묘 282~284, 286, 294
 운강석굴 299, 306~308, 322
 운기문 297
 운충(雲聰) 389
 운파로 화우 석곽묘 309
 운파리 화우 이기묘 309
 운파리묘묘 309, 313, 319
 운파리묘묘 수렵도 314, 315
 원대자묘 290, 293, 294
 원대자묘 묘주도 295
 원대자묘 수렵도 295
 원오리사지 301
 원오리사지 토제여래입상 301, 302
 원통형 삼족기 354
 위두(衛頭) 30
 위수(魏收) 249
 유수 노하심 중층41호 382
 유수량촌묘 313, 314
 유연(柔然) 163, 168~172, 185, 186
 유유(劉裕) 163
 유주(幽州) 46, 48
 유흥 282
 육궁(六宮)의 미비 178
 율령(律令) 246
 은대리성 357
 을불리(乙弗利) 15
 읍내리벽화고분(영주 순흥 벽화고분)
 367, 369, 370
 읍루 246
 의연 300
 의현(義縣) 54
 이랑(李朗) 49
 이발(李拔) 60
 이불란사 288, 292
 이전창37호묘 309
 인법사 299
 인태산 왕흥 부부묘 285
 일본(日本) 80
 『일본서기(日本書紀)』 81, 82, 381,
 388, 392, 397
 임나가라 380
 임나가야 89, 90
 임나일본부 83
 임나일본부설 390

ㅈ
 자백마(赭白馬) 123
 장무이묘 문자벽돌 372
 장수왕(長壽王) 13, 159, 160, 170,
 173~178, 185, 187, 190, 192~194,
 246
 장위(張威) 130
 장의미술 296, 324, 326
 장지랑묘 309, 326
 장천1호묘 301, 313, 314, 318, 334

장천1호묘 보살상 292, 305
장천1호묘 불상에불도 325
장천1호묘 야외연회도 332
장통(張統) 15
저(氏) 247
저거몽손(沮菑蒙遜) 169
적석목곽분 370, 374
적석총(積石塚) 347
전륜성왕(轉輪聖王) 266
전실묘 309
전연(前燕) 13, 14, 16, 18~29, 31~33,
35, 245
전제해외(專制海外) 190
전진(前秦) 13, 45, 64, 76, 246, 289
정가갑5호묘 290, 296, 317
정가갑5호묘 묘주도 291
정동리 362
정동장군(征東將軍) 107
정릉사지 362
정법사 299
정사년(丁巳年) 와당 283, 285
정암리 가마터 356
제(齊) 248
조공(朝貢) 160, 162, 168, 174, 191,
192, 243
조양 330
조우관 335, 336
종묘(宗廟) 260
주월리 357
죽령 80
중산(中山) 45
중장기병 287, 384
즙석분구묘(葺石墳丘墓) 348
지가보 석곽묘 313
지덕 299
지두우(地豆于) 185, 186, 247, 334
지증왕 267, 373
지황 299
진(陳) 248
진(秦) 249
진가모(眞嘉謨) 65
진묘무사 311
진묘수 311
진무 71
진사왕 65, 70, 82
진파리1호분 350, 352
진흥왕 267
집안고구려비 252

ㄷ
참살탕진(斬煞蕩盡) 56
책봉(冊封) 159, 162, 168, 174, 192
천사옥대(天賜玉帶) 266
천손(天孫) 243
천제산 326
천하관(天下觀) 243
청룡 310
청목령(靑木嶺) 65, 71

청암리토성 금동관 304

청자계수호 285

청자점채계수호 285

초문사 288, 292

초원길 335

최비(崔毖) 281, 283, 285

추군(麤群) 229, 230

추모왕 97

충주고구려비 78, 188, 218, 220, 257,
364, 370

치양성 25

칠리춘묘 309

칠성산96호묘 293

침미다례(枕彌多禮) 265

ㅋ

쿠처 330

퀵 테긴 비 337

키질 제171굴 보살상 326

ㅌ

탁발규(拓跋珪) 42, 45

탁발선비(拓跋鮮卑) 247

탐라국(耽羅國) 265

탕창(宕昌) 193, 194

태무제(太武帝) 163, 169, 170, 190

태왕(太王) 243

태왕릉 288, 348, 374

태학(太學) 246

토동묘 309

토성리 도제불상범 302

토욕혼(吐谷渾) 168~172, 193~195,
248

ㅍ

파르티아 329

파야 299

판단침형 와당 357

팔관지법 366

팔대량1호묘 325

팔메트 문양 337

팔왕(八王)의 난 247

패려(裨麗) 93, 94

패수(溟水) 71

패수전투 66, 67

평곽(平郭) 48

평성 299, 308, 311, 331

평성시기 306, 310, 311, 319, 324

평양 토성리 도제불상범 302

평양성 63, 65, 86

평양성 외성 376

평원왕 190

평주(平州) 46

평주자사(平州刺史) 48, 53, 57

평천리 반가사유상 366

포그미술관 금동불좌상 301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174

풍발(馮跋) 52, 57, 59, 60, 108

풍숭(馮崇) 110
 풍홍(馮弘) 109, 165, 168, 169, 172

중
 하(夏) 168
 하백(河伯) 252
 하서주랑 288
 하슬라성주(何瑟羅城主) 188
 하슬라인(何瑟羅人) 189
 하쿠호시대(白鳳時代) 400
 학경(郝景) 47
 한강 69, 70, 72, 202, 215~218, 232
 한기묘지(韓暨墓誌) 205
 한산성(漢山城) 215~217
 한성(漢城) 69, 161, 185, 186, 201,
 210, 212, 214~217
 한씨녀(漢氏女) 205, 206, 228
 해흥석당 313
 해흥석당 묘주부부도 312
 헌문제(獻文帝) 163
 혁련정(赫連定) 169
 현도군(玄菟郡) 14~18, 31, 36, 47
 현도성 15
 혜관 389
 혜량 365, 366
 혜자 389, 395, 397
 혜충 397
 혜편 389
 호동1호묘 322
 호로고루 357
 호류사 금당벽화 400
 호시(楛矢) 133
 호우총(壺杆塚) 77, 143, 356, 374
 호우총 청동합 372, 374
 호탄 330
 화룡성(和龍城) 125, 264
 화룡진장(和龍鎮將) 195
 화염문 306
 화이(華夷) 관념 244
 화지산 355, 362
 환도성(丸都城) 20, 27, 245
 환두대도 385, 386
 환문총 317
 향남대총 374
 향남동109호분 374
 황룡사 366
 황초령비 391
 회인묘 326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 347
 효무제(孝武帝) 164, 170
 효문제(孝文帝) 182, 193
 후연(後燕) 13, 28, 31~33, 46, 56,
 57, 65, 94
 후조(後趙) 13, 19~21, 23, 24, 30
 흉노(匈奴) 247
 흑룡강(黑龍江) 95
 흑색마연토기 354



고구려통사 4

고구려 중기 대외관계와 문물교류

초판 1쇄 인쇄 2022년 12월 1일

초판 1쇄 발행 2022년 12월 15일

엮은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지은이 김락기, 공석구, 장창은, 이성계, 김진한, 이정빈, 박아람, 정호섭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6

홈페이지 www.nahf.or.kr

표지디자인 역사공간

제작·인쇄 역사공간

ISBN 978-89-6187-793-0 94910

978-89-6187-595-0 (세트)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